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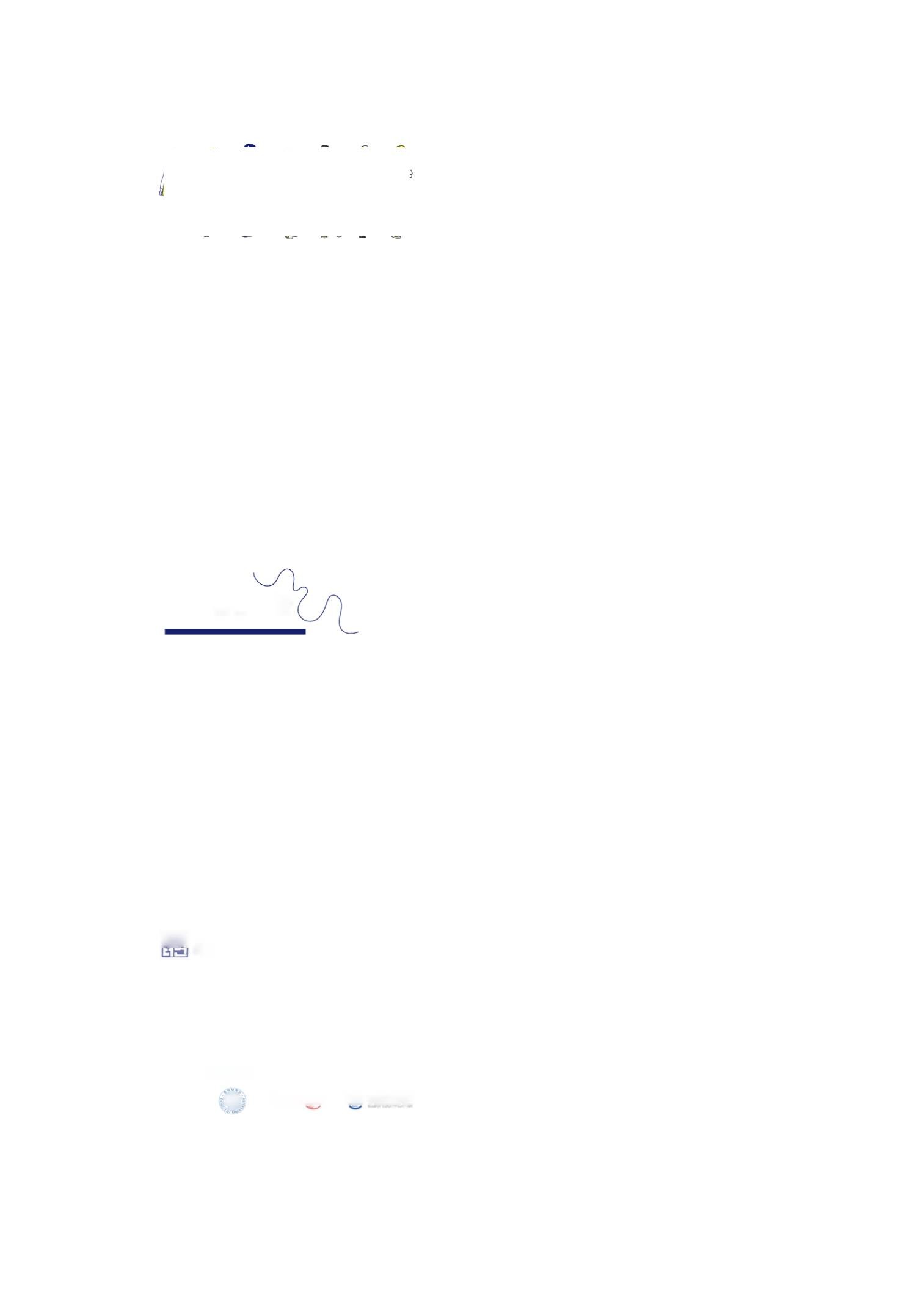
즈

u

젊 으

」

것 들



카르페디엠

유시아 침묵 서환 모란 추흔주 깨무찍이 서야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출판편집 동아리

요즘 젊은 것들

펴낸날 초판1쇄 2024년 12월 1일

글 카르페디엠\_유시아 침묵 서환 모란 추혼주 깨무찍이 서야

기획 윤지영

펴낸이 김 수연

편집 조윤희

교정 강미자

디자인 둘 례

© 하마터면독립출판협동조합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출판사 양쪽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日페

하마터면독립출판협동조합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96번길 59 102호 I 등록 2020년 9월 1일 제 3292020-000018호 전화 | 070-8869-9686 | 팩스 0504-290-4的8 | 전자우편 [hamabooks2021@naver.com](mailto:hamabooks2021@naver.com)

홈페이지 I [www.hamabooks.co.kr](http://www.hamabooks.co.kr/)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mabooks2021>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hamabooks2021/>

이 책은 동의대학교, 부산진구청, 부산진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PJ busonjin bjc** .헤**wje**

# 요 즘



젊

으

것

들

」



## ‘나’라는 무기를 발견하는 용기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도 다 아 는 이야기，어디서 들은 이야기，나와 상관없는 것들에 관한 이 야기 말고， 오직 자기만 아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대개 상처와 실패， 그리고 약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들 앞에 자신의 아프고 못난 점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사람 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 모두 나보다 잘나고，가진 것도 많다고 느끼면 더 그렇습니다. 비교와 경쟁이 만연하고， 최고

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한국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거나，반대로 남들처럼 되 기 위해 자신을 혹사하게 몰아갑니다.

10대와 20대 때 특히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아가야 하는데 세상이 먼저 재단하고 평가합니다. 자기만의 색 말과 취향，꿈을 탐색하려고 하는데 정해진 길로 내몰립니다.

요즘 젊은 것들 윤지영

이런 압력에 맞서 자신을 지키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 닙니다.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 때로는 친구들처럼， 내가 가 장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을 통해 세상의 기준과 압력이 전해 지기 때문입니다.

20 대의 저도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생막과 세상의 기준이 내 것 인 양 ， 무 엇 을 잘 하 는 지 ， 무 엇 을 좋 아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 잘하는 사람” 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 덕에 번듯한 직 업을 갖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잘난 척，멋진 척，있 어 보이는 척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척하지 않아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두려 웠던 나만의 이야기를 글로 쓰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세상이 덧씌운 가면을 걷어내고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가 장 효 과 적 인 방 법 은 자 기 이 야 기 를 세 상 에 내 보 이 는 글 쓰 기 입니다. 고통스럽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용기를 얻는 일 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아는 것만큼 세상

을 살아가는 데 큰 무기는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 용기를 낸 7 명의 ‘ 요즘 것들’ 이야기가 있습니 다 . 우 리 과 학 생 들 의 글 입 니 다 . 어떤 이야기는 마음이 아리

고，어떤 이야기는 미소가 지어지고，어떤 이야기는 절로 감탄



004/005

이 나 옵 니 다 . 글 을 잘 써 서 가 아 닙 니 다 . 세 상 에 유 일 무 이 한 이야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 다 . 치 열 한 전 투 와 상 처 가 고 스 란 히 담 겨 있 기 때 문 입 니 다 . 그것들로 만들어진 저마다의 우주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흔 넘어서야 낼 수 있는 용기를 갓 스물이 넘어 낸 우 리 학생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뜨거운 여름부터 낙엽 지는 가을에 이르는 민 시간 동안， 외면하고 싶었을 자기의 고대와 대면하며 그 과거를 한 자 한 자 적어 내려간 우리 학생들의 용기에 저도 용기를 얻습니다. 제가 용기를 얻었듯，이 글을 읽

는 청년들 역시 용기를 얻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게

자 극 을 주 신 하 마 터 면 독 립 출 판 협 동 조합의 김수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용기를 무기 삼아， 위로 삼아 우리는 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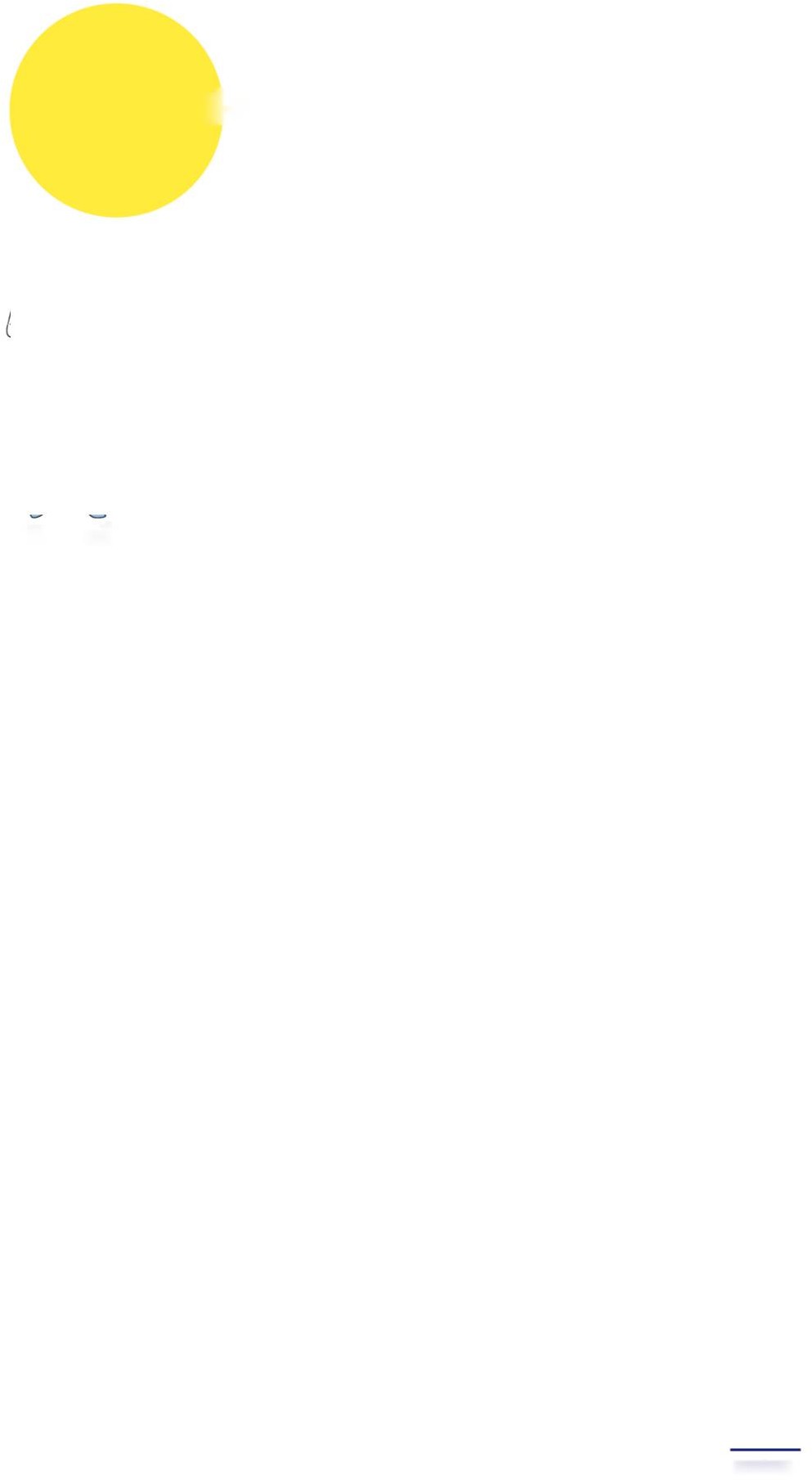
또 같이，각자의 여정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2024년도 11월

7명의 저자를 대신하여 윤지영



요즘 젊은 것들 윤지영



## 요즘 젊은 것들을 격하게 응원하며

막차에 탄 선진국 대열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국가의 발전 전 략이 대학의 이과 쏠림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균형을* 잃은 세상

에서 국문학도들이 자기 이야기를 글로 쓰겠다니，책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이보다 기쁜 일이 또 있을까.

학생들과의 인연이 닿은 건 지난여름의 초입이었다.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출판사를 면학하고 싶다며 검색을 통해 알아낸 전 화번호로 전화가 걸려 *온* 것이다. 그 후에는 방학 특강으로 4회

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출판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사 실 특강에서 내 역할은 출판접자’ 로서의 직업적 기능과 간단한 문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조 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직접 작가가 되어 보자고 먼저 제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회기를 거들할수록 더욱 반짝이는 청춘의 눈빛에 고무되어 나도 덩달아 신이 올랐기 때

006/007

문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숨겨둔 어려운 이야기들을 수줍게 꺼 내 놓으려는 그들의 용기를 독려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다.

고장 난 물건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알 아야 고칠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몸이든 마음이든 어디 가 어떻게，왜 아픈지를 알아야 치료할 수 있다. 학생들은 3개

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글쓰기를 통해 침식되었던 기억을 끄집어 올리고, 고대의 시간에 멈추어 있던 자기를 만나는 몰입 을 경험했다. 7명의 학생들은 모두 다른 주제로 글을 썼지만， 글을 쓰는 그들의 궁극은 한 방향으로 모아져 있었다. 그것은

글쓰기라는 수단을 통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회피하

려는 아프고，고통스러운 고ᅡ거의 모습을 용감하•게 직면하면서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려는 ‘삶으로의 으1지’였다. 음주가 무를 일삼던 스물 언저리의 나와는 달리 자기의 삶을 적극적으

로 깨척하려는 학생들의 자세는 나이를 곱절로 더 먹은 내가 오 히려 더 배워야 할 판이었다. 그들은 분명 최선을 다해 자기를

돌보는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젊은 것들］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은 자기중심적으 로 시대를 향유하는 M/ 세대의 아우라가 느껴질 수 있도록 심 사숙고하여 고른 것이다. 제목을 확정하며 평생 학문탐구와 후

학양성만을 고집해 오셨을 모범적인 교수님의 반응이 궁금했 다. ［ 요즘 젊은 것들］ 이라는 제목을 보시면 본인의 뒷목이나



요즘 젊은 것들 김수연

나의 멱살 가운데 둘 중 하나는 잡지 않으실까 걱정했지만 다행 히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 역시 감사한 일이다.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요즘 사회에서

［요즘 젊은 것들］의 발간은，학교는 배우고 실수하며 또다시 격 려받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뒤들아 생각해보면 나 역시 학창시절 수없이 넘어지고 깨진 경 험 덕분에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발견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 다. 학생을 대상화하여 사회의 규격화된 상품으로 길러내는 대 학 트렌드를 거슬러 인문학적인 발견과 성찰을 경험할 수 있었 던 ［요즘 젊은 것들］의 발간이 학생들의 삶을 추동할 수 있는 기 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덧붙이자면，이번 사례처럼 대학과 사회의 연결은 매우 중요 하다. 특히 ‘노인과 바다’만 남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예

측되는 부산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학이 문을 열어 청년들이 우리 사회를 먼저 경험하게 하고 그들이 지역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고민할 수 있게 하여 ■거칠고 서틀더라도 다 양한 연결고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즘 젊은 것들］이 사회의 관심고卜 그들의 경험으로 내내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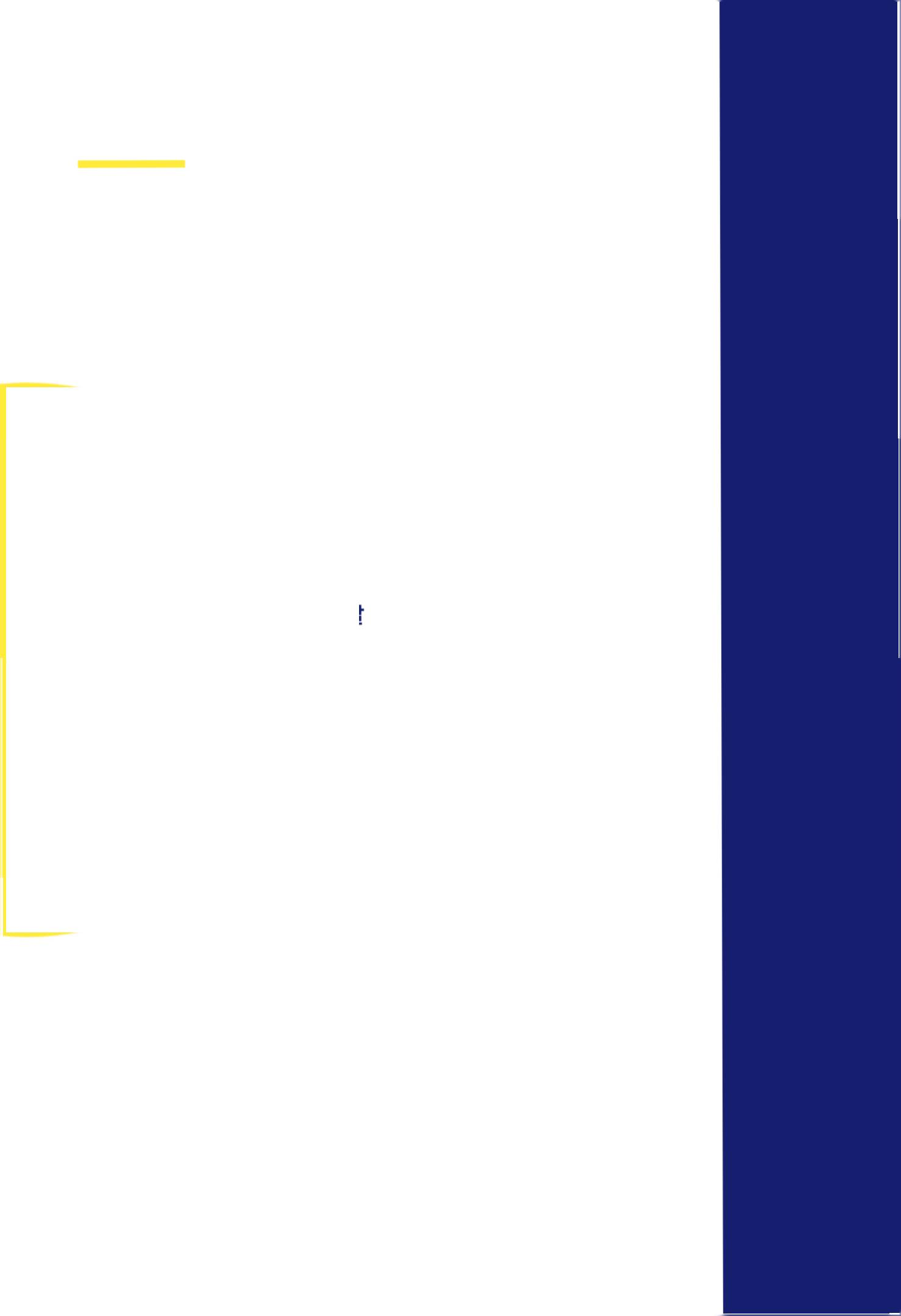
안에서 머물 수 있길 바라며 그들의 앞날을 격하게 응원한다.

2024년 11월 하마터면독립출판협동조합 김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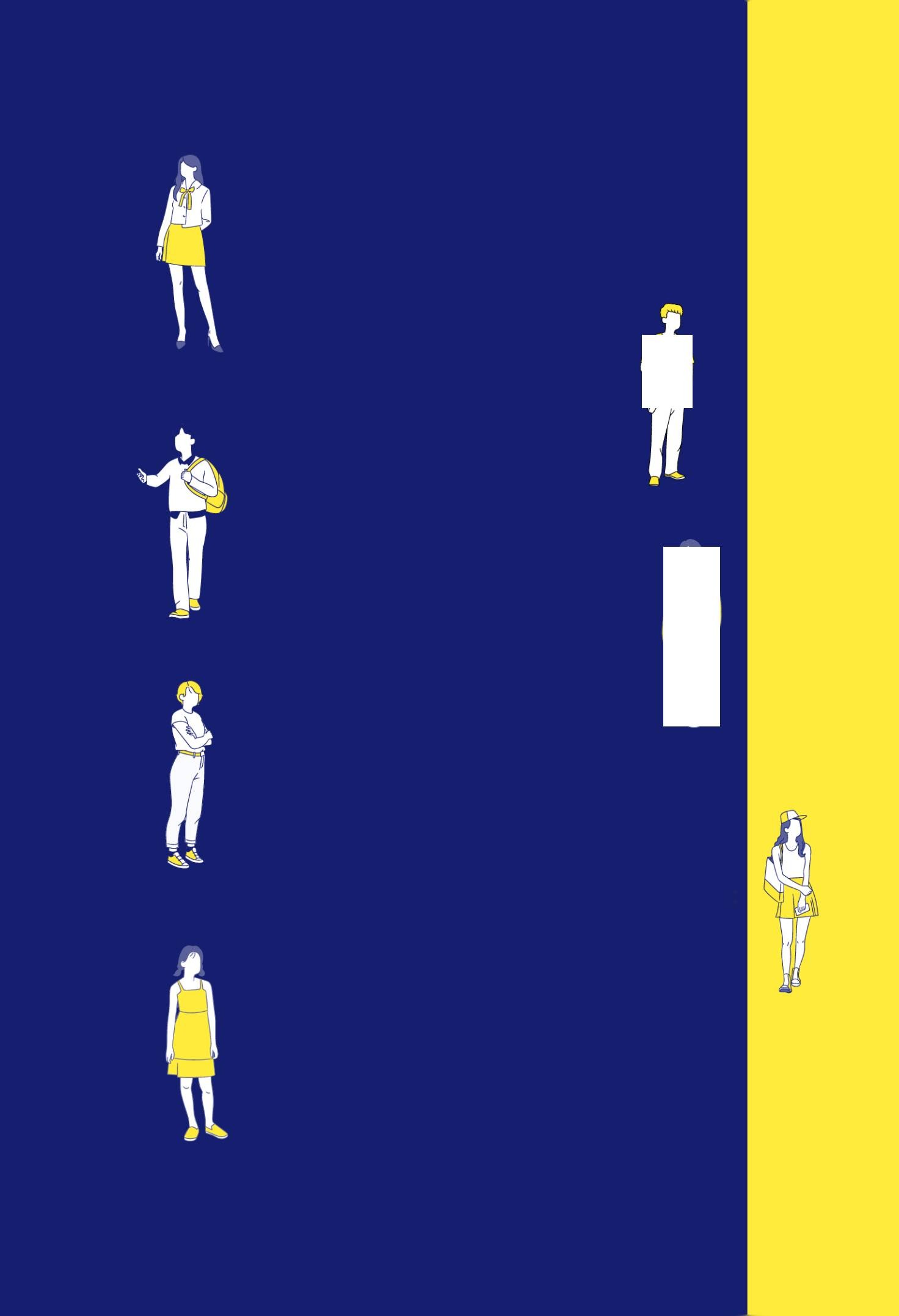
008/009

목 차



나’라는무기를발견하는용기 004

요즘 젊은 것들을 격하게 응원하며 007



유시아 길의 이탈자도 길을 걷는다 아3-066

침묵 내 인생의 후회들 067-088

서환 피터팬 089-147

모란 해파리와 나의 바다 149-220

추흔주 가로등 아래，보릿고개 위 221-258

깨무찍이 인생이 끔찍해도 항찍하게 살자 259-302

서야 냥갱이와애교쟁이 303-343





길의 이탈자도 길을 걷는다

프롤로그 아5

마이스터고，내 인생 첫 번째 선택 023

나는결코좋은사람이 아니야 028

그 정도의 동정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035

엄마，나 진짜많이노력했어 여5

새 길을 찾아야 한다면 최 대한 빠르게 050

사과를듣고싶었지만 055

내 선택은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다 060



프롤로그

인생은 길이다.

사람들은 살아가며 누구나 각자의 길을 걷는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할 뿐 길의 끝에는 각자의 목적지가 존재한다. 각자의 *길을* 가다 서로 마주칠 때도 있지만 완전히 같은 길을 걸을 수 는 없다. 누군가의 출발점은 평탄하고 순조롭지만，다른 누군가 는 험난하고 가파른 길에 첫걸음을 내딛는다.

어 떤 길 에 서 시 작 할 지 선 택 하 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다. 처 음 에 는 그 저 주 어 진 길 을 따 라 걸 을 뿐 이 다 . 다 른 길 을 알

지 못 하 기 에 눈 앞 의 길 만 바 라 볼 수 밖 에 없 고 ， 제 시 된 길 에 불평하거나 의문을 가질 겨를조차 없다. 잠시 멈춰서 숨을 고

르 더 라 도 다 시 발 걸 음 을 떼 면 된 다 . 누 구 든 걷 는 것 자 체 로 곤란을 겪지는 않는다.

요즘 젊은 것들 유시아

갈림길은 우리의 첫 번째 난관이다. 분명한 줄만 알았던 길 이 여러 갈래로 나뉘고， 우리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나아가 야 한 다 . 이 선 택 의 순 간 은 우 리 의 인 생 을 크 게 변 화 시 킬 수 있는 순간이 되며， 이를 인지하고 있기에 어느 길을 택할 것 인지 더욱 고민하며 머뭇거린다.

대부분의 사람은 넓어 보이는， 이미 다수가 앞서 걷고 있는 길을 뒤따른다. 안전하고 익숙해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누군 가 는 소 수 만 발 을 디 딘 좁 고 낯 선 길 을 선 택 한 다 . *그* 선 택 은

용기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갈림길에서 사람들은 대가］ 넓은 길을 선택한다. 그들은 좁은 길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길을 얻는 자들을 이해하지 못하 며， 때로는 어리석다고도 생각한다. 실제로 넓고 포장된 길을 외면한 채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 영리한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 길이 지름길이라는 확신이 있지 않는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걷는 길은 아직 마지막 길이 아 니 기 에 행 여 잘 못 된 길 이 라 하 더 라 도 언 제 든 다 음 갈 림 길 에 서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은 또다시 가시가 많고

가파른 길로 이어질지도 모르지만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지지 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잘못된 길이란 건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새로운 갈림길에 도착하기 전에 포기하고 싶은 마

음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상치도 않게 크게 넘어져 좌 절하고 있는데 마침 남들은 한창 속력을 내는 시기라면? 고통 을 참고 겨우 일어났지만，또 다시 넘어질 것 같아 길을 걷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면? 지금 당장 너무 지쳐서 더 이 상 걸을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그 길의 중간에 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갈림길의 장점은 내가 직접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는 데에 있다. 하지만， 오로지 나만의 선택이기에 선택에 따 른 결과도 온전히 자신이 떠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아픈 단점

도 지 닌 다 . 지 금 의 내 가 좌 절 하고 있는 원인이 다름 아닌 내 선택이라는 사실은 더 큰 과절감을 안겨주고, 눈앞에 길이 보 여도 발조차 떨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무겁게 짓누른다.

이 러 한 상 황 을 우 리 는 어 떻 게 헤 쳐 나 갈 수 있 을 까 ? 다 음 갈림길까지는 한참 멀었고， 이미 왔던 길을 되들아갈 수는 없 다 . 같 은 길 을 선 택 해 나 란 히 걷 던 이 들이 나보다 저만치 *앞*

서 달려가고 있다. 그들의 발길음 소리는 나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한 곁음도 떼어놓기 힘든 나에게 빨리 따라오지 못하 냐며 독촉한다.

이 글에서 나는 지극히 사적인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나 는 평범한 길도 걸어보았고 중간에 발걸음을 들려 좁은 길로 향한 적도 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느 방향을 택하든 목적 지로부터 멀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조금 힘이 들고 고되더 라도 꾸준히 걸으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못했다.

내가 선택한 나의 길을 도중에 포기했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중이다.

아직 다음 갈림길이 나오지 않았는데，일자로 뻗은 길에서 나 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일까?

핵심은 길 자체에서 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가장 정석적 인 인생의 길이라고 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중학교 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졸업 한 뒤 차근차근 취업을 준비하는 길이다. 이 경로가 우리에게 안정감과 확실성을 주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이 걷는 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더 나아가서는 사회가 이러한 이들의 경험 을 표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경로는 잘 포장

된 고속도로와 같다. 안정성이 보장되고 평탄한 길이 펼쳐질 거라는 점에 나는 의문을 갖지 않는다.

그 러 나 고 속 도 로 도 결 국 인 간 이 필 요 에 의해 만든 길이다. 인 위적으로 설계되었기에 완전함을 보장할 수도 없다. 그 고 속도로만 벗어나면 수많은 작은 오솔길과 비포장도로들이 엉 켜 있 다 . 고 속 도 로 를 달 리 는 데에만 집중하느라 발견하지 못 할뿐이다.

나 또한 그랬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 잔가지와 수풀로 가

려지고 방치된 길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에 나는 고속도로 한 복판에 멈춰 서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우 리 는 고 속 도 로 를 이 탈 하 는 것 자 체 를 상 상 하 지 못 한 다 .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걸음을 멈추고 한 번쯤 숲을 바 라보기는 하지만， 남들이 옳다고 말하지 않는 곳에 발을 들이

면 길 을 잃 을 것 만 갈 고 가 시 에 찔 릴 까 검 이 나 이내 발걸음 을 돌린다.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앞에 펼쳐진 길을 응시하지 만， 더는 걷고 싶지 않은 이 길이 가장 두려운 길이라는 사실 *은* 모른다.

정 해 진 길 에 무 조 건 나 를 맞 출 필 요 는 없 다 . 내 가 이 글 을

통해 말하려는 가장 핵심적인 메세지이다. 누가 어느 길을 걷 든 예외 없이 장애물을 마주칠 테고， 그 장애물은 도저히 헤 쳐 나 갈 수 없 을 지 도 모 른 다 . 그 런 때 에 도 우 리 의 머 릿 속 엔 이 길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굳■게 자리잡고 있기에, 괴로워하 는 마 음 속 호 소 를 무 시 한 채 무 리 하 게 가 던 길 을 계 속 *걷고*

자 한 다 . 하 지만， 마침내 시련을 이겨내고 그 길에서 빠져나 오게 된다고 해도 우리 몸이 상처투성이가 된다면 정해진 길 을 계속 걷기로 한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다고 당당하게 말 할 수 있을까?

시련 끝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만， 우리는 가능하다 면 덜 아프고 싶다. 아픔 없는 사람은 없고 사람은 결국 아픔 을 극 복 한 다 고 말 하 지 만 ， 그 들 이 나 와 같 이 아 파 본 것 은 아

니 다 . 나 와 갈 • 이 아 프 다 는 것 은 고통의 크기에 대한 비교가 아니다. 고통을 겪게 된 과정과 상황이 다르다는 말이다.

설령， 같은 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충 격 과 이후의 회복하는 능력도 사람마다 다르다. 타인의 고통 을 누 구 도 판 단 할 수 없 는 이 유 이 다 . 또 한 타 인 의 조 언 을 참

고하되 나 자신의 마음속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이 유 다 . 이 미 심 리 적 한 계 에 다 다 랐 음 에 도 인 내 하 라 는 압 박 에 짓눌린다면 더욱 버티기 힘들어질 뿐이다.

나는 고등학교를 자퇴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자퇴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무엇인지 에 대해 서는 후술하겠지만 확실히 대다수의 학생들이 다니는 인문계

고 등 학 교 들 과 비 교 하 면 그 자 체 가 평 범 하 지 않 은 선 택 임 에

틀림 없다. 여러 갈래의 길 중 좁은 길. 좁지만 여전히 길이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순탄해질지 모르는 그런 길.

마이스터고에 다닌다고 하면 가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도 하 지 만 ， 대 부 분 은 응 원 해 주 며 나 를 이 전 과 다 르 지 않 게 대한다. 자퇴는 다르다. 자퇴는 하나의 길이라고조차 인식하

지 않으며， 오히려 길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

가 많다.

내 가 마 이 스 터 고 등 학 교 에 진 학 하 겠 다 고 결 심 했 을 때 사 람 들은 쉽지 않은 길일 텐데 잘 해낼 수 있겠냐고 적정했지만， 내 가 자 퇴 할 것 이 라 이 야 기 했 을 때 는 미 래 에 어 쩌 려 고 그 러

느 냐며 안쓰러워했다. 그 시선의 차이가 나를 실패한 사람으

로 만들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스스로를 책망하게 했 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길，그저 도망친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길은 나에게 더 큰 두려움과 불안감을 주었고， 달리 도리 가 없던 나의 유일한 희망은 부정당했다.

자퇴를 부추길 목적으로 쓰는 글이 아니다. 내가 나의 선택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나와 같은 고민

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억압하는 일이 줄었으면 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얘기할 내 지난 일들은 나에겐 심각한 고민거리였 지만 남들에게는 어쩌 면 사소해 보였을지 모른다. 실제로 주변 이들이 내게 견며내라고 말했던 이유는 나의 고통을 사소하다 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고통을 참지 못하 는 내가 이상하고 나약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아 파도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가곰은 고통을 인정하고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길을 찾아보아 도 된다. 세상에 길은 많고，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 사실을 과거의 나는 알지 못했기에 멀리 들아왔고，지금은 나 의 길을 찾았다. 나의 그런 경험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누군

가에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내 이야기를 시작한다.



## 마이스터고

내 인생 첫 번째 선택

나는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다. 학교를 가야 하기 때문에 학 교를 가고，수업 시간에는 졸거나 엎드려 자다가 부모님이 끊 어주신 학원에 가서는 공부를 하는 학생，친구들과 날마다 놀 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하겠다고 의자에 앉아 공부하는 척 휴대폰을 보는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다.

초등학교 시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중학생 때까지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무엇을 할지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저 남들을 따라 정해진 길만을 •걸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도 나의 목표는 그저 고등학교 입학이었고，고등학생이 된

다면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될 것이라고 철석같 이 믿고 있었다.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두 군데의 일반계 고등학교 중 어느 곳

에 진학할지 고민할 때도 난 그저 학교가 얼마나 가까운가，친

요즘 젊은 것들 유시아

구들이 어디를 많이 선택하느냐만을 따졌다. 나는 정말 평 범한 학생이었기에 평범한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 고， 이외의 선택지는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 여겨 안중에도 없었다.

그러나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는 생막이 들면

서 내 세상은 변했다. 처음으로 내 스스로 길을 선택해서 걸 어보고 싶다고 생막하게 된 것이다. 몇몇 학생들이 마이스 터고 진학을 선택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라 여겼다. 정확히 말하면，나는 대학에 진 학하지 않는 미래를 떠올려본 적 자체가 없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란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 하나로，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와는 달리 전기와 전자，미용，요리 같은 전

문적인 기술을 가르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이스터고에 관심을 깆게 된 건 어머니께서 지나치듯 “그런 학교도 있더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때부터였다. 성인이 되자마 자 취직해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패나 유혹적이 었다. 주변에서 물어볼 때나 입학을 위해 자기소개서를 써야 했을 때는 남들보다 일찍 독립하고 싶어서，대학교 등록금으

로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아버지의 정년퇴 임이 멀지 않은 일처럼 느껴져서 등을 지원 동기로 이야기 했지만， 사실 나는 그 정도로 사려 깊은 아이는 아니었다. 그저 대학에 진학하는 수고를 겪지 않고도 좋은 회사에 취

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을 뿐이었다. 게다가 마이스터고는 집에서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

내가 다닌 마이스터고에는 두 깨의 과가 있었다. 전기에너 지과와 신재생에너지과. 중학교 3학년 시절, 담임이시던 과 학 선생님께 마이스터고에 진학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처음 알게 된 사실이다.

나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아니었지만， 공부에 관심 있 는 아이도 아니었다. 과학과 같은 기계나 전자를 다루는 과

목은 특히나 흥미가 없었다. 그런 나에게 전기와 신재생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는 머리가 멍해졌다. 충격을 받 은 것은 아니고 정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 멍했다. 지금

생막하면 정말 둔한 학생이었다.

결국 여학생들은 주로 신재생에너지과를 많이 택한다는 담임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과를 1 지망으로 지원했지만， 둘 중 어느 과에 붙었어도 실망하거나 기뻐하

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 다. 우선 나만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지원했기 때문에 동네 친구들과의 이별이 불가피했다. 기숙학교였기 때문에 부모 님과도 떨어져 지낼 준비가 필요했다. 게다가 무엇보다 외

출과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였기에 공부와 실습에만 집중할 각오를 해야했다.

그 모든 일들이 마냥 즐검지만은 않았지만，적응하면 어려 울 것 또한 없을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했다. 그때의 나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았다. 어 리석음과 순수함，자신감 중 무엇에서 기인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잃을 것들이 눈앞에 보여도 후에는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 라며 안일하게 기대하던 시기였다.

합격 발표가 뜨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길리지 않았다. 입학을 앞두고 중학교 친구들과 미리 작별 인사를 나누었 다. 영영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고，원한다면 주말마다 만날 수 있을 텐데도 어째선지 점점 멀어질 것 같 은 예감이 들었다.

입학식 하루 전，기숙사에 짐을 옮기던 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다. 아버지께선 타지에서 일하고 계시고，어머니는 차가 없

어서 나와 어머니 단둘이서 그 일을 해야 했다. 우리는 무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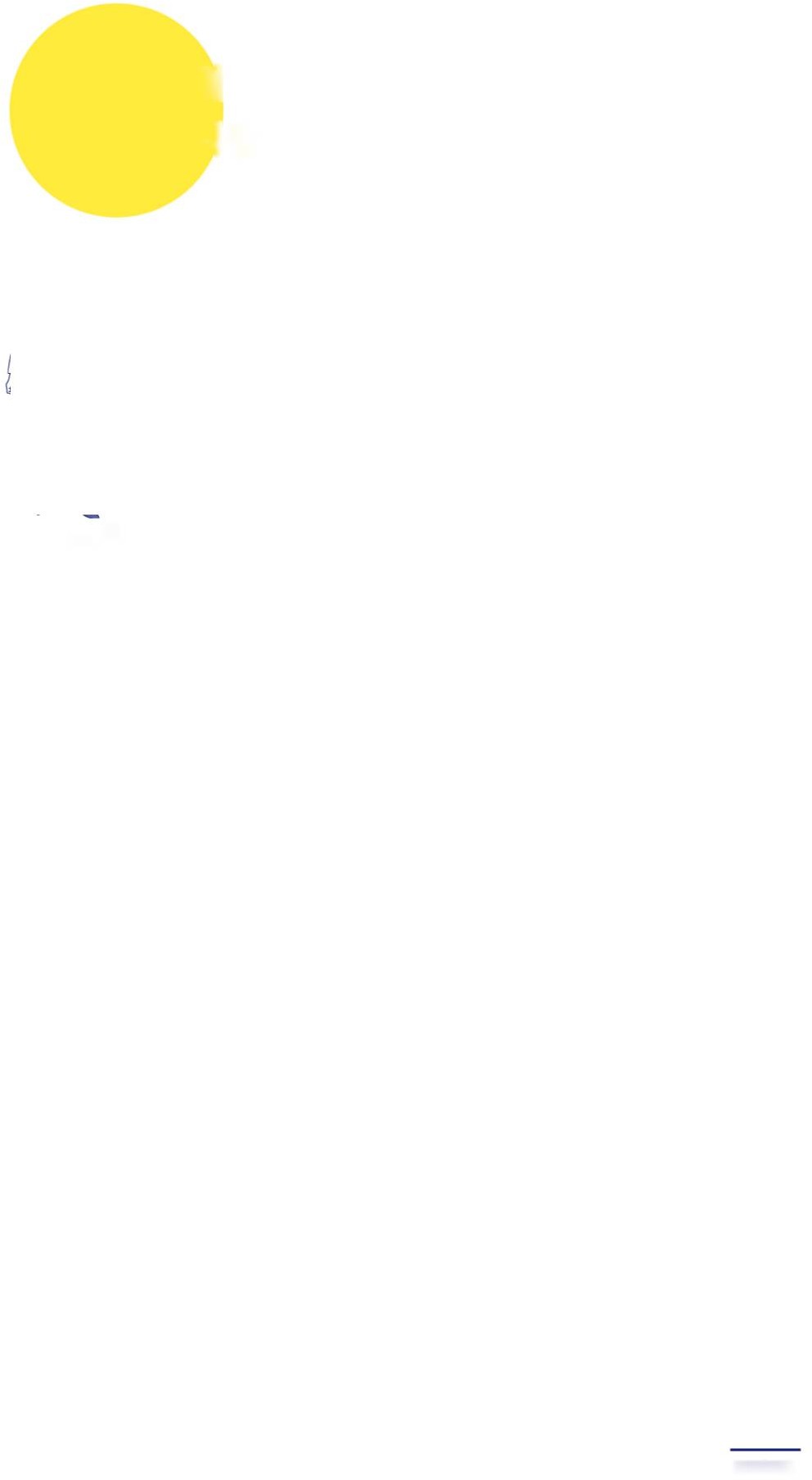
운 가방을 대여섯 개씩 들고 어깨에 우산을 비스듬히 올린 채 20분 거리를 걸었다. 집과 학교가 가밥다는 건 다행이었 으나 비 오는 날 차를 타고 온 가족이 함께 짐을 나르는 모 습을 보며 잠시 부러운 마음도 들었다.

1년간 내 집이 될 방에서 침대 매트리스 귀버를 씌우며，나 를 위해 비를 맞아가며 여기까지 걸어와 주신 어머니와，앞으 로 될 수 있을 날이 더욱 적어질 바쁜 아버지를 떠올렸다.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나쁘지 않았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에 민장했지만 결국 남들도 똑같이 할적정이었다.

기숙사에 입사한 첫날 밤은 세 명의 룸메이트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알아갔다.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어째서 마 이스터고등학교를 선택하였는지，각자 저마다의 사정이 있 었고 나와 동년배인 친구들의 진지한 고민과 목표를 들으며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느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에 취직하겠다는 야망을 펼치다가도 부모님의 품을 그리워

하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 만난 이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고，나 스스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



## 나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새로운 수업을 듣고，처음 들어본 기술들을 배우며 하루하루 익숙해졌다.

학교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친구들과도 금방 어울리게 되 었다. 보통의 공업고등학교와 비슷한 교육 과정을 따르는 마 이스터고 특성상 여학생은 매우 드물기에 극소수를 제외한 대 부분 쉽게 결속되는 분위기 탓도 컸다.

실습은 어려웠지만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았고，인문 과목에 서는 상위권에 들어 S 대기업을 목표로 삼는 특별 프로그램 반 에 선발되기까지 했다. 얼마 되지 않는 여학생들，그중에서도 특히 나와 친한 친구들도 대부분 그 특별반에 들어갔기에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많은 것이 기대를 따라주었다.

같은 반의 한 여자아이가 눈에 띄게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도 나의 일이 아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형편없이 낮은 성적 때문에 스스로 자처한 결과일 거라는 생각

027/028

도 들었다. 나는 당장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 남의 문제에 깨입할 여유도，체력도 없었다. 나 자신에게 언 제나 되뇌던 변명이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아이는 언제나 남의 뒷담화만 하고 다 닌다고 했다. 그래서 친구가 하나둘 떠나고，결국 고립될 수밖

에 없었던 거라고.

어느 정도는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 다. 그 아이는 네 명의 동급생과 주로 어울려 다녔고，나 또한 그중 한 명이었기에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 그 아이가 남의 험 담을 자주 한 것은 사실이다. 입학식 첫날부터 그랬다. *그걸* 몇 몇 애들이 불쾌하게 여겼고, 모두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 다.

하지만 소외되었다는 표현은 옳지 않았다. 한 반 전체가，혹은

한 학년이 모두 합심하여 한 명의 학우를 조롱하고，헐뜯고，일 어나지 않은 일과 외모까지 언급하며 비난하는 것은 절대 ‘소 외’라는 단어로 쉽게 말해질 수 없는 일이었다.

항상 목소리가 크던 그 아이는 자신이 '소외’ 당하고 있다 는 것을 눈치채면서부터 소극적으로 변해갔다. 점심시간마 다 나를 포함하여 같이 다니던 친구 네 명이 그 아이를 남겨 두고 급식실로 가자，그 아이는 며칠 뒤부터 다른 반 여자아

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러다 다른 반 학생들까지 그 아 이를 외 면하게 되면서 결국은 항상 혼자 밥을 먹게 되었다.

그러고는 한동안 급식실에서 그 아이를 볼 수가 없었다. 친 구들에게 물어보니 한 친구는 밥을 일찍 먹거나 늦■게 먹어서 마주칠 일이 줄어든 것뿐일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다 른 친구는 어차피 다이어트가 필요한 애니까 밥을 안 먹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 말 뒤로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는 친구 들의 웃음소리에 묻혀 기억나지 않는다. 어차피 내 질문의 답 을 제대로 알고 있던 아이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속이 좋지 않아 점심을 거른 날이었다. 모두가 급식실에 있을 시간，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데 마지막 칸에서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그 아이가 문을 열고 나왔

다. 우리는 서로 못 본 척했지만 나는 *그* 아이가 나온 화장 실 칸에 버려진 삼각김밥 포장지를 보았다. 안타까운 마음 과 섞여 속이 더욱 메스꺼워졌다.

가없지 않느냐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니 친구들은 외부 음식 반입은 벌점이라고 담임 선생님께 일렀다. 그 아이는 결국 벌점을 받고，반성문을 썼고，친구들에게는 너 때문에 무단 외출에 대한 통제가 엄해졌다며 욕을 먹었다. 다시 강 조하지만，마이스터고는 기숙학교였기 때문에 조식，중식，

석식을 모두 학교에서 해결해야만 했다. 그 아이에게는 너무 가혹한일이었다.

눈앞에서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음

에도 나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생막을 하지 못했다.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조했다. 자신도 모르던 사이에 가해자 가 되어 있었고，그 순간에도 나의 죄에 대하여 무감막해져 있었다.

어느 날 야자 시간에 그 아이가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남들이 다 공부할 시간에 교칙을 어기는 장면은 나를 포함하여 내 친구들의 심기를 거스르기에 충분했다.

그 아이는 내가 자신을 괴롭히는 데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 도 알지 못한 채 다른 친구들보다 나를 유독 편하게 대했다. 때문에 선생님들 사이에서 나는 고립된 아이를 챙겨주는 착 한 학생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 그 아이가 야자 시간에 몰래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제보했을 때도 담임 선생님 께서는 친구를 걱정해 주는 진정한 친구라며 나의 도덕성을 칭찬해 주었다.

결코 그 아이를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나는 무기력한 마음이 들었고，학 교 밖에 마라탕을 먹으러 다녀오자는 친구들의 제안을 거절한

채 교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다.

결국 몇 시간 뒤 내 친구들은 무단으로 외출한 것을 들킨 듯 했다. 역시 시아는 착하고 성실해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다 며 또다시 담임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고，나는 나의 악함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실망했다.

그 아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쓰럽다고 말할 때마다 친구 들은 일관된 답변을 했다.

“개는 항상 뒤에서 남의 욕만 하는 애잖아.”

우리는 나쁜 행동을 한 그 아이를 비난하며 정의감에 도취 되기라도 했던 걸까? 나 또한 다를 바 없었기에 친구들의 말 을 반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용기를 내어 사과하러 왔을 때 우리는 받

아주었어야 했다. 그게 아니면 *그* 아이가 울면서，예전의 사 이로 들아가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빌었을 때 연민이라도 느꼈어야 했다.

그 아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 이상，지나간 잘못들은 더 이상 거론할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는 미안하다고 하면 다냐는 잔인한 말로 그 아이를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으로 만들었다. 뒷담화를 몇 번 했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 아이의 신 체적인 결함을 조롱했고，그 아이에게 가곰 용돈을 주는 연상

의 남자 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불온한 소문을 지어냈고, 기숙 사에서 절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아

이를 의심했다.

1학년 2학기가 끝나가던 어느 날, 그 아이가 야자 시간에 나를 계단으로 불러냈다. 어떤 말을 하려는지는 쉽게 예상됐 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든가，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길 원하 든가. 이번에도 용서를 구해봤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 도 없을 게 분명하기에 빨리 용건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데， 그 아이의 첫 마디는 나의 예상과는 크게 달랐다.

“고마워 . 고압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왜? 도움을 주기는귀녕 항상 가해자들 사이에서 방조하던

나는 *그* 말을 들을 자격도，이유도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나 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다.

“뭐가 고마워? 난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 네가 폰 뺏긴 날도 내가 선생님께 일러서 그런 거야. 알아?”

그 아이는 몰랐지만 예상은 했다며，그래도 상관없이 여전 히 내게 고압•다고 답했다. 모두가 자기를 싫어하는데，나도

분명 자기를 싫어할 텐데，그럼에도 싫은 표시를 내지 않고 평범하게 대해줬던 게 고마웠다고 했다.

나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반박하려 했으나 그 아이

가 우는 바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아이는 몇 주 뒤 동네의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학 갈 거라고 고개 숙인 채 흐 느끼며 말했다.

나는 그 아이의 정수리를 조용히 바라보다가，흔들리는 어

깨가 가여워서 가만히 안아주었다. 또다시 고압다는 말을 들 었다. 선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칭찬받고 감사받는 나 자신 의 위선이 미웠다.



## 그 정도의 동정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친구들은 그 아이를 향하여 자퇴해라，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전학 안 가고 뭐하匕누 등의 말을 일삼았다. 떠나는 당일 까지도 어차피 어디로 도망치든 왕따 당할 성격이라며 조롱했 다. 하지만 막상 그 아이가 정말로 사라진 후에는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이에 대한 소식과 함께 관심 또한 줄어 들더니 결국 그 아이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비공식적으로 금

지되었다. 물론 죄책감이나 후회 길•은 감정과는 관계없었다. 그저 양심의 가책 없이 헐뜯을 수 있는 대상이 사라졌기에 지 루해졌을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옆 반의 한 아이를 놀림 감으로 삼더니 순식간에 싫증이 나 그만두고는，‘빨리 재미있 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던 친구들의 말•이 증거이다.

요즘 젊은 것들 유시아

누구도 그 아이의 괴로움에 공감해 주지 않았다는 건 슬픈 일이었으나 빈자리는 그다지 오래 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 면서 *그* 아이의 존재는 잊혀져 갔고，2학년이 되고 모두가 바 빠지면서 일상은 평화로워졌다. 모두가 서로를 의지하며 긍 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기 시작하는 듯했다.

그 아이의 전학 이후 자책감에 괴로워하던 나조차도 과거

에 대한 후회를 점차 지워가기 시작했다. 더 이상 내가 관여 할 일이 아니라는 생막이 커지면서 매일 밤 편안한 잠을 자고 밝은 미래를 꿈꾸었다. 친구들이 나만 두고 기숙사 다른 방으 로 놀러 갈 때도 아무런 위화감을 느끼지 못한 채 일찍 잠을 청했다. 희망찬 꿈들은 종종 불길한 미래를 대비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진작 신호를 알아차렸어야 했다. 자기들끼리 방을 나서며 어째서 내 눈길을 그렇게 피했는지 의심했어야 했다. 화장실 간 나를 빼놓고 자기들끼 리만 급식을 먹으러 갔을 때도 깜빡 했겠거니，기다리다 짜증이 났겠거니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 게 여겼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 후로 내 친구들은 거의 모든 상 황에서 나를 배제하기 시작했고，어느 순간 나 혼자 교실에 남게 되었다.

전학 간 그 아이를 떠올리고는 불안해졌다. 하루 중 세 번 급식실에 가는 일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징후 가 된다. 그 아이로 인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쁜 예감은 언제나 빗나가지 않는다더니，결국 나의 친구 들뿐만 아니라 다른 반 애들까지 날 피하기 시작했다. 천사라

는 별명을 가진 다른 과의 한 친구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 을 때，그 천사가 어떤 표정으로 내게 곁눈질하며 옆의 친구 한테 귓속말하는지를 보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큰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스스로에게 희망을 주입했

지만，내가 잠든 줄 알고 바로 옆에서 내 욕을 하던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은 후로는 모든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원인은 분명 나에게 있을 것이다. 내가 그간 어떤 잘못을 했 는지 기억해 보려 노력했지만 마땅하게 생각나는 게 없었다. 약 1년 동안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한순간에 들아 설 때는 이유가 없을 리 없는데，내가 사랑해 마지않는 친구 들의 감정을 상하게 해놓고는 스스로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 는 게 부끄럽고 미안했다.

나의 잘못을 떠올려보다 나의 결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 했다.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면 무언가 모자라기 때문에 나

를 피하는 것일 거라고 여겼다. 내가 자격증을 많이 따지 못 해서? 내가 못생겨서? 아니면 내가 너무 둥둥해서 같이 다니 기 장피했던 길까?

나의 단점을 되새기는 과정에서 내 자신이 혐오스러워졌고，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해 성적은 갈수록 떨어지기만 했다. 이 제 공부도 못하니 내가 더욱 싫어지겠지?

룸메이트들이 다른 방으로 가면 바로 눈을 감았다. 친구들 의 입장에서 이제 나는 게으르기까지 해 보일 것이다. 나는 점점 부족한 사람，미움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 만약 오해가 있던 거라면 문제가 더욱 커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막했다.

한 친구에게 대화를 요청했는데，눈에 띄게 불편해하더니

다른 애들이랑 같이 얘기하자고 했다. 미루는 듯한 예감이 들 었지만 상관없었다. 그러나 시간을 내 줄 기미가 보이지 않았 다. 참다못해 대체 언제 얘기할 수 있냐고 물으면 항상 바쁘 다며 시간 나면 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렇게 한 달이 훌쩍 지나고 방학이 다가왔다.

여름방학 일주일 전，학교에서 대구의 모 엑스포로 단체 견 학을 가던 날이었다. 1학기가 끝나기 전에 얘기할 수 있는 건

맞냐고 친구들 뒤를 쫓아가며 물었다. 친구들은 기분 좋게 노 는 날에 꼭 그런 말을 해야겠냐며 도리어 내게 화를 냈다.

본인들은 재있게 놀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대답을 듣지 못한 채 홀로 남겨졌고，나는 몇 시간 동 안 화장실 구석 칸에 앉은채 돌아갈 시간만을 기다렸다.

방학식 당일이었다. 멀리서 바라봤을 때 친구들은 신나 보 였고，내가 관여하지 않는 편이 모두에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종례를 마치자마자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실내화를 갈아신고 신발을 챙기는데 학교에서 내 이름이 오랜만에 불 렸다. 드디어 친구들이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된 듯했다. 예상

치 못한 시점이었지만，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막이 들었다.

면접을 보듯 3 대 1로 자리에 앉았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길래 먼저 질문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를 피하느 냐고.

아무도 곧바로 입을 열지 못하다가 한 친구가 내가 오늘 늦 잠을 자서 지각한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바라던 답이 아니었

다. 지각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나의 문제가 맞지만，내가 알고 싶은 것은 나의 사소한 잘못 하나하나가 아니었다. 친구들이 날 피하게 된 계기였다.

다시 질문하니 또다시 침묵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다른 친 구가 대답했다. 내가 성적을 알려주지 않았던 ■게 불만스러웠 다고 말했다. 역시나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다. 인과 관계

가 잘못되었다. 나도 그날을 기억한다. 그때 나는 최저 점수 를 찍었고，그런 처참한 결과를 얻게 된 건 친구들의 무시와 배척에 온통 신경이 쓰여 도저히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대답에 모순이 있었기에 한 번 더 물어보았고 친구 들은 다시 침묵했다. 기다리는 순간은 초조했지만 허무했다. 차라리 전학 간 그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관심을 주었던 내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면，내가 위선자이기 때문에 정이 떨어 졌다고 하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쨌든 내게 잘못이 있다니，사과하는 것이 옳았다. 친구들 이 열거한 내 문제점에 일일이 사과하고는 몇 번이나 용서를 빌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말을 들으며 순식간에 갑과 을 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감지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앞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시 같이 놀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안도감，미안함，수치심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울면서도 한심하게 나를 응시하던 친구들의 싸늘한 시선이

두려워 눈가를 닦지도 못한 채 흐린 시야를 내버려두었다. 간 신히 눈물이 그쳤을 때 내 맞은편에 앉아 있는 아이의 모습이 선명해졌고，약 1년 전 그 친구가 울던 날이 떠올랐다.

모든 일에 성실하던 그 친구는 확실한 성공을 목표로 먼 타 지에서 기차를 타고 왔다. 한 번도 지친 내색을 보이지 않아 주변으로부터 강하다，독기 있다는 평을 듣던 친구였지만 그

날은 기숙사에서 내 품에 안겨 울었다. 사실은 너무 힘들다 고，힘들지만 내 덕분에 버틸 수 있다고，포기하고 싶을 때마 다 언제나 내가 곁에 있어 주어 포기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던 친구였다.

그때 그 친구의 얼굴과 지금 내 앞의 얼굴을 대조해 보았

다. 내게 의지하며 흐느끼던 그 친구가 이제는 차가운 표정으 로 눈물 자국으로 엉망이 된 내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 그때 나는 무슨 반응을 바랐던 것일까? 전학 간 아이가 울던 모습 도 떠올랐다. 그때의 난 어떤 감정으로 그 아이를 안아주었

던 걸까? 나는 그 정도의 사랑도，동정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일까?

“다 울었어? 더할말없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들은 한 친구의 본가에

서 다 같이 놀러 가기로 한 모양이었다. 1년 전 나도 같이 했 던 약속이었다. 씁쓸함을 감추는 것은 쉽지 않았다.

기차표를 예매해 놨기에 늦으면 안 된다는 말과 함께 일제 히 자리에서 일어서는 친구들을 뒤따르며 시간을 빼앗은 것 에 대하여 한 번 더 사과했다. 교실을 나가기 직전 마지막으

로，정말 2학기부터는 다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거냐고 물

어보았다. 그렇다는 짧은 대답을 듣고 안심한 채 집으로 향 했다.

나 때문에 친구들이 기차를 놓치지는 않았을까 적정이 되어

그날 밤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고，예상보다 따뜻한 답변에 방학 내내 개학을 기대할 수 있었다.

더는 등교 시간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지나치게 안일했다. 고대하던 개학일은 이전의 어느 날보다 도 끔찍했다. 학교의 모두가 내게 말 한마디 길지 않았고，숙 제를 걷는 등 학급 내의 일에서조차 배제되었다. 지난 한 학 기에는 나를 피하는 시선만 느껴졌다면，이제는 나를 마치 없 는 사람처럼，없어야 되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다.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그토록 기대한 스스로가 어리석게 느 껴졌다. 친구들은 애초에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 따윈 조금도 갖고 있지 않았다. 비참하고도 두려워서 어디든 도망

가고 싶었다. 정규 수업을 모두 마치자마자 조퇴해서 본가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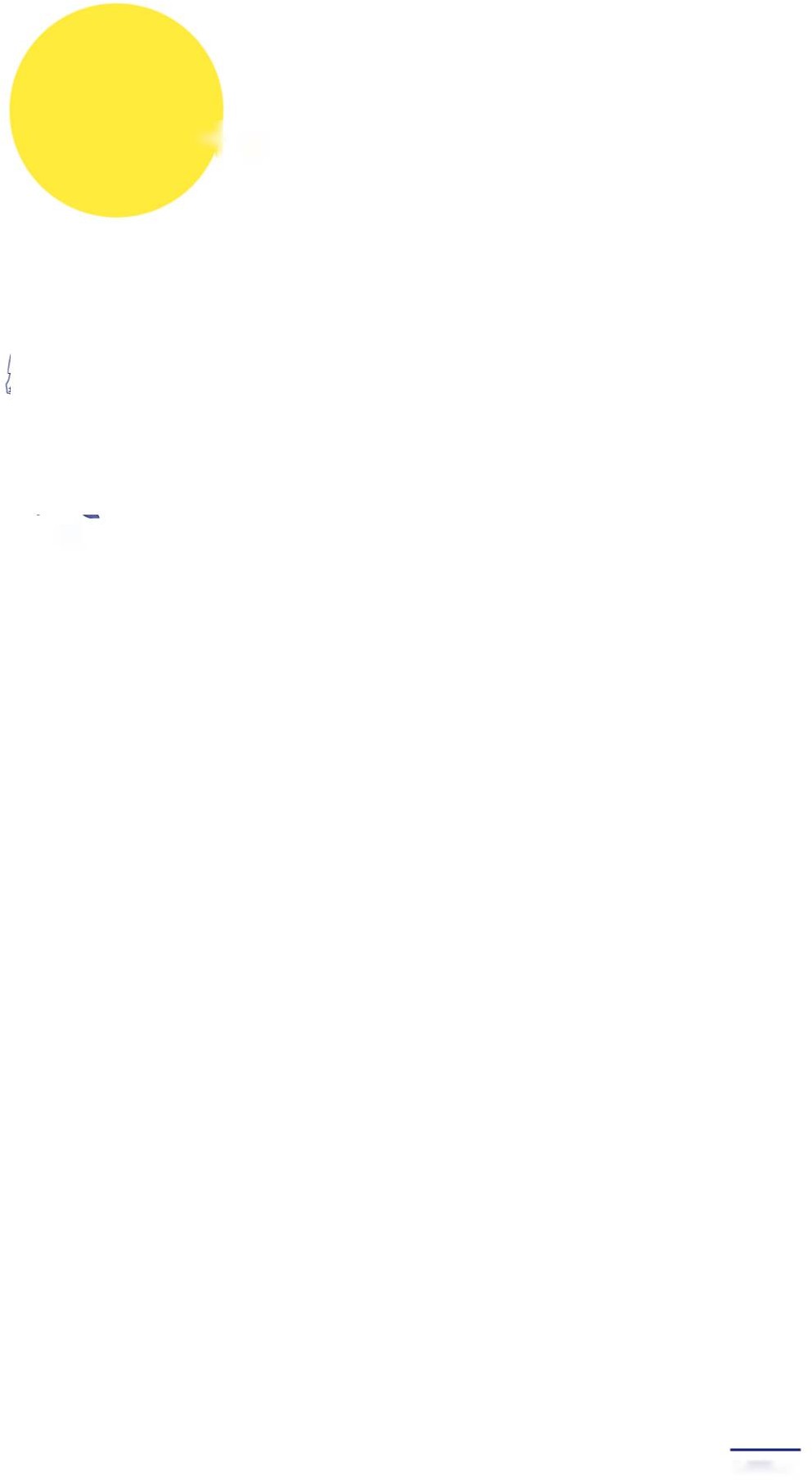
내 몸이 아픈 줄만 알던 어머니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같이 자지 못해서 슬프겠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나의 어 디가 가장 고통스러운지，내가 무엇에 진실로 슬퍼하는지는

알지 못하셨다.

그 후로도 기숙사를 피하기 위해 몇 번이나 조퇴라는 편법 을 사용했다. 정말로 아픈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 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먹정하기 시작하셨다. 나는 조 퇴하면 엄마랑 더 오래 있을 수 있어 좋다는 핑계를 댔다. 어 머니의 기쁜 표정을 보며 거짓말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순간을 기뻐하는 것 은 기쁘다. 한때 내가 기숙사에서 지내는 시간을 하루 중 가 장 좋아하던 유일한 이유였다.



## 엄마

나 진짜 많이 노력했어

성적이 점점 떨어졌다. 어떤 수업에도 집중하지 못하고，교내

의 어디를 다니든 나를 험담하는 목소리만 들려왔다. 온종일 얼른 수업이 끝나 집에 가는 생각만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학교 에 있는 시간이 괴로울 뿐 아니라 아까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고민 없이 그 아이처럼 인근의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고 싶었다. 중학교 친구들과도 재회하고，다시 남들 과 같은 평범한 길을 걷게 될 거라며 희 망을 품었다.

그러나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는 2학년 1학기 이후로 전학이

불가하다는 검색 결과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다. 내게 남은 선택지란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억지로 면디며 졸업장을 사수하는 것，두 가지뿐이었다. 나는 적어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 자신과 정말 오랜 싸움을 했다. 그러나 날이 지날수록 더는

043/044

버틸 수 없다는 결론에 가까워졌다. 이 학교는 더 이상 나를 위한 곳이 아니며，학교 또한 나를 일원으로 취급해 주지 않 으니 전학이 유일한 정답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답안지에 보 기로 적혀있지 않기에 선택할 수가 없다.

이 학교를 떠나야겠다는 마음은 분명한데，떠난다면 나는 무얼 하며 살아가야 할까?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

은 것과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전공인 공학 과 에너지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국어，영어，한문과

중국어를 비롯해 언어를 배우는 과목에서는 1등을 놓친 적이 없그렇다면 나는 언어에 소질 있는 학생일까?

어떤 언어를 배워야 적성에 맞고 즐거울 수 있을지 고민하 기 시작했고, 쉬는 시간과 야자 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려 놀거 나 공부에 전념하는 대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한 스스로를 떠올렸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시간 때울 거리를 찾 았을 뿐이었지만 점점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중학 생 시절 글짓기 수행평가 결과물을 보고는 집필 동아리에 영 입 제의를해주신 국어 선생님의 말씀도 떠올랐다. 대학에 진 학하여 국어와 국문학을 공부해야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지기 시작했다.

요즘 젊은 것들 유시아

자퇴에 대한 결심을 굳히고 검정고시로 갈 수 있는 대학들 을 알아보았다.

준비가 되었다고 생막하여 용기를 내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그러나 어머니의 반응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절망적

이었다. 내가 따돌림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실 건 예상했지만 나를 책망하실 줄은 몰랐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친하게 지냈잖아.”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니야? 대화를 해보지 그랬어.” 어머니는 내가 그 친구들과 사이좋았던 순간만을 기억하시

며 왜 조금 더 참아보지 않았냐고，왜 대화를 시도해 보지 않

았냐고 책망하셨다. 나는 매일 같이 싸우고 있었지만，어머니 는 그런 사실을 아실 리 없었다. 친구들의 무관심과 차가운 시선，그리고 이제는 어머니의 실망과도 마주해야 했다.

“엄마，나 진짜 많이 노력했아 대화도 시도했고，기다려도 봤아 근데…，내 잘못이 아닌 일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 어. 개네는 이제 나를 친구라고 생막하지 않아.”

그러나 어머니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어머니께선 내■게 무언가 잘못이 있다고 확신하셨고，내가 친구들에게 다

시 다가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고 계셨다. 친구들이 나를 때린 적도，내 돈을 빼앗은 적도 없으니 학교 폭력으로

볼 수도 없으며 나의 오해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설득할 힘이 없었다. 어머니 말씀처럼 친 했던 친구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나 괴로워하는지 설명하는 과정은 괴로웠다. 자퇴에 대해서 다시는 한 글자도 꺼내지 말라며 다그치는 목소리에 내 용기와 의지는 묵살당 했다.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와 다투기 싫었기에 알겠다고，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않겠다며 방에 숨어 지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고 자퇴 얘기를 꺼냈다. 매일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고， 집에 들아와서도 그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와의 대 립도 점점 깊어지기만 했다. 어머니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끈

질기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지만，그런 과정이 얼마 나 큰 고통인지는 알지 못하셨다.

끔찍하게 학교에 가기 싫었던 그날，더 이상 어머니께 말씀 드려봤자 시간과 감정만 소모될 것이라는 생각에 무턱대고 학교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 근처 아파트로 들어갔다. 아무

런 주저 없이 꼭대기 층을 눌렀고，옥상 문이 열리지 않아 몇 번 시도하다가 계단에 주저앉았다.

휴대전화를 꺼두고 몸을 웅크려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다.



요즘 젊은 것들 유시아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리면 입을 틀어막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시간을 확인하려고 휴대전화 전원을 켰다. 몇 분 뒤 엄마와 경찰 두 명이 위치 추적으로 나를 찾아 올라왔고，경

찰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혼이 났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걸 방지하고자 어머니는 등교 시간마 다 나를 따라나섰다. 어머니는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려 내가 하루 종일 상담실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시간만 허비하 며 회피하고 있을 뿐이라는 생막이 들었지만，어찌 되었든 교 실에서 친구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단 훨씬 나았다.



## 새 길을 찾아야 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상담 선생 님과 처음 마주한 날，자기소개를 하는데 어째선지 선생님께서는 내 이름을 알고 계셨다.

“네가시아구나. 얘기 많이들었어.，，

전학 간 그 아이가 상담실을 다니면서 내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이다. 순간 너무나 두려웠다.

내가 가해자의 편이었을 때 친구들은 그 아이가 학교 폭력으

로 신고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며 걱정하곤 했다. 상담 선생 님께선 내가 얼마나 악한지，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괴롭혔는 지 다 들으셨을 것이다. 남의 아품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정작 본인이 힘들 때 찾아오다니 이보다 이기적일 수는 없다.

위로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주눅이 들었으나 상담 선생

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내가 얼마나 그 아이를 도왔는지 들었 다고… 그 아이에게 있어 나는 유일하게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내가 믿지 못하자 선생님께서 그 아이와의 상담 내용이 담긴

요즘 젊은 것들 유시아

노트를 보여주셨다. 비로소 그 아이의 고압다는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그 아이는 고통받았을 텐데，그 아이는 나의 작은 호의에 감동하여 나 를 선한 인물로 바라봐주고 내게 감사하였다. 나는 무슨 짓 을 저지른 •걸까?

수업을 빠지고 매일 상담실을 다니며 정말 많은 얘기를 했 다. 다행히 선생님께서는 나의 말과 감정을 모두 이해하고 계셨다. 이전의 사례들을 통해 한 번 틀어진 관계는 쉽■게 회 복될 수 없다는 걸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고，내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며 탈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덕에 자퇴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확

고해졌다. 상담 선생 님과의 대화는 나를 위로해 주는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새 길을 찾아 떠나야 한다면 최대 한 빠른 편이 좋았다.

어머니의 마음을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는 없었으나 오랜 설 득 끝에 학업중단숙려제를 신청했다. 학업중단숙려제란 자퇴 를 결심한 학생에게 적게는 일주일，길게는 7주의 숙려 기간을 주어 충동적인 학업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기간

에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된다.

어머니는 아마 내가 몇 주의 휴식 기간을 가지면 다시 평범 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을 것이다. 나도 당 연히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다. 그러나 자퇴라는 한 단어의 오점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이 더욱 내 앞길을 막

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숙려 기간 동안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었다. 우선 연락만 하고 지냈던 중학교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자 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고，일주일에 한 번씩 시내의 상담 소를 다녔다. 시간이 날 때면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여 읽었 다. 공부할 기분은 아니었지만 유일하게 다니던 수학 학원에 서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조금씩 노력하여 컴퓨터활용능 력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 오히려 학교에서 지냈을 때보다 보람찼다.

그러나 단둘이 집에 있으면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색해졌다. 나는 자퇴를 원하고，어머니는 내가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길 바라시는데，둘 중 누구도 의견을 굽힐 기미가 없었다. 나의 아픔에 어머니는 괴로워하셨지만 그런 어머니를 보는 내가 더 아팠다.

어머니께서 하소연을 하셨는지 타지에 사는 고모까지 찾아 오셨다. 어머니께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한 번 더 생각 해 보라고，지금 엄청난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나를 타이 르고 가셨다.

내가 자퇴하는 것이 어머니께 그렇게 큰 불효일까? 1학기 에도 티 내지 않았을 뿐 충분히 괴로웠다. 참다못해 2학기가

되어서야 어머니께 사실을 털어놓았는데，내가 아프다는 말 에 어머니께서 아파하신다. 내가 말하지 않고 혼자 버렸다면 불효가 아니었을까? 내가 아픈 것도 불효이고，아픔을 벗어 나고자 스스로 길을 찾는 것도 불효가 된다면，내가 행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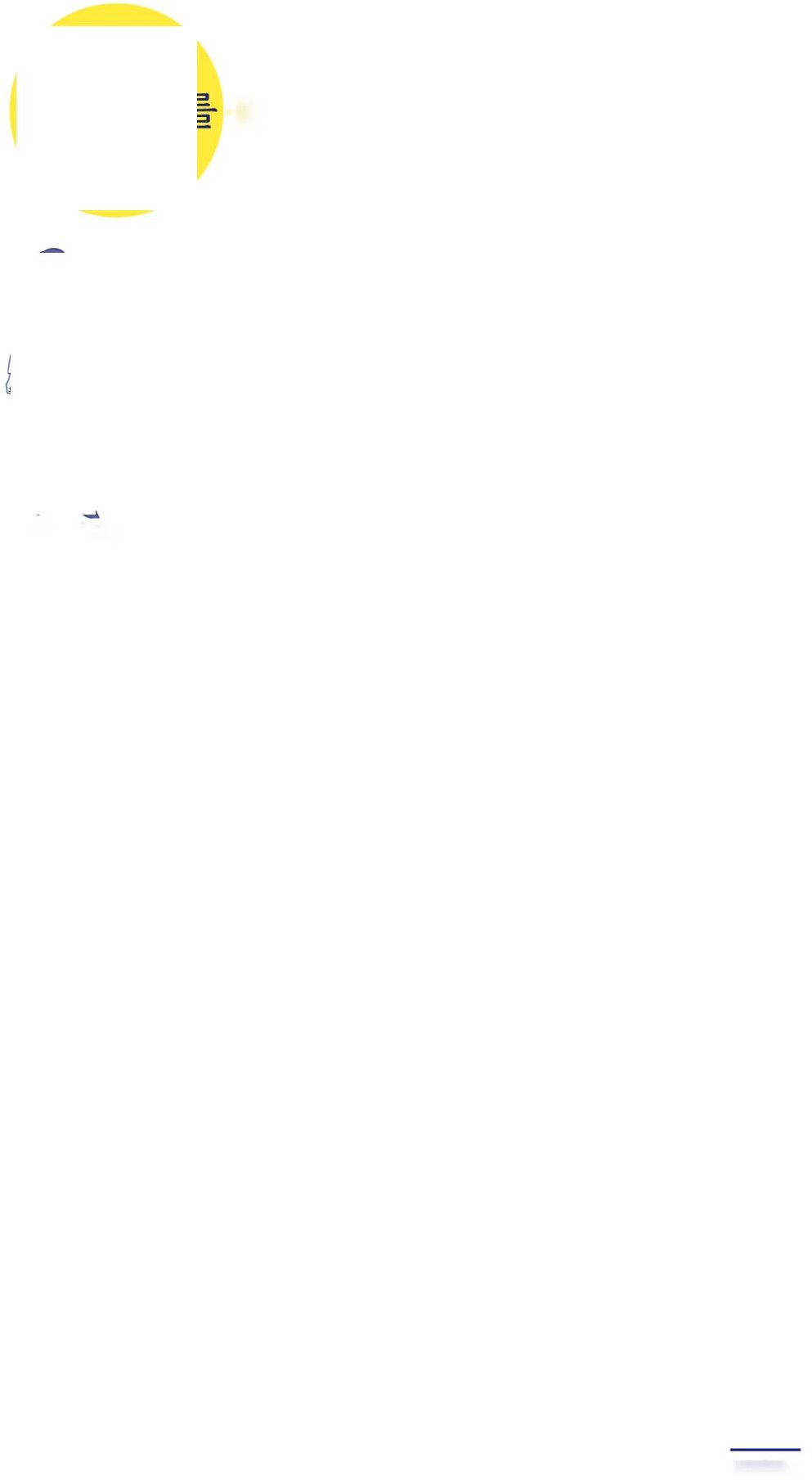
지는 동시에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을까? 나의 유일한 희망이 어머니를 향한 불효가 된다는 점이 가슴 아팠다.

정신과에서 무료 심리검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상담소 의 제안을 듣고는，손해 볼 게 없다는 생각에 바로 응했다. 어머니와 함께 버스를 타고 정신과로 가는 길 내내 어머니는 불안해하셨다. 내 딸은 정신병자가 아닌데 왜 정신과에 가야 하느냐고. 꼭 정신병이 있어야 정신과를 가는 건 아니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지만，내 정신이 병들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

검사 결과는 나에게도，어머니에게도 충격적이었다. 또래보 다 지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했다. 그림에 자신이 없어 졸라 맨을 그려놓았다는 이유로 산만하고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냐기에 검정고시를 치 고 대학을 가겠다고 했지만，의사 선생 님께서는 코웃음을 치 며 내 머리로는 검정고시에 합격하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말 씀하셨다.

나는 한 번도 내 지능에 대해 의심한 적이 없었다. 우울감이 나의 판단 능력을 흐리게 하여 잘못된 결과를 도출시켰을 뿐 이라고 확신한 채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 듣고 싶었지만

학업중단숙려제가 끝나는 마지막 7주차，어머니와 담임 선생 님의 권유로 날 따돌렸던 세 명의 친구들과 대화할 기회를 갖 게 되었다. 나는 결코 원하지 않은 일이었다. 마음이 괴로워질

* 게 눈에 선해 몇 번이고 거절하였으나 친구들이 내게 할 얘기 가 있다고 한다며 나를 꼬드겼다.

“아마 사과하고 싶은 걸지도 몰라. 그렇게 친했잖아?”

정말 한심하게도 당시에는 그 친구들의 사과가 듣고 싶었다. 어떤 말을 하려는지 들어나 보겠다는 심정으로 몇 달 만에 교

*정을* 걷는데，교정의 경사는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가팔랐다. 담임 선생님께서 마중 나와 나를 국어교과실로 안내했다. 복

도를 걷는데 내 반이었던 교실에서 “유시아 학교 왔는데?”라는 말과 함께 비속어 소리가 들렸다. 오랜만에 학우들을 만난다면

분명 상처받을 거라 생각했으나 우스울 정도로 아무 감정도 들 지 않았다.

053/054

친구들은 늦었다. 알고 보니 새 자격증 공부를 하느라 방금 막 실습을 마친 듯했다. 기다려야 했던 것에 딱히 불만은 갖 지 않았는데，괜히 자신들이 얼마나 바쁜지 설명하며 들어오 는 친구들을 보니 시간을 빼앗는 나를 탓하는 것 같아 어이 가 없었다.

친구들의 눈빛은 방학식 때의 눈빛 그대로였고，나는 그때 의 내가 아닌 친구들과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번에도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3대 1로 마주 보며 앉았으나 역시 나 아무도 먼저 말문을 떼지 않았다.

내가 먼저 물었다. 내게 할 말이 있다고 들었는데，무슨 얘 기를 하고 싶으냐고. 친구들은 모두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더니，자신들이 아닌 내가 할 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 었다고 했다. 어머니와 선생님께 속았다. 억지로 만나게 해 놓으면 자연스레 화해할 것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길까?

서로 할 말이 없는 거라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제야 친구들이 하나둘 입을 열었다. “학교에 나오지 않는 동안 한 번도 결석이 없는 걸로 아는

데，어떻게 한 거야?”

“그러면 그동안 집에 있었던 거야? 집에서는 폰만 했어?”

“기숙사 짐은 왜 안 빼?”

노골적인 조롱뿐이었다. 친구들은 웃음을 참고 서로 눈짓하 며 질문하더니 내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다시 싸늘한 침묵을 이어갔다.

한 친구가웃음기 없이 말했다.

“2학기 초 네가 무단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은 날，그날 옥상 에 있었다고 담임께 들었는데，우리가생각하는 ‘그거’ 맞아?”

‘그거’라면 아마 죽을 생각이었냐는 질문일 것이다.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고는，죽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죽으려고 했던 건 아닐 거라고 대답했다. 그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본인 들이 그렇게까지 심한 짓을 한 건 아니지 않냐며 내 눈을 똑 바로 응시했다. 내가 당한 피해의 정도를 어떻게 그들이 짐작 할 수 있을까? 대답하려는데 그 친구가 말을 이었다.

“네가 그렇게 힘들었으면 유감이다만，우리는 공부 때문에 바쁜데도 네가 불렀대서 실습 끝나자마자 온 거야. 근데 그 태도는 뭐야?”

“유감”. 분명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결코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으며，미안한 감정조차 품고 있지 않다는 뜻을 내포하는 유감이라는 단어가 나는 거슬렸다. 내 태도에 대한 평가는 또 뭘까? 대략 한 학기 동안，나의 고등학교 2학년을

망가뜨려 놓은 그들의 배척과 따돌림，무시하는 태도와 근거 없는 욕설은 괜찮고，단 몇 분 동안의 내 표정과 말투와 대화 방식은 허용할 수 없다는 말일까?

속이 역겨워서 더는 얘기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마침 앞으

로 어떡할 ■거냐고 묻기에 바로 자퇴를 대답했다. “언제?”

“오늘. 기숙사 짐도 지금1벨게. 옷장이랑 침대 두 개씩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마지막으로 더 할 말 없느냐고 물어보고，나도 없기에 자리 에서 일어나 학년부실로 향했다.

담임 선생님과 어머니께서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 나는 어 머니 옆에 앉아 단도직입적으로 자퇴할 것이라 말했다. 어머 니께선 내 안색을 살피시고는 언제나처럼 날 설득하려 하지 않으셨다. 바로 학생회실로 가서 자퇴 절차를 밟았다.

어머니께선 나만 피해를 받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말씀 하셨다.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자고 몇 번이나 제안하셨으나

나는 원하지 않았다. 이유가 여럿 있었다. 모두 경험에서 우 러난 이유였다.

첫째，단순하게 그 친구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도，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얼마나 자 주 지난 일을 떠올려야 하고 얼마나 자주 그들을 만나야 하 는지는 생각만 해도 버거웠다.

둘째，학교는 학생의 편이지 자퇴생의 편이 아니다. 만약 내 가 자퇴하지 않더라도 성적 최하위 학생 한 명과 S 대기업 특 별반 세 *명* 중 학교가 누구를 살릴지는 뻔하다. 관계없다고 여기고 싶지만，지난 해의 한 선생님도 전학 간 그 아이가 괴

롭힘당하는 걸 뻔히 알면서 우등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라며 혀만 차고는 방치했다.

셋째，그 친구들은 이미 신고를 대비하고 있다. 내가 어머니 께 몇 번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으셨지만，친구들은 지난 해에 도 작전 회의라며 전학 간 아이의 문제점을 수기로 작성하고， 우는 연기를 하며 비웃고，감히 신고해봤자 나아질 건 없을 거라며 조롱하고，입을 맞춰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며 학교 폭 력 신고에 대비했다. 그 모습을 한 번 더 마주하게 된다면 그

때는 제정신일 자신이 없었다.



## 내선택은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다

자퇴한 이후로는 내 생활이 순탄해졌을까? 대체로 그랬다. 며칠은 악몽을 꾸고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했지만，시간이 지 날수록 지난 과가를 뒤로 한 채 앞길을 바라보게 되었다.

낯선 길은 언제나 두렵지만，길이 두려운 것보다는 주변의 평 가가 더욱 두려운 법이다. 어머니는 자퇴하면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것이라 항상 말씀하셨기에 나 또한 내심 동요했다. 그러 나 다듬어지지 않았을 뿐 오히려 자유로운 길에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

우선 대학에 가고 싶으니 검정고시를 치기로 했다. 걱정은 지 우고，내 머리로는 합격도 겨우라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말 씀도 지우고，닥친 시험에 몰두했다.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의 인간관계도 챙기고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다.

다행히도 내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었다. 강

요즘 젊은 것들 유시아

사와 수강생이 아닌 어른으로서 나를 도와주셨던 수학 학원 선생님，꼭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안쓰럽게 봐주시고 일 자리를 마련해주신 편의점 사장님，내가 가장 힘들 때 함께 있어 주었고 여전히 나의 옆에 남아있는，지금도 내 글을 읽 어주는 친구.

그리고 부모님.

한때는 나의 결정을 방해하고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어 머니가 미웠다. 그러나 이제 알고 있다. 어머니가 내 선택을 부정한 것은 단순히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어머 니는 내가 충동적인 선택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 을 염려하셨고，\_결국 나의 행복을 바랐기 때문에 나를 먹정해 주셨던 것이었다.

내가 자퇴한 날 어머니께서 얼마나 슬프게 우셨는지 기억한 다. 그날 나는 나의 한심함이 어머니를 울게 만들었음에 자책 했다.

내가 높은 점수로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에 입학하여 잘 적응하는 모습을 지려보시며 어머니는 예전처럼 기뻐하신다.

대학생이 된 후 사귀게 된 남자 친구에게 술김에 나의 과거 를 털어놓은 적이 있다. 자세한 전말은 다 말하지는 않았고

따돌림과 자퇴에 대해서만 고백했다. 내게 무슨 말을 해줄지 궁금했지만，남자 친구의 말에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내게 몇 번이나 “괜찮아.”와 “네 잘못 아니야.”를 반복 했다. 괜찮다는 말은 위로가 되었으나 내 잘못이 아니라는 말은 그렇지 않았다. 내 잘못이라고 생막한 적이 없었기 때문 이다.

내 잘못은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도 “근데 진짜 네 잘못 아니야.”라고 다시 반복할 때는 솔직히 황당했다. 차 라리 한심하다고 욕을 했더라면 이해라도 할 수 있었을 것 같 다. 그가 나를 위해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어

째서 내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그토록 강조했을까? 내가 여 전히 스스로를 탓하고 있는 것처 럼 보였을까?

나의 진실한 마음이 자기합리화 혹은 가식으로 보인다면 정 말 슬픈 일이다. 글을 쓰면서도 현재의 행복이 자기합리화처 럼 보이지 않을까를 가장 먹정했다.

내가 자퇴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내 자퇴 이유를 듣고 나 면 현재의 내가 어떻든 내가 나약했기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거 라고 판단하곤 한다. 자퇴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모 든 것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으니 기붙 리가 없는데 그길 숨 기기 위해 과장해서 기쁜 척을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나는

정말 행복하지만，그런 시선을 받을 때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 이 변하지는 않더라도 마음 한면에 의심을 품게 된다.

나를 괴롭혔던 그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는 듯 보인다. 최근 그 세 명 중 두 명이 S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의 불행을 바랐던 것은 아니지만，씁쓸한 심정을 부정할 수는 없다.

카카오톡 상단에 그 친구들 중 한 명의 이름이 업데이트한

프로필로 뜨기에 들어가 본 적이 있다. 역시나 행복해 보였다. 별생막 없이 하•면을 옆으로 밀어 넘기다가 다른 사람의 프로 필과 차이가 있는 *걸* 느꼈다. *그* 친구의 프로필에는 송금 버튼

이 보이지 않았다. 나를 차단했다는 뜻이다. 힘들어도 내 덕분

에 버틸 수 있다던 바로 그 친구였다.

내가 그 정도로 싫었을까? 아니면 내 프로필이 보일 때 죄 책감이라도 들었던 것일까? 어떤 감정이었을지는 추측만 할 뿐이지만，어느 쪽이든 내 기분이 나아지지는 않으므로 깊게 생 각 하 지 는 않 았 다 . 어 찌 되 었 든 이 제 나 와 는 관 계 없 는 인물들이다.

어머니는 과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전학 간 그 아이와 나 를 비교하곤 한다. 비록 위선이었다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는

연민을 보여주던 이가 한 명은 있었고，자퇴라는 어려운 길이

아닌 전학을 선택할 수 있었고，1학년 때 진로를 변경할 수 있 었으니，내가 그 아이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말이다.

누군가의 고통을 함부로 수치 매길 수는 없을 뿐더러 내가 더 괴로웠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비교하고 싶지 않았다. 나도，그 아이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고，막자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선택을 하여 지금은 행복 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점만이 중요하다.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그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란다. 그녀가 나를 따스하게 평가해 준 것과는 별개로 나는 결코 그녀의 좋 은 친구가 되어줄 수는 없었다. 그러니 내게 품었던 고마운 마

음이 그녀의 아픈 과거까지 떠오르게 만들 뿐이라면 차라리

그 아이의 기억에서 잊혀지길 원한다.

나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혹은 탈출구를 찾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조언의 말을 전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그 만 우울한 글이 되어버린 것 갈\*아 이 글을 읽을 이들에게 미안 하다. 학교 폭력에 대한 고발보다는 행복을 위한 선택의 중요 성에 대하여 말하고 싶었다. 따돌림당했던 순간은 괴로웠지만 새 길을 발견했다. 다만，그 발견이 좀 더 빨리 이루어졌다면

더 쉽게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막은 여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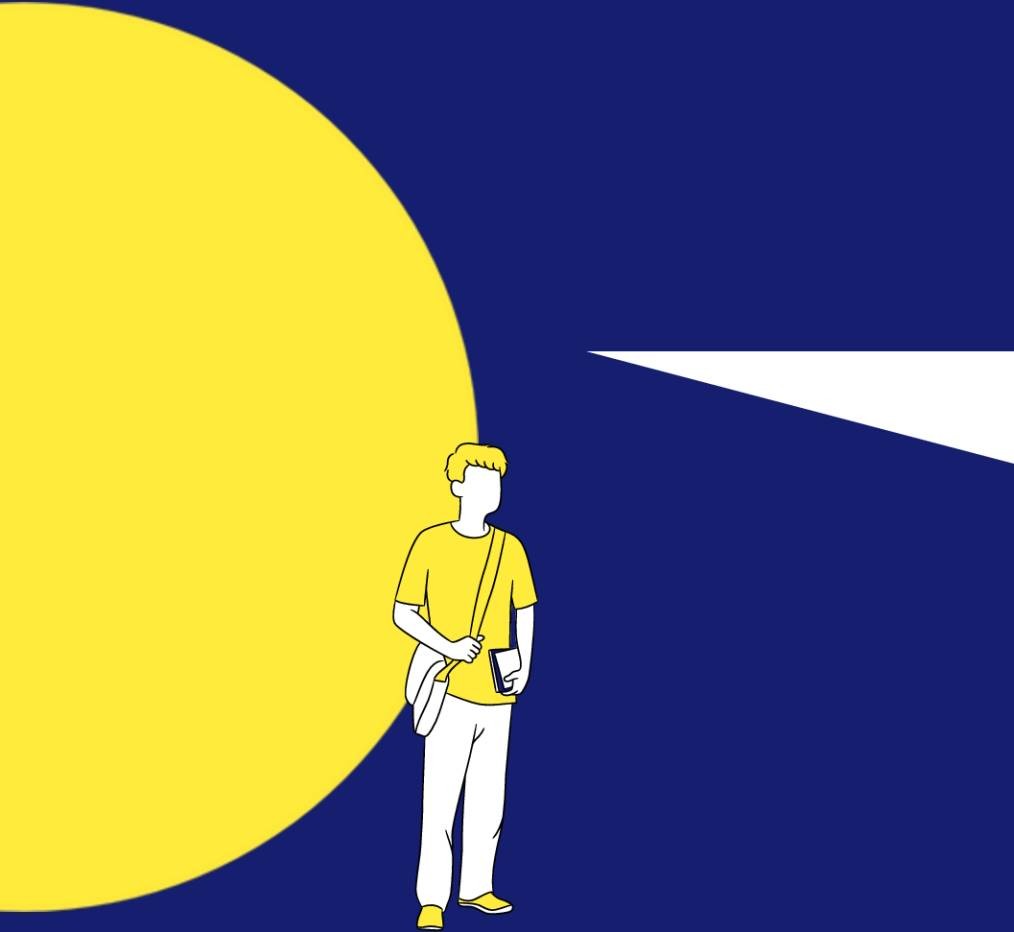
우리는 삶에서 종종 실수를 하고，그 실수가 본인에 의한 것 이 아닐 때도 있다. 그러나 피해 여부는 본인이 극복하는 과정

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간의 내 선택은 한 번도 잘못 된 적이 없었다고. 나의 선택으로 인하여 내가 가는 길과 그 여정이 순탄해지기도 하고 복잡해지기도 하고，때로는 풀썩 주저앉기도 했지만 내게 잘못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과거의 아픔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자신감을 얻는다.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할지 모르고，견딜 수 없는 일이 또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 러나 미리 두려워하기보다는 이겨내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스

스로를 기대하며，오늘도 기쁜 꿈을 꾸고 악몽을 잊어간다.



침묵 since 2005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남는 것은 때론 멀어진 인연，지나쳐버린 기회，그리고 가슴에 남은 후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말할 수 없었던 후회오！"，그 후회를 가슴에 묻고 살아갔던 나의 ‘침묵’에 관한 이야기입내斗. 그저 조용히 간직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의 무게를 글을 통해 함께 느끼고，여러분의 침묵 속 이야기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내 인생의 후회들

프롤로그 067

사진을남기지않았기에 070

한 번 더 연습했더라면 072

* 게임속 갈등，풀지못한 오해 078

운전면허가 뭐라고 082

에필로그 085



# 프롤로그

아빠와 함께 차를 타고 집에 가던 길，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후회하는■게 있어요?”

아빠는 후회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 아빠는 얼굴 가득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씀 하셨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말이지만 후회는 망한 인생이나 하는 거다.”

아빠는 다시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후회하는 게 많냐고. “네 저는 모든게 후회돼요.”

아빠는 “어린 나이에 뭐 그리 후회할 게 많으냐? 참，허허.” 라고 웃어넘기셨습니다.

나 자신이 완벽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후회합 니다. 사람은 언제나 실수하고 그것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우 리는 그것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

요즘젊은것들 침 묵

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후회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완벽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 는 후회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어째서 우린 후회하는 걸 멈 출 수 없는 것일까요?

저는 잊을 수 없는 후회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분 또한 엄청나게 후회하는 일들을 한 가지씩은 갖고 계실 겁니다. 남들에겐 별것 아닐지 몰라도 자기 암속 깊숙이 간직 하고 있는，잊을 수 없는 후회들 말입니다.

저는 그 후회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잊어버리거나 잊어 버리려 노력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뿐입니다. 많은 후회 가 스쳐 지나갔고 계속해서 새로운 후회가 생겨납니다.

후회스러운 일들이 떠오르는 날에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 습니다. 과■거의 행동，나의 선택，내가 했던 말들이 떠올라 나

를 괴롭힙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다르게 했더라 면 어땠을까，길•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나를 더욱 더 깊은 바닥으로 끌어당입니다.

그런 날에는 부모님께 제 감정을 토해내고，부모님은 과거 의 일에 목매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하십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며 이미 후회한들 네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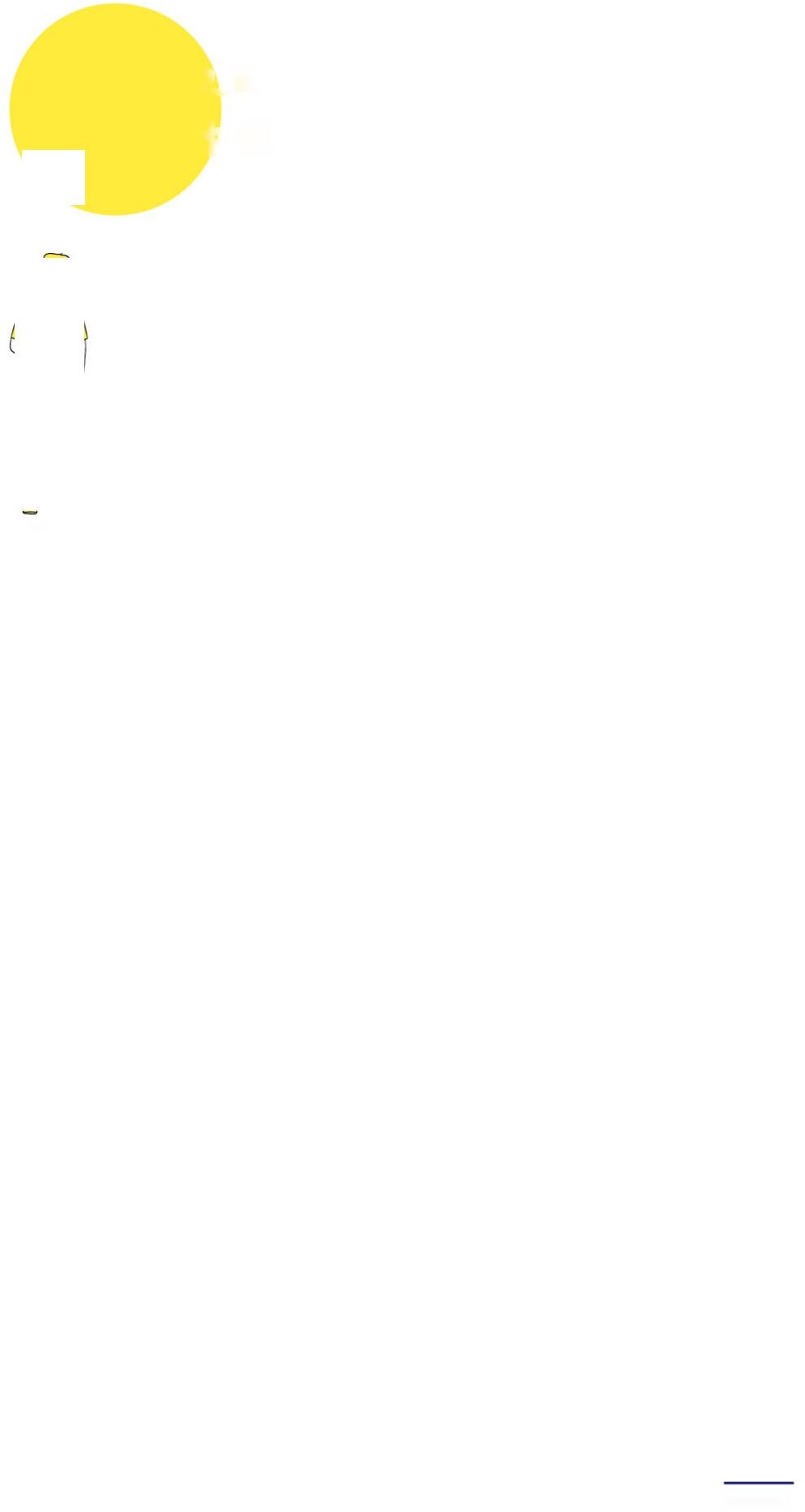
067/068

없고 마음만 타들어 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글을 쓰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나의 선택들 때문에 생긴

후회되는 일들을 적어 보며 나를 위로하고，과거의 후회들을 정리하며 이제는 아문 상처들을 딛고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20살，성인이 되었으니 더는 어리광을 피울 수 없다 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고， 후회와 마주할 때도 성숙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위로받고 싶습니다.



# 사진으로 남겨 뒀어야 했는데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사소한 후회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하겠 습니다.

어린 시절，체험학습을 갈 때면 선생님들은 열심히 우리 사진 *을* 찍어 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햇빛은 쨍쨍하니 눈은 뜨기 힘들지，억지로 웃어야 하니 어색하지，사진 찍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어느 날，진로 선생님께 질문했습니다.

“왜 자꾸 체험학습 와서 햇빛도 쨍쨍한데 사진을 찍는 거예 요? 선생님들도 귀찮지 않으세요?”

진로 선생님은 남는 건 사진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두 가지 의도가 있었던 것 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사라지지만，사진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일 거고，또 학 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 속에 저장하면 되는

069/070

거 아닌가? 왜 사진만이 남는다는 거지?

어린 시절에 아름다운 벚나무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도 사람들은 벚나무 사진을 쉴 새 없이 찍더군요. 의아해했 습니다. 그냥 눈에 담고 기억으로 간직하면 되지 굳이 사진을

왜 찍는거지?

사소하지만 이런 일마저 후회가 됩니다. 사람들이 기억에 남기지 않고 왜 사진을 찍을까 생막했던 것도 기억나고, 그게 벚나무였다는 것도 기억나지만 시간이 지나니 다른 세세한 것들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사진을 찍었더라면 그 아 름다웠던 풍경을 다시 기억해 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얼마 전，중학교 시절 국어 선생님께서 만들어 놓은 네이버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제 친구들의 사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꽃을 심던 일，사진을 찍었던 일，떠나간 선생님들， 소식이 끊긴 친구들，모두가 떠올랐습니다. 사진을 보자 오랫 동안 잊고 있던 일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이미 멀어져 되돌

릴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저는 울었습니다.

정말 사진만 남는구나. 사진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 두 사라지는구나 싶었습니 다.



# 한번더 연습했더라면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전 교생이 총 40명밖에 안 돼서 모두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가 골고루 들아갔습니다. 덕분에 저도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었습 니다.

우리 학교는 울진군에서 개최하는 학생 체육대회에 꼭 참가 했었습니다. 신청만 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어서 딱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제■게 투포환 선수로 참가하기를 권유하 셨습니다. 유달리 덩치가 컸기 때문일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렇 게 모인 학생들을 방과 후에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했습니다. 날쌘 친구들은 100m, 800m 계주를 연습했고，저는 투포환 연습을 했습니다.

071/072

하지만 포환 대신 탱탱볼로 연습했습니다. 아마 작은 학교라 돈이 얼마 없었기 때문일 검니다. 인근 중학교 체육관을 빌려 서 연습할 때도 있었고，학교 밖 운동장에서 할 때도 있었습 니다.

처음으로 포환을 만져본 건 학교 밖 운동장에서 연습할 때

였습니다. 포환은 탱탱볼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탱탱볼로는 멀리 던질 수 있었지만，포환은 달 랐습니다. 같은 힘으로 던져도 포환은 상상 이상으로 가까운 곳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힘껏 던져봤자 ■겨우 몇m 밖에 안 나갔고，저는 자신감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회 당일의 긴장감은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길고 지루했던 회장님의 연설을 끝으로 대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 *은* 계주를 1 준비를 했고 저는 긴장을 풀려고 애썼습니다.

투포환 경기를 시작한다는 안내 방송에 저는 경기 구역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저랑 덩치가 비슷한 친구들이 많이 있 었습니다. 제 *앞* 4명 정도가 먼저 투포환을 던졌고，모두 정말 잘 던지는 것 갈•았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무서웠습니다. 제



대로 던지지 못할까 보h 연습한 게 아무런 효과가 없을까 보

저는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선생님들께 배운 대로 포환 을 힘껏 밀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한 탓인지 첫 번째는

요즘젊은것들 침 묵

선을 밟아 Om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포환을 세 번 던지고，그중 더 높은 기록을 점수로 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직은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었기에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겠다고 마음을 다잡고 뒤로 가 줄을 섰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민장한 탓인지 선을 밟았고 다시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도 정말 긴장했습니다. 잘하는 친구들 앞에서 망신 만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이번에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투포환을 던졌습니다.

정말 잘 던진 거 같았습니다. 내가 원하던 대로 몸이 따라주 었다고 생막했습니다. 그러나 공은 멀리 나아가지 못했습니 다. 기록은 7m 정도로 너무 아쉬운 성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잘 한거라고 자신을 위로하며 다른 사람들이 던지

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3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기가 끝나고 우리 학교 선수단 쪽으로 걸어 가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3등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 님들은 모두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고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쉬움의 눈물이었을까요? 조금 더 노력했다면 1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

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1등을 못 했으니 내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 자신에게 실망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동메달은 정말로 멋이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1등，2등을 해서 멋들어진 금메달과 은메달을 받는데，저는

고작 동메달이라니….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자존심은 높았 고 자만심도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울었던 거 갈•습니다.

몇 주 후 제가 군 대표로 선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등이랑 2등이 반칙을 써서 탈락이 된 ■거죠. 별생각 없었습니 다. 군 대표가 중요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고，그냥 군 대표를 하라니 그런가 보다 했을 뿐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도 대회에서 1등을 하면 일기와 숙제를 일주일 감면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매일매일 일 기를 써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일기 쓰기를 정말 귀창아

했기에，일주일이나 감면해 주신다는 말에 겨우 마음을 다잡

았습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아는 형과 버스로 두 시간 걸리는 곳에 있 는 울진중학교에 투포환 연습을 하러 갔습니다. 너무 멀어 귀 찮다는 생각뿐이었고，토요일 아침에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하 고 있지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연습하러 가보니 같은 나이의 친구 한 명과 중학생 형이 있

었습니다. 친구는 어떤 종목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중학생 형은 창 던지기를 했는데 그 모습이 정말로 멋져 보였 습니다. 자세를 잡고 조금씩 앞으로 나가며 창을 힘껏 던지

면，창이 정말 높고 멀리 날아가 빠르게 땅에 꽂혔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모습에 자극받았던 걸 까요? 그래도 그때는 조금은 열심히 했던 거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연습하고 드디어 대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먼저 다른 경기들을 구경했습니다. 해머던지기가 특히 멋있었습니 다. 덩치 큰 형들이 엄청나게 큰 공을 정말 멀리 던지는 모습 과 공이 날까가는 커다란 소리가 기억납니 다.

투포환 경기가 시 작되자 저는 또다시 긴장했습니 다. 저보다

압도적으로 큰 키의 선수들은 감히 초등학생이라 보이지 않 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축됐고 마음이 졸아들기 시 작했습니다. 그리고 떠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공을 던 졌는지，어떻게 자리에 들아왔는지，다만，8등으로 꼴찌를 했 다는 사실과 대히가 끝나고 돌아가는 코치님의 차 안에서 잠 든 기억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나질 않습니다.

두고두고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제게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운도 따라주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지 않았는데도 3등을 했고，1, 2등이 실격되는 바람에 3등인데도 울진군 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왜 그랬을까요?

지금에서야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었던 탓인지 저는 투포환에 대하여 별생각이 없었고 학교 대표， 군 대표가 중요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데，원하지도 않았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게 된 귀찮은 일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 같습니다. 간절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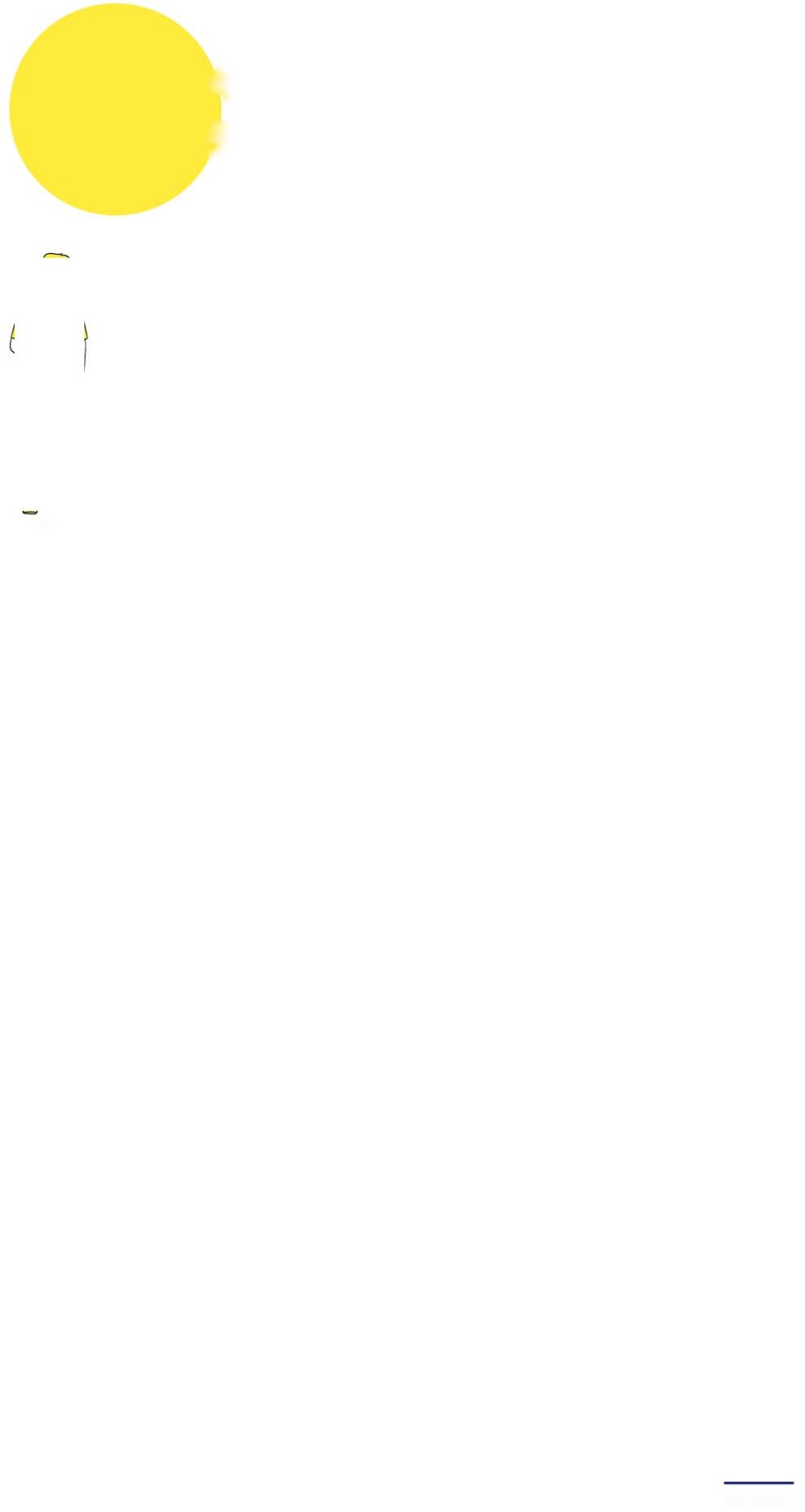
않았으니 연습도 열심히 하지 않았고，그러니 당연히 결과가 만족스러울 리 없었습니다.

아마 나는 노력해 봤자 제대로 못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한 기대를 해 봤자 안되는 건 안 된다는 생각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군 대 표가 된 게 제 실력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라는 생각에 제 실력에 대한자신감도 없었던 것 갈•습니다.

아니，반대로 그냥 해도 다 잘될 거라는 조금 오만한 기대

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특별하다고 생 각했던 거 같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조금 더 특별한 주인공，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무엇을 하든 다 잘 풀릴 거

고，대충대충 살아도 잘 살아질 거라는 바보 같은 생각 말입 니다.



# 게임 속 갈등 풀지 못한 오해

후회는 자신의 선택으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엔 제 가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잊고 싶은 기억이지만 몇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고 있는 기억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게임을 즐겼습니다. 초등학교 1학 년일 때부터 ■게임을 했고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교류했습니 다. 게임만이 제 세상인 거 같았습니다.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 과 본격적으로 어울리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5학년부터입니다.

다른 사탐들과 힘을 합쳐 마을을 만들고 건물도 지으며，다른 마을과 싸우거나 교류도 하면서 살아가는 게임이었습니다.

그 게임을 처음 시작했을 때，저를 환영해 주는 사람들，자신 의 마을에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점 점 더 깊게 게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A가 촌장인 마을에 정착했고，그 마을의 사람들과도 점차 친해졌습니다.

077/078

제가 들어간 마을의 촌장 A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었습 니다. 재있고 유쾌했습니다. 떠들썩한 게 좋았고 게임에서 저 를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았습니다. 저는 저와 나이도 비슷한 그 형에게 많이 의지했습니다.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 고 친해지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친해졌습 니다. 동시에 여러 사람과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혼자 마을을 만들어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혼자 마을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마 을을 만들어 운영하고 싶기도 했고 다른 사람을 마을에 들이 지 않고 혼자서 지내고 싶기도 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촌 장 A의 마을과도 계속 교류하면서요.

그러다 B 마을의 사람들과도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가 친하게 지내는 두 마을이 서로 친해지길 바랐습니다. 하지 만 두 마을의 관계가 점점 틀어지더니 결국 두 마을 간에 싸 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중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두 마을 다 감싸주는 애매한 입장이 되어 있었 습니다.

원래 제가 속해 있던 A 마을에선 저에게 돌아오라고 했습 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만든 마을도 마음에 들었고，혼자 생 활하는 것이 더 편했기에 돌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와 친

했던 촌장 A는 그게 못마땅했던지，저를 스파이로 낙인찍고 메시지도 모두 차단해 버렸습니다. 저는 히•가 났습니다. 스파 이 짓이라고 할만한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도 스파이로 몰 리고 차단을 당하니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이전부터 저를 의심하는 정황은 있었지만 저는 결백했기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지나가는 사소한 해프닝일 거라 생각했고 때가 되면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저와의 모든 메시 지와 연락을 차단한 것입니다. 오해를 풀 생각조차 없다는 뜻 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컸습니다. 아，정 따윈 없었구나. 우린 친구도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에 그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 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는 A 마을에 관한 정보를 B 마을에 얘기하게 되었고，그 결과 A 마을의 기지가 하나 파괴된 것

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A는 저를 단체 대화 방에 초대했고，저 는 거기에서 9명의 사람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네가 사람이냐，우리와의 인연은 별것이 아니었 느냐，네가 뭔데 그따위로 행동하느냐 등등，모진 말을 들어 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79/080

어린 제게 그 일은 정말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 하면 별것 아닐 수 있겠지만，그때는 그랬습니다. 뒤늦게 정 말로 내가 잘못한 거 맞구나 싶었고，나의 선택이 이러한 결

과를 불러왔다는 생각에 저는 방황했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더욱 소심해졌고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처럼 느껴졌기에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버렸고，밤마다 저 자신을 원망하고 그들을 원망했습 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은 들이킬 수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 그 친구들은 이미 저를 잊어버렸거나 그 사건을 한순간에 있었던 일 정도로만 생각할 지도 모르겠 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로 큰 후회이자 지금까지 상처 로 남아있는 일입니다. 차라리 게임을 하지 않았더라면，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내가 잘 해결했더라면，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었더라면，A 마을의 정보들을 B 마을에 얘기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그랬다면 A와는 계 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욕을 먹 고 상처를 입지도 않았을 검니다.



## 운전면허가 뭐라고

최근에도 저는 잊지 못할 후회를 또 한 가지 만들었습니다.

대학교 입학을 앞둔 2월，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아빠와 연습 *을* 나갔습니다. 정말로 하기 싫었고 무서웠습니다. 제가 실수 라도 하면 저도 다치고，옆자리에 타고 계신 아빠도 다치고，차

가 고장이 날 것이라는 생각이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속 10km로 달리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하기 싫고 무서웠나 봅니다.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저는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1분에 한 번씩 내뱉었습니다. 아빠 는 참다못해 그럴 거면 운전 그냥 하지 말라고 화를 내시고는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저는 운전면허를 따고 싶은 생각이 아직 은 없 었 습 니 다 . 운 전 면 허 는 나중에 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같은* 건 시간 날 때 따두는 게 좋다는 엄마의 말씀에 반강제로 시작했습니다.

081/082

원하지 않는 일， 잘하지도 못하는 일을 연습하는 것도 힘들

고 지치는데 내가 왜 아빠한테 화까지 들어먹어야 하는 거냐 는 생 각 에 서 러 웠 습 니 다 . 울 면 서 아 빠 에 게 열 변 을 토 했 습 니

다.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아빠와 엄마 누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며， 집으로 들아 가는 20 분 내내 쏟아놓았습니다. 아빠는 “ 그만해라， 미안하 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저를 내려주셨습니다.

아 빠 와 의 다 툼 이 후 화 해 하 지 않 고 겨 울 방 학 이 끝 났 습 니 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여 본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학 에 서 의 첫 여 름 방 학 이 시 작 되 고 본 가 에 내 려 갔 을 때 까 지 도 저 는 아 빠 와 일 절 말 을 하 지 않 는 상 태 였 습 니 다 . 죄 송 한 마

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섭섭한 것도 남아있었기에 집에 도 착했을 때도 인사만 드리고 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는 저에게 술이나 한잔하러 가자고 하셨습 니다. 맥주를 한 잔씩 시키고 안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저는 입 을 꾹 다 물고 있었습니다. 그 어색한 침묵을 깨고 말을 먼 저 꺼낸 건 아빠였습니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미안하다. 운전면허 강요는 안할게.”

그 말을 듣자마자 죄송한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 일을 천천히 잊고 있었지만， 아 빠는 계속해서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다는 것이 정말 로 죄 송 했 습 니 다 . 저 는 괜 창 다 고 ， 제 가 욱 해 서 한 말 이 니 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제 가 먼 저 사 과 를 드 렸 어 야 했 는 데 아 빠 가 먼 저 사 과 하 시 니 암 이 편 치 않 았 습 니 다 . 아 빠 에 게 그 렇 게 화 를 냈 던 것 도 후회되고， 아빠한테 화를 낸 사실을 지금까지 마음에 담아두

게 했다는 점 또한 후회됩니다.

남은 방학 동안 아빠오ᅡ 이틀에 한 번씩 술을 마시러 나갔고 아빠와의 관계는 점점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끝

나 기 전 무 사 히 운 전 면 허 를 땄 고 ， 아 빠 는 그 런 저 를 축 하 해 주셨습니다.



## 에필로그

글을 쓰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후 회하고 있구나. 후회에 대해 다른 사람이 쓴 글도 많이 읽어봤 습니다. 왜 저런 일로 후회하는 거지? 별것도 아닌데?

글을 쓰기 위해 과거를 떠올리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나 의 후회들을 다시 꺼내보는 게 두려웠고， 그 후회들을 떠올리 면서 제가 부끄럽고 한심스러워져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기로 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글쓰기 일 자체도 어려웠지만，떠올리기 싫었던 기억，외면하고 있었던 기억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업이 많았습니다. 잡생각이 많은 탓인지 별것도 아닌 일에도 수십 가지 부정적인 가능성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생각하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회하다 보면 심한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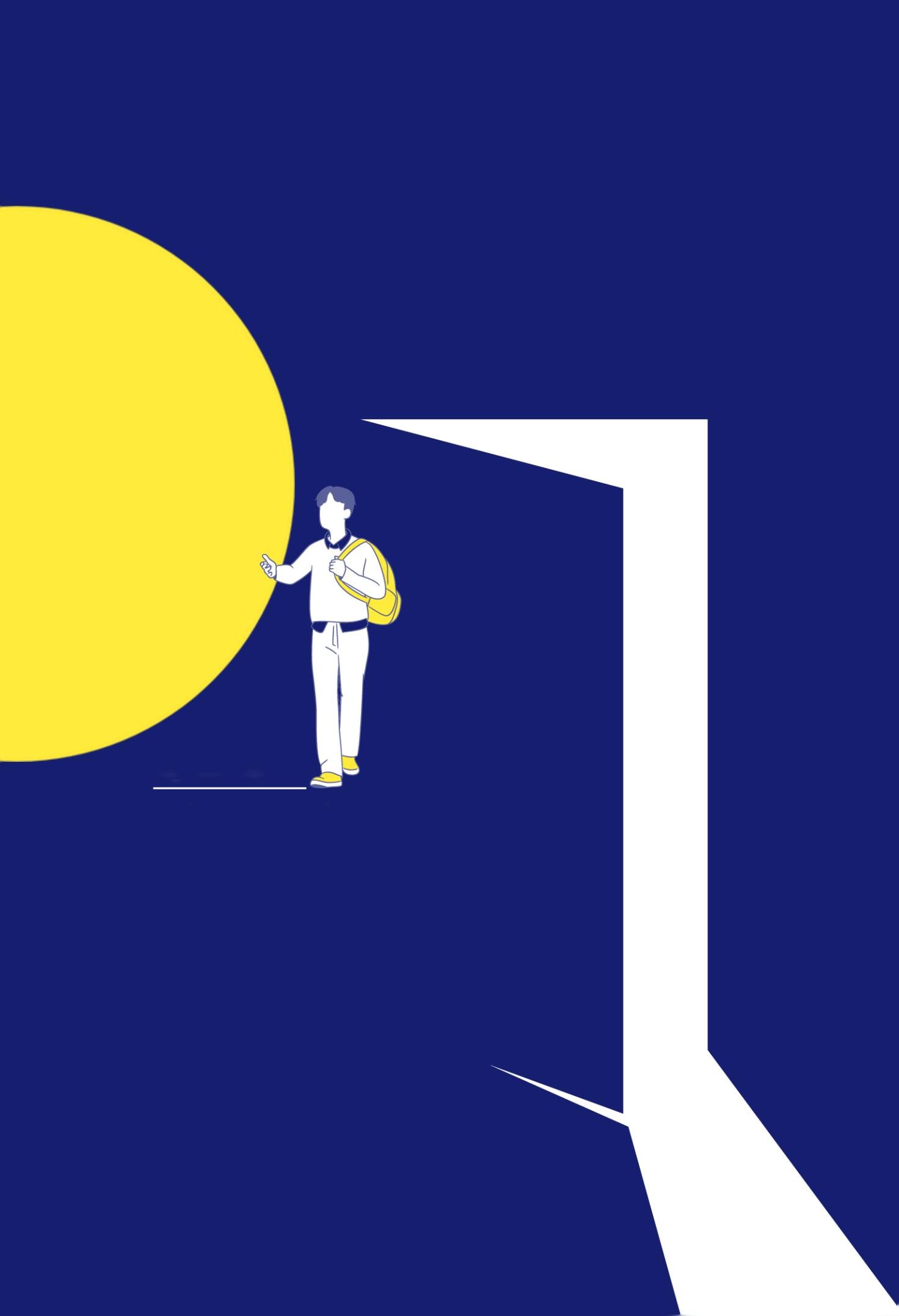
요즘젊은것들 침 묵

라면，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깊은 후회는 자기반성이 아 닌 나를 갉아먹는 자괴감을 낳고， 그러한 감정들은 나아갈 힘 조차 앗아갑니다. 저는 많은 후회를 해왔지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고대에 대한 집착에 지나지 않는 것 이 었습니다. 아무리 울부짖고 후회를 마음 속으로 삼켜도 바 뀌는 거 없이 저의 마음과 생막만 망가져 갈 뿐이었습니다.

집 밖의 고양이들의 울음소리，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 오토 바이 여러 대가 빠르• 게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이 웃고 떠드 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내가 후회하 는 동안에도 세상은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후회에 사 로 잡 힌 사 람 들 은 과 거 에 사 로 잡 혀 앞 으 로 나 아 가 지 못 합 니다.

하지만 후회를 이겨내려 하지 마세요. 후회는 이겨낼 수 없 습 니 다 . 그 저 후 회 를 인 정 하 고 나 아 가 는 것 ， 후 회 에 머 물 지 않 고 자 신 을 용 서 하 는 것 ， 그 리 고 후 회 를 교 훈 삼 아 자 신 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만이 가능합니다.

하루하루 사소한 후회가 늘어가고 하루하루 후회들을 잊어 갑 니 다. 그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우리가 완 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환 since 2001

지어진 이름에 부끄럽지 않기I，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연인과 맺 어진 인연들에 감사하며，잊고 살던 나의 꿈을 위해 때로는 누 군가에게 도움을 받고，때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새장에

갇혀 세상을 바라보던 날들을 기억하고 새로운 깃털이 자라 더 넓은 세상으로 자유로이 비행하며 살아가는 난춘지려\_緩春之旅가 되려 합니다. 꿈을 위한 발걸음이 무검고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어도，잠시 멈춰서 긴 여정을 함께할 동료들을 만들고 부족 한 부분을 서로 채워가며 걸어가려 합니다.



피터 팬

어른이 되어야만 했던，피터 팬 089

나의 직업은 095

너는나의큰 자랑이다 199

한 번만더잡아줬으면 103

함께 대국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107 지는법을배운적이없어서 no 최선보다는최고를꿈꾸던아이 112

벌써 저리 강해지려 해서 우짜노 114

좆같은세상이다，친구야 H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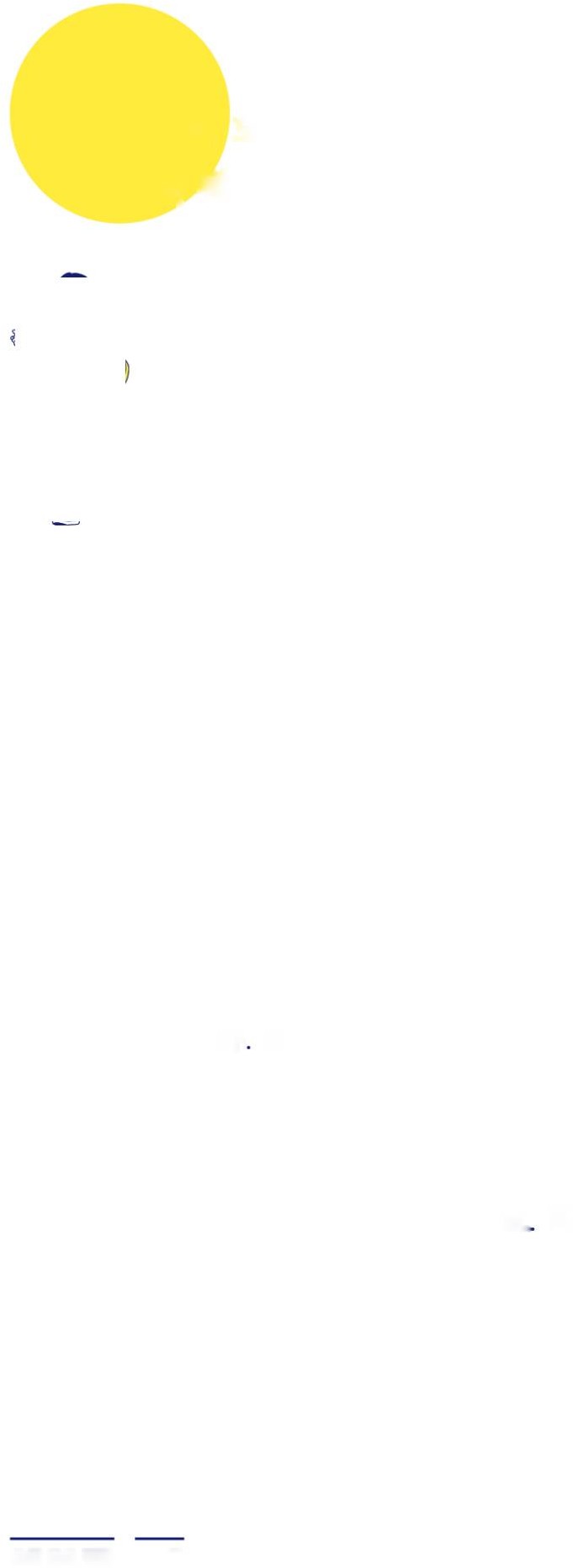
바둑은예와 도야 124

껍 데기만남은허수아비는될 수없잖아 129

당신의꿈을포기하지마세요 134

뭐라도되려한다 138

에필로그 142



## 어른이 되어야만 했던 회터 팬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 어른들은 어쩌면 곁모습만 멀쩡한，속 은 어린아이일지도 모른다. 각박한 사회 속에서 주입식교육과 끊임없는 경쟁에 지쳐 자신의 진짜 모습과 속마음을 숨긴 채 살아가는 곁모습만 나이가 든， 아직 속은 어린아이. 남자들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든다고 했다.

“애들은 몰라도 돼. 어른들이야기야.”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어딜 가 더라도 “ 애들은 애들다워야지.” “ 너 나이 땐 나가서 친구들이 랑 뛰어노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 왜 그럴까? 그야 아이들 은 사회의 민낯을 아직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애들은 몰라도 된다는 어른들의 말에 “ 왜요? 저 도 알고 싶은데요? 저도 알건 다 알아요”라고 말하는，“애들은

애들다워야지.” 라는 말에 “ 저 애 아닌데요? 제 이름 한자로도 쓸 수 있는데요?”라고 말하는，요즘 말로는 당돌한 MZ였다.

요즘 젊은 것들 서 환

그 당시는 “ 아， 저 골통 새끼” 라고 불리는， 꿀밤을 때리고 싶 지만 가만 보면 입지만은 않은 아이였다.

나는 명을 잘 때린다. 자주 명해져서 허공을 가만히 바라볼 때가 종종 있는데 딱히 깊은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큰 고 민 이 있 는 것 도 아 니 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무슨 고민이 있 냐 ， 무 슨 생 각 하 냐 고 묻 곤 한 다 . 그 런 질 문 을 받 을 때 마 다 항 상 곤 란 하 다 . 그 냥 정 말 로 아 무 생 막 없 이 명 해 져 서 그 런 건데， 자칫 잘못 대답했다간 상대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기에 대충 둘러대곤 한다. 그러다 보니 능청스러움이 늘고， 타인의 눈 을 의 식 하 기 시작했다. 곁모습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도 그 때부터인 듯하다. 생각해 보면 사춘기였던가 싶기도 하다.

이때부터 나만의 기준이 생겼다. 옷은 태도다. 같은 옷을 입 어 도 얼 마 나 옷 매 무 새 를 잘 다 듬 냐 에 따 라 그 사 람 의 생 활 방식이나 마음가짐이 보인다. 옷을 어떻■게 입냐에 따라 사람 이 볼품없어 보이기도 하고 단정하고 말끔해 보이기도 한다. 아 무 리 급 하 고 피 곤 해 도 거 울 한 번 보 고 옷 매 무 새 를 다 듬 거 나 머리 정돈할 시간이 없을까. 흐트러진 옷과 형클어진 머리 를 방 치 하 면 정 말 그 런 식 으 로 변 해 버 린 다 . 한 번 도 흔 들 린 적 없는, 나의 철칙이다.

남들은 나에게 사회성이 좋다， 밝다고 말하지만 아니다. 타 인 의 시 선 을 의 식 하 고 사 회 적 인 눈 치 를 보 는 것 일 뿐 ， 나 는 예민하고 괴팍하며 자존심도 세다. 안 그런 척하는 거지 고집 도 욕심도 많고 질투， 짜증도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보면 나는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편이다.

나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다. 내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 고， 귀창은 감정 소모는 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늘 혼자 다 닌다. 누군가 내게 밥을 함께 먹자고 청하면 앞에서는 웃으며 좋 다 하 지 만 사 실 은 혼 자 있 고 싶 다 . 그 래 서 밥 을 먹 자 는 사 람에게는 술을 먹자고 한다. 술이 조금 들어가면 그나마 갈•이 있는 것이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런 성격 때문인지， 혼자만의 시간이 참 좋다. 누군가에게 잘 보 일 필 요 도 없 고 , 집 에 서 맛 있 는 음 식 을 먹 으 며 혼 자 좋

아 하 는 방 송 을 보 고 빨 래 도 하 고 게 임 도 하 고 그 렇 게 혼 자 보 내 는 시 간 이 좋 다 . 무 엇 보 다 행 복 한 시 간 은 혼 자 소 파 에 앉거나 누워 이어폰을 꽃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망상을 하는 시간이 다.

그 망 상 속 에 서 나 는 무 엇 이 든 될 수 있 다 . 세 상 을 휩 쓸 고 다니는 무정부주의자， 세계를 지배하는 독재자， 엄청 유명한 연예인，노벨상，필즈상을 휩쓴 천재 등，원하면 모든 것이 될 수 있 고 무 엇 이 든 이 룰 수 있 다 . 그 러 다 질 리 면 다 시 현 실 로



요즘젊은것들 서 환

돌아와 운동을 다녀오고 공부를 한다.

망상을 좋아하는 나의 어린 시절 꿈은 모험가였다. 단순히 게임 캐릭터를 보고 갖게 된 꿈이었다. 어느날은 한 나라의 왕 이 되고 싶었고，또 어느 날은 초능력자가 되고 싶기도 했다. 학교에서 ‘나의 꿈’을 적는 칸에 내가 저런 것들을 적어내면

담임선생님은 나를 불러 혼을 냈다. 그러면서 적당히 아무 직 업이나 적으라고 다그쳤다.

“여민 장래 희망이 아니라 꿈을 적으라고 쓰여 있는데요?”

나는 선생님께 되물었고， 선생님은 귀창다는 듯 한숨을 크 게 쉬고는 ‘ 나의 꿈’ 이라는 글자를 볼펜으로 쓱쓱 긋고는 ‘ 장 래 희망’이라 고쳐 쓰고는 이렇게 말했다.

“자，이제 됐지? 다시 써.”

나는 틀틀대며 “ 해적” 이라 쓰고 교무실에서 도망쳐 나왔다. 나 중 에 보 니 선 생 님 은 ‘ 나 의 꿈 ’ 을 적 는 칸 에 선 생 님 이 라 는 직 업 을 써 놓 으 셨 다 . 그 래 서 나 는 몇 년 동 안 정 말 선 생 님을 꿈꿨다.

학교 벤치에 앉아 친구에게 말했다.

“ 내 가 정 말 선 생 님 이 된다면 다른사람의 꿈을 절대 무시하 지 않을 거야. 내 제자들에게 낭만을 알려줄 거야.”

그 러 면 친 구 들 은 “ 너 같 은 꼴 통 이 무 슨 ! 담 배 나 끊 고 학 교 나 잘 나와.”라며 질책한다.

나 를 잘 모 르 는 사 람 들 은 어 린 나 이 에 담 배 를 시 작 해 학교 도 잘 나 오 지 않 는 나 를 문 제 아 라 고 여 겼 다 . 학 교 밖 에 서 의 나 는 복 잡 한 문 제 를 마 주 할 때 마 다 귀 창 아 하 며 빠 져 나 갈 구 명만을 찾는 부모님의 뺀질이다.

요즘 아이들은 꿈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갈•다. 선생님이 꿈이

뭐 냐 고 물 어 보 면 우 리 때 는 “ 저 는 우 주 비 행 사 가 될 래 요 . ” ， “저는 대통령!”，“저는 그냥 부자요!”라는 밑도 끝도 없는，말 그대로 그냥 꿈이 입에서 튀어나왔다. 하지만 요즘 애들은 검

사 나 의 사 가 되 고 싶 어 한 다 는 말을 들었다. 심지어 “ 저는 나

중 에 얼 마 얼 마 를 벌 어 서 건 물 을 사 고 ， 부 동 산 어 쩌 고 저 쩌 고….” 라고 한단다. 저런 말들이 고작 8살， 또는 13살짜리 아 이들 입에서 나왔다니. 뛰어놀고 코딱지나 파며， 흙 안 주워 먹 는 것 에 칭 찬 을 해 줘 야 할 나 이 에 부 모 의 기 대 를 등 에 업

고 식 사 도 거 른 채 학 원 에 간 다 . 저 런 게 꿈 이 라 니 나 로 서 는

당혹스럽다.

검사， 의사， 판사 같은 건 꿈이 아닌 장래 희망이다. 검사와 판사가 꿈이라 말하는 아이들이 사회를 알기나 할까? 자신의 꿈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부모의 장래 희망인 걸 알까?



요즘 젊은 것들 서 환

내가 꿈을 찾고 싶어 하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는 젊은 시 절 의 낭 만 을 강 조 ， 아 니 강 요 하 는 이 유 는 짧 디 짧 은 학 창 시 절의 추억이 내 인생의 추억 전부라 그런 것일까? 내 꿈의 정

당성을 찾기 위해서일까?



## 나의 직업은

나는 넓은 세상을 마음껏 누비는 모험가를 꿈꾸지만，내 직업 은 프로 바둑 기사다.

바둑을 배운 건 5살 때였다. 명절날，무료함에 겨운 친할아버 지가 재미 삼아 내게 바둑을 가르치셨다. 할아버지에게 바둑을 배운지 2주만에 30년 넘게 바둑을 둬온 할아버지를 이겼다. 이

후 할아버지가 다니던 기원에 따라갔고， 의도치 않게 노련한 영감들을 뒤집히게 만들었고，그 기원을 시작으로 부산에 있는 기원들을 도장 깨기 하며 다니다 지금의 스승님을 만났다.

스승님은 자기 제자가 되어 프로가 되어보지 않겠냐 물었다. 그때 내 나이 6살. 난 망설였고，할아버지는 기쁘신 듯 손뻑을 치셨고， 어머니는 가을 나무에 물든 붉은 단풍처럼 얼굴을 붉 히며 화를 내셨다. 난 천재，영재，신동으로 불리며 환대받았고， 달콤한 환호 속에서 그들의 천재 소년으로 남기를 선택했다.

요즘젊은것들 서 환

그렇게 내 인생은 가로 42 cm, 세로 45 cm의 나무판 위에 가로세로 19 개의 줄이 만든 361 개의 교차점 위에 서게 되었 다. 180■개의 백돌과 181가］의 흑돌이 내 인생의 전부로 자리

잡았다.

강아지 발처럼 작은 발로 서울 땅을 처음 밟던 날，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다. 눈에 익은 풍경들 대신 낯설고 새로운 풍경 들. 우리집이 아니라 낯선 사람의 집에서 살아가야 한다 생각

하니 무섭고 가족들이 보고 싶었다. 밤마다 \* 복기를 하다 말고

울 었 다 . 낯 선 느 낌 을 넘 어 왠 지 무 서 워 져 서 ， 그 저 가 족 들 이 너무 보고 싶어서 울다 잠이 들었다. 그렇게 우는 횟수가 10 번，6번，4번，2번으로 줄어들며 나는 어른이 도1어갔다. 감정 도 메말라가고 눈빛도 흐릿해져 갔다.

어느새 내 꿈의 자리를 직업이 차지하고 있었다. 8 년하고 2 개월. 방구석에 찌든 담배 내음， 내 것이지만 아직은 몸에 맞 지 않아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양복. 나는 바둑기사가 되어있 었다. 약간의 재능이 있다는 이유로 교복 대신 양복을， 학교 대 신 담 배 냄 새 가 찌 든 기 원 에 서 ， 책 걸 상 대 신 바 둑 판 앞 에 앉아 있었다.

한국기원 소속의 정식 연구생이 되고，프로기사가 되었다.

\* 바둑에서 한 번 두고 난 바독의 판국올 비평하기 위하여 두었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놓아 봄

처 음 으 로 정 식 대 국 장에 들어갔을 때가 기억난다. 넓은 대 강당 곳곳에 책상과 의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다 큰 어 른 들 이 심 각 한 얼 굴 로 담 배 를 뻑 뻑 피 워 대 며 나 무 판 떼 기 위 에 돌 들 을 늘 어 트 려 놓 는 모 습 을 보 니 그 상 황 이 너 무 우 스 웠다.

“나도 조금 있으면 저기 앉아서 저러고 있겠지?”

상상만 해도 바보 같아 보여 피식 웃음이 새어 나왔다.

나의 공식적인 첫 상대는 대전에서 온 11 살 형이었다. 나보 다 3살이 많았다. 그 형은 별 의미 없이 고가］ 를 좌우로 흔드 는 습관을 지니고 있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들이 지 만 아 직 경 험 이 매 우 부 족 한 그 때 의 나 는 거 슬 리 는 게 많 았다/착수（着手）할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내는 둥땡이，신경 질적으로 바득판에 들을 착수하는 골초 아저씨， 책상이 요동 칠 정 도 로 다 리 를 떨 어 지 진 이 난 게 아 닌 싶 어 재 난 문자를

확인하게 하는 안전지립이 누나 등등.

첫 대국에서 나는 그 형을 이겼다. 대전에서 온 형은 나보다 3 살이나 많았으면서， 졌다는 이유로 자신보다 어린 내 앞에 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 우리나라가 독립한 지가 언젠데 저리도 슬피 울까，무시하며 다음 상대를 기다렸다.

다음은 나이가 지긋한 중년의 아저씨.\*1불계승으로 이겼다.

\* 바득을 둘 때 바득판 위에 돌을 놓는 것을 말한다

\*\* 상대가 기권했올 때 받게되는 승리 판정



요즘젊은것들 서 환

다음도，그다음도，연이어 이겼다.

놀랐다. 사람들이 아직 어린 나를 안쓰럽게 여기고，귀여워서 져주는 줄 알았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 어림도 없는 소리다.

나는 고개를 살짝 들어 올려 건너편에 앉아 있는 사람의 표 정을 보기만 해도 감정이 생생히 느껴졌다. 보기 안쓰러울 만 큼 너 무 나 잘 느껴졌다. 고작 보드게임에서 진 것뿐인데， 칼

에 베이고 총에 맞은 것처럼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나라

를 잃은 것처럼 대성통곡을 한다. 나도 기분이 이상해지고， 평소와 달리 심장의 울림이 머리를 두드린다. 급히 집으로 돌 아 와 내 방 에 뛰 어 들 어 간 다 . 오 늘 어 땠 匕스 승 님 의 물 음 을 뒤 로 하 고 내 방 으 로 직 행 한 다 . 옷 장 구 석 에 자 리 를 잡 고

옷장의 문을 닫아 어둠을 만든 후에야 안심하고 참았던 감정 들을 혼자 어둠 속에서 표정으로 지어본다. 그러면 이유도 모 를 눈 물 이 빵 을 타 고 흘 러 내 려 합 짤 한 슬 픔 이 내 미 각 을 때 린다.

097/98



## 너는 나의 큰 자랑이다

스승님 댁에서 문하생으로 지내던 시절，나는 동네에서 알아 주는 악동이었다. 5살에 바둑을 시작해서， 7살에 서울에 올라 와 10살에 프로가 되었으니 친구가 있을 리 없었다. 재있는 일

도 없었다. 나는 늘 무시하려고 애썼지만， 체면을 중시하고 차 분함을 강요하는 듯한 분위기가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스승님 댁은 2층 주택이었고，마당에는 연못이 있었다. 거기 에는 크고 아름다운 비단잉어 6 마리가 있었는데 이름도 있었 다. 처음 스승님 집에 간 날， 스승님은 자신의 아주 큰 자랑거 리인 비단잉어 6마리의 어종과 이름을 일일이 알려주셨다. 하

지만，나는 곧 있으면 나의 먹이가 될 생태계 최약체 어류들에 게는 관심이 없어 그 따위는 가법게 무시했다.

여름의 끝을 알리는 날카로운 매미 울음소리가 처절하던 어느 여름날 아침에 일어나니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방 한가운데는

요즘젊은것들 서 환

큰 암 먹 고 구 입 했 다 는 구 두 쇠 할 아 버 지 같 은 스 승 님 의 낚 싯 대 가 자 랑 스 럽 게 전 시 되 어 있 었 다 . 나 는 이 딴 게 큰 암 먹 고 살 만큼 비싼 건가 싶어 들어도 보고，휘둘러도 보고，혹시 마

녀의 빗자루처럼 비행 기능이 있지는 않을까 싶어 가랑이 사 이 에 끼 워 도 보 았 다 . 그 러 다 싫 증 이 나 이 웃 집 또 다 른 구두

쇠 영감의 사과나무를 후드려 쳐 사과를 훔쳐먹곤 담벼락 위 에 둥하게 걸터앉아 “ 이제 뭐 하지….” 되뇌며 스승님이 돌아 오기를 기다렸다.

“첨벙.”

갑작스러운 소리에 아래를 내려다보니 재있어 보이는 것이 연못에서 유유히 나를 반기고 있었다.

“저거다!!”

마치 ‘ 유레카’ 를 외치는 아르키메데스처럼 연못으로 달려가 떡 밥 을 뿌 리 고 는 낚 시 를 시 작 했 다 . 한 마 리 , 두 마 리 ， 세 마 리 . 정 신 없 이 고 기 를 낚 다 보 니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나 는 앰 싸 게 낚 싯 대 를 방 에 던 져 놓 고 는 공 부 하 는 척 을 했

다. 방에 널브러져 있는 낚싯대를 본 스승님은 틀툴대셨지만

나를 혼내시지는 않았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밖에서 나는 비명소리에 마당으 로 나가 보니 잔뜩 성난 스승님이 나를 보며 “ 이 쥐방울만 한

놈!” 하며 연못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가 잡았다 놓아준 비단 잉어 3마리가 낚싯바늘 때문에 입이 뚫려 굶어 죽은 것이다.

순 간 위 험 을 감 지 한 나 는 얼 른 대 국 장 으 로 도 망 갔 다 . 스 승 님은 나에게는 구두쇠 영감탱이지만 기원에서는 명인이라 불 리는 프로기사였다.

“ 사 범 이 이 번 에 또 어 떤 사 고 를 치 신 거 에 요 ? 명 인 님 께 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던데… ”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다. 식은땀이 흘렀다. 보통은 큰 사고 를 쳐도 일터까지는 그 감정을 갖고 오는 분이 아닌데 이번에 는 아마 히• 가 많이 나신 모양이었다. 나는 연구생 시절 동기 에게 자초지종을 설 명하고 조언을 구했다.

“ 어떻게 할까? 그냥 이렇게 된 거 딱 3 마리니까 구워서 저 녁에 그걸로 밥 먹자 할까?”

“미쳤어??”

“아…. 구워 먹는건 좀그런가?” “좀 그런 수준이 아니자“.”

“아무래도 좀 그렇지? 그러면 튀겨 먹을까?”

“ 년 진짜 오늘 집에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거야. 들어보니까 그거 엄청 비싸대.”

“그러니까，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계속 먹을 생각만 하네. 죄송하다 그래. 근데 일본에서는

요즘 젊은 것들 서 환

잉어로 회도 먹는다고 하던데 맛이 있으려나?”

쓸모있는 조언을 얻지는 못했다. 집으로 들아가니 스승님께 서 역 시 나 툇마루에 앉아 심술 두꺼비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 고 있 었 다 . 나 는 쭈 뻣 쭈 뻣 다 가 가 고 개 를 숙 이 고 기 어 들 어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 송해요…”

스 승 님 은 담 배 를 입 에 무 시 곤 자 기 옆 에 앉 으 라 는 듯 이 마 릇바닥을 툭툭 쳤다.

“ 네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내가 말했지? 저 비단잉어는

내 큰자랑이라고.” “네….”

“어이구…. 이 골통….”

그러더니 스승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셨다.

“ 이젠 네가 내 큰 자랑이니 너무 풀이 죽어있지는 말거라.” “근데 아직 3마리 남았잖아요.”

“ 이럴 땐 네， 하고 마는 거야. 그리고 크거나 작거나 생명을 죽게 했으니，사죄하고 함께 묻어주러 가자.”

그날 저녁 나는 아주 작은 생 명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배웠 다. 그■리고 스승님의 어떤 값비싼 물건보다도 더 큰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 한 번만 더 잡아줬으면

다들 부모의 보살림이 한창 필요한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지 내는 나를 안쓰러워했다. 그러면서도 10 살에 프로기사가 된 나를 부러워했다. 그런 내■게 어느새 습관이 하나 생겼다. 머리 카락을 뱅뱅 꼬아 뜯는 습관. 찾아보니 애정결핍이라고 했다.

나름의 재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다. 흰 들을 착수 하면 검은 들이 착수하고，한 수 두 수 두다 보면 한 국（局）이 끝난다. 그렇게 한 국，한 국 바둑을 두며 시간이 흘러갔다. 프 로가 된 지 6년이 넘어가고 있었다. 무언가에 슬퍼할 시간도， 무 언 가 에 분 노 할 시 간 도 없 는 끔 찍 한 일 상 의 반 복 에 도 망 칠 수 없는 수라도에 감힌 느낌이 들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나 이가 되니，스승님께서는 이제 슬슬 학교를 정리하고，더욱 바 둑에 집중 하라 하셨다.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오랜 동네 친구들을 만났다. 친구들 을 보며 내가 그렇게까지 사회성이 모자란 사람은 아닌가 보다

요즘 젊은 것들 서 환

생각할 때쯤，친구 한 명이 말했다.

“ 근데 년 어째 돈도 많은 녀석이 밥도 안 먹고 다니냐， 점점 더 말라간다. 그러다 증발하겠네.”

다른 친구도，갑자기 정색하며 추궁한다.

“내가 얼마 전에，우리 아버지 바둑 보시길래 같이 봤는데， 너 표정 진짜 힘들어 보이더라. 가곰은 쉬는 게 좋지 않겠냐?”

맨날 당구로 짜장면，노래방 내기나 하던 코흘리개 자식들

이…. 걱정은 참으로 고마웠지만 “괜찮아，안 죽어.”라며 웃어 넘겼다. 그때만 해도 머리가 더 굳기 전에，또 다른 천재가 나

오기 전에 원가를 더 해놓고 싶은 마음이 컸다.

친 구 들 과 헤 어 지 고 오 랜 만 에 본 가 로 귀 가 했 다 . 어 색 한 인 사를 마치고， 내 방 침대에 엎드려 지나온 시간을 곱씹어 보

았다.

학 창 시 절 의 추 억 ? 그 런 건 없 었 다 . 놀 이 공 원 에 가 본 적 도 없다. 배운 거라곤 바둑을 둘 때 표정을 숨기는 것，웃으며 영 감들 비위나 맞춰주는 것， 너무 일찍 시작해 버린 담배뿐. 인 생에 한 번뿐인 학창 시절을 이런 식으로 보내도 괜찮냐고 사 람들이 묻지만 나는…. 나는-、

상관없다. 그 추억들을 돈으로 샀다.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학창 시절 추억이 아 예 없 는 것 도 아 니 다 . 국 가 에 서 요 구 하 는 의 무 출 석 일 수 가

있기에 가끔은 바쁜 일정에 억지로 등교해 낯선 시선을 버틴 추억이 있다.

날이 밝고 모교를 찾아갔다.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처 음 본 나의 담임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래도 괜찮냐고 물었지 만，고등학교는 대학을 가고 진로를 잘 선택하기 위한 곳이

고 나는 이미 직업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으니 학업을 더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다.

초 등 학 교 ， 중 학 교 는 의 무 교 육 이 라 자 퇴 를 못 하 지 만 고 등

학 교부터는 아니다. 게다가 애초에 학교라는 곳은 주입식 교 육 을 통 해 아 직 어 린 학 생 들 을 사 회 화 시 켜 국 가 의 일 꾼 으 로 만들기 위한 곳이라 그 당시에는 생막했다. 나는 직업도 있고

돈 도 원 만 큼 은 벌 었 다 . 무 엇 보 다 지 금 내 가 하 는 일 에 있 어 학교라는 곳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막했다.

서 울 로 올 라 가 는 비 행 기 안 에 서 생 각 했 다 . 담 임 선 생 님 이 한 번만 더 잡아 줬으면 좋았겠다고. 사실 점점 더 내가 하는 일 에 자 신 이 없 어 진 다 고 . 힘 들 다 고 . 나 는 천 재 가 아 니 니 날 그런 식으로 칭찬하고 띄워주지 말아 달라고.

속으로 꾹꾹 눌러 담은 이런 힘든 감정들이 나중에라도 똥처 럼 밑으로 나오길 바랐다.



요즘 젊은 것들 서 환

다 시 일 상 으 로 들 아 왔 다 . 대 국 이 끝 나 면 버 스 를 타고 집으 로 들아와 그날의 복기를 했다. 그러다 보면 날이 밝아 오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대국장으로 갔다.

나는 노력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한다. 노력은 누구나 한 다 . 아 무 리 막 장 인 생 을 살 고 있 다 한 들 그 들 도 그 들 만 의 노 력을 한다. 다만 실패해서 도태될 뿐이다. 노력도 재능이라는 말이 싫다.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가끔 웃긴 질문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바둑을 잘 둘 수 있 냐고， 그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안 힘드냐고. 당연히 힘들지 나도 사람인더L 나는 항상 길■은 대답을 한다

“간단해. 피를 토할 정도로 죽을 만큼 노력하면 돼 ”

6 시간， 7 시간 앉아 있으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까? 프로인 우리도 힘든데…. 그냥 견디는 거다. 우리는 돈을 받고 바둑을 두는 프로니까. 관련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에

게는 당연히 어려운 일이다. 우리도 그와 비슷할 뿐인데，저런 질문을 받으면 존중받는 느낌이라 고마우면서 조금 웃기다.

105/106



## 국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이 밝아 오고，침대에서 일어나 화장 실로 간다. 거울을 보며 생각한다.

“내가이 일을얼마나더 할수있을까….”

옷을 입는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 갑옷을 입듯 넥타이를 졸라 맨다. 내 목을 조를 듯이. 구두를 신고 문을 연다. 분명 몸에 두

른 것 중 무거운 것은 없다. 그럼에도 몸이 무거워 앞으로 나아 가기가 힘들다. 가벼운 가죽 구두는 쇳덩이처럼 바닥에 달라붙 어 내 몸이 토르의 몰니르 같다. 내가 선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

라서 무거운 건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택시를 탄다.

대국장까지 택시로 20분 남짓한 시간，나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안락사를 앞둔 늙은 도사면 같은 심정이다. 대국장에 들어서기 전 상대 대국자와 인사한다.

나는 19살，내 눈앞에 있는 저 아이는 14살이 되었다 한다.

“한 수배우겠습니다. 사범님!”

요즘 젊은 것들 서 환

“응，나도 한수 배우마.”

짧 고 형 식 적 인 인 사 가 끝 나 면 우 리 는 자 리 에 앉 는 다 . 오 늘 따라 주변의 공기가 차갑다. 대국장에 들어서기 전， 전자제품 *을* 모두 밖에 두고， 금속 탐지기로 한 번 더 검사를 받은 후，

대국장으로 입장한다.

대국이 시작되고，주변은 고요해진다.

멀리 있는 카메라 감독님의 손목시계 초침 소리가 거슬리기 시 작 할 무 렵 ， 상 대 에 게 외 통 수 를 맞 았 다 . 마 치 “ 방 심 하 셨 네 요!” 혹은 “집중 안 하시나요?”라고 묻는 듯한 수다.

“쯧….”

담 배 를 꺼 내 물 고 불 을 붙 이 려 니 감 독 이 뛰 어 와 요 즘 에 는 대국장 안에서 금연이란다. 이럴 줄 알고 전자담배를 꺼내 피 우니，다들 눈을 질끈 감는다.

대국이 중단되고， 그날 나는 품위유지 위반， 방송관련법 위

반으로 징계를 받아 벌금을 냈다. 스승님께 꼴통이라며 꿀밤 을 한 대 맞은 후，다시 대국장으로 들어갔다.

“미안하다.”

후배에게 말했다.

“ 괜찮습니다. 사범님， 제가 바묵을 시작한 게， 사범님을 보 고 존경해 시작했습니다. 함께 대국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107/108

아 니 이 자 식 이 … . 부 끄 러 운 마 음 에 붉어진 얼굴을 감추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가만히 바둑판을 보고 있자니， 아까 존경한다는 녀석의 말

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는 수들이 놓여있다. 아까의 외통수 도 마찬가지다. 끝낼 수 있음에도 끝내지 않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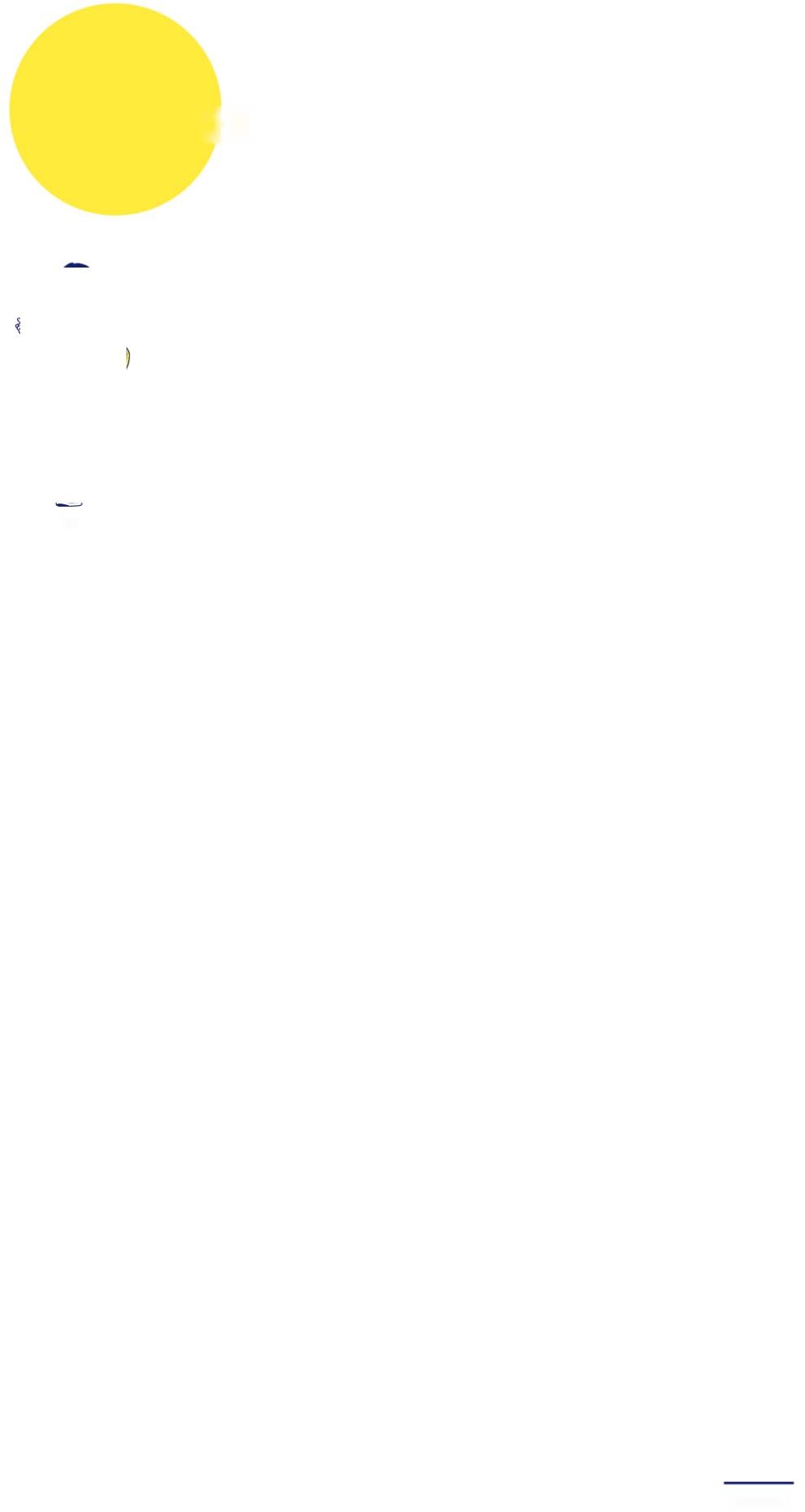
나도 다시 집중하여 마음을 다해 상대했고， 상대가 들을 던 지며 대국은 내 승리로 끝났다. 복기하다가 물었다.

“년 왜 바둑 하냐? 잘해서? 주위에서 하라고 해서?”

“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진심으로，언젠가 사범님과 바 둑으로\*사활（死活）을 벌이고 싶었습니다.”

그러곤 활짝 웃는 그 아이의 미소가 너무나 아름다워 그 빛 으로 구원받는 느낌이었다.

\* 죽기와 살기라는 뜻으로, 어떤 중대한 문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지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처음으로 대국에서 진 날，아쉽게 진 날，더 두고 싶지만，지고

싶지 않지만 결국 들을 던져야 했던 날. 대국을 하던 매 순간의 감정이 아직도 생생하다.

어릴 적부터 천재 소리를 들어온 내가 처음으로 진 날，“한 수 배웁니다.”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 자존심이 상했 다. 그러더니 어느 날에는 한참 어린 후배가 치고 올라와 나를

무참히 밟고 내가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곳으로 올라갔다. 나 는 한참을 올려보다 좌절했다.

그렇게 나는 무너져 내려갔다. 어느 날에는 이겼지만， 어느

날엔 졌다. 그런 날이면 집으로 돌아와 집안 가장 구석진 곳에 쭈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벽을 보다 다시 대국장으로 나갔다.

모든 스포츠가 그러하듯，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넘어지고 다치는 법이라고 한다.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지만 나는 그런 것을 배운 적이 없었다. 배우려고 하지

109/110

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질 못한다. 진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을 배운다 는 것 또한 상상할 수 없었다. 오만이었다. 나는 어느새 오만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다.

세상은 참 불합리하다고 생막했다. 고작 몇 판 졌다고 세상이 무너질 듯 상심한 나를 보고 누군가는 정신력이 약해 빠져 그렇 다고 할 테지만， 프로의 입장은 다르다. 대국장에서 천재라고 불리는，나보다 어린아이가 자기 몸만 한 의자에 곧게 편 허리

에 양쪽 무릎에 손을 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어찜 저리 도 아름다운 도살자가 있을까， 생각하곤 한다. 꾸며진 천재가 아닌 진따 천재를 만나면 단단하고 높은 벽이 앞에 가로막힌 것 처럼 숨이 턱턱 막히고，그 벽의 높이를가늠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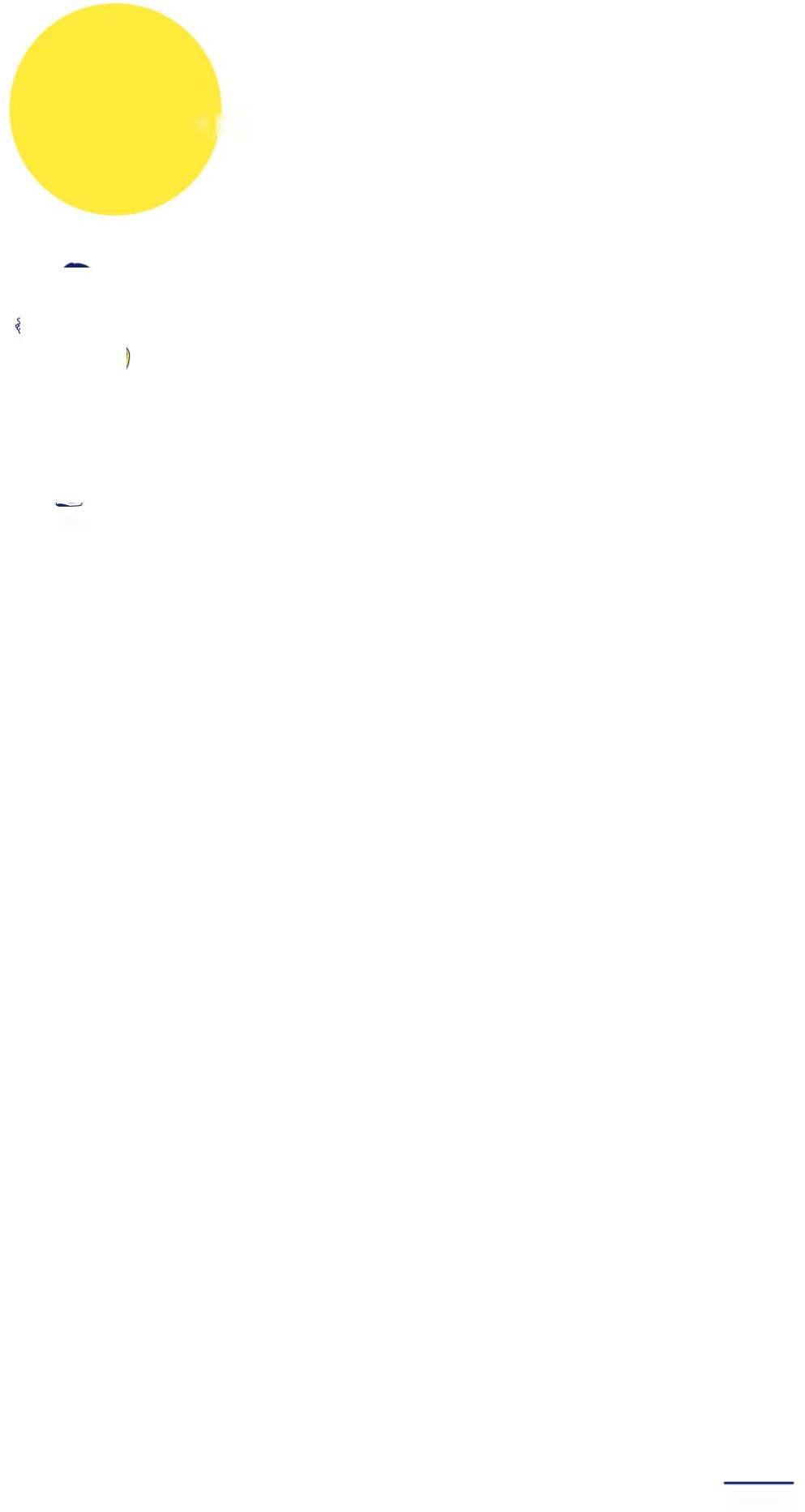
담배를 입에 물고 천천히 생각했다. 바둑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원하고 즐거워서 하는 건지，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내 학창 시절을 모두 버리고 평생토록 샌님 소리나 들으며 판떼기 위에 돌을 늘어놓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만 그만둘 순 없었 다. 돈이 꽤 벌려서，그간의 노력이 아쉬워서，바둑 한답시고 초

* 중•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질 않고 배운 것 하나 없는 내가 사

회로 내던져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시간과 감정들이 모여 나에게 슬럼프로 들아왔다.



## 최선보다는 최고를 꿈꾸던 아이

너무 일찍 사회로 나온 나를 향한 남들의 동정 어린 시선도， 한때 영재다， 천재다 불렸지만， 지금은 새로운 인재들을 위한

디딤판이 되어 너무 일찍 퇴물이 되어가는 나를 향한 쑤군거림 도 익숙해져 갈 무렵，문득 정신을 차려보니，올라가기엔 너무

높고， 내려가기엔 너무 두려워， 결국 어중간한 위치에 엉거주 춤서 있는 내가 보였다.

온기도 불빛도 무엇도 없는 집으로 돌아와 방바닥에 털썩 누

웠다. 곁만 화려한 벽길이 시계의 째막째막 소리가 *온* 집안을 시끄럽게 하고 있었다. 며칠 전 시끄럽게 느껴져 바닥에 던져

놓 은 부 모 님 께 독립 선물로 받은 시계였다. 들아누워 담배를 입에 물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한숨과 동시에 휴대전 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딱히 잔소리하시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냥 보기 싫어 연락을 무시했다.

111/112

“카톡，카톡，카톡.”

연이은 소리에 “아니 이 0卜줌마가 진짜!” 잔뜩 짜증이 나 바지 에 있는 휴대전화를 확 꺼내 들었다. 카톡창에는 어머니가 보내 주신 영상 링크가 떠 있었다.

“너 어릴 때 처음 인터뷰하던 영상이 있길래，귀여워서….“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가 옛날에 한 헛소리가 뭐가 귀엽다고

저러시는 건지 틀틀대며 “난 모르겠네.”라고 회신을 하고는 35

초의 영상을틀었다.

영상 속의 나는 똘망똘망한 눈과 못곳이 선 자세로，처음 하는 방송국의 인터뷰에 잔뜩 민장해 있었다. 입에 물었던 담배를 끄 고 실없논 웃음을 지으며 영상을 봤다.

“저는 나중에 최선을 다한 사람보다는 최고였던 사람으로 기

억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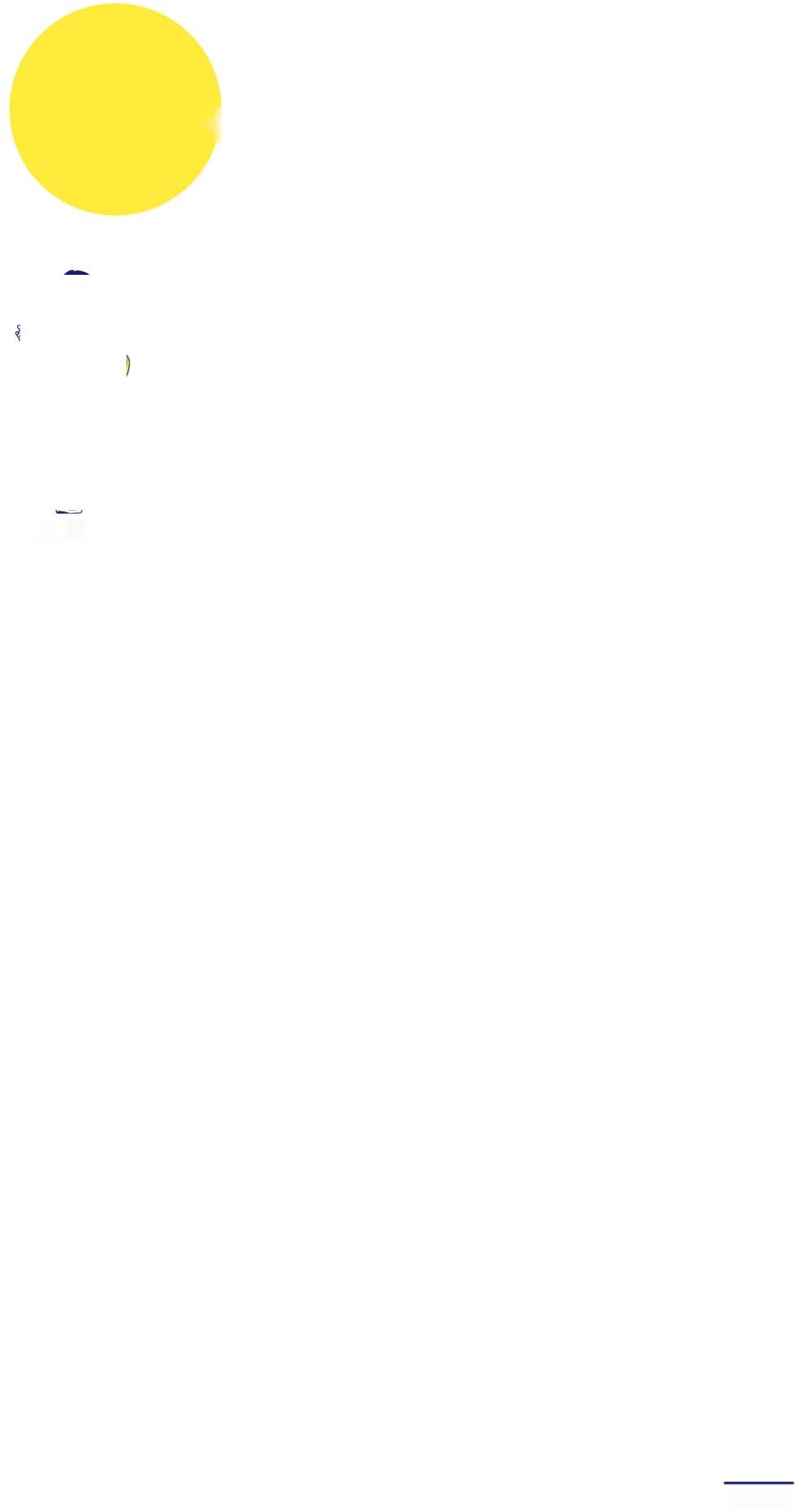
‘허…. 저 쪼끄마한 게 당차네. 누군지 참으로 똘똘하구나.” 뿌듯해하며 보다가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소파로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혼자 줄담배를 피우며 울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

는 게 분해서，저 때의 나에게 미안해서，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은 내가 한심해서，이 모든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웃기고 멍청해 보여서，온갖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어이가 없어서.

그런 복잡한 감정들에 잠식되어 담배만 태우던 그날이 아마

내가 잊고 있던 꿈을 찾고 싶다고 생각한 날이 분명하다.



## 벌써 저리 강해지려 해서 우짜노

요즘 아이들에게 너무나 생소한 장소， 기원. 바둑을 두는 곳 이다. 요즘은 잘 없지만，내가 어릴 때는 피시방에만 가도 컴퓨 터 앞에 담배 갑을 쌓아두고 피워대는 아저씨가 많았다. 그 시 절을 잘 아는 친구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구릿한 담배 찌든 내 가 떠오를 렌데 기원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나는 냄새가 딱 그

렇다. 기원에서는 다들 담배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는 듯 모 든 사람이 마주 보고 앉아서 담배를 뻑뻑 피워대는 통에，마치 공장 굴뚝의 연기처럼 곳곳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난다.

처음 담배를 시작한 건 12살，13살쯤이다. 바둑은 예술이라 스승님께 배웠다. 스승님은 예와 도를 알려면 술과 담배를 해 야 한다고 하셨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한량 같은 새끼들.’

분위기에 이끌린 건지 호기심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어느새

113/114

나의 징지와 중지 사이에서도 하얗고 가느다란 담배가 연기를 피워 올리며 내 눈을 거슬리게 한다.

“어이구 사범님，아직 장초인데 버리시게요?”

한 모금도 빨지 않은 담배를 재떨이에 내려놓으려는 나에■게 앞에 앉은 선배가 묻는다.

“선배님이 태우시게요?”

되물으니 이렇게 말한다.

“야，피워 봐. 안 죽어. 나중엔 그거 없는 바둑을 못 둬요.” 지탈…. 담배 없이 바둑을 못 두면 은퇴해야지 무슨 헛소리를

저리도 당당히 하는가 생각하면서도，궁금해 한번 빨아보니 메

궤하게 기분 나쁜 연기가 내 혓바닥을 따갑게 한다. 앞에선 “삼 켜，삼켜야지!” 난리들이다.

한참을 그렇게 피워대니 하도 기침을 해대서 토악질이 나오려

한다. 그러면서도 살짝 기분 좋은 어지러움이 나를 유혹한다. “이래서 마약을 하는 건가? 담배도 불법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

가?” 말하면서도 나는 어느새 담배에 서서히 중독 도1어갔다. 폐 암，후두암 같은 질병에 걸리면 어쩌나，난 운이 좋은 편도 아닌 데 젊은 나이에 요절하면 어쩌나 하는 고민도 하루 이틀. 다음 날이 되면 나도 모르게 담배를 찾고 있었다.

그렇게 난 내가 욕하던 한량이 되어 수많은 굴뚝의 하나가 담 당하게 되어 버렸다.

가족들은 내가 바둑을 두는 것을 싫어한다. 특히 어머니는 혐 오 수준으로 싫어하신다. 이유를 물어도 “ 너 그 썩은 동태눈말 보기 싫어서 그런다 왜 !”라고만 하시고 화제를 들린다. 응원 좀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짜증 내며 담배를 물다 아차! 싶었다. “이것 때문에 싫어하시나? 그래도 난 골초는 아닌데….” 물론 거짓말이다.

큰 세계대회 결승전에 가족을 초대했다. 자랑하고 싶어서였 다. 상대 대국자와 인사하는 무대 위에서 가족들을 바라봤다.

‘역시나, 그럼 그렇지.’

난 고개를 들렸다. 마지못해 형에게 끌려왔지만，신기한 듯 주 위를 둘러보시는 아버지，그냥 해맑은 *형，*그리고 비어 있는 옆 자리. 그날 나는 세계대회에서 우승했지만 끝내 어머니는 오지

않으셨다.

보여드리고 증명하고 싶었다. 실망스러운 마음을 안고 복도를 걷다가 어디선가 귀신의 집에서나 들릴법한 소리가 들려왔다. 비상계단 쪽이었다. 화들짝 놀라 슬쩍 문을 열어보니 어머니가 계단에 주저앉아 최대한 소리를 죽여 울고 계셨다. 평소 여장 부같이 강인하고 한없이 단단해 보이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 고 계셨다. 혹여 누군가에게 들킬까 봐 숨죽여 우신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최대한 어머니랑 멀리 떨어지려

뒤도 안 들아 보고 뛰어갔다. 가슴을 열어 당장이라도 심장을 꺼내 긁고 싶을 만큼 간지러웠고, 얼굴이 터질 듯 뜨거워져 주먹 으로 내 허벅지를 마구 내리쳤다.

몰래 따라 나오신 아버지와자형（師兄）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내가 몰랐던 사실 하나를 이야기해 줬다. 그 얘기를 듣고 어머 니가 왜 그토록 바둑을 싫어하시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린 나이에 부모 품을 떠나 홀로 타지에서 겪을 아들 생각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다가 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올라와 내 가 대국하는 모습을 몰래 보고 가셨다고 한다. 어머니는 내 모 습이 너무나 싫으셨단다. 이겨도 기뻐하지 않고 다음 대국을 위 해 밤새 복기하는 것도，대국에서 지고 나면 몸에 있는 모든 내

장을 꺼내 발로 짓밟는 고통을 느끼는 듯한 표정을 보시는 것 도，눈이 죽고 마음이 죽어가는 내 모습을 보시는 것도 모두 싫

으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비로소 어머니가 보였다.

10살에 프로가 된 내가 너무 보고 싶어 어머니가 부산에서 서 울까지 한걸음에 달려오셨을 때，나는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다. 부모님을 만나면 바둑이고 뭐고， 프로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부모님을 따라 부산에 내려가고 싶어질 것 같았다. 아직 나약한

나를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다.

\* 같은 스승올 모시는 제자 중 자신보다 입문 시기가 빠른 남자를 일컫는다.

프로로서 좀 더 안정된 후에 부모님을 뵙고 싶었다. 그땐 그랬 다. 그런 나의 선택이 부모님께는 평생의 상처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그날 어머니는 부산으로 들아가는 차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자

책하셨다고한다.

“저 어린 내 새끼，벌써 저리 강해지려 해서 우짜노，아직은 더 어리광을 부리고 싶을 건데， 그때 허락하는 게 아니었는데 다 내 잘못이다. 내 새끼 불쌍하고 딱해서 우짜노.”



## 좇같은세상이다, 친구야

연구생 시절 나랑 동갑인 친구가 한 명 있었다. 지금의 내 성 격을 만들어 준， 내가 사귄 아주 소중한 첫 친구다. 우리는 동 향에 나이도 같아서 금방 친해졌다. 언제나 딸기우유를 나눠마 시며 농담 따먹기를 하곤 했다.

프로가 되는 방법 중 하나는 1 년에 딱 한 번 열리는 연구생

대회에서 우승하는 거다. 연구생 대회는 남자， 여자로 나누어 열렸고，남녀 우승자 1명씩만 프로로 데뷔를 시켜주는데，이 친 구는 항상 간발의 차로 떨어지곤 했다. 나는 연구생을 1 년도

하지 않고 프로가 되었지만，이 친구는 10년이 넘도록 연구생

이었다. 그래도 나를 만날 때면 항상 웃으며 “어이 샌님，담배 좀 끊어” 너스레를 떨곤 했다. 나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친구였다.

내가 중국，일본을 들아다니며 대국만 주구장창 하며 한참 바 삐 지낼 때，6개월 정도 연락이 뜸한 적이 있다. 외국에서 대국

요즘 젊은 것들 서 환

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전주에서 대국을 치른 날，피곤함에 절

어 있는데 연구생 시절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무 피곤해서 무시하고 담배를 피며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태우러 *온* 기원 소속 실장님이 담담하게 그 친구의 부고 를 전했다. 어머니와 동반자살. 사연은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뻔한 줄거리. 아버지는 사업 부도로 빚을 잔뜩 지고는 연락 두 절，어머니는 가정주부，그 친구는 바둑 한다고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와서 중졸에 장래가 너무 암담해서 그랬다 한다.

그날 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도，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도 않다. 다만，장례식장에 들어가니 연구생

시절 선배 한 명이 전부고，조의금을 받는 사람도，음식을 내어 주는 사람도，상주도 없었다는 것만 기억난다. 그렇게 렁 빈 빈 소에 덩그러니 앉아 그 친구 사진을 명하니 uh라보며 망소주를 마시고 하염없이 담배만 피워댔다.

다음날 있는 대국 일정을 미뤄준다고 했지만 나는 기권 처리 를 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는 발인 날까지 아무도 오지 않는 빈 소를 지켰다. 영정 사진 속 친구를 바라보며，“좇같은 세상이다.

그렇지?”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다가 “ 그때 기억나냐? 등신

아?” 라며 미친 척 웃었다.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텅 빈 빈소를

들아다니다 털퍼덕 바닥에 앉기도 하고，그 친구가 좋아한 가수 의 노래를 부르기도했다.

그렇게 발인을 지켜보곤 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섬뜩할 정도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일을 하고 공부하고 연구

회를 열어 다른 기사들과 연습을 했다. 그런 내 모습이 역겹고 토악질이 나왔지만，너무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살아가 기 시작했다. 마음은 씁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그* 친구에게 미안하기도 한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국에서 지고 온 날 밤 무서울 정도로 적막한 텅 빈 집에서 짙 은 어둠을 내리말고 달빛을 전등 삼아 복기하다 내 분에 못 이

* 겨 복기하던 바둑 판을 내려치거나，들을 집어 던지고 화내고，

자책하고, 부끄러워했다. 그런 날들이 지나면서 감정들이 무뎌 지고 절대로 들어서는 안될 감정들이 나를 덮친다. 익숙함，무언 가에 익숙해지고 무며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나에 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독이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시한 부 같은소리다.

승리에도 패배에도 익숙해지고，무뎌지면 나태해지고 무기력

해진다. 순식간에 온몸에 독이 퍼지는 감각이 들며，나는 다급히 날 자극할 무언가를 찾아 헤맨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머리를 쥐어뜯고，내 빵을때린다.

잠을 푹자지 못했던 때도 이때부터다. 나는 남들이 이루지 못 한 꿈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기에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는 책임

감인지 죄책감인지 모를 감정들이 내 몸 깊숙한 곳에서 뒤엉켜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 온갖 불안감과 압박감이 밧줄이 되어 내 몸을 조르고 있는 듯한 불쾌감이 들었고 머리는 복잡해져 다음 수가 읽히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깊은 한숨 같은 담배 연기를 내롱고는생각에 잠겼다. 대국에서 졌을 때의 감정을 다시 되새

겼다.

‘내가 쌓아온 것들이 모두 무너져 내린다면 나는 그 자리에 주 저앉아 있을 것인가，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전보다 훨 씬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쌓아 올릴 것인가. 나는 올라가야 한 다. 뒤처질 수 없다. 나 또한 짊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 더 이 상 물러서고 싶지 않다.’

이런 생막들이 나를 더욱 조여왔고 나는 지지 않고，먹고 자는 것들을 줄이며 바둑에 열중했다.

하루는 24시간，먹고 자는 시간을 빼면 사람은 하루에 활동하

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化시간 남짓. 나는 먹고 자는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잠은 안 자면 좋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날에

는 바둑을 두다 말고 바닥에 쓰러져 2시간 정도만 잤다. 식사는 언제나 김밥으로 때웠다. 대국 중에는 각설탕 크기로 나눠져 있 는 포도당 한 봉지를 녹차에 녹여 마셨다.

1년 넘게 김밥만 먹다가 과로와 영양실조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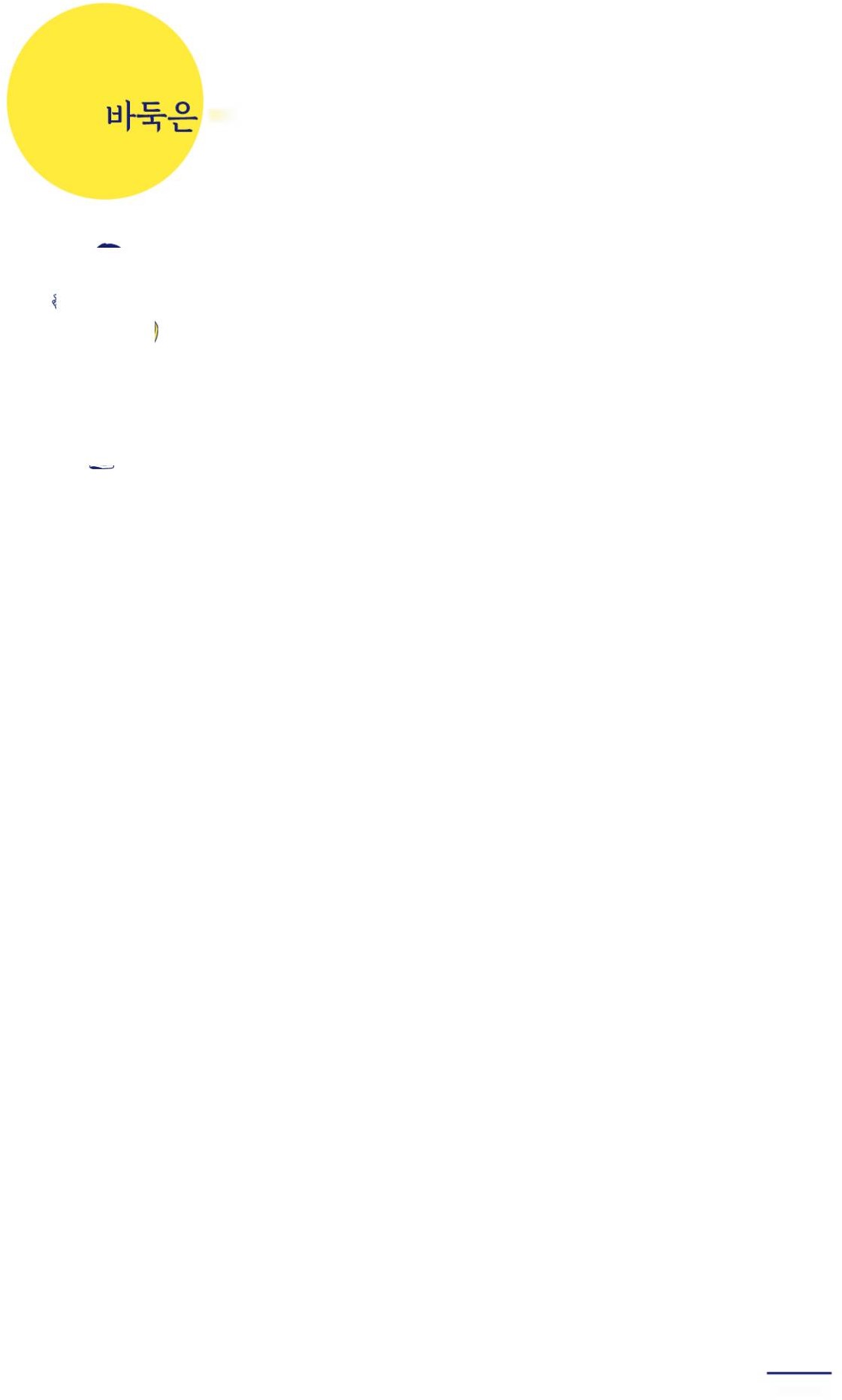
지기도 했다. 남들은 왜 저렇게까지 할까 싶었겠지만， 이때만 하 더 라 도 나 에 게 바 둑 은 얼 마 살 지 않 은 내 짧 은 인 생 의 전 부였다.

저 시 절 나 는 김 밥 이 란 단 연 코 완 벽 한 음식이라 생각했다.

김，밥，단무지，햄，시금치，우엉.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 있는 완전 식품 그 자체로 생각했지만， 의사인 친형에게 말했더니 볼 펜 으 로 나 를 찍 으 려 들 기 에 다 음 부 턴 안 그 러 겠 다 고 형 과 약속을 하고 말았다.

다음 진료 때는 꼭 저 돌필이에게 의사면허를 보여달라고 해 야겠다 생각하면서 습관적으로 김밥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돌려 돈까스집으로 갔다. 몰래 들고 온 돌팔이 의사의 카드로 시킨 고구마치즈 돈까스라 새우튀김을 씹으며，김밥 말고 어떤 음식 을 먹어야 효율이 높을까 궁리하다，*형을* 집이 아닌 병원에서 다

시 마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김밥 대신 기원 식당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렇게 나는 서서히 다시 본래의 나로 돌아가 고 있었다.



## 예와 도야

대국이 끝난 뒤 표정만으로는 승패를 가늠할 수 없다. 패자는 여태껏 쌓아온 것들이 모두 무너져 내렸으니 다시 쌓아가야한 다는 압박감 때문에， 승자는 다음 대국을 위한 준비와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며 위로 더 올려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승자나 패자 모두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다. 특히 나의 사형은 표정을 읽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처음 사형을 만난 날 이 기억난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스승님 집에 함께 숙식을 하며 바둑을 배우던 제자들이 많던 시절，그 집에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형

（師兄）이 있었다. 여리여리한 손목과 발목，밖을 얼마나 안 나 *간* 건지 모를 만큼 허여멀겋다 못해 창백한 피부，항상 마른 기 침을 달고 사는，가느다렇고 허약해 보이는 사람.

RPG 게임에서 자동사낭을 들리는 것처럼 방치형으로 제자를

대하는 스승님 곁에서， 항상 혼자서 깊게 연구하고 나에게 알

123/124

려주는 사형과 그렇게 배운 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바꾸어 연구 하는 나는 스승님께 최적화되어 있는 제자였다.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두 제자 모두 저리 훌륭하게 컸 나?” 물으면 “그냥，자기들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그러다 가곰 몇 판 같이 둬주면 알아서 잘하더라.” 라고 말하는 스승님은 악 덕 영감탱이이었다. 남들이 듣기에는 겸손한 말이지만 스승님은 사실을 말했을 것뿐인데，사람들은 스승님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 스승님이 나에게 제일 먼저 시킨 것은 저 여리여리한 사 람과 대국하는 것이었다. 아직 경험도 실력도 매우 부족한 나는

코웃음 치며 자리에 앉았고，나는 그렇게 내가 무시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보지도 못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졌다.

예민하고 까칠한 내 성격과 상극인 이 사람이 처음에는 싫었

다. 살짝 구부정한 허리와 흐리멍덩한 눈에 실없이 허허 쪼깨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눈에 거슬렸다.

마루에 걸터앉아 땅바닥을 줄지어 지나가는 ■개미들의 숫자들 을 세다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이내 개미굴 속으로 내 얼굴을 구겨 넣고 싶어졌다.

얼마나 건방지고 같잖거1 보였을까.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애가 육상선수에게 “ 근육도 별로 없고, 약해 보이니 내 가 그냥 이기겠는데?”라고 말한 꼴이다.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

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데 사형이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배 사범，부끄럽지?”

그 순간에도 나는 단순히 경험의 차이일 뿐이라는 내 생각을 들킨 것 ■같마 부끄러운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 나 에게 사형은

“바둑은 예와 도야. 스승님은 술이나 담배부터 들먹이시지만，

서로 마주 보고 앉았을 때 바둑판에서 서로의 노력이 빛을 발하 는 예술. 차이를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훗날을 기약하 고 더 낳은 길로 나아가는 도. 그게 내가 생각하는 예와 도야，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니 이해하기는 어려우려나…?”

사형은 싱긋 웃으며 밥 먹으러 가자고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고기와 햄을 먹고 싶다고 어리광을 부리는 내게 스승님께서는 꿀밤을 한 대 때리며 다음날 해주겠다고 하셨고，

사형은 아침 일찍 장을 봐 오겠다고 했다. 스승님의 투박한 애 정과 사형의 다정한 상냥함이 공존하는 새로운 ■가족이었다. *그*

러나 이 안락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형은 앓고 있던 지병을 이기지 못하고 요절했다. 그는 수수 한 사람이었지만 바둑은 하려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길지만 성품은 포근하고 온화했으며 참 강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사 형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웠다.

사형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슬럼프가 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예전과 달리 나도 지금은 조금 더 성장 했으니 사형의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 것 같다고，한

번만 더 당신과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하고 싶다고，나는 사형 의 장례식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은 냉혈한에 바둑만 두는 괴 물이냐고，남들이 다 그렇게 말해도 사형만큼은 나를 나로 봐줄

거냐고…. 묻고 싶고 하고 싶은 말들은 많지만，이제 더 이상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영원히 내 가슴속에 묻어 두어야 한다.

슬럼프에 빠진 나를 더 채찍질하던 때，은퇴를 앞둔 기사와 대 국을 한 적이 있다. 좀 있으면 은퇴할 사람이니 가뿐히 이기고 올라가겠지. 그러면 상금을 얼마나 더 받으려나. 그런 계산을

하며 대국장으로 들어갔다. 그간의 세월이 얼추 보일 듯한 그의

얼굴에 깊게 새겨진 주름들이 대국장의 환한 불빛들 아래 선명 하게 보였다. 나는 다 늙은 개를 목 졸라 죽이는 듯한 꺼림칙함 을느끼며 대국을시작했다.

시작부터 방어적인 기풍으로 돌을 놓는 그를 보며，역시 성격 대로 소심하게 둔다 생각하며 맞받아쳤다.

뭔가 잘못되었다 느민 건 내가 이겼다고 생각한 대국 후반부쯤 이었다. 소심하게 방어하기에 급급했다고 생각했던 수들이 점 점 내 목을 조여오고 있었고，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늙은 개의

목을 조르는 ■게 아니라 다 늙은 개가 노련하게 나를 조련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오만이 불러낸 최악의 수였다.

대국에서 지고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죽은 사형의 목소리 가 들려오는 듯했다.

“배 사범，부끄럽지?”

여기가 집인지 택시인지도 상관하지 않고 크게 울었다. 그간의 답답함과 죄책감， 책임감들이 모두 내 몸 바말으로 터져 나와 흩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슬럼프 속에서 나에게 가해지는 압박

과 의지했던 형과 친구의 죽음，아직 어린 내가 책임져야 할 것 들이 한꺼번에 터진 듯했다.

쉽 사 리 눈 물 이 멈 추 지 않 았 다 . 택시 기사님은 말없이 아주 천천히 다리 위를 달려 주셨다. 눈물 때문에 앞이 흐려져 건물 들의 불빛인지 밤하늘의 별빛인지 모를 빛들이 천천히 스쳐지 나갔다.



## 덥데기만 남은 허수아비는 될 수 없잖아

“바다는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봐야 한다. 그때가 가장 멋진 법이야.”

물고기는 잡지도 못하면서，바닷가 방파제에서 물고기들에게

무료 배식소를 운영하는 한 아저씨에게 들었던 말이다.

나는 화가 나거나 하던 일이 잘 안 풀리면 무작정 바다로 간 다. 집 근처이기도 하고 뻥 뚫린 드넓고,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 지 모를 곳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멍을 때리다 보면 마음이 조 금 편안해진다.

그날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아 맥주 한 캔을 들고 사람이 잘 없 는 바 닷 가 가장 구석에 앉아있었다. 그때 물고기 무료배식소 아저씨가 오더니 내 옆에 털썩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나 는 어색하기도 하고 설마 이 아저씨가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하 고 있다고 생각하나 싶어 먼저 말을 건넸다.

요즘 젊은 것들 서 환

“ 통이 비어 있는 걸 보니 오늘 해운대 물고기들 식사 다해서 저기 있는 아저씨들 집 가라고 해야겠네요.”

재있는 친구라며 ■멀낄거리며 웃더니 아저씨가 말했다. “바다가 참 멋지지?”

“자주 봐서 그런지 생막보다 별로네요，기분이 안 좋을 때 봐 서 그런가 봐요.”

“무슨 소리고，젊은 친구가 낭만이 없기I，그럴 때 바다를 봐야 진짜 멋진 거라. 물고기는 돈 주고 사무야겠네 지랄….”

아저씨는 혼잣말을 틀틀 뱉어내고 이내 자리를 떠났다. 명 때

리느라 제대로 보지 않은 바다를 그제야 자세히 바라봤다. “바다의 진가를 알긴，개둘똑같구먼.”

그렇다.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 당시 내 모습이 아주 힘

들어 보여 그런 건지，아니면 아저씨도사회에 치여 낚시와 바다 를 핑계 삼아 도피하고 싶으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날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었다.

국가가 합법적으로 알코올 복용을 승인할 나이가 되었을 즈 음，아버지와 집 근처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다. 문뜩 아버지의

꿈이 궁금해 눈치를 보다 물었다. “아빠，아빠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

“꿈? 까먹었다.”

“에이，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한번 정한 꿈은 잘 안 잊는다던 데? 안 웃을게.”

내가 조르자，아버지는 마지못해

“야구선수.，”

그러곤 바로 나에게 물으셨다. “니는?”

나는 살짝 당황했다. 옛날에 반항심으로 꿈을 해적이라 써서 선생님과 어머니에게 혼난 적이 있는 나였다.

“책이랑 관련된 일 하고 싶어，출판사 직원? 이런 거.” 그러자 아버지가 정색하시며 답했다.

“아니，인마! 장래 희망 말고 니 꿈!” 나는 당황했다. 뒤이어 아버지는

“그럼 출판사 직원 하는 꿈을 이루면，그 다음은? 뒤질 끼가?”

또 한 번 당황했지만 다년간 단련한 수준급 꼴통이라는 타이 틀을 가진 나는 간단히 받아 치며 다시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럼，아빠는? 꿈이 야구선수라며. 그거 이뤘으면 아빤 *그* 다

음계획이 있었어?” 아버지는 당황하시며

“야，내가 지금 야구선수냐? 니 같은 꼴통 놈 2명이나 키우는

아빠지. 그러느라 못 이뤘으니 꿈으로 남은 거다. 년 아니잖아， 더 크고 높은 꿈을 가지라고. 출판사 사장 이런 거. 그러면 나한

레 용돈도 많이 주고 을매나 좋노，바둑은 인제 그만하고.”

“잘 가다가 또 바둑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거 할게，출판사 사 장. 사장 되면 용돈 많이 줄게 엄마랑 여행가라.”

집에 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도통 오질 않았다. 수많은 생막

들이 오갔다，꿈이라는 것은 뭘까? 허무맹랑한 것들일까? 우리 가 어릴 때 말하던 대통령，우주비행사，왕 같은 거? 그럼 그런 걸 이룬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다른 꿈들이 있었을까?

“근데 아빠，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원하는 것만 이루면서 살아. 포기할 건 포기하고 살아야지”

“얼마 살아보지도 않은 놈이 까불기는. 인마，100세 시대에，암

만 포기하고 살 것들이 많다고 해도 꿈을 포기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아직 가지고 있다. 꿈마저 포기하면 껍데기만 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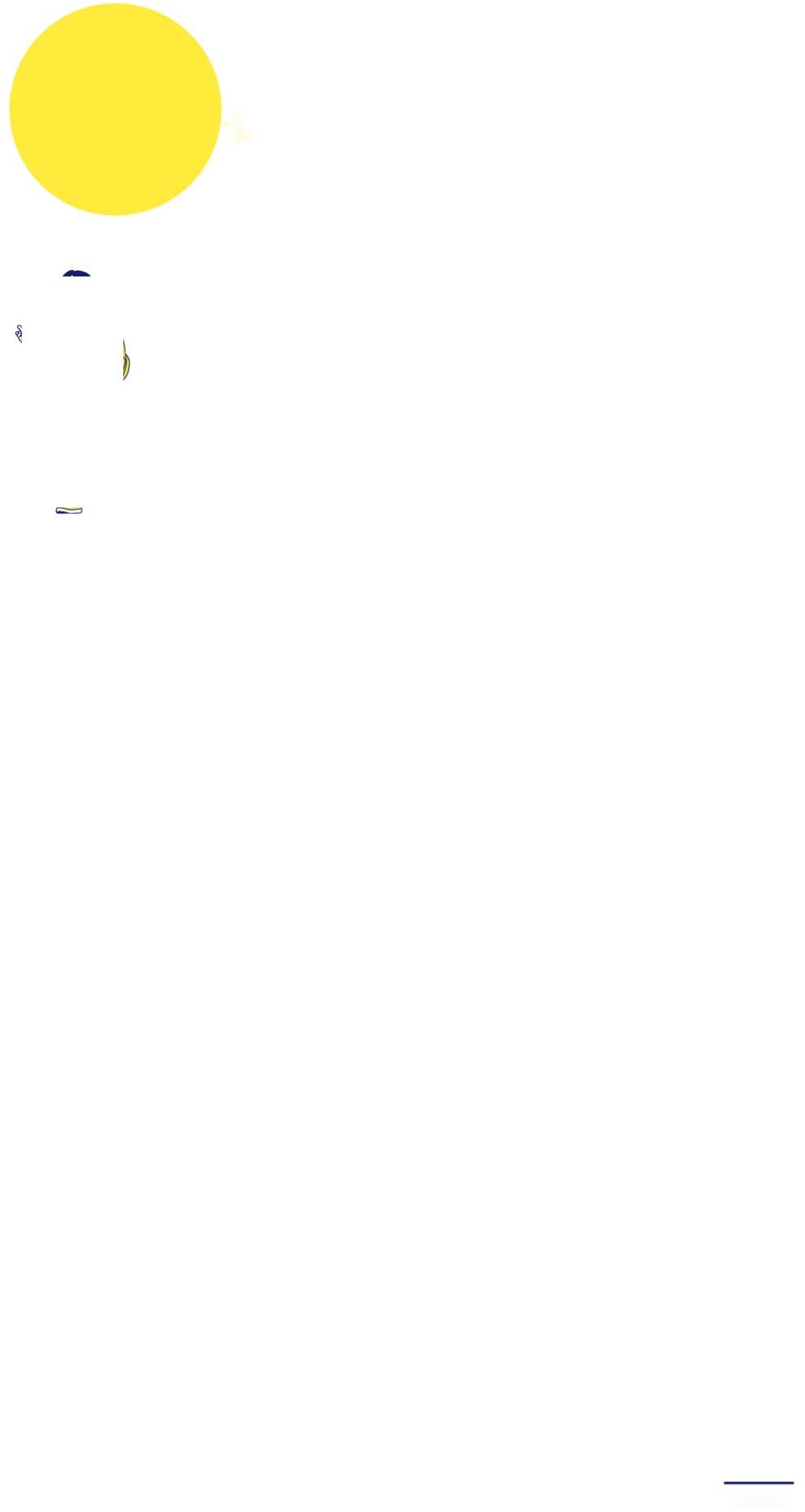
허수아비지 어찌 사람이라 하겠냐，나중에 연락 안 되면 그런가 보다 해라. 새끼야….”

“아빠，연락 안 할 테니까 엄마도 좀 데리고 가줘….”

그러다 결론을 내렸다. 미친 듯이 원하고 바라던 것을 결국 이 룬 것도 꿈，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찾는 것도 꿈. 모든 것들을 꿈이라 생각하고 멋있는 꿈을 꿔보기로 결심했 다. 그러곤 남몰래 내 꿈을 정했다. 나중에 큰돈을 벌어서 배를

한 척 사고 *그걸* 타고 다니며 모험을 하겠다는 꿈. 폭풍우도 만 나고, 실수로 국경을 넘어가 억류도 되는 꿈. 물론 북쪽으로 안 가게 조심해야겠지만.

그렇게 내 꿈을 정한 후 다짐한다. 누군가 내 꿈을 듣고는 “야! 그거 멋진데? 꼭 이루고 죽어라.”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사 람이 되자고，꿈의 크기가 어떠하든，정말로 멋진 것이든 아니 든，진심으로 그 사람의 꿈을 존중하자고，그날 나는 내 방 베란 다에 기대어 고요한 새벽의 공기를 마시며 미래의 나에게 약속 했다.



##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날， 국가에서 공짜 옷과 집을 줄레니 오라고 나를 불렀 다. 입영 통지였다. 어릴 적 재있게 봤던 만화 ＜원피스〉를 생각 하며 해군에 지원해 입대했다. 그저 끝없이 넓게 펼쳐진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고 싶다는 생각과 해군에는 바둑병이라는 특 별 제도가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나는 일반 병사로 지원했다. 그냥 그러고 싶었다. 군 대에 가서까지 바둑을 두고 싶지 않았고， 군대를 핑계로 잠시 쉬고 싶었다. 물론 스승님은 엄청나게 반대하셨다. 해군 장성 에게 전화해 나를 바둑병으로 바꾸시겠다고 난리를 치셨고，나 는 그런 스승님께 어릴 때부터 바둑만 해서 사회성도 없고，사

회 경험도 없으니 군에서 그런 멀 배우고 싶다，자꾸 그러시면 바둑을 그냥 그만두겠다고 엄포를 놨다. 스승님께서는 그만두 겠다는 말은 그리 쉽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도，늘 그렇 듯 져주셨다.

133/134

나는 조타병으로 지원해 바다를 항해하는 게 어떤 건지 느껴 보고 싶었지만，내 뜻대로 굴러가는 건 없었다. 군대는 말할 것 도 없다. 일찌기 스승님께서 남자는 운동 하나쯤은 할 줄 알아

야 한다며， 억지로 검도 도장에 보내신 덕에 나는 검도 유단자 였다. 이라고 불리는 훈련소 교관에게 그 사실을 말하니 내 의

사와 상관없이 나를 대뜸 헌병대에 집어넣었다. 그렇게 나는 군 사경찰이 되었다.

운도 없는 나는 강원도 해군 최전방 부대에 배치받아 군 생활 을 했고，온갖 부조리와 구타를 견디다 보니 어느새 전역이 얼 마 남지 않은 말년이 되어 있었다. 전역하기 하루 전에 후임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데，한 후임이 물었다.

“형 나가면 뭐할거야?”

군 생활을 하는 내내 나는 바둑을 한다는 것을 숨겼다. 먼저 전역한 친구의 조언이었다. 나는 잠시 뜸 들이다



“뭐하긴 여기서 두드려 맞는다고 못 찾은 보물 찾으러 ■가야지 ”

라고 농담하며 웃어넘겼고，후임들은 역시 형답다는 말을 끝으 로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아 하염없이 천장만을 바라봤다. 후임의 질문을 농담으로 넘겼지만 사실 가 슴이 철렁했다.

“아，진짜. 나가면 뭐 하지? 다시 복귀해야 하나….”

요즘 젊은 것들 서 환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아.' 몰라. ”

하며 미래를 회피했고 그렇게 나는 전역을 했다.

전역 후에는 한참 동안 친구들과 술만 마시며 지냈다. 지난 시 간 못 쌓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지만，사실 다 핑계였 다. 미래에 관한생각에 머리가 너무 복잡했다.

나는 이미 군 생활을 하며 내 꿈을 버린 지 오래였다. 더 이상 바둑은 하기도 싫었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그러다 문득 군대 에서 본 2023년도 아까데미 시상식이 떠올랐다. 영화 ＜기생충〉 이 한국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때 느꼈던 자랑 스러움과 동양인으로서의 뿌듯함 때문에 가곰 아카데미 시상

식을 챙겨 보곤 했었다.

2023년에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가 무려 11깨의 상을 휩쓸었다. 그중에서도 남우조연상을 받은 중국■계 베트남

인 출신의 미국 배우 키호이관 배우의 수상 소감이 인상 깊었다. “반드시 꿈을 끝까지 믿으세요. 저도 제 꿈을 거의 포기할 뻔 했어요. 보고 계신 모든 분들，절대로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

세요. 엄마! 나 오스카상 받았어요.”

배우가 눈물을 보이는 모습에 머리를 빡빡 민 내 ■가슴이 간지 러울 정도로 뜨거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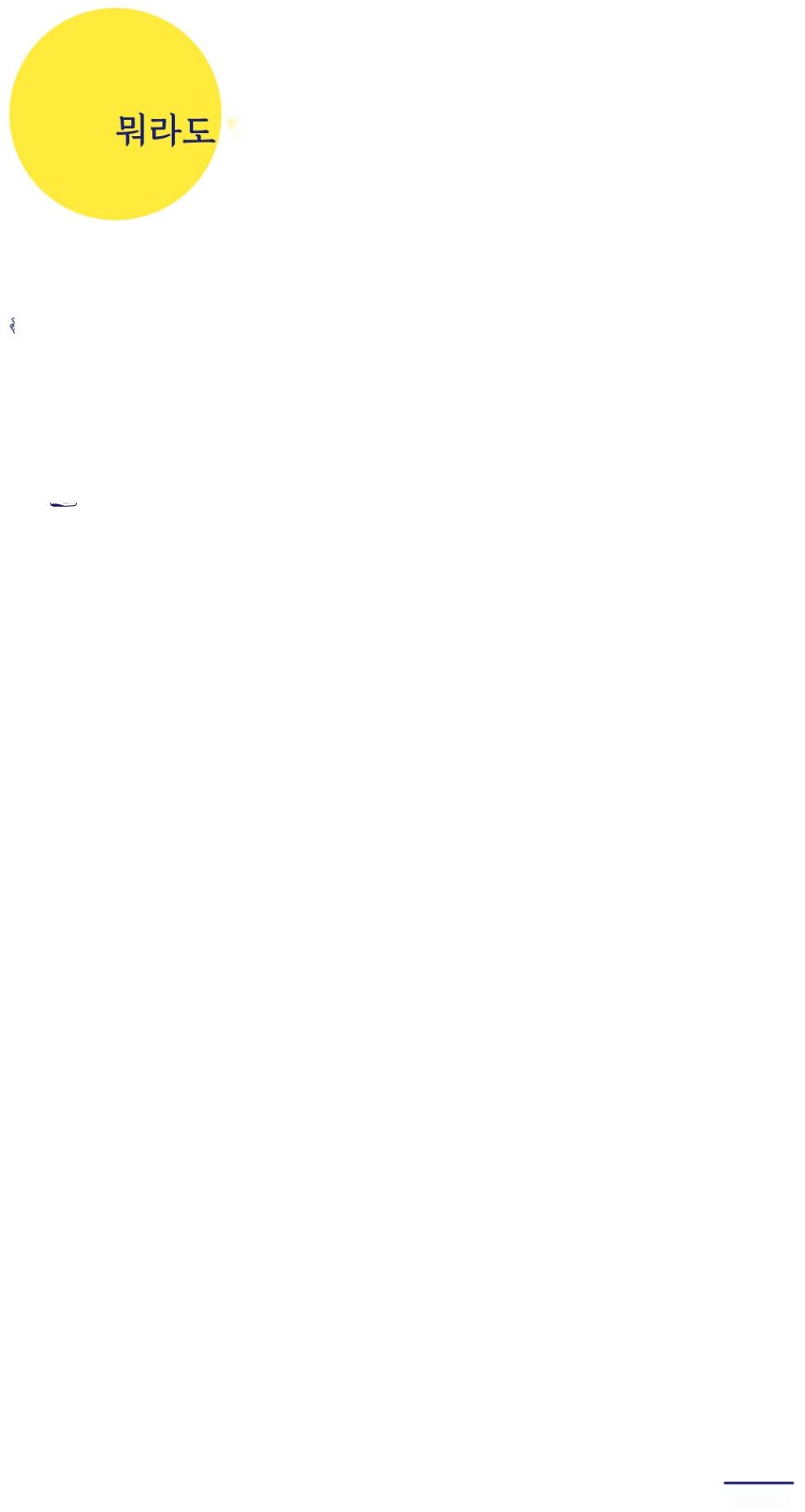
135/136

난 그동안 뭘 하고 있었나，왜 나는 꿈은 돈 있는 자들과 재능 을 가진 자들만의 전유물이라 비아님거리며， 내 꿈을 모른 척 외면하고 살았나. 밑바닥에서 구르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오스카상을 받은 그 배우를 떠올리자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 시발， 부정맥인 가?”라며 또다시 나의 꿈을외면 하려 할찰나!

‘텔레비전에 나온 그 배우와 나의 꿈은 다르다. 분야도，이루 고자 하는 목표도 다르다. 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오 스카상을 거머쥔 저 배우와 꿈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나，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이의 목적지는 같다. 수많은 단어오卜 문장

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나만의 방식으로 감히 표현하자면，*그* 건바로“낭만”과“모험”이다!’

안개가 걷히고 머리가 맑아지는 듯했다.



## 되려 한다

나는 만들어진 천재다. 그다지 머리가 좋지도 않고 재능이 뛰 어나지도 않다. 주위에 있는 모두가 내 가능성을 멋대로 정하 고 판단하며 나를 추려세운다. 계속된 패배와 진짜 천재를 만 났을 때의 좌절감，시기，질투. *그* 모든 것을 외 면한 채 난 계속 한다. 점점 하기 싫어지고，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묵묵 히 나아간다.

그런 나에게 내세울 게 하나 있다면，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 는 것이 있다면，그건 바로 정신력이다. 재능을 이기고，천재를 이길 수 있게 한 유일한 내 능력， 내 비장의 수는 아직은 포기 할 수 없다，포기 하기 싫다는 집착이다. 불면증에 시달리고，코 피가 나고， 과로로 기절했다 하루 뒤에 일어나도 반드시 살아 남겠다는 집념이다. 이거 하나만큼은 그 누구도 날 따라오지 못한다. 나는 반드시 성장하고 살아남아야 한다. 이 집념과 집

착이 날 이끌어 주고 성장시켜 준다. 질어지고 있는 것들을 가

137/138

벼이 여겨，주저앉지 않게 해준다.

“ 우리는 돈을 받고 바둑을 두는 프로니까 매 순간 사력을 다 해야 해. 이게 직업이니까 발전이 없고 무언가 보여 줄 수 없다 면 그만둬야지.”

쉽게 이야기하곤 했다. 누군가의 꿈일 수도 있는 것을 단순 직 업이라 칭하고 무시했다. 그동안 나는 자존심만 더럽게 세서 내 잘못을 외면하고살았다. 뭐가 문제인지 보고 싶지 않아서，나에 게는 이 길만 존재한다고 믿으며，새로운 시도를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런저런 일을 겪고 조금씩 바뀌면서 그런 나도 내 일 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머리를 꼬아 뜯는 나도，금방 쉽게 질려 그만둬 버리는 나도，자존심만 더럽게 세서 오만한 나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자신감인지 학교에 가고 싶어졌다. 성인이니

고등학교를 갈 순 없어 징정고시를 보고 갈 수 있는 대학도 알 아봤다.

처음 대학에 가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너무나도 좋아하셨 다. 내가 태어났을 때 이후로 이렇■게까지 활짝 웃으신 적이 있 을까 생각했다. 나는 효자인가 불효자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생

각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대학교 ■개강 하루 전날，바닥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

문뜩 숨이 및을 듯 답답함을 느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부 엌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불안한 마음을 되새겼다.

학교도 잘 안 나갔던 검정고시 고졸에，기초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내가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괜히 대학을 간다고 *그* 랬나? 혼자 중얼거리며 끓은 물이 식어가는 것도 잊은 채 부엌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다가 주위가 밝아지는 것을 뒤늦게 알아 차리고는 부랴부랴 학교로 향했다.

평생 누군가 데리고 가고 데리러 오는 것에 익숙해진 내가 ■개 강 전날，어디서 몇 시에 몇 번 버스를 타고，어디에서 지하철을 환승하고, 어느 역에서 내려 몇 시까지 가야 하는지 적어 *놓은*

휴대전화 메모장을 수시로 체크하며 무사히 학교에 도착했다. “와…. 이게 대학교구나. 오! 대학생들이다….”

수상한 사람처럼 지나가는 학생들을 홈쳐보다 새삼 ‘ 나도 이

제 대학생이구나.’ 싶은 마爭I 들었다. 한 학생의 뒤를 따라 강 의실로 들어갔다. 수업들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았고, 언제 적정했냐는 듯 금세 적응해 나가기 시작한 듯했다.

20년 가까이 어르신들과 지내다 보니 처음 한동안은 나와 비

슷한 나이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강의실이 직장 상사들과 함께 하는 회식 같은 불편함으로 다가왔다.



139/140

하지만，그것도 어느새 익숙해졌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민 시간 혼자 마음 앓이도 했다. 동아리에 들어가 처음으로 편하게

대화하며 친하게 지내는 형도 생기고, 동생• 후배들도 생겼다. 무엇보다 처음 사랑을 배워 여자 친구도 생겨 ‘나무들이 분홍쓰

레기를 떨어트리는 계절’ 이라 부르던 봄도 ‘ 사랑이 꽃피는 계 절’이라 부르게 되었다. 친구라곤 어릴 때부터 알던 동네 친구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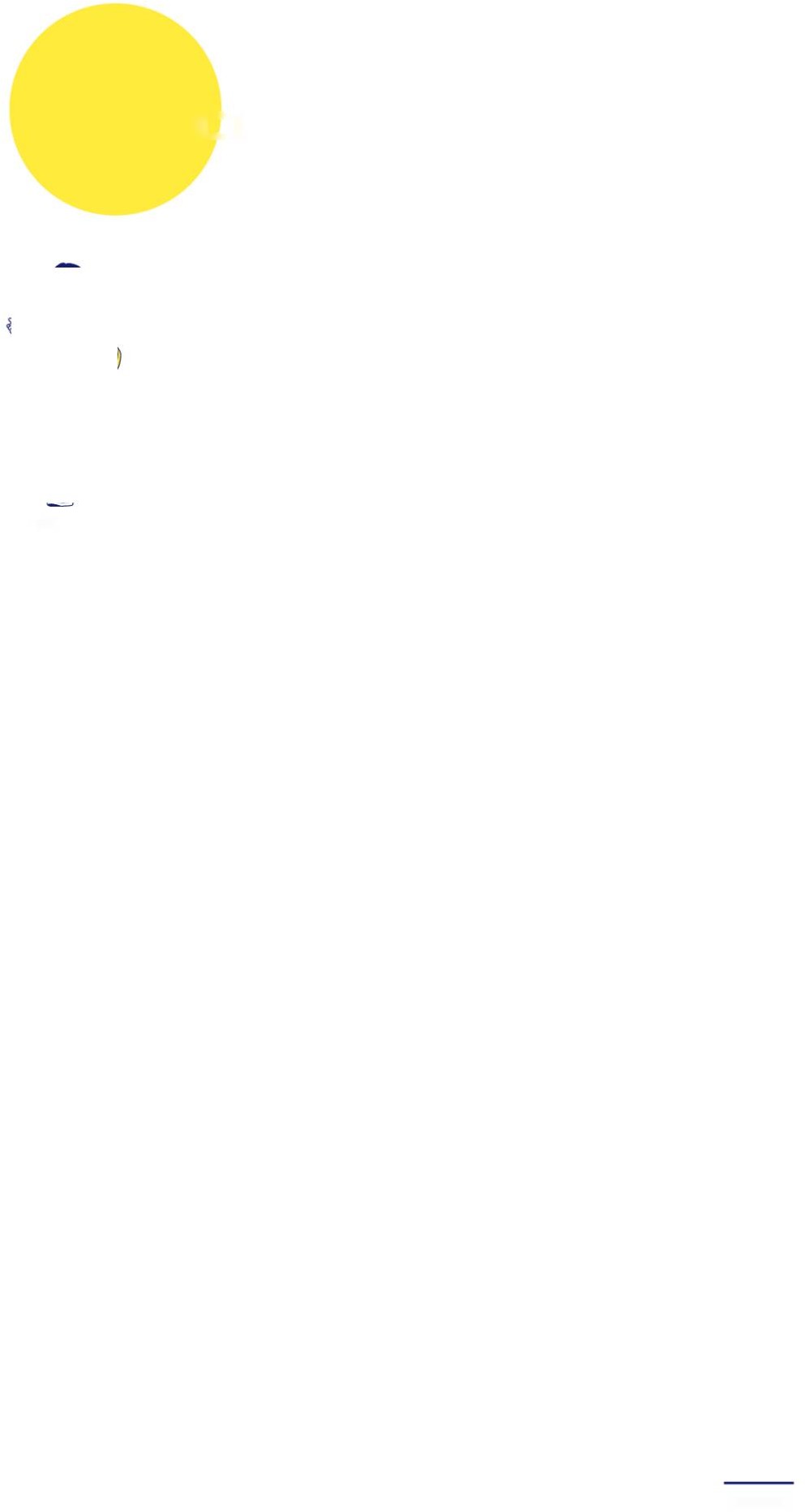
명이 전부던 내 인간관계가 갑자기 넓어졌다. 마음도 안정되고 불안함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나의 꿈을 찾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우리는 몸만 자랐을 뿐 우린 아직 꿈꾸는 소년，소녀들이다. 자 신을 철든 어른이라 믿으면서，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타이밍 을 놓치고， 표현하는 법을 몰라 아파한다. 훌륭한 어른이 되고

싶었지만 나는 아직 아이였고，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꼭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라도 되려 한다. 글을 쓰고， 책을 만들고，여자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내 세계를 넓혀가고 있다. 여전히 모험가를 꿈꾸는 나는 어린아이 의 순수한 마음을 잃고 싶지 않은 어른 피터 팬이다. 당신은 어 떤 꿈을 안고 살아가는 피터 팬인가?



## 에필로그

정말 책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동아리원들이 “ 오 빠， 정말 책이 나올까?”，“ 선배， 이걸로 책을 만들 수 있을까

요?” 물어보면 저는 대표로서 “당연하지，무조건 할수있어. 끝 까지 힘내자.”라고 말했지만，사실은 마음속에 “아마도…?” 라

는 말 을 항 상 담아두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만도 혼란스러웠고，동아리 대표로서 이 프로젝트를 완

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했거든요. 그래도 대표는 친구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어야 한다고 생 각했어요. 선장이 무너지면 선원들은 기델 곳이 없어지고，그러면 배는 심 해로 가라앉게 될 테니까요.

그랬는데 이렇게 진짜 책이 나오다니요. 모든 의심과 불안에 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 덕에 저도 조금 더 성숙하 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된 것 길■습니다. 늘 사고를 몰고 다니

141/142

며，악동，골통 소리를 듣던 제가 선후배，동기들을 이끌면서요. 물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친구들이 채워주었고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쓰면서 내내 쓸까 말까 망설인 사 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정도로 부끄럽 고 한심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긴 여정의 끝이 코앞에 있는 지금 결심이 섰습니다. 다 털어놓기로요. *앞으로* 내 이야기를 솔직하 게 쓸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비밀을 털어놓고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 책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까，하는 마음도 있고요.

연이은 좌절에 제가 잠만 정신줄을 놓았던 모양입니다. 내기 바둑에 손을 댔거든요. 돈도 돈이지만，그때 제 상태가 좀 그랬 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바둑만 뒀는데 어린 후배에게 타이틀 을 빼앗기고, 가족처럼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모두 내 *곁을* 떠나니 낭떠러지로 내몰린 심정이었습니다.

네，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말 그대로 도박이었어요. 의도적으로 져주거나 혹은 이겨주면，

그렇게 바둑 몇 판만 두면 상상도 못할 금액을 준다고 했습니 다. 죽어라 노력해서 겨우겨우 번 1년 치 상금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왔을 때，기쁜 마음보다는 허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내가 해냈다는 쾌감보다는 어던가 찜찜하기도 했 구요.

다행 인지 불행 인지 도박장을 알선한 브로커가 잡히 면서 저도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간* 사회에 이바지한 바가 크고，피해자가 없다는 점이 정상 참작되어 자격정지 1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 니다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죗값을 치르기에 부족하다고 생막 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도 하고 할 수 있는 한 기부도 했습니 다. 다른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덜고자 했습니다.

법정의 공기가 얼마나 무겁고 차가^지 당연히 모르시겠죠? 다시는 그런 경험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 히면 내가 이상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그 일은

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에 *좋은* 기회였던 거 갈•아요. 그 일 이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다시 천천히 시작해 보자고 마음먹게 되었으니까요.

실수하고 반성하며 성장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말자， 주저하지도 말고 쓰러지지도 말•자，

더 이상 누군가에게，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사람이



143/144

되지 말자.

이게 그 일 이후 제가 제 마음속에 새긴 다짐입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 렇게 길게 글을 써본 적도 없고，제가 살아온 과거를 차근차근 돌아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쓰고 나니 후련하고 뿌듯

합니다. 원가 정리가 되는 기분이고, 진짜로 새로운 모험을 떠 날 수 있을 듯한 기분이 듭니다.

책을 쓰는 동안 너무나도 도움을 많이 주신 지도교수님，우리

에게 이런 글을 쓰도록 힘을 북돋아 주신 출판사 대표님，지난 여름부터 함께 이 길을 달려온 우리 ［카르페디엠］ 친구들，모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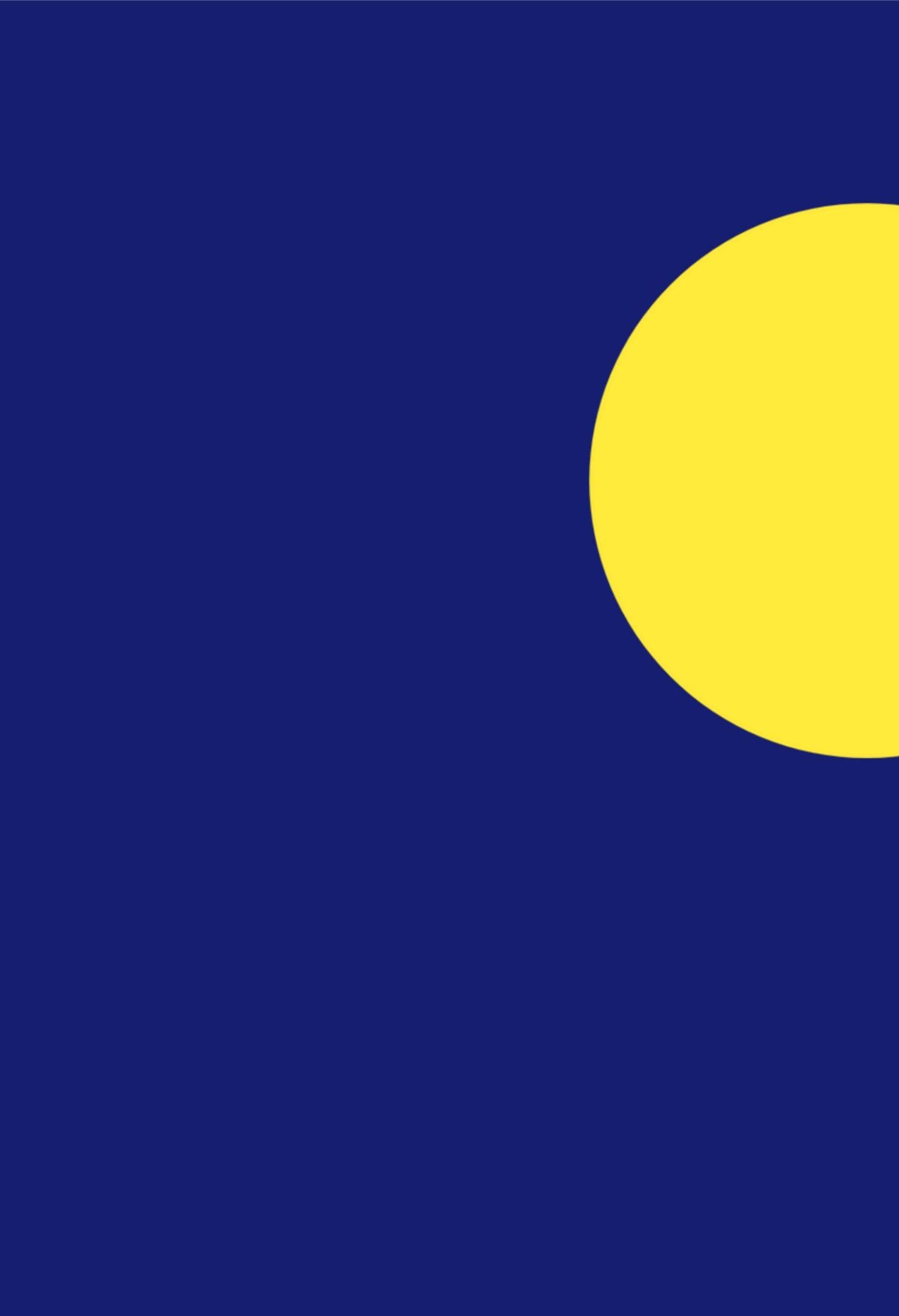
그리고 일일이 이름을 적지는 못하지만，언제나 제 마음속 함

께 있는 나의 지인들과 사랑하는 나의 연인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님들!

피터 팬 같은 당신들이 이 책을 통해 각자의 꿈을 향해 한 길 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봄처럼 향긋하고，여름처럼 뜨거운 우리는 ‘요즘 젊은 것들’입 니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해파리와 나의 바다

해파리와 나 149

우리 가족이 만든작은혼돈 154

나는내가늘신기했다 159

사람인척하는곰광이 162

나는달이 었네 165

불안이맺은열매 169

미래는 모르겠고，지금은 죽을 ■거 같으니까 174

내가성공한거라곤실패하기뿐 178

두번째 자퇴 182

창•밖은타오르는주황빛의세계 187

바닥은아직멀었구나 192 미래의 내 기분을위해 196 잘하고있으니까립 고잉 ! 204

삶에 이유는없다 208

안녕 해파리，안녕바다 213



## 해파리와 나

보글보글 기포 속의 물보라가 붓질 한번 스친 흰색 수채화 물 감처럼 바닷속에 비친다. 그 사이 해파리는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깊은 심연을 부유한다. 아주 여유롭게，별일 없이. 가까 이 오지 않는 이상 사람을 해칠 일이 없는 촉수와 물렁한 머리 는 아무 생각이 없다. 정확히는 사람의 생각이 없다.

나는 그게 아주 오랫동안 부러웠다. 흐름에 몸을 맡긴다니. 그토록 넓은 바다를 여유롭게 부유한다니 . 그 얼마나 낭만적인 생물인가. 새벽 여명 아래로 물속 해파리가 비치는 것을 상상 했다. 수면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갔다가, 작은 소용들

이에 정신없이 빙빙 들다가 내팽개쳐졌다가，계속 흘러간다. 마 치 인간의 삶처럼. 하지만 인간과 해파리의 다른 점은… 인간은 과하게 고민하는 날들이 많다는 것，흐름에서 벗어나려 몸부림

친다는 것이다.

요즘젊은것들 모 란

어쩌면 해파리를 동경하는 것은 내가 해파리와는 반대되는 행 동을 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나만의 흐름에서 벗어나고，반 대편에 있는 대상을 동경하며 그와 같이 되기 위해 고민하니 말

이다. 인간의 삶과 해파리의 삶，육지의 삶과 바닷속의 삶은 개 념부터 아주 다를 텐데….

나는 해파리를 상상하며 어느•새 찰랑거리는 머릿속을 부여잡 고 끙끙거린다. 넘치는 생각을 멈추고 싶다. 해파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될 일이 없는 데도 그렇게 되고자 바라는 것만큼 절망적인 일이 또 있을까. 지금 내 인생은 잡념으로 가득 차 있다. 해파리와 다르게.

하지만 나는 인간이고，해파리는 그저 해파리고，나와 해파리 는 서로가 될 일이 없다. 해파리가 되고 싶은 나라는 인간만이 현실에 있을 뿐이다. 그러니，해파리가 될 수 없는 대신 내가 왜 그 같은 모습을 바라게 되었나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깨달았 다. 해파리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보다는 바다에 더 가깝다는

것을. 내 인생에 있었던，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에 있을 수많은 사건과 생각과 감각，꿈，희 망 같은 것들을 해파리의 말랑한 머 리 안에 넣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해파리를 동경하는 인간이라니. 묘한 동정심으로 나를 바라보 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나의 내면에 일렁이는 고난을 안타까

워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와 비슷한 생막을 하는 사람이 흔해 진 세상이다. 예민한사람，불안한사람，방황하고 있는사람. *그* 리고 생각을 멈추고 싶은 사람까지.

내면의 어려움으로 삶을 견뎌내기가 남들보다 조금 더 힘든 사람들，꾸역꾸역 힘을 내고 벅찬 다짐을 연필로 꾹꾹 적어내야

일상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보아왔다. 그들은 대 한민국 구석구석에 존재하지만，어디에도 없는 듯 밤으로 몸을

숨긴다. 사색과 불안의 밤， 집 안 혹은 자신의 방 안에서 몰래 괴로워하는 밤. 나도 그들과 같이 수 많은 밤을 몹시 괴롭게 보 내왔고 해파리를 동경하는 사람이 되었다. 해파리는 나의 내면

빈 곳에 있는 허공과 같다. 떠올리기만 해도 긴장이 조금은 풀 어지게 해주는 존재이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유년기부터 내게 어렵지 않은 것은 없었다. 매일매일 하루를 되돌리고 싶었고，친구들이 미웠고，가족이 미웠다. 그중 나 자 신을 가장 증오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고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며 내 삶을 은둔형 외톨이의 길로 이끌었

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대학까지 휴학한 이후에는 비만，호르

몬 불균형， 간 수치 폭등 등으로 고생하며 생활 전체가 위태로 워졌다. 중학교 시절부터 정신과 약을 처방받았지만，내면의 어

려움이 •개선될 기미는 꿈속에서 본 로또 번호처럼 희미했고 우 리 가족이 사는 아파트는 커다란 흉터로 덕지덕지 채워졌다. 그 리고현재，곁보기에 멀쩡한 대학생인 나.

평소 나와 이야기하는 게 참 즐접다는 지인이 내게 이런 질문 을던졌다.

“과거의 모란 씨와 참 비슷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고등학

교를 관두고 집에만 있는 친구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무력해 보이는 데 어떤 조언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란 씨가 자퇴 이후 힘 들어했던 상황과 비슷하니，대신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을까요?” 말문이 턱 막혔다. 열일곱 열여덟 언저리의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보단 들어도 소용없는 말들을 더 많이 알기 때문이었다.

-괜찮아

-년할수 있어

-힘내

-지금도 충분해 이런 말들.

그무렵 나는 내가 아주 엉망이고，내 인생이 내 이상과거리가 멀다는 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나를 격려하는 사람들의 마 음에 고마움을 표했지만，어떤 격려도 진정으로 위로가 되었던

적은 없었다. 그런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었다. 열일곱 열여덟 살의 내가 진정으로 듣고 싶었던 말은 뭘까.

결국 난 그 자리에서 상투적인 말만 하고 말았다. 시간이 지나

면 분명 행복한 순간이 올 거다. 괜찮을 거다. 아직 시간 많다. 그런 말들 말이다.

자퇴하고 나서 한참 힘들었을 때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뭘까. 지금 생각해 보면，그게 ‘말5 의 형태는 아니었다. 나는 나

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도 행복한 사람의 사례가 보고 싶었다. 미디어에 나오는 수많은 엘리트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평범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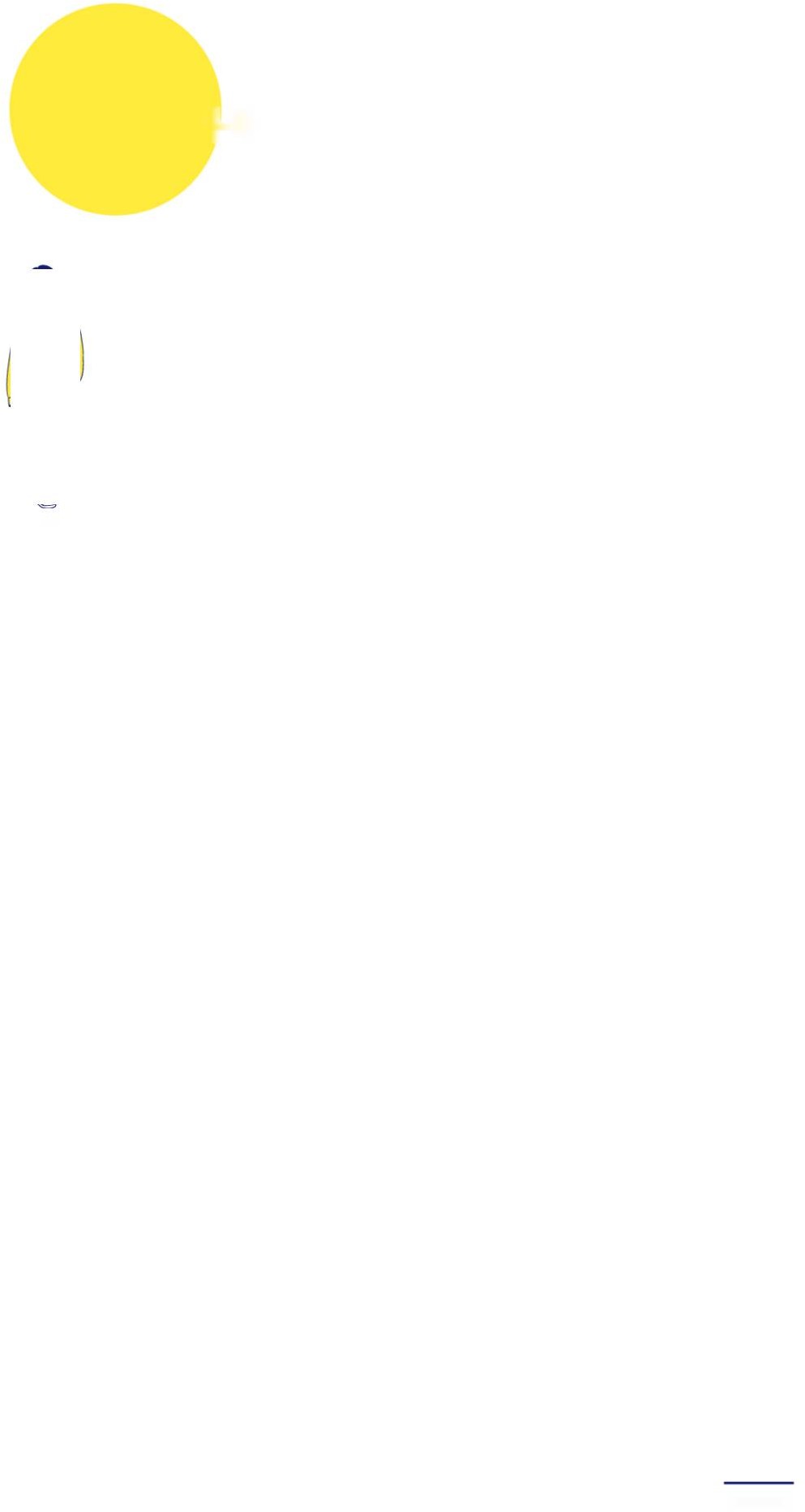
* 게 초중고를 다니고 대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나처럼

처참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시간을 보 낸 뒤 비로소 세상에 발 디딜 용기를 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원 했다. 평범한 것은 가장 화려한 것이다. 평범의 선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증발된다. 말할 이유，드러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내 이야기가 숨겨야 할 것, 굳이 꺼낼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듣기 좋은 한두 마디 말에는

가장 중요한 게 빠져있다. 그러니까 대신 나의 긴 이야기로 나 조차 명확히 표현할 수 없었던 으묘한 삶에 대한 감각을 어렵사 리 표현하고 싶다.

이 글을 방황하는 수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바치고 싶다.



## 우리 가족이 만든 작은 혼돈

예민함은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걸까，일정 부분 타고나는 걸까. 두 가지 다 해당될 테지만，후자는 얼마 전에서야 확신하 게 된 것이다. 태어나면서 타고난예민함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는 생각. 나의 예민함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더 크게 힘을 발휘 한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그길 몰랐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패널 한 명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유년기의 기억은 참 오래간다고. 어릴 적 잠들어 있던 자 신을 아버지가 안아 들어 잠자리로 조심조심 옮기던 기억이 그

렇게 애틋하고 기분이 좋았다고, 그 감각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말이다. 그가 유년기를 떠올리며 짓는 행복하고 나른한 미소가 참 예쁘다고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유년기의 기억을 떠올려 보았다. 분명 행복했던 기억도 많았 으련만， 내가 떠올린 기억은 아주 강렬히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놨던 그 사건이었다. 다른 기억은 내가 마치 부정 중독자라도

153/154

된 듯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유년기부터 성인이 된 후에도 쭉 살았던，그때도 이미 오래된 연식이었던 아파트 후문에는 상가 방향으로 이어진 오르막길이 있었다. 붉은빛이 도는 갈색 벽돌로 마감한 작은 경비실은 *그* 옆 에 딱 붙어 있었다. 그 회색빛 아스팔트 오르막길을 나는 성인이 된 이후로도 수없이 지나다녔다. 그곳에，내 오랜 흉터가 있다.

그때 나는 다섯 살 정도의 아이였고 어머니，오빠와 함께 어던 가를 가던 길이었다. 어머니가 오르막에서 내 손을 끌어 당겨주 는 것을 참 좋아했다. 그날도 그랬다. 오르막을 혼자 걷기 싫다 며 손을 뻗고 어머니에게 끌어달라 보챘다. 종종 그래 주었으 니，이번에도 어머니는 내 손을 당■겨주리라는 마음이었다. 하지 만 그날따라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어머니는 나의 말에 묵묵부 답이었다. 그리고 알아서 올라오란 말만 남긴 채 오빠의 손을 잡고 길을 척척 올라가버렸다. 그럴 수 있었다. 그럼，먼저 간 어 머니를 따라 혼자 그 길을 올라가면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움직이지 못했다. 숨이 턱 막혀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 면 자존심에 큰 생채기가 날 듯，망부석처럼 꿈쩍도 안 하고 서 있었다. 어머니는 오르막길 저만치서 오빠 손을 잡은 채 얼른 오 지 않을 ■거냐고 날 불렀다. 고집불통인 나는 여전히 손을 허공에 뻗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와 오빠는 위에서 그런

나를 지려보다가 홀연히 떠났다.

경비실의 붉은 벽 앞 그늘 안에서 결국 *울음을* 터트렸다. 급하 게 후다닥 올라갔지만，둘은 보이지 않았다. 지나가는 어른들이 나를 힐끔 쳐다보고 제 갈 길을 갔다.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완 전히 버려졌다고 생각했다.

이후의 일은 기억나지 않지만，여태까지 한 지붕 아래서 살아 왔으니 확실히 버려진 건 아니다. 어린 자존심과 어머니가 나에

게 무언가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뒤들아봐 주었으면 하는 마음 이 외로움을 만들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런 일 따위로 외로움을 느민다는 건 지금의 나도 도 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남들이 말하는 ‘대단한 불행’이 아니라

는 이유로 이 기억을 오랫동안 부끄러워했다. 창피해서 빨리 잊 어버리고 싶었다.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다고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기억하는 딸이라니，속 좁은 사람 같았다. 그것보다 더 속

상한 일들이 가득 있었는데도 왜 자꾸 *그* 일이 떠오를까，떠오 를 때마다 나는 왜 눈을 감고 어린 나로 들아가 눈가를 적실까. 이해되지 않았다.

성인이 되고부터 일기를 쭉 썼다. 내가 느민 다양한 감각과 감

정， 옛날 기억들이 빼곡하게 쓰여 있지만 그 일만은 쓰지 않았 다. 써두면 평생 나를 따라다닐까 봐 도저히 쓸 수 없었다. 흘러



155/156

가겠지，잊힐 거야. 그런 마음으로 시간이 보약이란 듯 두었는데 흘러가지 않았다. 알 수 없는 이상한 이름의 돌부리에 걸린 듯， 세월의 물살에도 결코 헤지지 않았다. 일 년에 한 번 정도 우울 할 때면 그 일을 떠올리고 혼자 외로워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도그렇다.

생각해 보면 어렸을 적부터 고집불통이었다. 기분이 좋지 않으

면 어른 앞에서도 입을 불퉁하게 내놓고 있었고 부모님이 싸우 는 날이면 마치 부모님이 나에게 화를 낸 것처럼 속상해 울었다.

라면을 끓여준 오빠에게는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릇 을 집어 던졌다. 예민과 불안이 기괴한 고집을 만들어 내고 주변 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어른들이 참다못해 혼을 내면 홀로 구석 에 틀어박혀 나는 혼자라고 외로워했다. 이기적인 아이였다.

부모님은 밤마다 집안을 서로를 향한 악다구니로 채웠다. 두

사람이 내는 소음은 내 고막에 날^롭게 꽂혀 결국 피를 볼 것 처럼 강렬했다. 싸움의 끝은 없었다. 매일매일 잠만의 휴전만이 있을 뿐이었다.

우리집은 저녁만 되면 큰 일이 났다. 가족이 모이면 반드시 누

군가가 괴물로 변하는 큰 일. 그럴 때마다 나는 이불을 덮어쓰 고 떨면서 울었다. 이불 안엔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 고 우리 집 벽지에는 부모님의 분노가 군데군데 스며들었다.

벽지에서 공기처럼 새어 나오는 그 분노는 ‘ 우울을 내뿜는 디 퓨저’였다.

훗날 상담 선생님이 독기로 가득 찬 청소년이었던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건 부모님의 일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의라는 상관없이 그 말을 떠올리기만 하면 두고두고 짜증이

났다. 부모라 자식은 자식이 자아를 찾기 전까진 떼려야 떨 수 없는 관계다. 내 예민함과 불안의 기원이 가족이라고 화살을 돌 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예민하게 태어난사람이었고，마 침 괴로운 사건들이 겹쳐 나를 이루는 많은 특징이 부정적인 방

향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인식하기 전부터 *그*

런 나를 미워했다. 그래서 내가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우리 가

족이 만든 작은 혼돈이었다. 부모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면에 차곡차곡 쌓은 불안이 소용돌이치는 혼돈.

157/158



## 나는 내가 늘 신기했다

유치원생 시절，이름과 생일이 똑같은 친구가 있었다. 내 이름 도 모란， 그 아이 이름도 모란이었다. 그때는 내 이름이 아주 흔하다는 걸 알지 못했으니 신기하기만 했다. m월 1일 생일의 주인공이 세상에 둘 이상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아주 이상했다. m월 1 일은 내 생일인더“ 다른 모란의 생일이기도 하다니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 ‘똑같다’라는 말을 듣고 잠만 어정쩡하게 서 있었던 기억이 난 다. 날 구성하는 특징들이 다른 이와 맞물리니 고유한 나를 증 명할 근거가 사라져 불안했다.

유치원생이었던 나는 불안해하는 대신 다른 모란과 친해지는 걸 선택했다. 나와 또 다른 모란은 늘 손을 잡고 유치원 놀이터 를 쏘다녔고 서로의 공통점이 ‘ 우리’ 우정에 특별함을 더했다.

어쩌면 그 친구도 그랬을지도 모른다. 우린 이름과 생일이 같

요즘젊은것들 모 란

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불안까지 같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모란과 담임 선생님과 함께 흔들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찍은 사진도 있다. 우린 같아! 라고 외치는 듯이 활짝 웃는 얼굴로 선 생 님의 양 옆구리에 찰싹 달라붙어 연둣빛 풀밭에 닿지 않는 작 은 발을 달랑거리며 앉아있었다. 정원 구석에 있는 흔들의자에

서 햇살을 받으며 또 다른 모란과 나는 행복과 불안을 같이 안 았다. 그 친구가 이사를 가며 유치원을 떠나기 전까지.

유치원 졸업식날에는 다 같이 한복을 입고 단체 사진을 찍었었

다. 나는 명절마다 입는 진달래색 한복을 입고 머리에는 배씨댕 기를 드렸다. 유치원 2층 복도에서 다른 친구들이 입은 한복을

호기심 어린 눈동자에 담으며 발소리가 나지 않는 마릇바닥과 부드러운 양말，치맛자락의 마찰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보았 다. 나와 똑같은 한복을 입은 문 앞의 한 여자아이를 말이다.

어머니는 그게 귀여웠는지 그 아이를 불러 나와 나란히 세우

고는 조그마한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 나와 친구는 이 름이 달랐고 키도 달랐고 얼굴 생김새도 달랐지만，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같은 한복을 입은 친구를 보고 기분이 이상하지 않 았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때도 얼굴에 미소를 띠고 신기하 다며 친구와 손을 잡길 선택했다.



159/160

나는 늘 내가 신기했다. 사막형으로 조각난 노란 햇살이 드문 드문 드리워진 아파트 공동현관을 지나 낡은 계단을 오르면서 내 시야에 대한 호기심을 빛냈다. 왜 나는 내가 안 보이고 세상

만 볼 수 있을까? 나만 그런 건가? 아니면 우리 어머니도，아버 지도 자신을 못 보고 내게 보이는 장면 그대로 세상을 보는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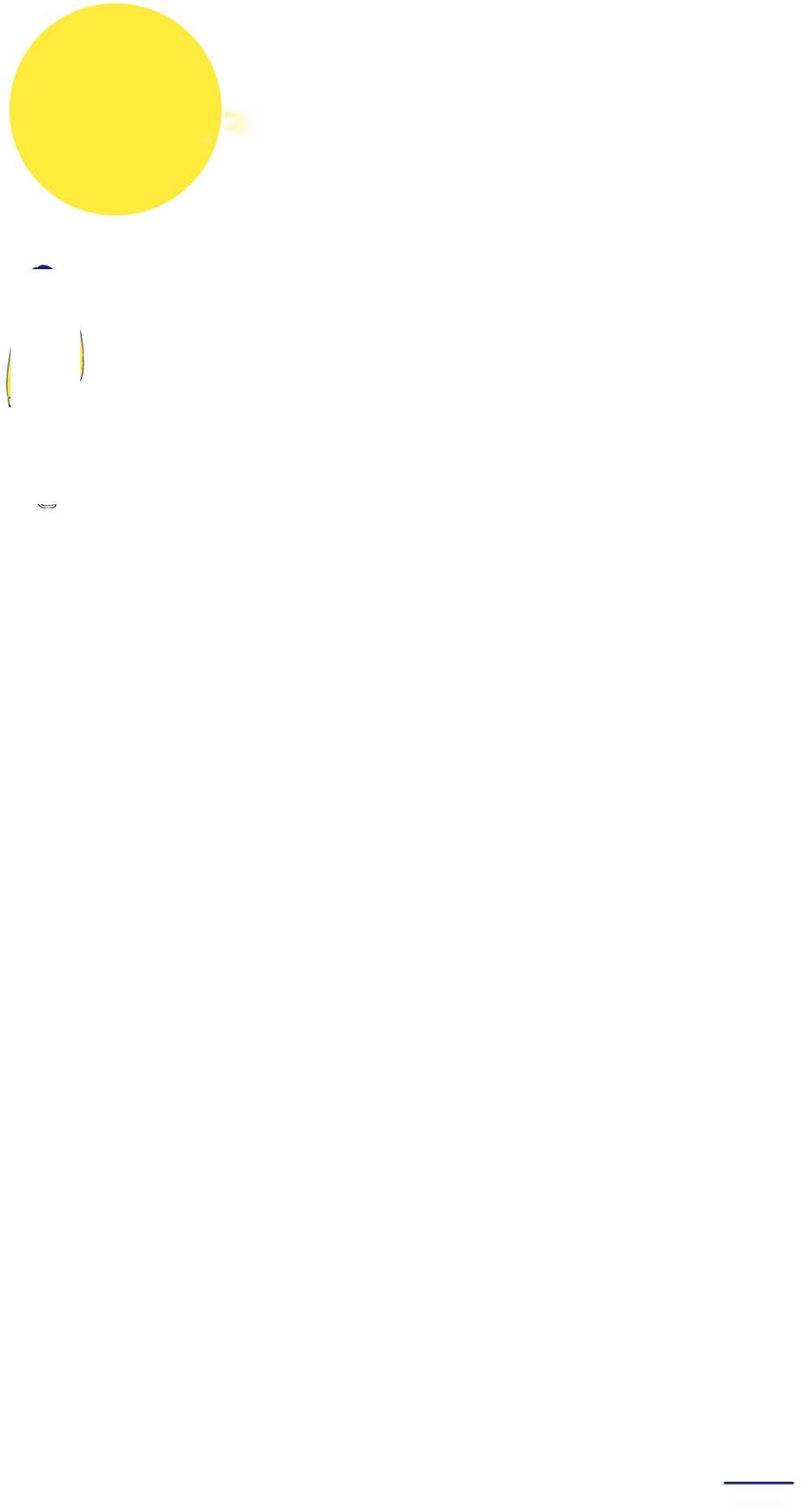
까? 태어난 지 10년도 안 된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면한 일들도 탐구의 대상이었다. 작은 머리로 혼자 열심히 고민해도 마땅한 답은 나올 수 없었다. 답을 찾기 전에 그런 현상을 구체화시키 고말았다.

고민할 뇌도 미처 다 자라지 않았을 어린 나이지만，그때 만약

내가 비범했다면 철학자처럼 나름의 답을 찾았을 것이다. 현자 처럼 생각할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이후 인간관■계와 자아의 문제로 힘들어하진 않았을 것이다.

참고로，

불가능한 가정을 떠올리며 속상해하는 건 내 특기다.



## 사람인 척하는 곰땅이

고유함의 불안. 타인과 공유하는 특징. 해체되는 성격. 모두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어렸을 때 나는 나 자신 을 몰랐다는 것이다. ‘나’라는 인식은 없고 특징만 존재하여 특 이한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늘 불안했다.

청소년기의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선뜻 무엇부터 말해야 할 지 모르겠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난 사람인 척하는 곰팡이였다. 먹고，듣고，피부로 느끼는 모든 감 각이 만들어낸 불안이 속에서부터 검게 번져나가 몸 전체를 뒤 덮었다. 언제부터 사라진 건지，처음부터 있기는 했었던 건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자아와 엉망진창인 교우관계，‘사춘기’를 빙자한 신경질이 엄청나게 늘었다.

떠오르는 건 집에서 버스를 타고 한 시간을 가야 하는 정신과

를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닌 기억과 중학교를 자퇴하겠다며 집안

161/162

을 뒤엎었던 일，학교 구름다리에서 친구였던 아이에게 네가 나 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낸 것 아니냐며 따졌던 일 정도다. 그리 고，결국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자퇴한 일까지.

내게 청소년기는 초등학교 고학년생 에서부터 중학생까지다.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멀쩡히 공

부하는 학생들을 말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나는 학교 밖 청소년이었다. 청소년이든 학교 밖 청소년이든 내 가 곰광이 혹은 집안의 골칫덩이，아니면 부모님의 작은 괴물이 었다는 건 똑같았다.

대인관계가 늘 어색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왕따를 당 해보았고 왕따를 시려보았다. 세 명이 함께 다녔는데 그 중 한 명이 왕이었다. 남은 친구와 나는 들아가면서 서로 왕따를 시키 고 왕따를 당했다. 언제 내가 왕따가 될지는 모른다. 그건 왕의 마음이었다. 생각해 보면 그때 서로 돌림 왕따를 했던 친구의

이름도 모란이었다. 유치원 때의 모란은 성이 기억나지 않지만，

초등학교 때 만난 모란은 정모란이었다. 성과 잘 어울리는 이름 이 내 이름과는 다르게 그 나름대로 예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그 친구와 곰팡이만 주고받았다.

어느날 학교 수영장에서 수영 수업을 하고 있을 때 모란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번엔 왕을 따돌려 보자，우리 참 억울하지 않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모란은 얼마 있다가 왕에게 붙어버렸다. 내가 다시 왕따가 된 것이다. 떠올리니 바보 같다. 다른 친구와 놀면 될 걸 왜 나는 인연을 떨치지 못했을까. 관계의 주도권이 상대에게 있는 것처럼 굴었다，늘.

학년이 달라지고 왕이 전학을 갔다. 나와 정모란도 다른 반이 되었다. 나는 그때도 새로운 나의 왕에게 왕따당하고 있었는 더1，어느 날 급식실에서 정모란과 마주친 적이 있었다.

나는 정모란이 애틋했다. 우린 같은 처지였으니까. 나는 동급 생들이 거의 떠난 급식실의 길고 거대한 테이블 끝에서 건너편 정모란을 빤히 바라보았다. 정모란도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먼 저 자리에서 일어났는지 정모란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각자의 교실로 돌아가기 전까지 쭉 고민했다. 정모란과 화해하고 잘 지내고 싶었다. 정모란도 어쩌면 나와 같 은 마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모란도 그냥 급식

실을 떠났다. 우린 이후 마주치는 일이 없었다. 내 마지막 기억 은 그뿐이다. 나는 두 번째 모란과도 헤어졌다.



## 나는 달이었네

6학년 때는 겨우 동급생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낼 수 있었 지만，무리 내의 역할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내가 느끼기 엔 무리에서는 늘 각자의 역할이 분명했다. 태양처럼 늘 중심 에 있는 사람과 태양과 가장 가까운 수성 같은 사람，그다음 행성，그다음 행성.

태양과 멀어질수록 더 멀리 공전하게 된다. 하지만 행성들은 태양계를 벗어날 수 없다. 분명히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이다. 입 담이 좋든 장난을 잘 치든 소심하든. 각자의 개성을 뚜렷이 나 타내며 무리 속에서 하하 웃고 있다.

나는 태양과 적당히 거리가 있는 지구와 친했다. 그리고 태양 이 아닌 지구 주변을 맴돌았다. 달 같았다. 내가 달에 불과하다 는 것을 몰랐을 때 나는 수성이 부러웠다. 자느라 자기 책상에 엎드려 있어도 수성에게는 친구들이 몰려와 장난을 걸곤 했다.

요즘젊은것들 모 란

나도 수성과 다르지 않다고 생막했다. 비슷하게 활발했고 말을 많이 했다. 적당히 관심도 받았다. 그래서 하루는 나도 엎드려 있어 보았다. 그리고，나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실은 별로 없다

는것을 알았다.

결석해도 지구 외엔 내게 안부를 묻는 친구가 없었다. 아무도 내게 먼저 와 장난을 치지 않았다. 혼자 바다를 떠다니는 비닐 봉지가 된 기분이었다. 자아도 없고 힘도 없고색말도 없는 비닐 봉지. 남들이 움직이는 대로 떠다니는 가벼운 존재. 그래서 외

로웠다. 관심을 받으려 노력해 보고 더 아픈 척해 보기도 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친구들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해서，아니면 불안이 점점 물 을 받고 싹을 트기 시작해서 강박이 피었을지도 모른다. 체육 시간에 바지가 찢어진 동급생을 본 후로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 지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들어가 체육복 재봉선을 확인하기 도 했다. 거울 너머의 수상한 이가 설치했을 카메라를 발면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본 대로 손톱 끝을 대어 보기도 했다. 거울 속 의 손톱과 거울 밖의 손톱이 서로 닿으면 거울 뒤쪽에 카메라

렌즈가 있다는 글을 어디선가 본 후였다. 휴대폰 카메라 렌즈에

는 스티귀를 붙여 가렸다. 시선이 싫었다.

지긋지긋했을지도 모르겠다. 늘 한 교실에 삼십 명에 가까운

인간들이 바글바글，그러나 나름대로 질서 있게 앉아서 하루 종 일 붙어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했다. 그리고 그 인간들 중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그런 나도 친구에게 인정받아 본 적이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 할 무렵 공책에 썼던 짧은 소설을 활기찬 친구 한 명에게 화장 실에서 읽어주었다.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개쩌 네.”

사실상 애니메이션 하나를 표절한 소설이었다. 처음으로 친구 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에 뇌가 저릿할 정도로 행복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글을 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불안을 본격적으로 마구 드러내진 않 았다. 자아에 대한 의문과 인간관■계에 대한 피로감만 가득했다. 그게 내 막장이었던 중학교 생활의 밑바탕이었다.

불안을 여전히 놓지 못한 채로 입학한 중학교 1학년의 생활은 아직도 생생하다. 무리에 빨리 끼어야 한다는 생각에 처음 말을 섞은 날라리와 어울리다가 본때를 당하고 거짓 소문의 주인공 이 되었던 일이 떠오른다. 나는 소문의 발신인이 누구인지 확신 한다. 나를 유난히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그 아이. 다행히 그 아이의 이름은 모란이 아니다.

날라리 무리에 적응할 수 없어 늘 어색해하던 어느 날부터 날

라리들이 날 무시하기 시작했다. 내가 자기들 뒷담화를 하고 다



요즘젊은것들 모 란

녔단다. 남자 동급생，여자 동급생 상관없이 내 소문을 알고 있 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다. 그때의 복도는 아직도 눈에 선하다. 1학년들로 북적이는데 친구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나 혼자 우뚝 서 있었다. 중학생의 호르몬 냄새로 퀴 퀴한 공기가 느껴졌지만，아무와도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 불안이 맺은 열매

결국 잘된 일이었다. 그 일을 계기로 평범한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를 얻어 평범하게 지냈으니 말이다. 하지만 내 불안은 그 사건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었다. 그때쯤 내 체육복 재 봉선을 확인했고，거울을 확인했고，휴대폰 카메라를 가렸다.

주말에는 아무와도 만나지 않았다. 평일에는 학교에서 친구들 과 무사히 지내고 집에 가서는 내내 누워 있었다. 주말에도 잠

만 잤다. 월요일 아침에는 전날 먹은 ■게 체해 종종 내과에서 수 액을 맞고 3교시에 등교했다.

수요일은 조금 특별했다. 동아리 활동이 끝나면 종을 치자마 자 종례 없이 각자 하교할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교문을 첫 번째로 나오는 학생은 나였다. 돌계단을 내려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어른 몇몇밖에 보이지 않는 텅 빈 거리를

혼자 뚜1어갔다. 그때의 상쾌한 바람이 아직도 생생하다. 분명 박하 향에 가까운 바람이 었다.

요즘젊은것들 모 란

1등으로나왔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그런 기분으로 편의점을 지나고 식당을 지나고 마트를 지나갔다. 내 뒤로는 막 하교하기 시작한 학생들이 줄줄이 뒤따라 오고 있었다. 그들과 나의 거리는 한참 멀었다. 뿌듯했다. 수요일은 내가 온몸으로 해방을 외치는 날이 었다.

내가 이상하다，다른 친구들과 조금 다른 것 같다，*그걸* 느꼈 을 때는 중학교 3학년 때였다. 도저히 남들을 봐줄 수 없고 가 족을 참을 수 없고 권위적인 선생님에게 맞기도 싫고，복종하기

는 더 싫고，학교가 싫고，실은 죽어버리고 싶었던 때가.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해내기 힘들 것 같다고 느민 건 강박，불안에서 나온 나의 행동에 나조차 지쳤을 때였다. 부 모님께 말씀드려 버스를 타고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정신과를 찾 아갔다. 내 오랜 진료의 시작이었다.

부모님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말을 꺼내는 일은 순 탄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어머니에게는 말할 수 없어서 아버 지에게 어렵사리 말을 꺼냈었다. 뭐라고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엄청나게 쩔쩔했고，눈치 봤던 감정만 마음에 버석버석 한 모래처럼 존재한다. 아버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병원에 가보

자고 말씀하셨지만，아무렇지 않은 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병원에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사실 거의 말을 못 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내 증상만 띄 엄띄엄 말 한 뒤 의사의 조언을 30분 동안 경청하다가 일주일 치 약을 받고 집에 가는 버스에 랐다. 불안 장애. 우울증. 여러 병명이 나를 정의하 고 난 새로운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걸* 몇 •개월 반복하다 어머니에•게 이제 괜찮다고 말 해버렸다. 부모님과의 소통 부재 탓이었다. 어머니는 그때 내 상태를 인정할 수 없었는지 ‘너는 아주 괜찮아 보인다.’라는 뉘 앙스의 말만 반복했다. 죄책감이 들어 병원을 그만두었지만，몇

* 개월 뒤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다시 같은 병원을 찾았다. 이후 약을 타 먹고 끊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그런 행동이 건강에 좋 을 리가 없었다.

도저히 학교 냄새조차 견딜 수 없어졌을 때，딱딱한 책상 위에

양팔을 두는 게 버거워졌을 때 동급생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버검게 느껴질 때. 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병을 외면하기 위해 한 행동이 더 이상 통 하지 않았다. 생활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도저히 못 다닐 것 같

다고. 집안이 뒤집어졌다. 부모님의 큰 소리가 오가고, 나도 소 리치다 결국 어릴 적부터 늘 그래왔듯 울음을 터뜨렸다. 집을 뛰 쳐나와 옆 아파트 놀이터 시소에 앉아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지금 당장 전화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를 찾 았다. 내가 전화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미용에 관심을 들인 것은 *그* 무렵이었다. 나는 틈만 나면 ‘내일 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막했다. 하루가，인생 이，모든 과거가 리셋되었으면 좋겠다고생각했다. 그런 내게 유

튜브의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영상은 유일한 탈출구였다. 아름다웠다. 다양한 모습를 연출할 수 있었고，원한다면 생김 새까지 내가 결정할 수 있었다. 내 붓질에 따라 내 모습이 정해 지는 것이었다. 메이크업 영상 끝엔 대부분 의도했던 모습으로 변신한 아티스트가 자기 외모를 롱내는 부분이 있는데，늘 그 부분에 압도되곤 했다. 입술에 틴트라도 바르지 않으면 집 앞 편의점도 갈 수 없는 나였다. 내가 싫었으니 내 얼굴도 싫을 수

밖에 없었다. 그 길로 미용 학원에 등록했다.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엔 병가와 조퇴，늦은 등교를 하는 일이 많았다. 자퇴 이야기를 꺼냈던 것을 부모님에■게 전해 들은 선생 님도 편의를 봐주는 상황이었다.

꾸역꾸역 중학교를 졸업해서 먼 곳에 있는 미용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다. 그곳엔 꿈이 있었다. 내가 하 고 싶은 일이 있었다. 그 학교에 관한 안 좋은 인식이나 불량한 소문 따위는 상관없었다. 메이크업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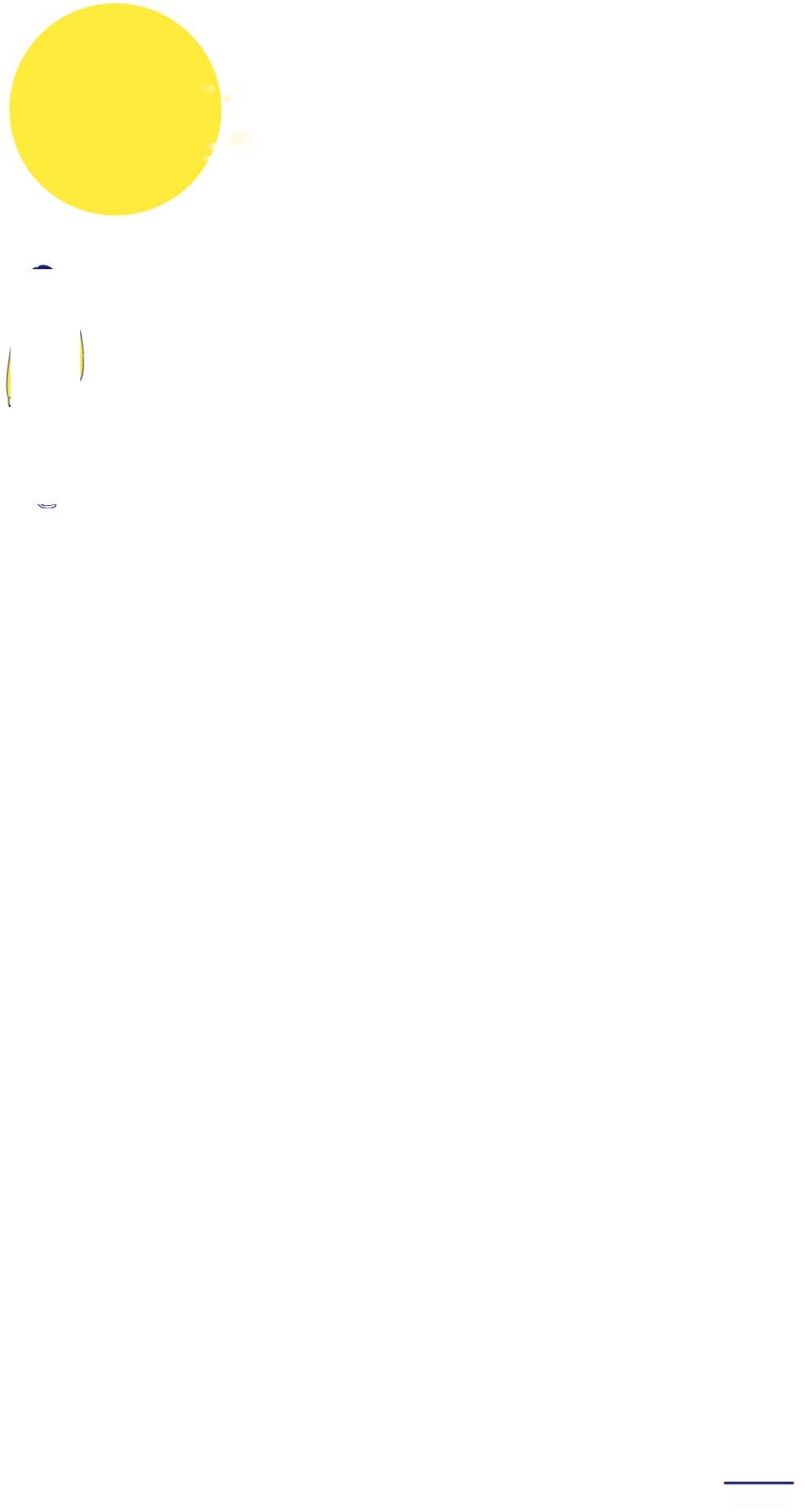
무엇보다 동네에서 벗어날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미용고에 입학한 등교 첫날 깨달았다. 그런 건 없었다. 새로운 3년을 또 버터야 하는 나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곳의 복도에 도 나 혼자뿐이었다. 학생들로 북적였지만，여전히 나는 혼자였

다. 깨달았다. 내가 사회 부적응자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고장

났다는 것을.

지옥의 3년이 또 시작될 것만 같았다. 그 3년을 버티는 동안 미 쳐서 자살해 버릴지도 모른다고도 생막했다. 공포감이 열일곱 의 날 감쌌다. 자신이 없었다. 도저히，선생님과 부모님이 원하 는 정상성에 맞추기 힘들 거 같다는 예감밖에 들지 않았다. *그* 렇게 어렸을 적부터 키워온 불안은 열매를 맺었다.



## 미래는 모르겠고, 지금은 죽을 거 같으니까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수많은 사람에게 들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할 수 없었다. 솔직하게 답한다 면 내 약점이 드러날 주제였다. 어쨌거나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건 정상성에서 이탈했다는 것인데，*그걸* 변명할 만한 정당한 이 유가 내게는 없었다. 유학을 가거나 건강이 나쁘다■거나 대학에 더 일찍 가기 위해서라거나 수능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가 아 니었다. 그냥 정신병이 심해서였다. 그래서 솔직하게 답할 때도

있었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었다.

- 자퇴는 왜 했습니까?

그런 질문을 들으면 난 면접관 앞에 앉아있는 면접자의 마음 으로 대답했다.

- 더욱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학교 밖에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173/174

-학교에 다니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대답은논란의 여지가있다.

- 아팠습니다.

정신아

-사실 학교폭력을 당했었습니 다. 그래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뒤쪽 답변으로 갈수록 상대의 눈치를 더 보았다.

학 교 에 있 을 시 간 에 학 생 이 여 기 서 뭐 하 고 있 느 어 른 의 말에 ‘안 다니는데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럼 반드 시 ‘왜 안 다니는데?’라는 질문이 잡지 부록처럼 따라오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이었겠지만，대답하는 나는

그때부터 두뇌를 회전시켜야 했다. 솔직한 이유를 말할 수 없 는 상대라면 애초에 자퇴 사실을 밝히지 않는 편이 나았다. 하 지만 그런 거짓말은 곧 죽어도 적성에 맞지 않았다. 그러니 사 람 봐가면서 대답했다. “하하!” 웃으며 “아파서요.”라고 대답하 면 보통 안타까운 눈빛을 하고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하지만 유연한 이야기가 통할 것 같은 친구라면 그냥 학교가 싫었다고 답했다. 더 진솔한 마음을 나누고 싶은 친구라면 학 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상대의 궁금증 이라는 도마 위에서 나는 여러 가지 묘기를 부려야 했다. 사람

봐가면서. 질문에 대답하는 일은 이토록 품이 드는 것이다.

요즘젊은것들 모 란

고등학교 입학식 다음 날부터 등교하지 않았다.3년을 또 ‘버 려야’ 한다는 생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녁 식사 도중 어머니한테 자퇴하겠다 말했다. 당연히 집은

또 뒤집어졌다. 거친 말이 오가고 언성이 높아졌다. 울면서 말 했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다 됐으니까 좀 쉬 고 싶다고. 하지만 부모님이 자퇴한다는 딸을 이해해 줄 리가

없었다. 난 결국 짐을 싸고 집에서 나왔다.

갈 곳이 없어서 인근 아파트 놀이터에서 밤을 새우려고 했다. 경비원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놀이터 미끄럼틀로 올라가 사람 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을 찾았던 기억이 났다. 남들에게 가장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구석에 앉았을 때，마음이 팅 비어버렸다 는길 느꼈다.

여기서 잘 수 있을까. 내일은 어디로 가지?

불현듯 SNS에서 본 청소년쉼터의 존재가 떠올랐다. 배터리 가 얼마 남지 않은 휴대폰으로 근처에 청소년쉼터가 없나 검색 했다. 버스 좌석에 앉은 내 얼굴은 눈물범벅이었다. 훌쩍거리

는 걸 티 내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썼다. 청소년 쉼터 입구에 달 린 비상벨처럼 생민 빨간색 버튼을 누른 후사회복지사 선생님 을 마주했을 땐 눈물이 쉬지 않고 죽죽 흘렀다. 내게 어떤 일들 이 있었는지 설명하지 못할 정도였다.



175/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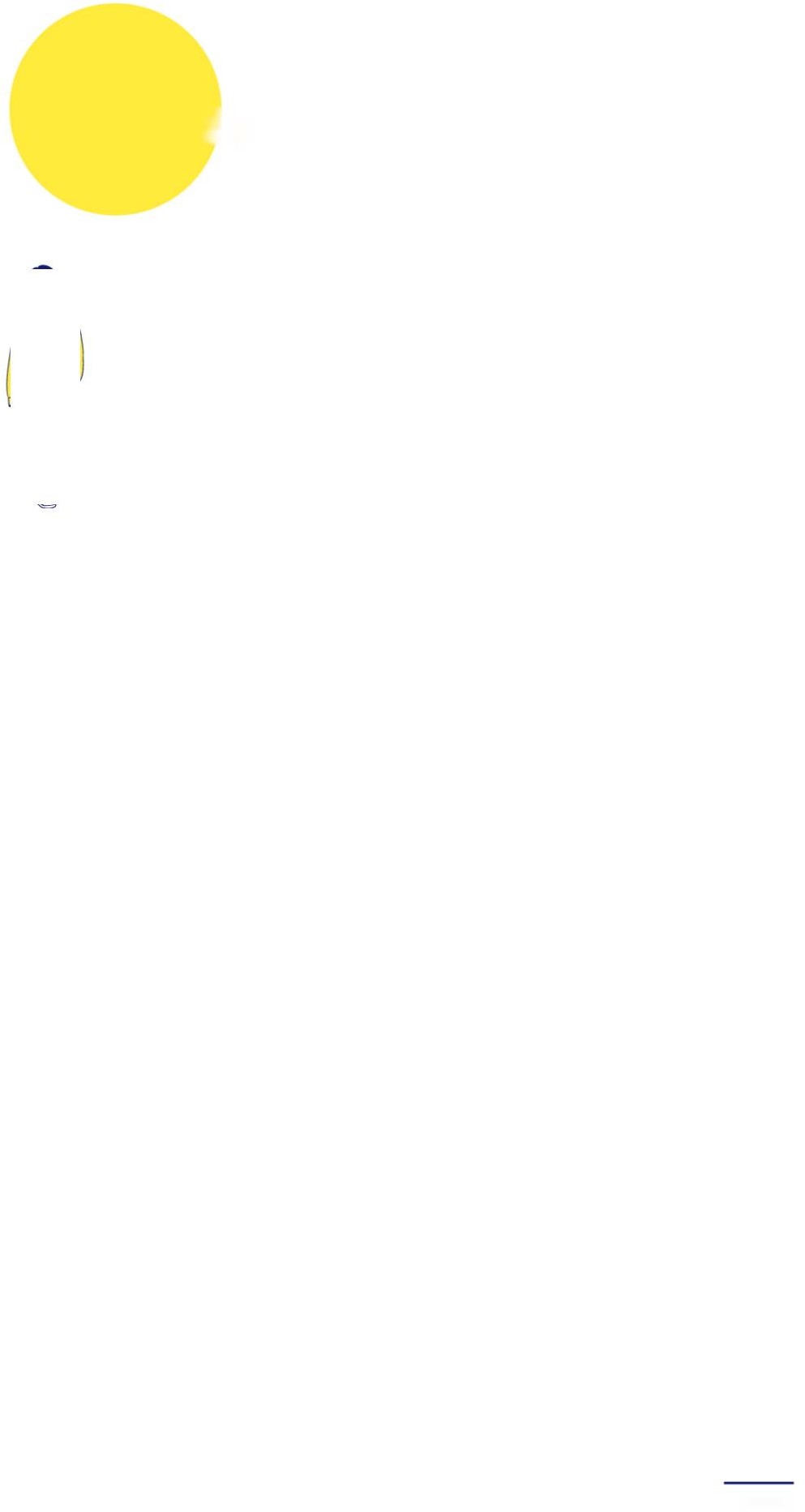
청소년쉼터에서 머무르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중재로 부 모님과 화해하고 자퇴를 허락받기까지는 나흘 정도가 걸렸다. 어른들은 자퇴생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나 미래의 진학 혹은 취 업을 이유로 날 열심히 말렸고 대안학교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그건 내게 그저 ‘미래’일 뿐이었다.

나는 당장 쉬고 싶었다. 자퇴는 불량한 애들이 하는 거고 학 교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은 중요하다는 설교，내가 뒤처지게 될 거란 우려，훗날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막할 거라는 확언，결국 실패하게 될 ■거란 협박. 그러나 당시의 나에겐 ‘그래서 어쩌라 고요’였다.

학교생활이 한순간도 평탄했던 적이 없었다. 계속 학교에 다

니면 자살하고 말 거란 확신이 들었다. 나의 고집도 있었지만， 조언을 가장해서 내 미래를 예견하는 어른들이 싫었다. 인생 선배들의 걱정이었겠지만 내 인생이었다. 내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어야 했다.

다행히 아무도 내 고집을 꺾지 못했다. 미래는 모르겠고 지금 은 죽을 거 길•으니까 관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내 논조였다.



## 내가 성공한 거라곤 실패하기 뿐

자퇴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줄 알았다. 며칠 누워 있다가 책 을 읽고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그대로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 만 새로운 고난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단언권대 자퇴 이후 내

가 시도한 일들은 대부분 실패였다고 말할 수 있다.

책은 읽었다. 하지만 마땅히 할 일이 없어 돈이라도 벌어야겠 다는 마음이 들었다. 17살에 첫 아르바이트로 핫도그를 튀겼 다. 사장은 손님이 나이를 물어보면 21살이라 말하라고 했다. 손님들한테 나이를 속일 기회도 없이 기름통에 둥둥 떠 있는 감자를 건지다 손가락을 넣어버려 호ᅡ상을 입었다. 허무하게 관 두고，이상하•게 메이크업에 대한 열정마저 잃어 미용 학원까지 그만두었다. 이후 쭉 집에만 있었다.

집에서，내 방 침대에서 쉬면 나아질 줄 알았다. 쉬는 건 곧 가

177/178

만히 누워 있는 것인 줄 알았다. 하지만 침대는 마치 늪과 같아 나의 몸을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것만 같았다. 하루 종일 휴대폰 을 보고 밤에는 몰래 일어나 조용한 집안에서 컴퓨터 게임을 했

다. 낮에는 일부러 부모님이 모두 출근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 다. 자는 척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부엌으 로 나가음식을 꺼내 먹었다. 내가 기생충 같았다.

계속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꿈 드림’에서 나를 많이 도와줬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도록 학원 비를 지원해 주거나 캘 리그라피 강습을 들으라고 연락을 줬다. 검정고시 공부를 위해 대학생 멘토 선생님을 소•개받아 수학 과 외를 받기도 했다. 약물 치료와 무료 청소년 상담도 병행했다.

하지만 그럴 때 말고는 모두 집에 있었다. ‘이런 직업 체험 프 로그램이 있는데 올래?’라고 카톡이 오면 가고，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우울해했다.

소속된 집단이 없다는 것 생각보다 외로운 일이었다. 자퇴한 것을 늘 변명하고 다녀야 했고 내가 학교에서 나와 얼마나 다양 한 일에 도전하고 있는지 증명해야 했다. 그러다 다시 방에 처 박혀서 또래 친구들이 카키•오록 배경 사진으로 올린 학교생활 사진을 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 너무 외로워서 침대 구석에 서 울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무기력해져서 생각이 많아졌다. 내

과한 생막은，해파리를 동경하게 된 마음은，은둔형 외톨이 시 절에 뿌리가 있다.

아르바이트를 갈게 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일이 많아졌다. 자 격증을 따려고 컴퓨터 학원에 등록해도 수업이 벅찼다. 사람들 이 가득 있는 공간에서 수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머리를 열심 히 굴렸던 기억이 난다. 에너지를 하도 소모해 벗어 놓은 곁옷을 학원 의자에 놓아둔 채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도 다시 학원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서 그냥 버스에 타버렸다. 학원에 가지 않 게 된 건 그로부터 며칠 뒤다.

실패의 연속에 성취감이 없으니，귀터칼로 손목을 긋기 시작했 다. 그건 내가 내 의지로 해낼 수 있는 거였다. 죽 그어 피를 보 면서 성취감을 느꼈다. 통증을 통해 나를 확인할 수 있어서，내

가 스스료 원가를 해서 피를 보니 좋았다. 심지어 피를 흘리는

감각이 시원하기까지 했다. 해냈다，더 그을 수 있을까? 도루코 면도날을 찾기 위해 거실을 어슬렁거렸다.

무엇이 나를 그토록 진창까지 찍어 눌렀는지는 모르겠다. 정 신 질환을 오래도록 앓고 있었고 학교를 그만두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내 상태는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쉬 고 나니 내 자신이 남들은 다 다니는 학교’조차 다닐 수 없는



179/180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뭘 시도해도 부족한 끈 기와 과한 무기력으로 얼마 못 갔고，어머니는 내게 뭘 해도 좋 으니 제발 밖에 좀 나가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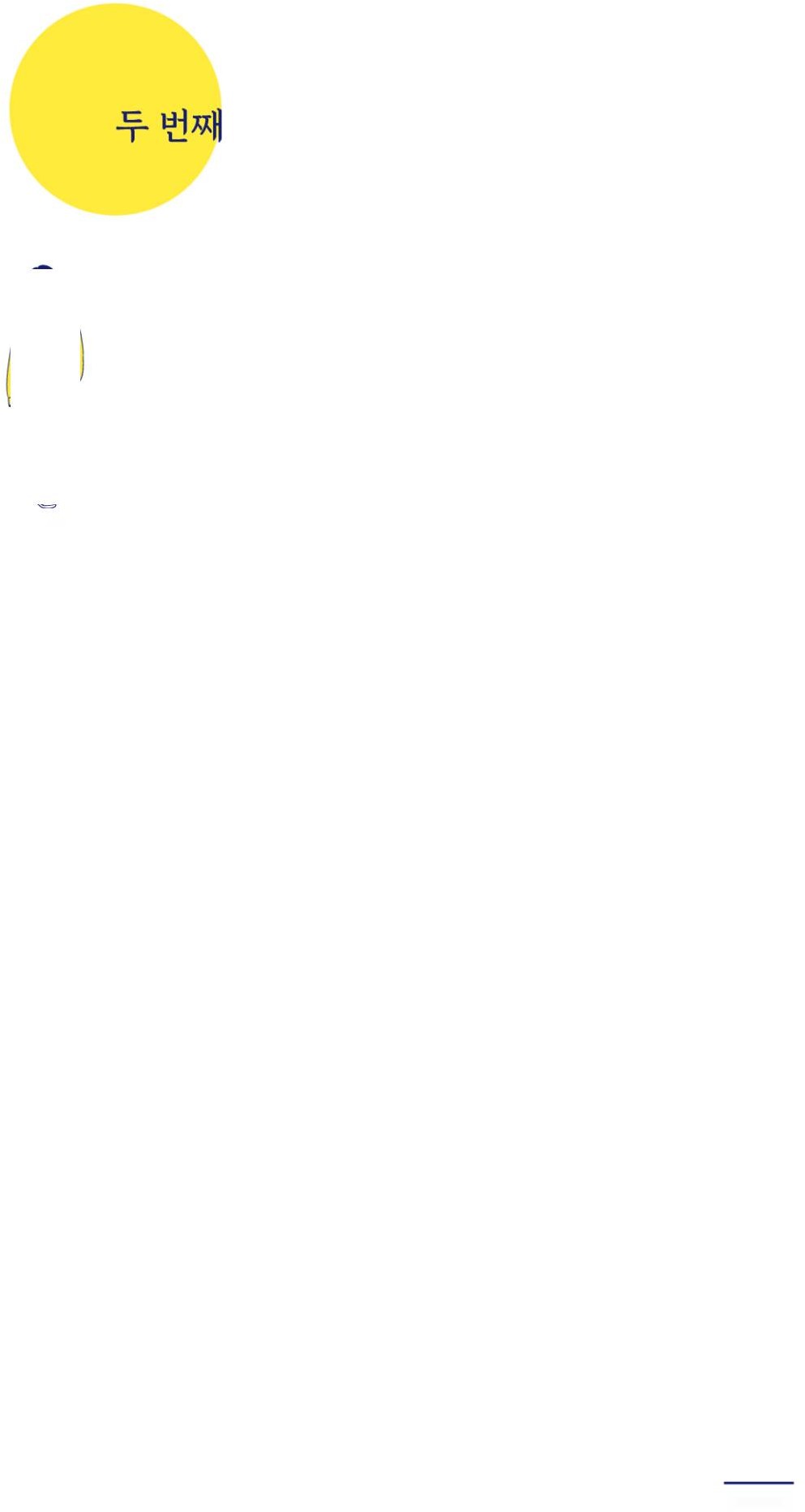
그럴수록 침대에 더 파고들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지 않길 바 라면서 잠들었다. 계속 자고, 인터넷 보고，유튜브로 나와 비슷 한 사람들을 보며 안심하다가，알고리즘으로 뜨는 일상 브이로

그에 자극받아 아무 일이나 시작했다가 이내 그만두었다. 조급 한 마음으로는 따라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하루는 햇살이 창문에 만든 무지개가 예뻐서 넋 놓고 바라보 다가，하루는 *그* 무지■개를 쳐다보며 커튼줄을 목에 걸고 조였 다. 또 다른 하루는 2주 치 약을 한꺼번에 먹고 자버렸다.

당연히 이 방법들은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다만 이 행동들이，내 시도들이 계속 나의 아듣을 증명했다. 정신 질환 은 가만히 있으면 아픈지 어떤지 알 수가 없다. 나에게는 확증 이 필요했다. 집에 박혀 있는 것이 정당하다는 증거가 필요했다.

스무 살이 되기 전까지 내가 성공한 일들이라곤 ‘실패하기’뿐 이었다.



## 자퇴

19 살이 되었을 때 내게 남은 것은 손목의 자해 흉터와 곰팡 이 길\*은 마음뿐이었다. 베■개에 강한 자석이 있는 것처럼 나는 일어날 수 없었다.

그 무렵 또래 친구들은 뜨거운 입시를 경험하고 있었다. 가곰

연락하는 친구들은 자신들만의 목표를 세우고 매일 열심히 공 부하거나 기술을 배웠다. 나와는 달리 정진했다. 힘들어 보였 다. 열심히 사니 힘든 것이었다. 나도 힘들었다. 열심히 살고자 하며 실은 침대 위에 파묻혀 있어서 힘들었다. 나의 힘들은 허 공을 맴도는 힘들이었고，친구들의 힘들은 성취를 위한 힘들이 었다. 그들이 부러웠다. 노력하고 그게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 는게 부러웠다.

수능 공부를 혼자 시작했지만， 공부를 오래 놓은 탓에 글자 가 잘 읽히지 않았다.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아도 역부족 이었다. 수험공부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무기력과 우울，불안，

181/182

강박에 완전히 잠식되어 눈을 뜨고 있는 식물인간이나 마찬가 지였다.

공부는 몇 주 지속하지 못했지만，스무 살이 되면 대학은 가야 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검정고시 졸업으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건 그 당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니 취업할 수도 없었고，아르바이트 면접은 보는 족족 떨어

졌다. 겨우 주방 아르바이트라도 붙으면 내 체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나를 몰아붙였다. 그러면 알바를 그만두 었다. 그리고 자책했다. 학교도 마치지 못했는데 힘든 사회생활

을할수 있을 리가 없다고.

'보통’의 범주에 들게 된다면 나아질 줄 알았다. 검정고시 성적 을 내신으로 환산해 주는 대학에 원서 하나를 썼다. 지원 사이 트에서 아무 학과를 골랐고 그렇게 대학에 다닌다면 사정이 달 라질 줄 알았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었는데도，나는 정상성 에 집착했다.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랬다. 정상이 뭔지 도 몰랐다.

스무 살에 대충 원서를 넣고 생둥맞은 무역학과의 21학번으

로 입학했을 때， 코로나가 터졌다. 스스로가 부끄러워 늘 마스 크를 쓰고 다녔던 터라 사회적 거리 두기 원칙은 금방 익숙해졌

지만，대학은 아니었다. 캠퍼스는 휑했고 대면 수업은 없었다.

온라인 강의를 한 달 정도 들은 후 이 생활은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님을 알았다. 생막 없이 기숙사에 지원해 좁은 2인실 방에 박 혀서 인터넷 강의를 들었으니 스트레스만 잔뜩 받은 상태였다. 더 할 짓이 못되었다. 또 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했다.

그만두는 건 참 쉬운 일이다. 컴퓨터 학원을 그만두고, 미용 학 원을 그만두고，어떻게든 시작한 일도 모두 그만두고 침대로 들 아가는 건 간편했다. 죄책감과 자괴감은 자연스레 따라와 마음 속에 축적되는 것이었다. 재기불능의 상태임을 자각했다.

기숙사 바말에서 어머니에게 자퇴하고 싶다고 전화했다. 어머 니가 불같이 화를 내는 건 당면했다. 나는 어두운 구석 자리 벤 치에 앉아 휴대전화를 붙잡고 울었다. 이건 내가 상상하던 모습 이 아닌데.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다.

무책임하게 대학을 한 달 만에 그만두었다. 한번 해봤으니 자 퇴 서류를쓰■기란어렵지 않았다.

두 번째 자퇴를 하고 난 뒤부터는 자신에 대한 절망이 전부였 다. 청춘에게 요구되는 '책임’，‘기력’이란 단어는 무책임，무기력

같이 앞에 ‘무（無）’자가 붙고 나서야 내게 허락되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건지를 고민했다. 여전히 자아를 찾지 못하 고 있었다.

그 뒤로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 나는 뭘

좋아할까. 왜 조급한 생각을 할까. 그리고 왜 책임감 없이 모두

관둬버릴까.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뭘까.

그 무렵，온라인에서 아마추어 소설을 연재하고 있었다. 세상 과의 유일한 소통 창구였다. 친구에게 동경 어린 시선을 받았던 경험，글을 쓰며 생막을 정리하던 습관，불특정 다수와 소통하 고 싶다는 마음이 만들어 낸 것이었다. 비정기적으로 소설을 올 렸고 칭찬 어린 댓글을 잔뜩 받았다. 내가 쓴 소설이 재있다는 댓글을 보면 뇌가 저릿할 만큼，손가락이 찌릿찌 릿할 만큼 환상

적인 기분이 되었다. 글을 쓴다는 것이 좋았고 점점 욕심이 생겼 다. 유일한 관심사라고 한다면 글쓰기 정도였으니，다시 학업을 시작한다면 학과는 글과 관련된 곳이어야 했다.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했다는 열등감，모두가 '정상적인

루트' 에 속해 있는데 나만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단어처럼 정 *상* 바말에 있다는 불안감， 그러니까 한참 뒤처져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학업에 대한 욕망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평소에도 생각을 표현하고 지식을 나누는 것을 좋아했다. 친 구들과 깊은 대화를 하며 즐거움을 얻었다. 대학에 다니는 친구 들은 그럴 기회가 더 많아 보였다. 하지만 정상 바말에서는 하 다못해 독서 모임조차 내가 만들 수 없었다. 아니，만들어도 아

무도 오지 않았다. 존재도 모른다. 대학에선 달랐다. 대학생이

라는 신분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백수보다 배로 많았다.

자퇴 이후 가을에 접어든 어느날，한 친구가 내게 말했다. 너는 분명히 지식욕이 있다고.

많은 생막이 들었다. 두 번이나 포기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까. 나 같은 사람이 다시 도전해도 되는 걸까. 또 무책임할 텐 데. 하지만 이 상태로 쭉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동네 배달 전문점의 주방보조 아르바이트뿐이었다. 햄버거를 만들거나 백 화점에서 운동복을 8시간 동안 서서 팔거나，경 력도 스펙도 없 는 팅 빈 이력서를 구직 사이트에 등록하고 오지 않는 답을 기 다리는 일뿐이었다. 그 쉽다는 컴퓨터 자격증도 딸 수 없었다. 무언가를 한다는，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내겐 없었 다.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격증 시험을 망쳐 불합격을

받기 일쑤였다. 한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무슨 대학을 다시 간 다고. 그렇게 자책했다.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정상 루트’에 다시 탑승하고 싶었다. *그* 당시에 는 마치 유령이 내 귀에 속삭이는 것 갈■았다. 계속 이런 말이 들 렸다. 포기하지마. 한번 더 도전해보！•. 다를지도 모르잖아. 심해 속에 말려 있는 욕망이 꿈틀거렸다.

그리고 1년 뒤 21살，나는 22학번으로 다른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역시 검정고시로 지원한 대학이었고，이번에는 내가 원한 학과였다.



## 창밖은 타오르는 주황빛의 세계

다행히 주변 사람들 모두가 내 재도전을 응원했다. 입학 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적당히 두꺼운 무지 노트를 사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일기를 찢어 버리고 싶어도 그러지 않았다. 그 저 꾸준히 쓰기만 했다.

나를 미워하지 말자. 내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찢고 태우고 버린다고 지워지는 행적이 아니었다. 인생은 리 셋할 수 없다. 내 몸과 마음에 모두 흉터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과거였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수치스러운 일기 를 계속 썼다. 그리고 계속 괴로워했다. 열등감，*낮은* 자존감， 우울감，불안감，내성 발톱 같은 감정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는 노트는 태우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었다. 그래도 계속 썼다.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버리기는 싫었다. 달라지고 싶었다. 일기 를 쓴 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나의 첫길음이 었다.

요즘젊은것들 모 란

나름 재수한 거라고 정신 승리를 하며 22학번으로 입학했을 때는 비대면 강의가 모두 대면 강의로 바뀌던 시기였다. 처음 갔던 대학과 완전히 다른 캠퍼스는 매일 북적였고 다시 시작한 기숙사 생활도 어찌어찌 해냈다. 룸메이트가 외박을 자주 해준 덕에 대부분의 시간 동안 혼자 방을 쓸 수 있었다.

용기를 내 동기에게 말을 걸고 친구를 만들었다. 나처럼 21살 에 입학한 친구들이 많았다. 회식도 하고，다 같이 놀았다. 그리 고 여느 때처럼 스트레스를 받았다. 은둔형 외톨이 시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었다.

처음엔 출석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17살부터 21살이 되기까지 나는 쓰고 싶을 때 쓰는 일기 말고는 무언가를 꾸준히 해본 게

없었다. 과제를 하고 시험을 치는 것이 그토록 많은 기력이 드는 일임을 몰랐다.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첫 학기 학점을 말아먹었다. 과제를 내지 못해 D를 받기도 했다.

학교에 다니며 사람들과 부대끼는 생활이 심한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했다. 중학교 때가 떠올랐다. 대인관계가 무서웠고 별 문제도 없는데 과대망상으로 친구가 날 싫어할까 혼자 걱정했 다. 학교폭력을 당했던 기억과 은둔형 외톨이로 오랜 기간 살았

던 기억，일을 시작하는 족족 그만두고 실패했던 경험들이 날 다 시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1학년 1학기를 보내며 스트레스를 과

식하는 것으로 해소하기 시작했다. 살이 단숨에 5킬로씩 늘어 났다.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자존감이 희미해지기까지 한 것

은 그때였다. 산소호흡기를 찬 것처럼 학교에서 제공하는 상담 프로그램에 매주 갔으나 결국 1학년 2학기에는 휴학했다. 다짐 을 가득 품고 다시 도전한 것의 결말이었다.

고등학교 자퇴，대학교 자퇴，다시 입학한 다른 대학교에서 한 학기 마치고 휴학. 일기장에 이 사실을 나열했을 땐 진심으로 죽고 싶었다.

부모님과의 길등은 점점 깊어졌다. 우리가 널 어디까지 봐줘야 하느냐. 문제가 생기면 늘 내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

사실은 자퇴를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담 선생님의 만류 로 휴학을 결정했다. 충동적인 상태에서 일을 그만두는 선택을 하는 것보단 진정된 후 다시 생각해 보라는，그러면 기회가 남 아있을 수도 있지 않匕는 조언을 들은 덕이었다.

휴학하기 전，학교 상담 선생 님과 함께 마라탕을 시켜 먹은 적 이 있다. 공대 1층 라운지에서 본 창밖은 타오르는 주황빛의 세 계였다.

여기 예쁘지? 지나가듯 말하던 선생님의 목소리가 떠오른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이라 마라탕을 야무지게 나눠 먹고 있었는

데，선생님이 너무 많이 먹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다. 아차 싶 어서 사과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돌아왔다.

장난친 거야. 너는 매사를 너무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니까.

늘 긴장 상태인 캠퍼스 안에서 처음，사람 대 사람으로서 다정 하게 대해지고 있다는 마음에 괜히 기분이 이상했다. 어떻게 반 응해야 할지 몰랐다.

마라탕을 먹고 나서는 카페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했다. 선생 님의 차를 타고 기숙사가 있는 캠퍼스 꼭대기까지 짧은 드라이 브를 했다. 구불구불한 오르막길을 작은 차로 달리는 상황이 신 기해서 몰래 웃었던 기억이 난다. 시야가 확트인 산정상에서 도 로 옆 난간을 붙잡고 타오르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 풍경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단순히，행복했다.

선생 님과 나누었던 짧은 대화，웃음소리，빨대로 다 마신 음료 를 빨 때 나는 꾸르륵 소리，반쯤 녹은 얼음이 플라스틱 컵 표면 에 물방물로 맺혀 차가웠던 손의 감각，난간을 꽉 붙잡을 때 손 에들어간 힘까지.

그때는 내가 학교와는 완전히 맞지 않는 줄 알았다. 한 학기 동안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약 10킬로가 불었고 피부는 여드름으로 가득해졌다. 중학교 이후로 몸무게가 20킬로나 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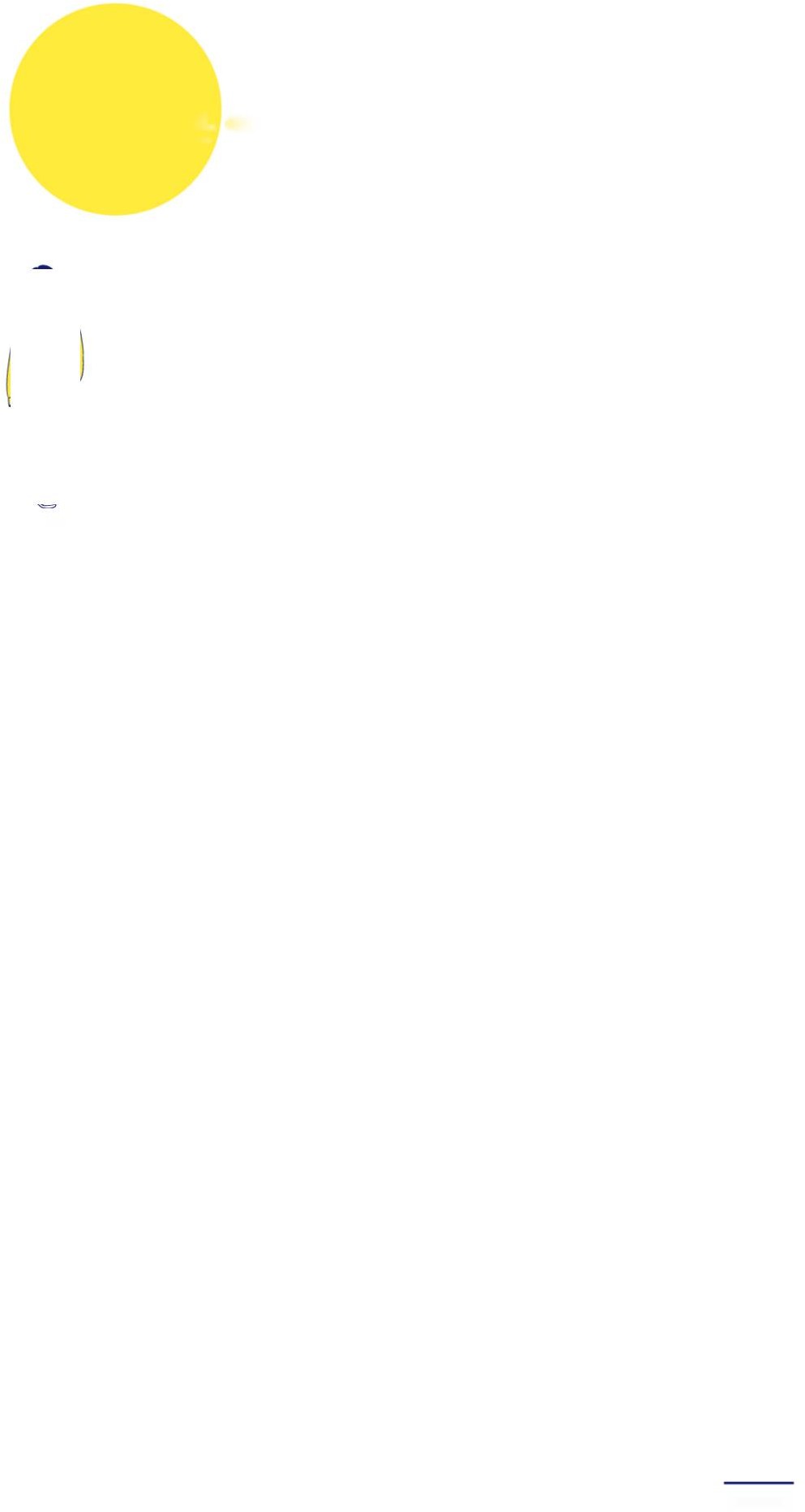
것이다. 선생님에게 문자메시지로 했던 말이 아직 생생하다.

선생님，저는 학교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잘 지내라는 선생님의 다정한 격려에 나는 다시 암전을 맞이

했다. 휴학이었지만 자퇴를 작정하고 있던 나는 세 번째 학업 실패를 앞두고 있었다.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붉은 노을과 선생 님과의 짧은 추억은 분명 내 마 음 어느 구석에 희미한 빛으로 남았다.



## 바닥은 아직 멀었구나

내게 휴학은 ‘ 또 실패했다’ 와 길은 말이었다. 세 번째 자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고，이보다 더 실패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얼마 허락되지 않은 면접 을 다니면서도 패배감에 젖어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았다.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고 아무 것도 이어갈 수 없었다. 마치 식물인간 갈■았다.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워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단추를 떼어 다시 달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중국집에서 서빙 알바를 시

작한 날이었다. 밤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토할 것 같은 상 태가 지속되었고, 새벽 내내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토했다. 원

래 체력이 좋지 않아 여느 때와 같은 줄 알았다. 하지만 일하러 갈 수 없을 정도로 속이 좋지 않아 동네 병원을 찾아갔고 나흘

간 입원했다.

191/192

겨우 시작한 아르바이트를 아프다는 이유로 관두고는 마음이 더 안 좋아졌다. 어쩌면 패배감 때문에 속을 다 버린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막했다. 계속 머리가 무검고 토가 나올 것 같이 울 렁거렸고，몸에 힘을 줄 수 없었다. 나흘째에 의사가 말했다. *간* 수치가 너무 높으니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온* 병원을 돌아

다니며 장염약을 먹었는데 생막과 다른 말이었다.

2차 종합병원에서 피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간* 수치가 비정상 적으로 높다며 ‘약제성 간염’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당시 정신과 약에 의구심을 가진 채 약 2년째 복용하던 중이었고，몸무게는

80kg에 육박하여 생리도 1년 정도 멈춘 상태였다. 몸엔 여드름

과 엘로이드, 자해 흉터가 낭자해서 피부과 주사와 약까지 먹고 있던 차였다.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 무기력과 우울을 이기지 못 하고 휴학까지 했는데，원인이 분명했다. 그런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상태가 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다.

21살의 나는 간 수치가 600을 웃들았다. 정상 수치는 20에서

30 정도랬다. 의사는 간경화 전 단계이고，내 나이 정도의 여성 이 간 수치가 이렇게 높은 건 이례적이라는 말을 했다. 놀랍지 않았다. 이 수치가 내 인생의 결과구나 싶었다. 이미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인생에서 한 번 더 바닥을 찍을 수 있구나，바닥이든 꼭짓점이든 ‘맨 끝’이란 건 없구나，하고생각했다.

일주일 동안 입원하면서 간 수치를 조금이나마 낮추었지만，의 사는 체중 관리가 필수라고 말했다. 산부인과에서도 체중 관리 를 해야 한다고 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받기도 했다. 그■게 어떤 것이든 내가 내 몸을 오랫동안 방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간 약만 빼고 나머지 피부과，정신과 약은 모두 복용 을 멈추었고 집에서 푹 쉬었다. 백수로 들아간 것이나 마찬가지 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회복을 핑계로 한 달여를 쉬고 있었다. 9 월에 1 학년 2 학기를 포기하여 휴학하고 W월쯤부터 아팠으니 2022년이 그대로 끝나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정말로 그때 내가 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

각 말곤 없었다. 그때도 나름의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허무맹랑한 목표였던 것 같다.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하 지 못하는 몸을 가지고 500만 원을 모아 해외에 가겠다는. 그때 도 나는 일기를 썼고，누군가 내게 네가 꾸준하게 하는 일이 뭐 냐고 물었을 때 답할 것이 ‘일기 쓰기’ 밖에 없던 때였다.

2023년 1월 1일，어머니와 간절곶 바닷가에 다녀왔다. 스물두

살이 된 날이었다. 바다를 보며，파도치는 모습과 소리를 느끼 며 이렇게 생각했다. 방황은 이쯤 끝낼까. 시도했다가 포기한 자격증들，아르바이트들，꿈들，학교들 모두 나는 지울 수 없었



193/194

다. 모두 내가 한일이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내가 추구하는 삶은 어떤 모 습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여태까지의 멍 청한 모습은 버리고 새롭게 나아가는 결심 따위는 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한 일들을 인정하고 성찰하는 것에 집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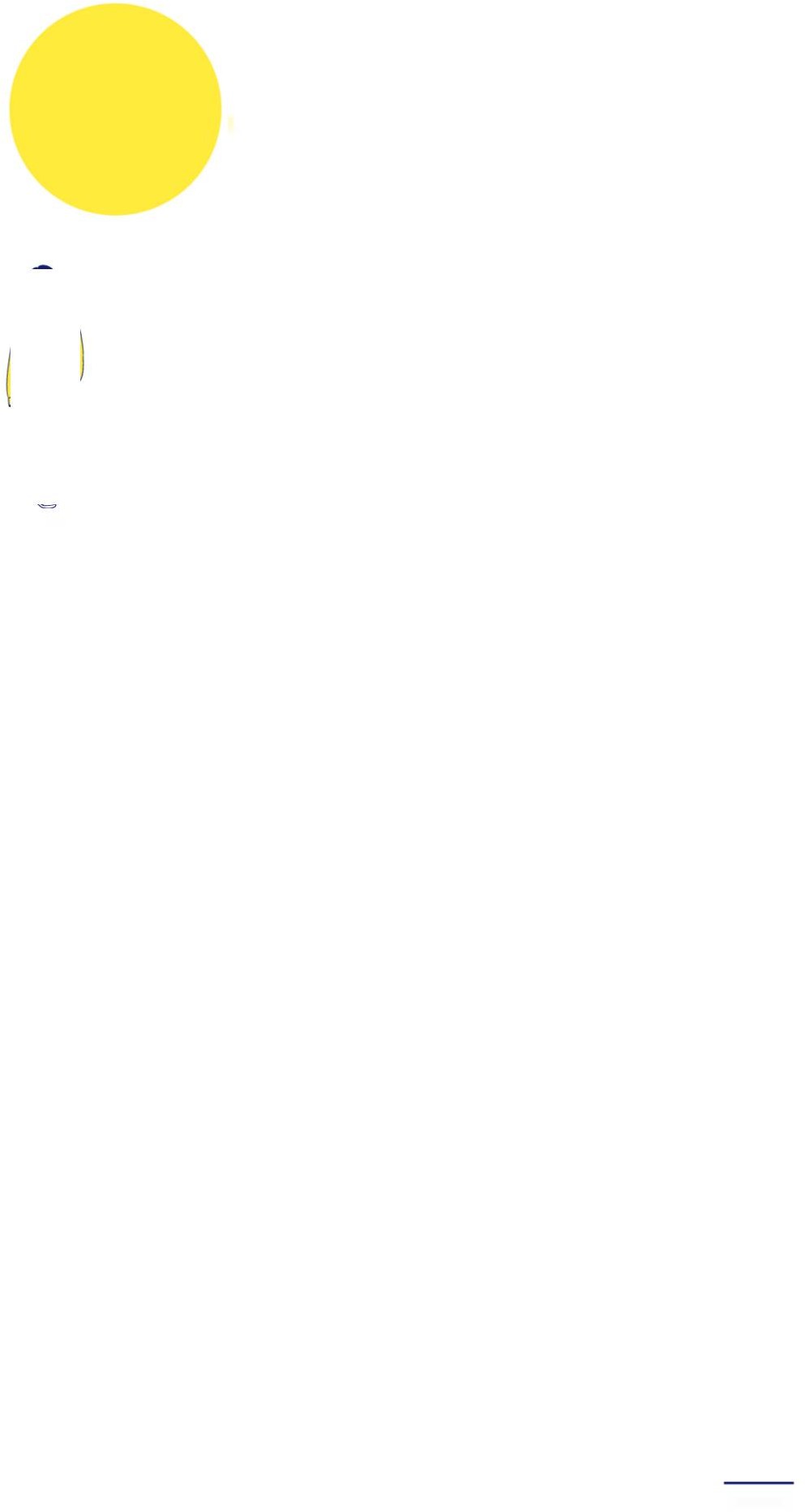
일기장은 그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간 쓴 일기를 천천히 다시 읽었는데，그게 정신 질환 때문이든 죽음에 끌렸기 때문이 든 너무 극단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날

은 평범하게 행복함을 느끼 다가 어떤 날은 열등감에 낟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다가， 진취적인 생각을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겠다며 다짐하다가 며칠 뒤엔 역시 나는 실패하는 존 재라고，힘들다고，쉽지 않다고 투덜■거리며 그만두는 패턴을 반 복하고 있었다.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았었지만 내 병을 어 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랐다. 감정의 양극단을 오가면서 점점 지 쳐갔고 쌓인 실패에 무력감을 느꼈다.

내 패턴을 파악하고 나니 나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다. 그리 고 천천히 시작하기로 했다. ‘선택은 신중히，그 선택은 책임감

있게 지키기’를 슬로건 삼았다. 내게 없는 끈기를 기르고 싶다고 생각했다.



## 미래의 내 기분을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업보 청산이라고 생각했다. 고I어에 그 만둔 것들에 다시 도전해 보자는 마음으로 무작정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필기 공부를 시작했다. 작은 성취부 터 이뤄내고 싶었다. 럼활을 써먹든 써먹지 않든 상관없었다.

무엇이든 해내는 것이 내 과제였다.

결심하고 난 후엔 최선을 다했다. 하루 종일 공부하지는 못하 더라도 적어도 30분은 교재를 보려고 노력했다. 하기로 했으니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자. 하기 싫어지면 이 생각을 했다. 책임.

나는 이 말들을 정말 좋아했고 자주 생각했다.

* 결정한 과거의 나를 존중해야 한다.
* 결과를 볼 미래의 내 기분을 위해 지금 해두어야 한다.

전자는 책임감에 관한 것이고，후자는 스스로에 대한 이해에 서 출발한 것이었다. 불합격을 하든，성적이 낮든，노력도 하지 않 았으면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 늘 침울했다. 아무렇지 않은

195/196

척했지만 사실 속상했다. 내가 딱 그 정도 사람인 것 같아서. 하 지만 결과를 볼 미래의 내 '기분’을 위해서 지금 하자고 나를 달 래기로 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임했더니 필기에 합격했다. 첫 성취 였다. 신이 나서 실기도 바로 준비했다. 실기에 떨어지면 필기를 붙은 내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준비했고， 바로 합격했다.

어쩌면 남들에겐 수많은 쉬운 자격증 중 하나고 Ob무것도 아 닐지도 모르지만 내게 럼활 2급은 세상으로 향하는 도약이었다.

남들 다 딴다는 자격증，그리고 내가 따지 못했던 자격증.

취득한 날에는 감동까지 받았다. 나도 할 수 있구나. 평범하게 할 수 있었구나 싶었다. 평균 이하의 삶에서 평균의 삶으로 한 계단 올라온 것 같았다. 시험을 치고 집으로 돌아와 초밥을 시 켜 먹는 루틴도 그때 만들었다. 내게 주는 나름의 선물이었다.

럼활 취득으로 자신감이 붙어 다른 컴퓨터 자격증도 따보고 싶었다. 그래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도 연달아 취득하였다. 상 공회의소에서 시험을 치고 집으로 들아와 초밥을 먹고，실기 치 러 또 상공회의소에 갔다가 초밥을 사 먹는 루틴을 반복했다.

내게 결여되었던 ‘선택에 책임지기’라는 문구를 지키려고 노력 했고，지켰다.

실물 자격증 카드 두 장이 우편으로 도착해서 손에 쥐어졌을 때는 날아갈 것 같았다. 드디어 평범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 쩌 면 계속 평범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여전히 삶의‘정상화’를원했다.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쯤 복학 결심을 했다. 배우고 싶은 것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기회를 잡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도

분명히 있지만 무기력함에 모두 가려져 있었다. 휴학할 때는 너 무 늦었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계산해 보니 복학하고 졸업해도 26살의 초입이었다. 정신 질환을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기엔 아 직 ‘복학’이라는 기회가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충동적으로 자퇴

하지 않고 휴학으로 선택을 보류한 과■거의 내가 처음으로 다행 스러웠다. 조언해 준 상담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잘한 일 이었다.

부모님께 복학하겠다고 선언했고，어떻게든 나아져 보고자 노 력하기 위해 수영 강습을 받기 시작했다. 새로운 도전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여름마다 워터파크도 가지 않고，바다를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다. 뚱뚱한 몸에 수영복을 입은 모습은 상상하기도 싫었거니와 수영하는 방법을 아예 모르기도 했다. 그런데 갑작스레 도전해 보고 싶어졌다. 복학을 결정한 김 에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

물론，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공용 샤워실의 인파 사이에서 수 영복을 입고 강습 레일을 찾아가는 과정은 무서웠다. 혼자 할 수 있을까，똑바로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벌컥 밀려들기 도 했다. 하지만 전부 괜찮았다. 모르는 건 물어보면 되는 거였 고，처음이라 어색한 건 받아들이면 되는거였다.

풍덩 ! 락스 냄새가 가득한 물에 들어가 헤엄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전부 새로웠다. 물에서 숨을 쉬는 법부터 배웠다. 그러면서 레일을 한 바퀴 들고，리판을 가지고 발차기하는 연습을 했다. 물이라는 익숙하지만 낯선 환경에서 잘 헤엄치려면 어떻게 해 야 하는지 몇 개월간 열심히 배웠던 것 같다.

신기하게 수영은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강습이 끝나고 머리가 젖은 채 체육센터에서 나와 건널목 신호 를 기다리고 있노라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 없었다. 햇빛을 받 으며 상쾌함을 느끼는 그 감각이 너무 좋아서 거의 빠지지 않고 가게 되었던 것 같다. 그 순간을 위해 열심히 출석했다. 자유형 과 배영，평영을 배우며 안 사실은，꾸준하기만 하면 뭐라도 해 내게 된다는 것이었다.

강습이 시작되기 10분 전에 미리 물에 들어가서 둥둥 떠 있는

몸을 그대로 느꼈다. 강습이 시작되면 열심히 헤엄을 치고，날 로 늘어나는 체력에 뿌듯함을 느꼈다. 비만인 상태로 수영복을 입었지만，점점 한 사이즈씩 작은 수영복을 살 수 있었다.

고요한 물속에서 코로 숨을 뱉고 다시 올라와 들이마실 때，나 는 내가 해파리가 아님을 여실히 느꼈다. 편안함은 느낄 수 있

지만 내가 좋아한 건 해파리가 되고 싶다는 일종의 관념이었다. 물속에 있을 때 나는 물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내가 물 그 자체였다. 내 육체가 물속에 풍덩 들어갔지만 물 속에서는 영혼

만 남는 감막을 느꼈다. 그러다 헤엄치는 방법을 상기하면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다. 생각의 문장들이 고요한 물 안에 흐릿하게 떠다니는듯했다. 수영은 내게 그런 의미였다. 물속에서 서 있기 란 얼마나 힘든 일인지，또 익숙해지면 얼마나 쉬운 일인지 깨닫 게 해주는 과정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토익 학원에도 등록했다. 살이 점점 빠지고， 성취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 때였다. 그런 자신감을 바 탕으로 또 다른 평범함에 도전한 것이다. 대학생들 대부분이 취

업을 위해 친다는 토익에서 내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궁금했다. 학원에 다니는 건 큰 결심이 필요했다. 자격증 공부는 집에서 혼자 해도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그만두었던 전적도 있거니와 생각만 해도 긴장이 되 었다. 그래서 복학의 예행연습이라고생각했다. 이걸 잘 해내면 복학하고서도 다시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열심히 자기암시를

했다.

열심히 할 생각하지 말고 수업만 꼬박꼬박 듣자. 돈 아깝게 결 석은하지 말자.

수많은 학원을 그만두었던 경험이 날 움츠리게 했지만 잘 해 내고 싶었다.

학원 선생님은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는 내 이야기에 점수 가 아주 낮을 거라고 말했다. 잘 봐야 400점 초반 정도일 거라 고. 그래서 초급반에 들어가 기초부터 배웠다. 조용한 강의실에 앉아있는 건 고역이었다. 목과 등이 경직되었고 시간이 흐를수

록 엉덩이 근육이 아팠다. 사회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격리시킨 지 오래라 숨소리와 침 넘어가는 감막에 온통 신경이 쓰여 가곰 은식은땀까지 났다.

그래도 수업을 마치면 뿌듯했다. 출석했다는 뿌듯함을 마음속

에 품고 귀에 에어팟을 꽂은 뒤 집으로 향하는 버스 뒷자리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들었다. 그렇게 한 달 뒤 첫 토익에서 620점을 맞았다. 평균 미달이었지만 크나큰 발전이라는 주변의 평가가 뿌듯했다. 무엇보다 성장한다는 감각이 짜릿했다.

학원 수업에 익숙해지고 토익 초급반에서 중급반으로 진급했 을 즈음에는 소설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나는 하루 종일도 공 상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중 가장 행복했던 공상을 소설로 써

서 누구도 찾지 않아 허허벌판과 다름없던 내 공간에 올리니 사 람들이 방문하기 시작했다. 내 소설을 재미있■게 읽고 있다는 댓 글，이런 부분이 좋다는 댓글，다음 편을 기다리고 있다는 댓글 들은 ‘내 글이 괜창은지도 모르겠다.’는생각을 갖게 해주었다.

더 잘 쓰고 싶어서 국립국어원 사이트에 들락날락하고 문장을

더 고치고 작법을 찾아보았다. 더 많은 글을 읽어야겠다는 생막 에 국문학을 배우는 전공으로서의 복학이 기다려졌다. 오전에 는 토익 학원에 갔다가 집으로 들아와 오후 내내 아마추어 소설 을 쓰는 생활을 7, 8월에 지속했다.

여름을 그토록 싫어했는데 여름을 좋아하게 되었고，장마 기 간이면 *그걸* 배경으로 소설을 썼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어떻게 장마를 더 애틋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흠뻑 젖은 세계와 눅눅한 공기，축축한 우산 이 청바지 끝에 닿는 감각이 느■껴졌다. 마침 귀에 꽂은 에어팟 에서 나오는 노래는 장마와 잘 어울리는 차분한 음악이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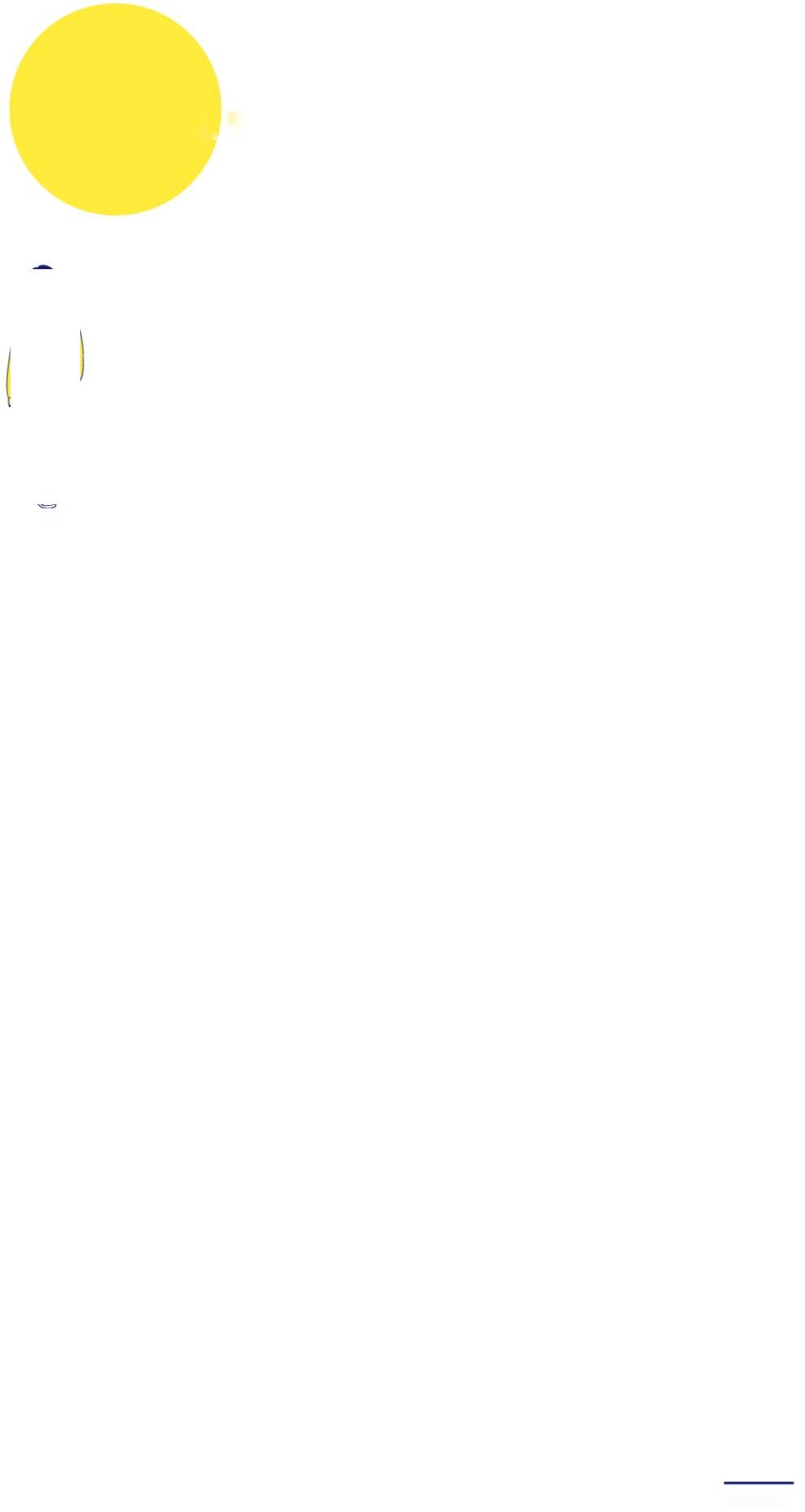
상황이 괜찮았다. 기분 나쁘지 않다고，오히려 낭만적인 순간이 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장마를 처음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8월이 끝나면 1학년 2학기에 다시 도전하는 복학의 9월이었 다. 8월의 나는 약 20킬로를 감량해 간 수치를 정상으로 들린 사람이었고, 성취감을 느껴 자신감이 생민 사람이었고，이전보

다 글 쓰는 것，글 읽는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학교에 *갈* 준비를 마쳤을지도 모른다고 생막했다. 또 그만둘

까 봐 걱정도 되었지만，실은 알고 있었다. 내가 더 이상 예전의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라는 것을.



## 잘하고 있으니까 립 고잉 !

예전의 나처럼 힘들어하는 소녀가 이 글을 만약 본다면…，힘 이 날까?

모르겠다. 확신할 수 없다. 지금의 내게 행복하냐고 묻는다 면…，예전보단 낫다，까지만 말할 수 있다. 과연 행복한가. 행 복감은 이전부터 종종 느꼈었지만，아직도 4 행복’ 그 자체에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인가. 그건 사람마다 정의하는 모양이 제각각인 것 갈•다.

1년 동안 무사히 복학 준비를 마치고 간 수치가 정상화된 것 을 확인한 후 학교에 갔다. 또 실패할 수는 없다，내 방황은 *끝* 났다는 마음가짐 때문에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 많이 애 썼던 것 길•다. 도망칠 곳은 없다. 더 그만둘 수 없다. 또 진창으 로 빠져들 수 없다. 나아가야만 한다. 얼른 똑바로 1학년을 마 쳐야 한다. 22살이나 되었잖아. 그런 생각을 한가득했다.

203/204

강박에 가까운 생활로 인해 불안이 심해졌다. 2학기 복학 후，

추석이 지났을 때 나는 다시 정신과 상담실에 앉아있었다. 피해 망상이 심해요. 절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아요. 기숙사 룸메이트의 생활 소음이 너무 괴로워요. 강의실에 앉으면 목이 딱딱해져요. 대중교통을 타면 몸이 삐걱■거려요. 내가 의사에게

얘기한 건 보통 그런 것이었다. 은둔 생활을 하다 막 사회에 나 와서，남들보다 배로 노력해야 간신히 일상생활을 해낼 수 있는 가능한 사람이었다.

다행히 이전보다 더 나를 배려해 주는 의사를 만났고 간에 무 리가 가지 않는 약 위주로 약물 치료를 다시 시작했다. 간 치료 로 인해 1년 동안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아 질환이 재발되었고，그 게 새 생활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1학년 2학기는 다시 학교에 적응하는 과정이었다. 뒤처져 있 다는 불안감으로 끊임없이 할 일들을 확인하며 애썼다. 긴장과 불안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흔들리지 않는 성취감이 생민 건 1 학년을 마쳤을 때였다. 학기가 끝나고 학년 1등을 한 것이다. 자

격증을 따고, 어학 시험에서 점수를 낸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구

나.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나는 여전히 힘들다. 가족들과 부딪히고，그들 사이에서 울다

가 간혹 부모님 앞에서 괴물이 된다.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쓴다.

몸에 긋는 칼질은 성인이 된 이후 그만두었지만，약이 없으면 금 세 예 민하고 피해망상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

하지만 복학 후 1년을 무사히 보냈고, 내년이면 3학년이 된다. 사회에 더 적응해 보겠다며 학과 근로장학생이 되길 자처하고， 문예 동아리에 들어가고， 방학 내내 교외 논문 대회를 준비했 다. 특히 지난 2학년 1학기는 알코올 냄새에 찌든 학기였다. 복

학 후 한동안 조용히 수업만 들으며 학교를 다니다가 입학 동기 들과 다시 친해져 누구보다 열심히 놀았다. 소주，맥주，와인，막

걸리 등등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다. 섞어도 마셨다. 토도 많이 했다. 그러면서，이러지 말아야지 후회하기도 했지만，사실 *그* 모든 나날이 재미있었다. 집 안에 콕 박혀있던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짜릿한 날들이었다. 청춘이 정확히 무엇인진 몰라도 그렇 게 부르고 싶었다.

교내 공모전에 참가한 적이 있다. 편지쓰기 콘테스트였는데， 여러 주제 중 ‘과거의 나에게 편지쓰기’라는 주제를 선택했었다. 편지를 쓰면서 휴지로 얼마나 눈가를 목목 찔 렀는지 모르겠다.

과거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다. 불안해하고，집에만

있고, 인터넷을 하루 종일 보면서 자신을 부끄러워하던 10대의 나에게 쓴소리는 단 한 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다.



205/206

2EH, *향아나* 임들었니=. *71ZI* 양은 *입* 한앙하다게나 빛난다게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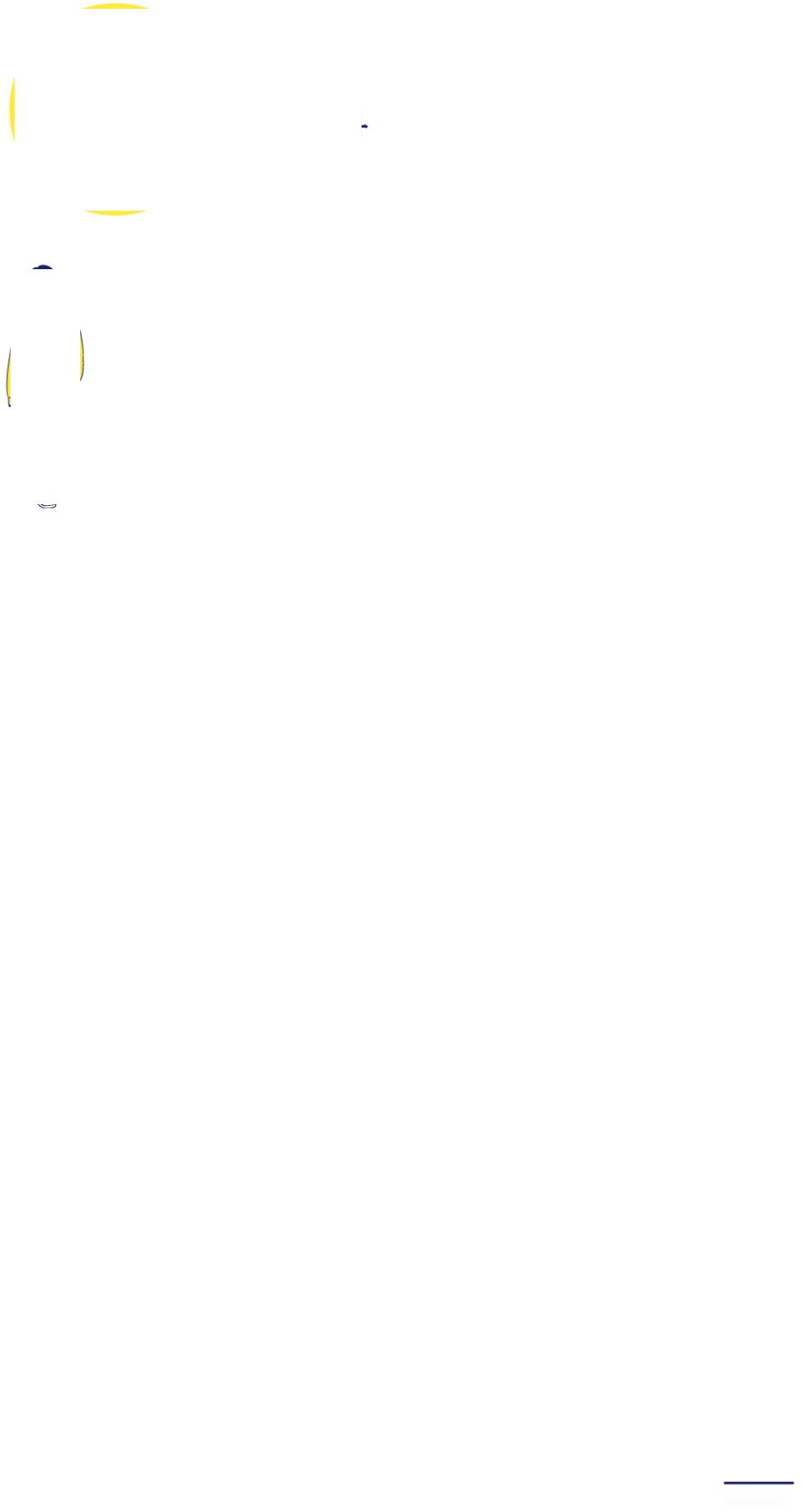
라 어늙I는 단어들은 V 하나도 *1故公지.* 너는 입에서도 임들功고 학2에서도 임功ZI. 도망치고 싶은 아송에 朴토！마XI 했는데, 팰 년 아주 하가문 이옥i 맛

봤:U 5데，기공 2부!하 대학 *^1* 포내고 있어. 무책%반 알배만，그 사7、t 이 신갔，기나•가더라，.

이 런 문 장 을 적 으 며 덜 잠 근 수 도 꼭 지 처 럼 눈 물을 뚝뚝 흘 렸다. 과거의 나에게 할 말은 하나밖에 없다.

잘하고 있으니까 립 고잉 .

요즘젊은것들 모 란



외톨이 생활을 한 덕에 지금 나는 사회성을 기르려고 애쓰고 있다. 남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어른을 대하거나 또래를 대하는 방법에 영 자신이 없어 실수라도 했을까 자책하던 때가 많았 다. 그런데 점점 나아졌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방구석에서 죽 어라 사색한다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구나.

방구석에서 생산적인 성찰이 가능할까. 모든 건 거미줄처럼

다 엮여있고， 고립되는 건 사회문제로 거론될 만큼 위험한 일 이다. 백날 고민해 봐야 소용없다. 사워하고 귀피라도 마시러，

사람 구경하러 나가는 게 지금의 내가 생각했을 때 훨씬 나은 선택인것 갈■다.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내가 사회 풍조와 문화에 참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그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우울해했던가. 남들처럼 ‘ 갓생’ 을 살아야 하는데 갓생을 살지 못하는 내가 아주 오랫동안 미웠다.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

207/208

하지 않고 있는 나도 아주 오랫동안 미웠다. 피부도 안 좋고 둥

뚱해서 늘 품이 큰 옷을 입고 마스크를 끼는 나도 미웠다. 당당 한 점이 하나도 없었다.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오랫동안 갈구해

왔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정상성에 집착한 덕분에 나는사회로 복귀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갓생을 살아서 공백기를 메꾸어야 한다는 강박도 생겼다.

생각은 시시때때로 변한다. 그리고 나 역시 하루하루 다르다. 과거에는 백수，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찐따，돼지 같은 단 어들로 나를 정의했다. 지금은 대학생，청년，작가 지망생 등등 의 단어들로 나를 정의한다.

그리고，지금은 진심으로 그 단어들에서 도망치고 싶다. 자유 로워지고 싶다. 해파리가 되고 싶다. 사회의 문화와 관습，무슨 무슨 주의，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흐물흐물해지고 싶다. 자아의 경계가 조금 더 흐릿했으면 좋겠다. 흘러가는 것들과 돌부리에

걸려 절대 흘러가지 않는 흉터들까지 인정하고 싶다. ‘자유’라는 단어조차 나를 정의하는 단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 온을 찾고 싶다.

외톨이 시절을 보내는 동안 혼자 우울해하며 생각하고, 다시

사회에 적응하는 동안에도 괴로워하면서 생각했지만，평온해지 는 방법을 알게 된 건 책을 읽고，주변의 다양한 사유를 만나면 서부터다.

첫째，모든 생명은 죽는다. *그* 점이 나를 평온이라는 영역으로 한 걸음 내딛게 했다.

태어났다고 모두 노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살，타살，사고

사， 병사 등등 죽음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다. 극단적으로 말하 자면，길을 가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다.

죽음은 내가 피하고 싶은 나의 오랜 스토귀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이 지구에 존재하는가. 적어도 지금은 불가능

하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 어쩌면 우리는 시체가 되기 일보 직 전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리고 매일매일 *운*

좋게 살아남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불시에 세상을 떠날 그날 이 오기 전까지 평탄하■게 인생을 즐기는 편이 낫지 않을까.

둘째，우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류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계급이든 어떤 직업이든 살아만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아니 다. 하지만 인류가 창조한 것들은 아주 많다. 그리고 그 가치는

인류만이 알아볼 것이다. 우리는 그길 즐기면 된다. 혁명을 일으

키든，예술을 하든 자연 앞에서 인간은 아주 작다. 그러니 내 마 음이 가는 대로 살면 된다.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따르면 그

게 신념 있는 삶이다.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 무엇이 될 지는 내가 정하면 된다. 삶은 내게 주어진 하얀 도하지다. 거기 에 글을 쓸지 그림을 그릴지 아니면 도화지의 온전한 상태를 즐 길지 선택하는 것은 내 몸이다.

셋째，어렸을 때 의아해 했던 것처럼，나는 1인칭 시야를 가질 수밖에 없다. 나는 타인의 속마음을 알 수 없다. 솔직한 편지나 문학작품 없이는 평생 1인칭 시점을 살아가야 한다. 나와 어머

니는 다르다. 나와 친구도 다르다. 그런데 우연히 같은 언어를 쓰게 되었고，같은 문화권 속에서 비슷한 삶의 양식을 공유하■게 된 인간1과 인간 2, 인간 3, 인간4 등등에 불과하다.

우리는 같은 종의 동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은 막각 다르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한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

다는 것이 죽도록 싫어서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싶은 때 도 있지만，어찌 보면 당면한 현상이다. 모든 길 받아들이면 이 후의 선택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왜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할까 싶을 수도 있다. 하지 만 위와 같은 생각들이 나를 구했다. 내 상황이 심각하다，내 *상* 황은 실패자의 상황이다， 이런 가치 판단을 그만두게 되었다. 열심히 살자! 이런 생각도 이제는 하지 않는다. 살면 사는 거지， 숨 쉬고 있으면 그게 사는 거지. 삶은 절심히’ 살라고 주어진 것

이 아니다.

나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수많은 정자와 난자가 우연히 만 나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이다. 삶

에 이유는 없다. 그게 날 자유롭■게 했다. 삶은 결과일 뿐이장아! 그리고 나는 아직 살아 있잖아! 심지어 건강하잖아!

인생은 아무도 평가할 수 없다. 설령 인생이 끝난다 해도 그 인 생은 평가될 수 없다.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 람은 1인칭 주인공인 자신뿐이다. 그러니까，지난 시절의 나처

럼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대들에•게 말히•고

싶다.

당신은 아직 죽지 않았다고，다만 자신감만 조금 없을 뿐이라 고. 그리고 세상은 그 어떤 게임보다，그 어떤 작품보다 러닝 타 임이 길고，언제든 다시 시작할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라고.



## 안녕 해파리, 안녕 바다

짧은 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걱정과 고민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도 내 곁에 있던 사람들，나를 지켜주던 음악，시야가 점멸하듯이 시선을 빼앗는 수많은 풀과 나무들 그리고 꽃들이 변함없이 내 세계를 지탱하고 있었다.

해파리가 되고 싶다，생각하고 싶지 않다，바다를 둥둥 떠다 니듯 세상을 별걱정 없이 부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나를 지탱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은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주 고 있었을까?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나는 해파리가 아니라 오히려 바다에 더 가깝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역시 그렇겠구나. 우 리는 태평양처럼，대서양처럼，인도양처럼… 결국 거대한 바다 로 이어져있구나.

바다는 필연적으로 모두 이어져 있다. 인간은 육지에 살지만， 바다를 가까이하고 있다. 가까운 것은 그 사람을 구성한다. 저

요즘젊은것들 모 란

멀리 수평선을 보면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 하늘과 하늘의 일부인 구름이 바다에 그대로 비치듯이 나 역시 물을 들여다보 면 또 다른 나를 발견한다. 바다도 나를 들여다보며 나라는 바 다를 다시 발명할 것이다.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 살면서 그런 사

실을 자주 떠올렸다. 그리고 바다가 나의 일부가 되고，나 역시 바다의 일부가 되었다.

많이 외로웠다. 그래서 남들을 멀리하고 살았다. 친구들도 미

웠고 가족도 미웠고 스스로는 그중 가장 미웠다. 삶이 원하는 대로 살아지지 않아 늘 갈팡질팡했다. 현자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도 그렇다.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삶은 운이 크게 작용하고，어떤 하루는 불운만 가득하기도 하다. 기 분이 좋았던 아침과 엉엉 울고 있는 저녁은 같은 하루라기엔 너 무나 다르다.

하지만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사람들 이 정한 규칙들은 내게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 ‘하루’라는 것도 그렇다. ‘나이’라는 것도 그렇다. 일 년’은 다른 동물의 관점에선

일 년이 아닐지도 모른다. 인간들이 정한 것이니까.

그저 시체가 되기까지 흘러가는 낮과 밤들，‘반복’된다 말할 수

없는 새로운 계절들을 초면처럼 맞이한다. 다시 돌아오는 건 하 나도 없다. 내 곁을 떠나간 사람이 다시 내게 온다 해도 *그건* 들

아온 게 아니라 새롭게 온 것이다. 삶은 원형의 끝없는 반복이

아닌 나선형의 흐름이니까.

그 사실들이 참 좋다. 불가능과 가능성，운과 불운 사이에서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무작정 희망을품고사는 이런

감각을 삶의 여섯 번째 감각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요즘 하루는 이렇다. 등교하기 위해 이른 아침에 일어난다. 잠 에서 덜 맨 상태로 책을 몇 장 읽다가 아침을 간단하게 먹는다. 잠에서 깨기 위해 커피도 마신다. 씻고 수업 한 시간 전에 어슬 렁어슬렁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교내근로를 한다.

터덜터덜 지친 기색으로 집에 들아온다. 저녁밥을 먹고 가까운 사람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유튜브를 보 거나，갑자기 산책하러 나가고 싶어지면 무작정 나가도 본다. 낮 에 읽지 못한 책을 마저 읽거나 음악을 듣는다. 과제를 하고，시 험 기간엔 나름 공부도 한다…. （사실 내가 학교에 평범하게 다 니고 있다는 것이 아직도 신기하다. 전공이 내가 꿈꾸는 진로와 *같은* 결이라 지속할 수 있는 것 같다.）

여유를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최대한 건강하게 지내려고 주 말엔 공원에 나가 러닝을 하기도 한다. 자잘한 것들이 나를 만 든다는 사실이 어떨 땐 우울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무언가 더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도 느민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어도 내 마음과 건강만 지킬 수 있다면 괜찮을 것임을 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건 아니다. 매일매일 우울과 불안과 긍정 을 오간다. 그리고 결국 이 고민에 이른다. ‘정상성’에서 벗어나 고싶다.

늘 마음속에 열등감이 내재되어 있었다. 또래 친구들이 ■거치지

않은 ‘고등학교’라는 관문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마치 스스로 하 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듯이 생각하■게 했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 해질수록 간단한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인생은 나선 *형으로* 끝없이 이어진다는 것.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들아오지 않는 시간이 있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1인칭 시야를 가지고 있는

나만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 해파리든 바다든 모두 좋다. 나 를 구성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싶다.

은둔형 외톨이 출신，끝없는 자학과 불행의 골짜기 출신인 '평 범한 대학생’은 현재 이렇게 살고 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 새로운 방황이 찾아올까. 아니면 재난과도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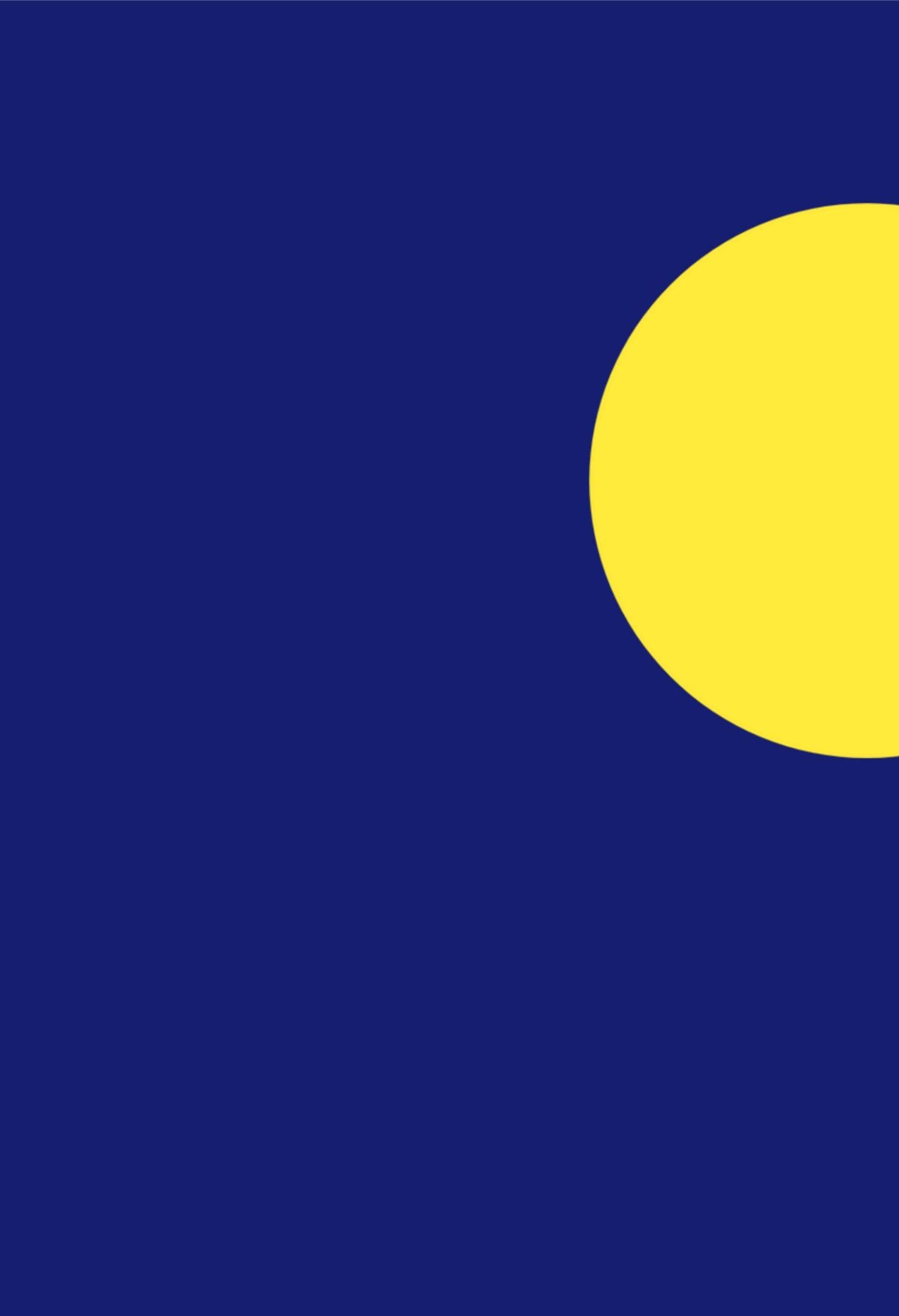
일들이 나를 덮칠까. 혹시 건강 악화로 죽음과 가까워질까.

내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다만，내 심금을 울릴 짜릿 한 일이 생기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런 순 간을 만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 글은 나선형 인생의 한 모 퉁이니까，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슬슬 죄 없는 해파리는 놔주고 내 삶을 살아야겠다. 당신도 그 럴 수 있기를 바란다.

안녕，해파리. 그리고 안녕 바다.

앞으로도 내 세계를 지탱해 줄 나의 오랜 일부여.











가로등 아래，보릿고계 위

복세편살，그만편할 때됐다 223

망쇠는 알겠는데，우리 집 흥성은 어디 갔죠? 226

역시 집밖은위험해 229

알바생 최고의 적은사실…사장님? 232

패밀리 레스토랑의 말도 많고 정도많은 주방 식구들 235

물류센터세척장 아저씨의좁은등 232

오지랖넓고손도큰물류센 터기사님들 234

성인，제법어려워요 250

미지수의 삶을 그려나가는 사람들 254



## 복세편살, 그만 편할 때 됐다

‘ 요즘 MZ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 한 세대를 대표하는 말인데 어딘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2024 년에 들어서서 질타받는 MZ세대，대체 왜? 우리가 뭘 했다고?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냥 멀찡히 살고 있 는 MZ세대 친구들은 잘못한 게 없죠. 하지만 자영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이라면 생각이 좀 다르실 렌데요. 요즘 중고등학 생들， 더 나아가 대학생들까지 골고루 사장님들 속을 썩이고 있지는 않나요?

2024년 5월，‘손님 계속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당차고 황당한 발언 때문에 집으로 들아가게 된 아르바이트생 친구가 있죠. 뉴 스 에 보 도 될 정 도 로 많 은 사 장 님 들 의 분 노 와 공 감 을 샀 던 이야기예요. 역시나 아르바이트생 친구는 MZ세대에 속해 있 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 추혼주

사실 제 친구 중에도 MZ 향기 폴폴 풍기는 친구가 있어요. 출 근 한두 시간 전에 연락을 하여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 할 것 같 다고 말해 놓고 놀러 가고요. 심지어 면접도 안 나갈 때가 있어

요. 볼 때마다 갑갑합니다. 갑자기 약속을 취소해버리면 그날 다른 직원이 해야 할 일은 서너 배가 되고 사장님도 당혹스러운 데 말해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주변 친구들의 말，심지어는 윗세대 어른들의 말씀도 별로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아갈까， “복세편살” 만 궁리하는 것 같은 ‘요즘 MZ들’，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싶죠?

이제 막 스무 살의 대학생，소위 말하는 ‘요즘 젊은 것’인 제가 소신 발언 하자면 요즘 MZ들은 ‘어린 것들’인 것 같아요. 경제 활동인구의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면서 W대，20대들이 경제사 회 진입이 쉬워지니까，MZ로 귀결되는 요즘 것들과 어린 것들 이 구분이 안 되는거죠.

나이가 어리니까 경제적 가치관이 모호하장아요. 근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남들 다 하는 아르바이트 나도 해보자 싶고. 그러니까 나도 경험 삼아， 용돈벌이 삼아 돈부터 벌어보게 되 고. 막상 해보니까 되게 힘들고，쓴소리도 감내해야 하고，손님

들 요청 사항 들어주는 것도 귀찮고. ‘아，이거 되게 어렵네? 좀



223/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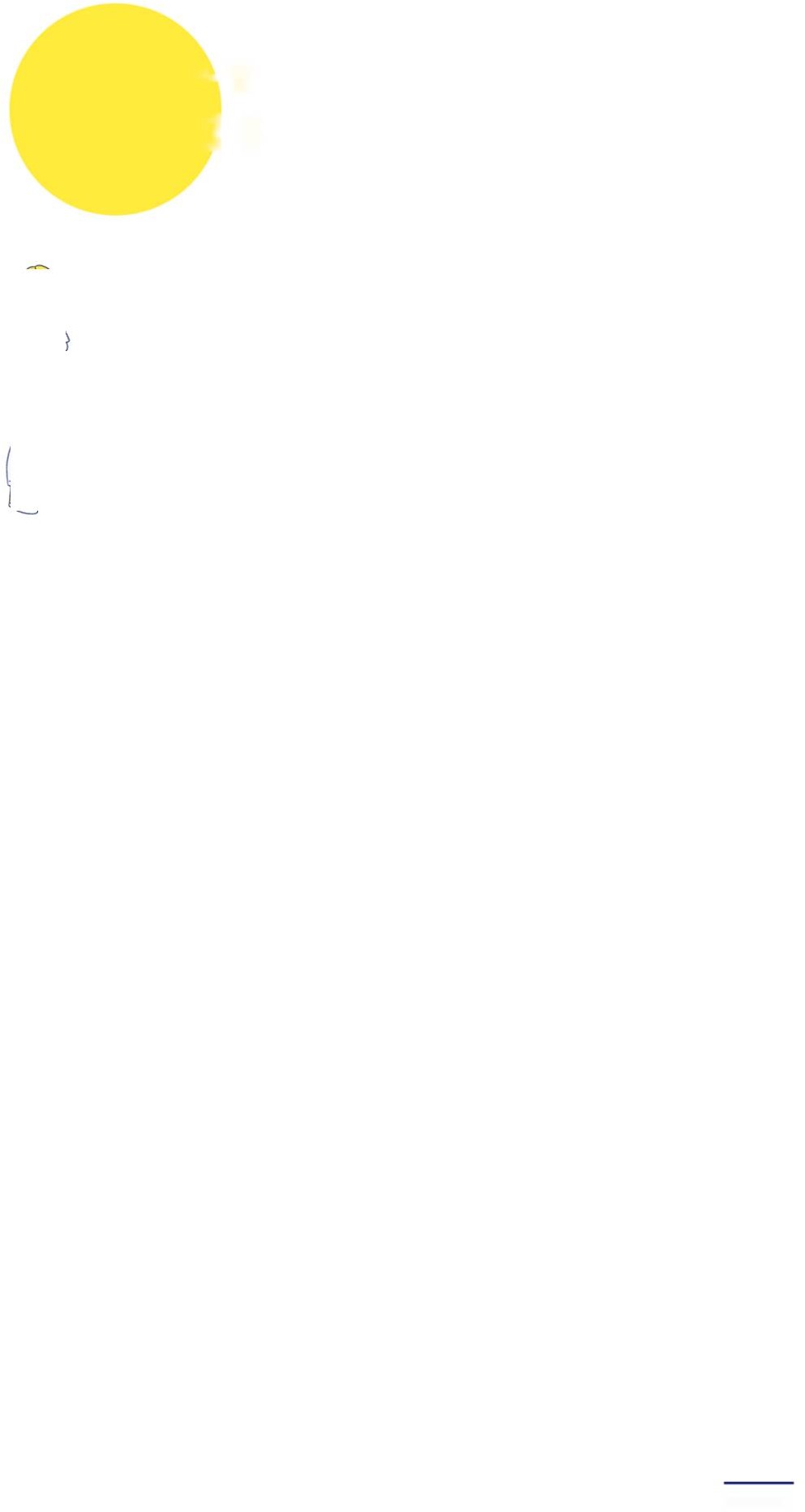
하기 싫네? 그냥 안 할래.’ 가 만연하게 되었죠.

날이면 날마다 사장님들의 고민과 곡소리가 귀가는 만큼，일 하고 싶어도 MZ들의 설 자리가 점점 부족해지는 것 ■같아 초조 한데요. 자리매김하기가 이다지도 어려운 시대에 어린 나이에 이 악물고 돈부터 벌어본 소녀가장이었던 요즘 것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부디 요즘 것들의 오해가 조금이라도 풀리길 바라며， 몸소

사 장 님 들 의 마 음 을 들 려 보 이 겠 다 는 포 부 를 가 지 며 ， 레 드 오 션인 MZ 직원 자리가 한 자리라도 더 생기길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 망쇠는 알겠는데,

우리 집 흥성은 어디 갔죠?

바야흐로 초등학교 5학년，아버지께서 이직에 실패하며 가세 가 급역하게 기울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집안에는 날카로운 공 기가 감들았어요.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차곡차곡 처분하기 시 작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여름에는 집이 찜통이었고，겨 울에는 냉장고였죠. 집에만 있어도 바말 날씨가 더운지 추운지 를 가늠할 수 있었어요. 돈 좀 아끼고 살라는 할머니의 목소리 가 집 안을 쩌렁쩌렁 울리고도 남는 아침이 늘어갈수록， 엄마 의 한숨도 늘어만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여겼기에 그저 열심히 학교에 다니고 성실히 학원을 가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바쁘고 힘든 부모님께 학업 문제로 먹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초등학교 졸업이 가까워질 무렵，엄마가 저를 침대에 앉혀놓고는 말씀하셨어요. 언니는 알아서 잘하고 있지만，여전

225/226

히 어린 저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요. 마트에서 일을 하게 된 엄 마는 아침마다 제가 등교하는 걸 챙겨줄 수 없고，밤마다 재워 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미안함이 가득 담긴 엄마의 눈을 보며 저는 “응，잘할 수 있어! 나 혼자 잘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도 엄마는 어릴 때도 제 대로 못 챙겨줬던 너를 또 너무 일찍 어른이 되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며 안아주셨어요.

그다음 주부터 엄마는 해 뜨면 집에 없었고 학교를 다녀와도 집에 없었어요. 달이 꽤 차올랐을 즈음에 집으로 돌아오셨지요.

엄마 얼굴을 자주 보기 힘들어지는 만큼，아빠의 얼굴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작은 기업에 입사하게 된 아빠는 방에서 한숨 을 폭폭 쉬어가며 귀다란 캐리어에 옷을 한가득 담아 할머니께 인사를 올리고 문밖을 나가셨고，몇 달 동안은 그림자는커녕 목 소리조차듣지 못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는 14살，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우리 집 경제 사정은 어렵구나.’라는 인식은 제게 꽤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아졌거든요. “학교에서 이거 사 오래.”라 고 말씀드리는 대신 친구들에게 빌려 준비물을 챙길 수 있었고， “ 나 이거 사주면 안 돼?” 대신 “응? 아니 별로 필요 없아”라는

말을 할 수 있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 게 되었고，반찬 투정을 하지 않게 되었고，학원에 딱 붙어 책 읽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되었어요.

엄마는 알게 모르게 의젓해진 저를 보며 자신 때문인 것 같아

괴로우셨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좋았어요. 엄마，아빠를 볼 수 없는 것도 아니었고， 가곰 엄마랑 아빠가 사다 주시는 특별한

o|식이 아주 만족스러웠거든요.

하여튼 그즈음엔 동네 할머님들이랑 패 친해지면서 칭찬도 자 주 들었어요. “재는 뉘 집 애인지 요즘 애 갈지가 않다.”라고 말 이에요.



## 역시 집 밖은 위험해

집안 사정이 조금 나아진 것 갈•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냉랭한 집안 분위기에 어리광을 부리기엔 좀 곤란한 것 같기도 했죠.

취미 삼아 다니던 학원 몇 가］는 이미 끊은 지 오래였어요. 특 히 열심히 다니던 미술학원도 접었습니다. 예체능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말씀에 강하•게 반발해 봤지만，완 강한 부모님의 태도에 어쩔 수 없었어요.

솔직히 그림만 몇 년이고 붙잡고 있었는데，갑자기 그만두라 고 하시니 당황스러웠어요. 이제 그림 말고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더는 그림도 못 그•리는데 공부는 왜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몇 주간 방황했어요. 그러면서도 엄마 입에서 “ 엄마가 돈이 없어서，하고 싶은 걸 못 하게 해서 미안하다.” 같은 말이 나오 는 게 자꾸 죄스럽고，불효 갈■아서 괴로웠죠.

요즘 젊은 것들 추혼주

사실 한 편으로는 우리 집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자꾸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늘어나니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 어요. 그래서 이럴 바에 돈 벌어서 나 하고 싶은 거，사고 싶은 거 암껏 하고， 암껏 사는 게 속 편하겠다! 싶어서 구직을 시작

했어요.

물론 아시다시피，중학교 1학년을 직원으로 받아주는 곳은 전 혀 없었어요. 구직을 위해 이곳저곳 전전해야 했죠. 그때，면접 을 봤던 한 가게의 사장님께서 제 모습이 딱하다며 아는 사장님

연락처를 남겨주셨고， 감사하• 게도 면접을 보러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집에서 버스로 50분 거리의 패밀리 레스토랑 사장님

은 제 나이가 너무 어리다며，서빙은 어려우니 설■거지 알바라도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8시간，주말마다 매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 까지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 사정도 사정이지만，저를 받 아주실 이유가 없는데도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신 사장님께 고 마움을 전하고 싶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장님도 열심히 하는 제 모습이 기특하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일했던 첫 아르바이 트는 너무 어이없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홀을 가로 질러 퇴근하는 제 모습을 보고 어떤 손님이 사장님께 이렇게 귀 띔한 게 이유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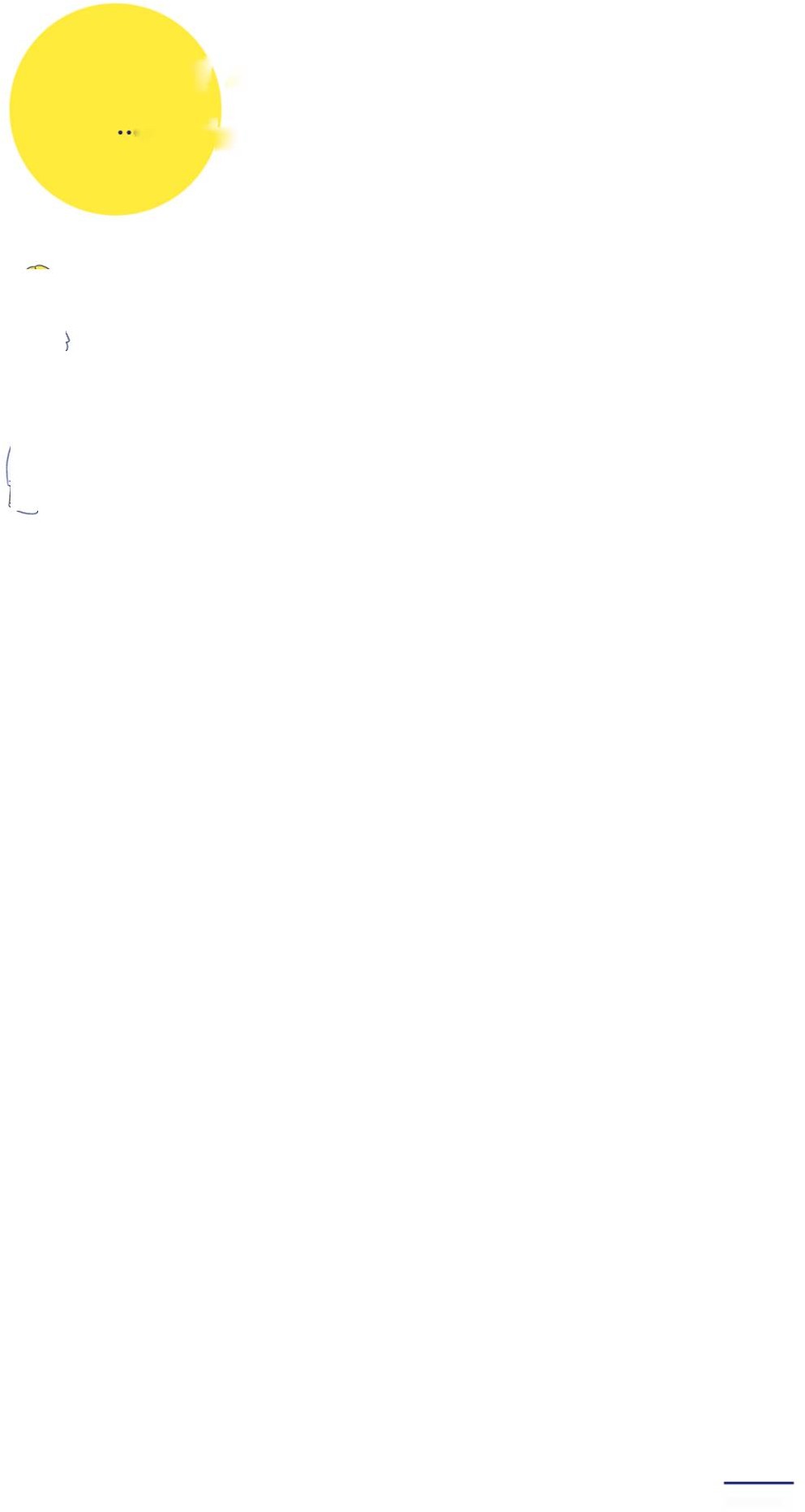
“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이 식사하는 손님들한테 꾀죄죄한 행 색을 보이며 퇴근하는 건 예의도 아닐뿐더러，복장이 너무 후줄 근해서 식사 하다가 너무 불쾌했다.”

그 말을 듣고 사장님은 제가 이 레스토랑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달 월급이 들어있는 현금 봉투를 내밀며 미안

하지만 내일부터는 안 나와도 된다고 하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해고 사유에 뒤통수가 명 했어요. 솔직히 정장 을 입고 설거지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퇴근용 뒷문도 없 고，유니폼도 없는 레스토랑의 설■거지 직원. 그게 저잖아요. 그 런 제가 뭐가 그렇게나 싫으셨을까 원망스럽고，손님 말씀에는 귀 기울이면서 제 말은 한마디도 안 들어주는 사장님도 입고， 그러면서도 날 믿고 써주신 사장님께 또 죄송하기도 하고，오만 감정이 교차했어요.

그렇지만 초보 아르바이트생인 제가 뭐라 할 수 있나요. 그냥 울적한 기분으로 터벅터벅 집에 들어와 침대에 풀썩 누워 애꽃 *은* 베개만 죽어라 됐습니다. 겨우 2가］월 만에 잘린 허망하고 우 울한 첫 일터였어요.



## 알바생 최고의 적은사실

•사장님?

이제와 다시 생각해보면 딱히 좋은 사장님은 아니었던 것 같 아요. 설거지 아르바이트생한테 하기에 꽤 곤란한 부탁을 자주 하셨거든요. 직원 한 명이 안 와서 서빙 인원이 부족한데，오늘

하루만 서빙이랑 설거지를 명해서 일해주지 않겠느•냐，같은 부 탁을 하신 적도 있고요. 출근 준비를 다 하고 버스를 타려고 집 밖을 나서는데 ‘ 오늘 레스토랑 문 안 열었으니까 출근 안 해도 된다.’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신 적도 있어요.

어딘가 못마땅하고 불쾌했지만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직 원이 한 명이라도 안 오면 곤란하지.’，‘그래，바빠서 나한테 연 락해 주시는 걸 함빡하셨나 보지.’ 라고요. 어쩌면 그 레스토랑 에서 가장 어린 제가 만만했을 수도 있고，부당한 대우에도 아 무 말 못한다는 걸 알아서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린 것의 첫 도전，장렬하게 실패로 끝났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라는 말이 있듯이 이 실패에서 얻은 것이 전혀 없지는

231/232

않았습니다.

주방 직원들과 처음 인사를 하던 날 너무 어색하고 낯설었어 요. 왠지 내가 굴러들어 *온* 돌이 된 기분 있잖아요. 처음에 딱 그 런 느낌이었어요. 주방 직원들이 절 반기지 않으시는 것 같은 기 분이 들고，내가 직원들의 일을 뺏은 ■거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말도 먼저 못 걸고 쭈뻣거렸어요.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일만 했고，쉬는 시간에도 혼자 조용히 폰만 만지작거렸답니다.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관계로 지내고 있던 어느 날，서

빙 직원 한 분이 테이블에서 ■거둬 온 그릇을 산더미처럼 가지고 오셔서 설거지통에 대충 집어넣고 휙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애 벌 세척해 *놓은* 그릇에 기름기가 묻어서 설거지를 다시 해야 하 거든요.

경악하며 *그* 직원 뒷모습을 쳐다보고 있는데 주방장님이 *그*

분을 불러 세워 “ 지금 뭐 하시는 검니까?”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가 눈만 밤빡■거리며 지켜보는데，설거지하지 말라 는 거냐， 그릇을 이리 넣으면 설거지 다시 해야하는거 뻔히 알 면서도 그릇을 넣느냐，갈•이 일하는 사람한테 그만한 배려도 못 하느냐，본인이 설거지할 거 아니면 사과라도 똑바로 하라고 엄 청 뭐라 해주시는 거예요. 서빙 직원이 머쓱해하면서 사과하는

데，비록 마지못해하는 사과이긴 했지만 전 너무 통쾌했어요.

그 뒤로 주방 직원들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일하면서 수다도 떨 정도로요. 알고 보니 설거지는 원래 주방 직원끼리 돌아가면 서 했는데，설거지가 제법 많다 보니 주방일이 밀려서 곤란했대 요. 그런데 누군가 도맡아서 해주니까 설거지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주방 일손이 줄지도 않아서 좋다고 하셨어요.

빈말이어도 상관없었어요. 누군가 저한테 정말 *도움* 된다.’라 는 말을 해주신 게 일 시작하고 처음이라 크•게 뇌리에 남아요. 가곰은 한산해진 주방 속 설거지에 열중하는 제 어깨를 토닥여 주기도 하시고，앞치마에 간식을 넣어주기도 하셨답니다.

아，앞치마 하니까 생각났는데，이런 일도 있었어요. 설거지 알 바를 시작한 다음글，사장님께서 제 앞치마를 구비하겠다고 해 놓고는 계속 안 해주시더라고요? 결국 2주 넘게 옷을 흠뻑 적시 면서 설거지했어요.

그걸 보고 직원들끼리 속닥속닥 하시더니 “쓰던 앞치마라 미

안해요.” 라고 말하며 제 뒤에서 앞치마를 입혀주시고 리본도 묶어주셨어요. 이후로도 사장님은 앞치마를 준비해 주지 않았

지만，어느 날 ‘어，앞치마 생겼네? 그럼 됐네，열심히 해.’라고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먼저 준비해 준다고 했

으면서…. 흥!



## 패밀리 레스토랑의 말도 많고 정도 많은 주방 식구들

이 외에도 고마운 일들이 정말 많아요. 한번은 설거지하다 난 데없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는데， 그게 소리가 엄청 커서 주방에 다 울리는 바람에 직원들도 웃고，저도 웃고, 심지어 주 방장님까지 웃었어요. 다들 진정하고 나서 밥을 먹었는데， 그 때 먹었던 파스타가 제 인생 내내 먹었던 중에 가장 기억에 남

는 파스타 입니다.

특히，앞치마를 메어 주셨던 언니랑 추억이 엄청 많아요! 언니 는 당시 18살로，주방 막내라서 잡다한 일을 맡고 있었어요. 전

막내와 현 막내끼리는 잘 통했어요. 잠만 한가한 시간이 생기 면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수다를 떨었거든요.

" 설거지 어때요? 힘들죠?” 라는 말로 시작했던 대화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점점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죠. 10대인 언니 와 제가 이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서로 가정사가 원

요즘 젊은 것들 추혼주

인이 도I어서 급하게 일자리를 찾았다는 이야기，팔자에도 없던 요리와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고 막자 무슨 꿈을 가지 고 있었는지도 얘기했어요.

언니는 아이들이 좋아서 유아교육학과를 가고 싶다고 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가곰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지，내일 점심에 는 뭐 먹을지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일까요. 언니가 친언니처럼 늘 반갑고 애틋했어요.

막내들끼리 친해지면서 직원들한테도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주방장님한테 " 점심밥 해주세요!” 하고 조르는 일도 생길 정도로 주방 직원들과 가까워졌으니까요. 주방에서 일하 는 모두가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학교에서 재있는 일이 생기면 주방 언니 오빠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졌죠. 같이 웃고， 떠들 고，밥 먹고，일하는 날들이 늘어갈수록 우리는 진짜로 가족이 되어갔죠.

그랬는데 제가 갑작스럽■게 해고당했으니 다들 아쉬워 했지요. 짧은 2 개월， 그동안 많은 정을 쌓았던 주방 식구들은 제 해고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속상해하셨어요.

“오늘이 마지막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많이 챙겨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 짤막한 인사말에 다들 탄식을 내뱉으셨습니다. 제 앞치마

에 간식을 넣어주던 분은 절 안아주시면서 “조심히 가고，나중 에 꼭 다시 보자.”라고 하셨고，주방장님도 양손을 맞잡아주시 며 “지금까지 고생 많았다. 네 덕분에 주방에서 많이 웃었다.”라

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제게 앞치마를 입혀주셨던 언니와의 인사. 언니는 엉엉 우느라 빨개진 얼굴과 부은 눈으로 저를 꼭 안고 등을 토 닥여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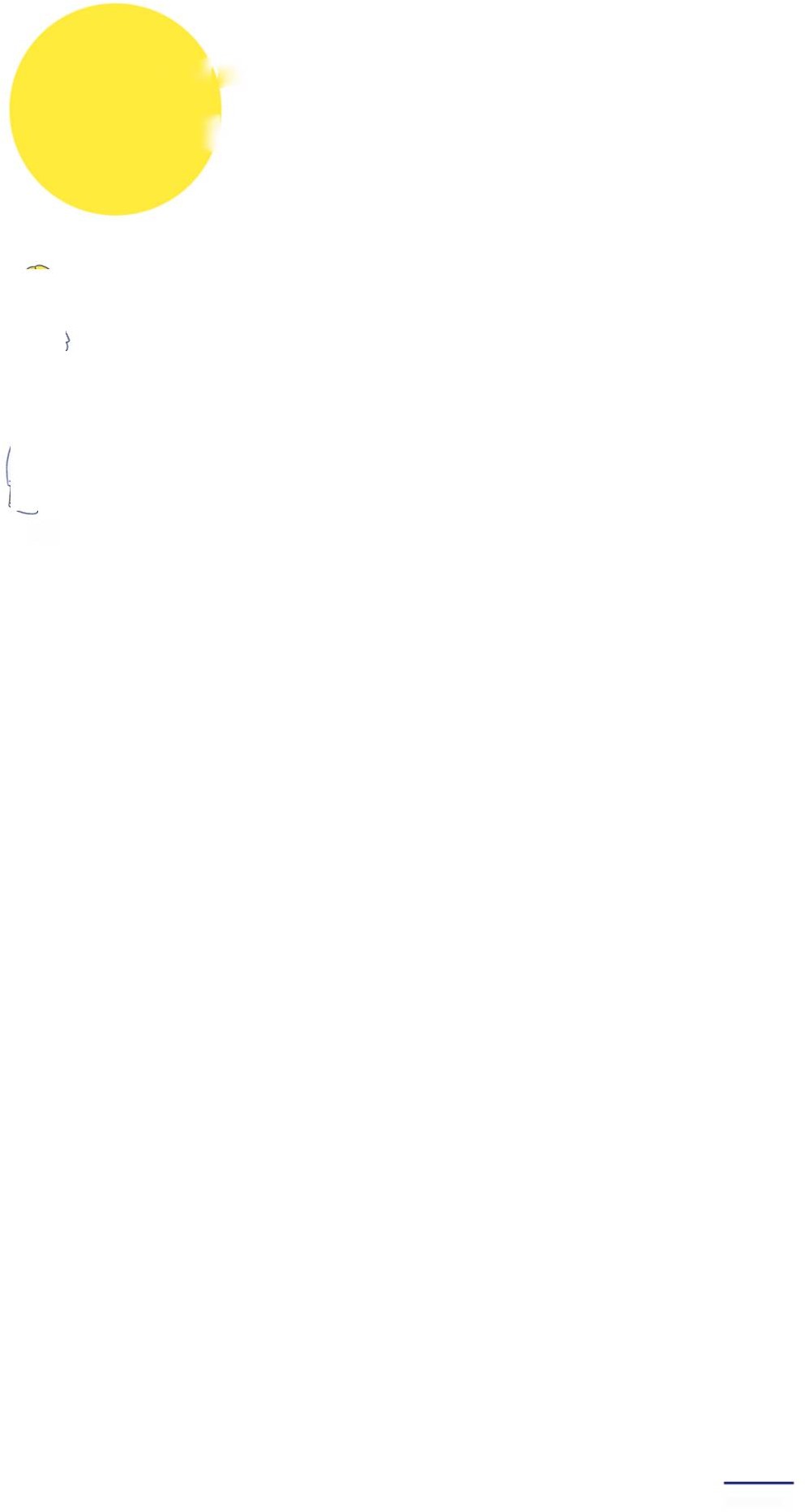
“네 덕분에 바쁘고. 힘든 이 레스토랑에서 많이 웃고 즐거웠아 동생이 생민 것 같아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었는데，이렇게 일찍 인사를 하게 되어서 너무 아쉬워. 어린 나이에 열심히 일하

는 거 너무 기특한데，네 몸 잘 챙겼으면 좋겠어. 잘 지내고，행

복했으면 좋겠어.”

아직도 제 마음 한편에는 이 말이 남아있어요. 제 등을 토닥이 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울음기 가득하던 언니의 얼굴，떨리 던 목소리. 미숙하고 어려웠던 사회 첫길음.

그다음 발자국을 떼는 제 등 뒤에는 나만의 좋은 사람들이 있 었습니다.



## 물류센터 세척장 아저씨의 좁은등

패밀리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후，마음이 편했던 것 은 아니었어요. 집안 형편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나 혼자 아무 일도 안하려니 괜히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아서 오히려 불편하

더라고요. 할메시，할아버지가 엄마 흉을 보는 것도 너무 싫었 어요.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차라리 몸을 움직일 때가 편 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해고된 지 3주，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의 강도는 상관없으니， 시급이 높고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으면 했어요.

그렇게 배송 물류센터에 취직했습니다. 각오는 했지만 일은 죽을 만큼 힘들고 피곤했어요. 방학이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 은 많았지만， 그만큼 일을 더 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부담스 러웠어요. 주 단위 근무가 필수였던 ‘라떼’의 물류센터 일은 시

작부터 난항이었죠.

237/238

제가 처음 일했던 물류센터 영역은 정고(IB)’였습니다. 무작위 로 들어오는 택배들을 선별하고，상자를 접고，스티커를 붙이는 단순노동이었고， 상하차처럼 센 힘이나 강한 체력을 요구하지 는 않았어요. 하지만 앉아 있을 시간도 없었고，조금만 느려도 크게 혼이 났고, 내내 허리를 굽히고 작업해야 하는 게 너무 힘 들었습니다. 박스를 접으면 접을수록 피곤해졌고，바코드를 찍 으면 찍을수록 물류센터의 창문 밖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임금은 주급으로 받았어요. 사실 일할 때는 '사람을 이렇게까 지 굴려놓고 주급은 쥐꼬리만큼 주면 두고 보자！’라고 생각했는 데， 막상 받아보니까 제법… 두둑하더라고요? 좀 기뻤습니다. 역시 대기업은 통이 큰 것 같아서 아주 든든해요!

그렇게 대략 3 주 정도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야외로 빠지게 되었어요. 사정을 들어보니 야외 쪽에서는 배송 시 사용되는 보 냉백을 씻는 '세척(CL)' 영역이 있는데 거기서 일 하던 외국인 아저씨 한 분의 손이 너무 느려서 입고 쪽으로 유배(?) 되셨대 요. 입고에 한 사람이 새로 들어왔으니，세척에 한 사람이 들어 가야해서 제가 당첨이 된 거죠. 뭐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그런데 담당자가 말씀하시길， 세척 쪽이 출근은 늦고 퇴근은 빠른데 돈은 더 번다고 하셨어요. 하... 그럼 또 제가 뭐 어쩔 수 없죠. 못 이기는 척 이동해드려야죠.

세척 파트에서 일했던 첫날의 소감은 '여기 왜 이렇게 텃세가 심해?'였어요. 저는 사실 아저씨들이 그렇게 말이 많으신 줄 몰 랐어요. 특히 제 옆자리에는 노래 부르다가，얘기하다가，또 묵 묵히 작업하는，좀 신기하고 시끄러운 아저씨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 옆통수에도 눈이 달리셨던 길까요? 자꾸 옆에서

밑에 덜 씻겼다，모서리 부분까지 꼼꼼히 씻어라，잔소리를 엄청 나게 하시더라고요. “아하하… 꼼꼼히 다씻었어요….”라고해도

“아니던데? 더럽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거예요.

*좋은* 의도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안 그래도 힘들어서 점심시간 종소리도 안 들리는 저한테는 딴지 거는 걸로 밖에 안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저보다 웃어른이신데，제가 알아서 하겠 다느니 뭐 그런 쌀쌀맞은 말도 차마 못 하겠고. 예의와 사회성을 갖춘 눈웃음으로 대응해야 하는 게 좀 억울했어요. 그래도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굳이 말 얹어 싸우는 바람에 얼굴 붉히느니 둘 중 한 사람은 참는 게 낫다는 마음으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세척에서 3주 차，제 옆자리 그 아저씨께서 기어코 일 을 내셨습니다. 무려 보넁백 뚜정을 찢어먹으셨어요. 담당자가 “우리는 수압이 센 호스를 사용하고，보넁백 뚜정도 유난히 얇 으니 뚜정 쪽을 씻을 때는 아래로 뒤집어서 천천히 씻어라.” 라 고 신신당부했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씻으시는

게 계속 걸렸는데，결국 한 건 하셨죠.

담당자의 날마•롭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세척장에 가득 울려 퍼 지고， 무서운 눈빛을 하고 계시던 아저씨가 고개를 푹 숙이고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별로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러니저러니 해도 나랑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하

던 분이니까요.

담당자의 불같은 꾸중 시간이 끝나고 아저씨는 다시 담담하 게 일을 시작하시는데， 처음으로 그 등이 조금 작아 보인다는 생막이 들었어요. 오지랖이 너무 넓은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사 담을 꺼냈습니다.

“ 저는 사실 집안이 기울어서 급하게 일을 찾다가 물류센터까 지 왔어요. 만만하•게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힘드네요. 여자애라 그런가 말 걸어주시는 사람도 없어서 좀 외롭고요. 아저씨는 어 쩌 다 물류센 터로 오셨어요?”

아저씨는 슬하에 자녀도 없으시고 미혼인데，혼자 사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서 얼렁뚱땅 돈 많이 준다는 물류센터에 취직해 서 세척 영역에서 넉 달째 일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힘드시겠다. 외로우시겠어요.”

아저씨는 입을 꾹 다무시더니 눈물을 조금 훔치셨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누구나 그립고 외로운 것이 있고 가곰은

공감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법이구나.

*그* 아저씨는 퇴근 시간에 제•게 이름 석 자를 적어주시며 오늘 은 정말 고마웠다고 하셨어요. 내일부터는 인사하며 지내자고 하시는데 너무 기뻤어요. 단순히 한마디 먼저 건네는 것만으로 도 사람의 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아저씨와 저는 출근할 때 웃으며 반갑게 인사하고，

퇴근할 때 수고했다고 어깨를 두드리는 동료가 되었어요. 투 박하고 조금은 아팠던 그 손길이 든든하고 멋있었던 아저씨 였습니 다.



### 오지랖 넓고 손도 큰 물류센터 기사님들

물류센터에서 마지막으로 일했던 영역은 '출고(0B)’였어요. 출고에서는 입고에서 분류된 물류들을 상하차 트럭에 무아지 경으로 올리면 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말만 들으면 너무

쉬워 보이지만 의외로 출고에 지원하는 사람이 가장 적어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겠죠?

출고 영역에서는 한 라인에 보통 두세 사람이 일해요. 다들

연탄을 어떻게 나르는지 아시나요? 던져서 받고, 던져서 받 고…. 네，그렇습니다. 그렇게 일한답니다. 입고에서 포장된 물 류가 권베이어 벨트를 타고 도착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받 아서 던지고，그걸 제가 받아서 던지고，*그걸* 상하차 기사님이 받아서 트럭 안에 싣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이때 던지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합이 맞아야 해요. 초반에 는 조금 버벅대지만，한 시간 뒤에는 다들 정말 무아지경으로 던지고 받게 됩니다. 세 시간 정도 지나면 눈 감고도 던지고 졸

요즘 젊은 것들 추혼주

면서도 받아요. 진짜 눈 감고도 물류의 궤적이 보이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답니다. 물론 그 마법을 여러분이 겪지 않으셨으 면 좋겠지만…….

출고 영역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별거 아닙니다. 돈을 많이 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일반 담당자도 아니고 ‘물류센터 총담당 자’를 만난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요. 왜 총담당자 인지 알 것 같았어요.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고 풍기는 분위기 부터 굉장히 높은 직책에서 일할 것 ■같았어요.

아무튼，총담당자가 찾아와 이런 제안을 했죠.

“나이가 어린 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옳지 않은 부탁임을 알지만，”이라는 유감의 말로 시작으로 “0B 인원이 지나치게 부 족해서 현재 인원 충당을 위해 여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 적인 절차고요. 혹시 임금 조정 후에 매에서 일하실 생막 있으 신가요? 원치 않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때 제가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진짜 가지 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최대 57만 원까지 올랐던 상황이 라 돈을 더 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혹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출고 파트에서 일을 하는데，투입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손이 무진장 느리잖아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연탄 나르는 방법도 모르냐며，왜 이렇게 느려 터

243/244

졌냐면서 막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연탄 나르는 시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연탄 나르는 방법 을 어떻거I 알아요! 억울해 죽겠는데 말대답하기에는 기사님이 너무 무섭게 생기셔서 꼼짝없이 욕먹고 일만 했어요….

그리고 분명 세 명이 일한다고 했는데 막상 출근하니 기사님

이랑 저，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부터 기사님 계신 곳까지 택배를 멀리 던져야 했어요. 그랬더니 두 시간밖에 안 했는데도 어깨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다음날 출고 담당 자에게 못 하겠다고 했더니 오늘까지만 일해달라고 하더라고 요. 대충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어차피 오늘까지만 하니까 죽었 다고 생각하고 어깨 빠지기 직전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출고 담당자가 전화로 셔틀버스 시간 체크를 해주시는거예요.

“저 어제 못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라고 했더니 오늘 한 분 더 들어오셔서 일이 좀 수월하실 거라 고，제발 부탁드린다고 하셔서…. 그 간곡한 목소리를 또 외면할 수 없었어요. 너무 간절해 보였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때 제안을 거절해야 했어요. 출고 담당자의 간곡한 부탁을 받은 그날，담당자의 사정에 등 떠밀려 출근했던 그날. 물류센터에서 처음으로 사고를 쳤습니다.

원래 유리 갈이 깨지기 쉬운 물품들은 1지점（건베이어 벨트 앞 에서 2지점으로 물류를 넘겨주시는） 담당자가 빼놨다가 일반 물 류 처리 후에 트럭에 실어요. 유리 물류들은 대부분 무게감이 있 어서 들자마자 알거든요. 근데 그 컵은 엄청 가법더라고요. 그래 서 아마 제게 상자를 넘겨준 1지점 담당자도 모르셨나 봐요.

제 손에서 던져진 물류가 잘 날아가다가 기사님 발치에서 픽 하고 떨어졌는데，'쨍그랑'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났어요. 옆 라인과 그 옆 라인의 분들이 모두 쳐다보실 정도로. 그 물류

가 유리인지 몰랐던 1지점 담당과 저，기사님은 ‘어?!’하는 비명 을 지르고 멍청하•게 멈춰 서있었어요.

몇 초 두|，담당자가 와서 상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깨진 물 류를 치우고，저희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신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그다음，두려운 꾸중의 시간이 시작되었죠. 사실 엄청 무섭고

엄중하게 다그치지는 않으셨어요. 깨진 물류는 센터 쪽에서 배 상할 거고，임금에서 삭감되는 일은 없겠지만 대신 오늘 출고 업무가 끝나면 저만 입고에서 추가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담 당자도 이런 일이 종종 생기기도 하고，무엇보다 저희 업무 성과

가 좋은 편이라 넘어가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출고 업무가 끝나고 쉬는 시간，1지점 담당과 기사님에게 큰 원망을 산 것 같아서 휴게실에서 쭈글쭈글해져 있었어요.

넋이 빠진 채로 명때리고 있으니，출고에서 일하시는 다섯 분의 기사님들이 함께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랑 한 팀인 기사님과 눈 이 딱 마주치는 바람에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죠. 그랬더니 기사님이 픽 웃으시며 저랑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으셔서 “왜 그 렇게 졸아있는데?”라고 말을■거시더라고요.

태연하게 말씀하시니 괜히 더 죄송해져서 “죄송합니다….” 라 고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사과드렸어요. 기사님은 *그* 정도는 실수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본인도 그 정도 실수는 많이 하니까 대수롭지 않고 제가 매번 실수하던 것도 아니니까 괜잖다고.

그 기사님은 그 물류센 터에서 상하차 일만 벌써 10년 넘게 하 고 계신 베테랑 기사님이라고 들었고, 출고에서 일할 때도 저희 는 신경 쓰지 못하는 것까지 꼼꼼히 봐주시던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실수가 잦다고 하시니 신기했지만，그런 만큼 절 배려해 주 시느라 빈말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커피믹스를 타들고 오신 다른 기사님들이 저희 옆에 자리 를 잡고 앉으시면서 기사님들의 고충을 듣게 되었어요. 의외로 많은 고충에 시달리시더라고요. 1지점，2지점이랑 싸우기도 하 고，물류가 누락되어서 혼나기도 하고, 인력난 때문에 다른 지역 으로 떠밀리는 억울한 대우를 받기도 한대요. 이사하기 전 주소 로 등록해 놓은 고객과 싸우거나 물류를 잘못 배송하는 바람에

고객한테 욕먹는 일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기사님들 모두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고，그것 때문에 이 물류 센터를 떠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자신이 다른 사람들 의 기대와 기쁨을 배송해 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하셨어요. 기사님들의 눈동자가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택배를 기다리며 두근거렸던 마음이 되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마친 기사님들이 다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너는?’이라고 묻는 것 같아 제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했어요. 가 세가 기울어서 음식점 여러 곳에서 일했던 것과 허망하게 잘린

첫 아르바이트. 물류센터에 들어온 계기와 어쩌다가 출고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읊어나가다 보니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는 기 분이었어요.

어쩌면 가족에게도，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나의 경험을，

나와 비슷한 접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사실 그 자 체만으로저한테는제법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기사님들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손등을 토닥여주셨고， *크고* 단단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주셨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단팥빵을 손에 쥐여주기도 하셨어요. 꼭 우리 딸 같다고 하시면서요. 별말 없이 서로 같은 공간에서，서로의 아품을 얘

기하고 그것을 인정받는 것. 공감과 위로를 받는 것. 가묻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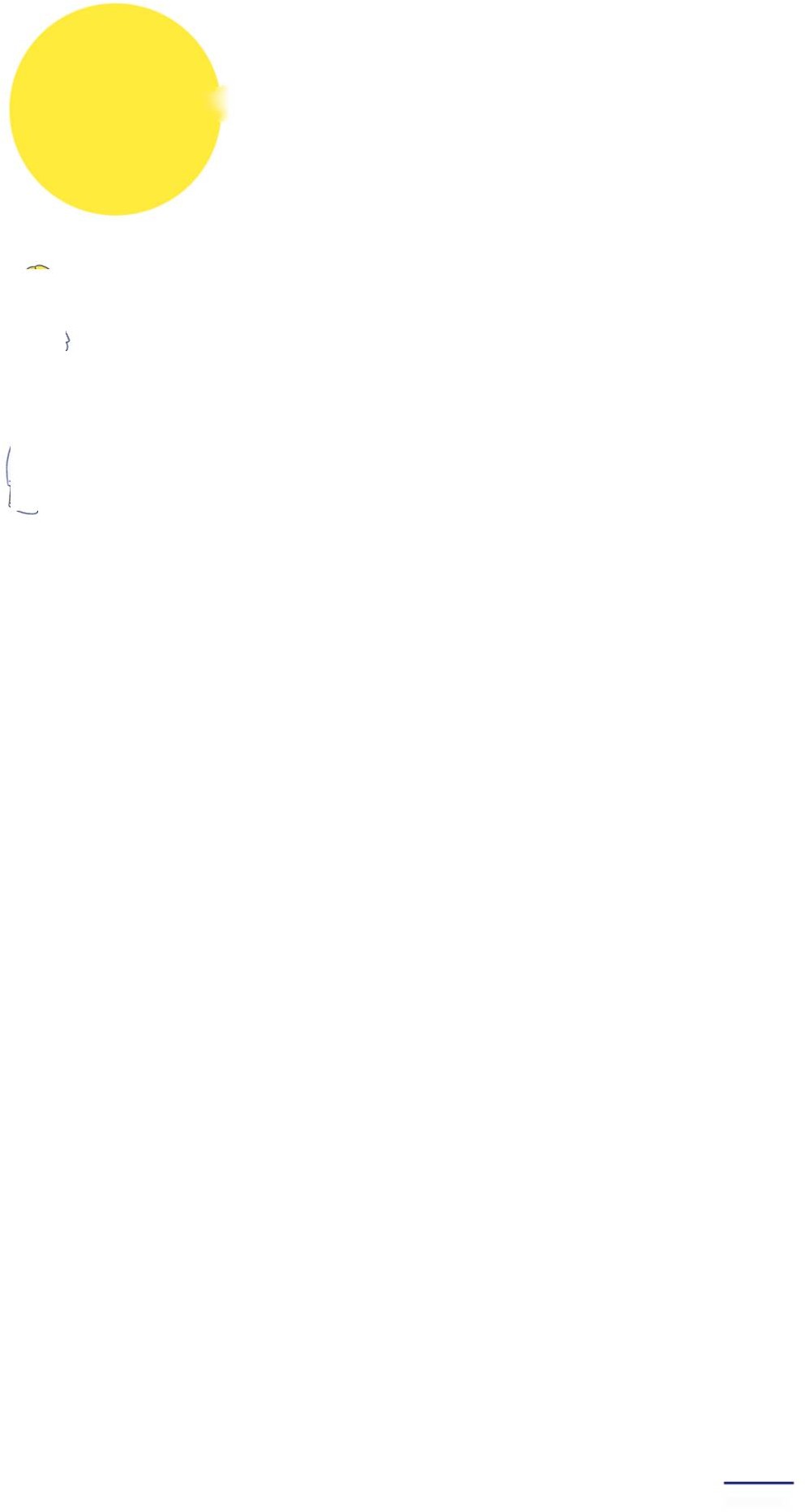
버석버석한 사회에 단비를 뿌리는 방법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물류센터에서 입고，세척，출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총 1년 동 안 큰 탈 없이 근무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완전히 회복되고도 일 했어요. 고등학교 입학이 가까워지는 중학교 3학년 초반이 되어

서야 큰 마음먹고 물류센터에서 졸업했습니다.

마지막 출곤날，기사님들에게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과 함께 음료수를 한 병씩 드렸어요. 퇴근길에는 실수했던 저를 친절하 고 확실하•게 바로잡아준 담당자께 초콜릿과 음료수를 드리고 물류센터를 나왔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항항한 밤하늘，*그* 하 늘이 외롭지 않았던 건 굉장히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기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 을 만큼 속상한 날이 있어요. 괜히 일한다고 나선 것 길•고, 어리 다고 무시당하며 모진 말 들어야 하는 처지에 히•가 날 때도 있 고요. 하지만 수많은 아픈 기억 속에서 일면식도 없는 날 아껴줬 던 사람들이 이 사회에도 남아있었다는 걸 기억해 내면 ‘나도 누 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지，꼭 그래야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틀고 갑갑 했던 사회생활에 단비 같았던 어린 것의 기억 속 멋진 아저씨들 처럼.



### 성인，제법 어려워요.

다사다난한 10대를 보내고，20대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한 만큼，저도 변했어요. 비록 남들보다 일찍 어른이 되 어야 했고，남몰래 품고 다니는 마음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의외로 ‘보통의 20대’가 된 것 갈까요. 부모님께

많이 기대기도 하고 가곰은 대들기도 해요. 10대를 바쁘게 지 내며 부모님과의 유대감을 두렵게 쌓지 못한 탓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게 된 건 오히려 대흐u에 들어오!•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고 나서 부터 에요. 오래 갈•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사실 스무

살은아직 어린 나이구나.’라는것을 통감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일찍부터 사회 경험을 했고 스무 살이 되어 대학교

라는 작은 사회 안에 자리를 잡고 본분을 다하고 있지만，어딘 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저는 그 불안의 원인을 사회적으로 어린 나이와 정신적인

249/250

미성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저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린 성인들，더 나아가 사회 초년생들 모두 가 그런 이유로 초조함을 겪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에서 읽으셨다시피，저는 10대 초반부터 '아르바이트’를 하 며 작은 사회를 경험한 사람이죠. 어린 것이 겪었던 각양막색의 경험은 당연히 저를 크게 성장시켰지만，그것이 성숙의 발판이 되었냐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유는 글쎄요.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타인을 공감하는 법 을 배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깊이，진심에 닿을 수 있는 위로를 건네는 방법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빈말로 "괜찮아， 다 잘될 거야.”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그건 제가 생각하는 진정

한 위로는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최

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너는 이러저러하고，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잘될 거야/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왜 막상 입 으로 나오지 않는 걸까요? 어떤 방면에서는 배웠는데，어떤 방

면에서는 배우지 못한，어른의 껍데기를 쓰고 있다는 기분을 지 울수가 없어요.

저는 몇 년 이내로 직업을 얻어 진짜 사회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수도 있겠죠. 직업을 가져 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생각해 보세요. 면접에 치 이고，취업난에 치이고，MZ 식 마인드니，MZ으1 방식이니 뭐니

하며，어린 20대를 못마땅해하는 시선이 얼마나 많을까요. 비록 저희가 그간 보여준 태도로 인해 만들어진 업보이고，세대 갈등 으로 빚어진 편견이라지만，나이가 어려서 감당해야 하는 불공 정은 아닐까요?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거의 모든 20대가 감수 해야하는.

사회에 나가도 내가 한사람 분량의 몫을 제대로 하지 못할7가

봐，그래서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초조한 것도 있어요.

미지에 대한 두려움도 저를 불안하게 해요. 지금 저는 대학생 이고，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제가 직업으로 무엇을 선 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전공과 상관없는 분 야의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셈이 니，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공 관련 분야의 직업을 가진다고 해도 문제예요. 지금 대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이 분야에 대 해서 더 깊고 구체적으로 배워야 하고 그것을 직무로 연결하라 고 하면 진짜 머리가 터지는 건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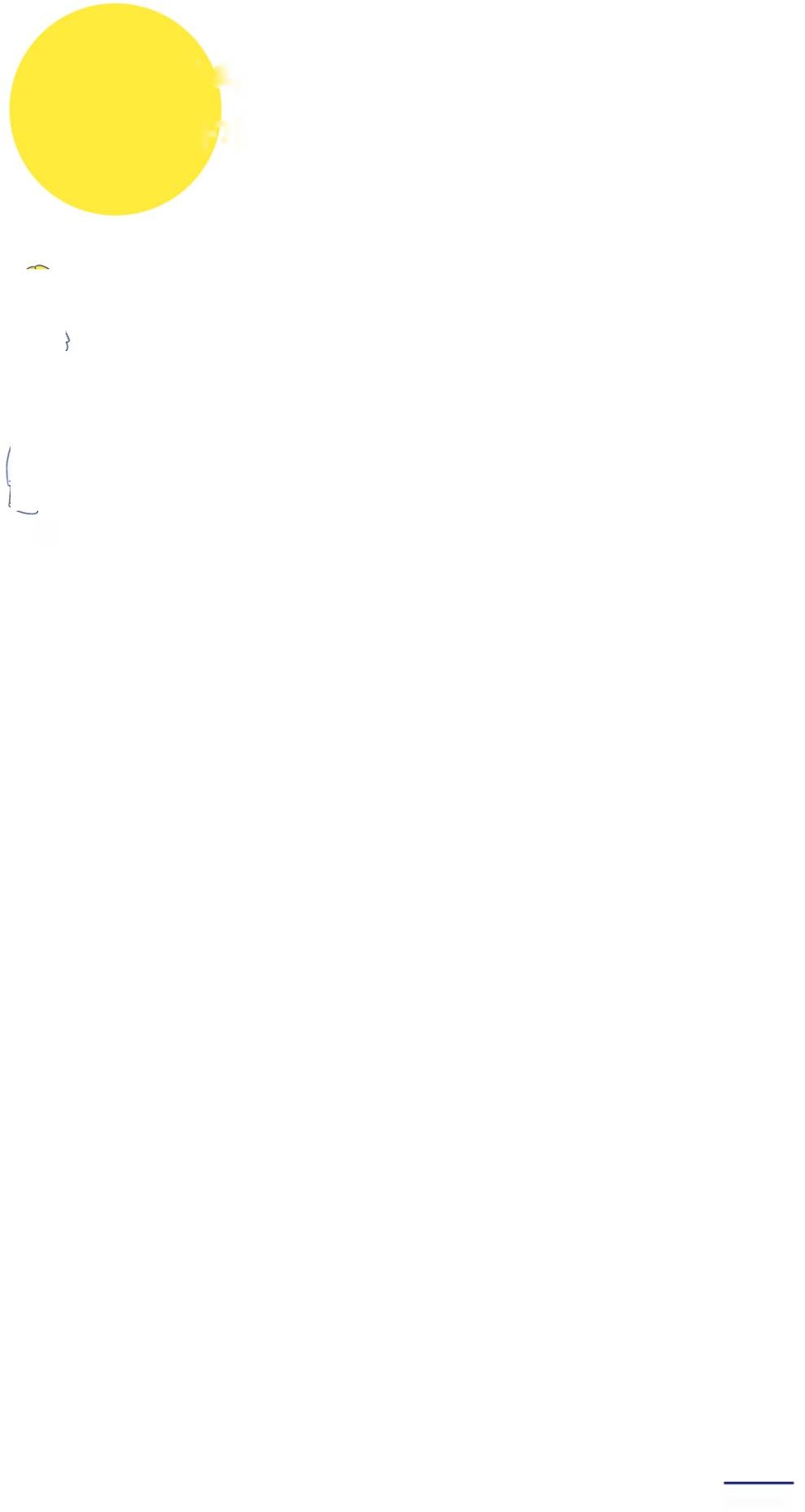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은 두렵지 않아요. 아마 그 기저 에는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이 제게 건네준 온기 때문일 거 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걱정과 조언，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251/252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아무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을수도 있죠.

그렇다면 제가 되어주고 싶어요. 쉽게 위로하고，쉽게 걱정해 주는 사람. 누군가 이 사회를 살아가며 불안하지 않은 밤이 되 기를 기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려 합니다.



### 미지수의 삶을 그려나가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이 두려우신가요，책임이 두려우신 가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내가 상대방 생각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앞에 서는 방긋방긋 웃어주던 사람이 뒤에서 내 이야기를 할 지 누 가알아요.

책임도 막중하죠. 히사는 팀으로 굴러간다지만，결국 팀이라 는 게 개인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장아요. 내게 주어진 일들은

내가 감당해야 하지만，내가 저지르는 실수는 내가 감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러니 아마 사람과 책임，두 요소 모두

우리를 힘들고 속상하게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 미래의 이야기죠. 현재의 나는 먹고살기 바빠 죽겠는데 관계고 책임이고 따질 게 뭐가 있겠어요. 하루 하루를 허망하게 보내는 것 갈■아 초조하고 불안한 분들에게， 나날이 힘들어지는 현실에 허무한 분들에게，인생 좀 덜 살아

253/254

본 스무 살이 조언 하나 남겨도 괜창을까요?

당장 내일의 일도 알 수 없는 우리가 먼 미래의 일을 안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미래를 떠올리는 일은 기대되기도 하고，아 찔하기도 한 일이에요. 가곰은 나중 일은 접어두고 현재에 안주 하고 싶고요. 하지만 우리는 과거도，현재도 아닌 무수한 미래

의 시간을 사는 게 아닐까요? 말 그대로 '미래를 걷는다.'라는 선택지밖에 없는셈이죠!

그렇다면 미래를 계속 두려워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우습지만 저는 미래를 하나의 거대한 창작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악물고 버려왔던 시간，눈을 부릅뜨며 해냈던 성고h 미 친 듯이 불태웠던 오기와 의지가 모두 내 미래의 창작 요소인 거죠. 여러분도 분명히 있으실 검니다. '반드시 해낸다.'는 일념 하나로 밤을 새웠던 어느 날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약속 하나 하자고 청하고 싶어요. '반드시 자신과 대화할 것.’

저는 무의식의 두려움이 진짜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 나예요. 모르는 새에 못 하는 것이 많아지고，포기가 잦아졌어 요. 안 하고 있는 건지，못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채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라며 합리화하는 자신을

발견했던 날，자신과 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침대에 누워 제가 무엇을, 왜 망설이고 있는지 한참을 생각 했습니다. 한 번도 인식해 본 적 없는 무의식의 두려움이 많 더라고요. 제가 회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 훨씬 후련 하고，'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겠다.’하고 생각 정 리도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자신과 대화해야 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알고, 극복하고，나아가고，쟁취해서 좋은 결 과를 얻고 행복해지세요. 자신의 결핍을 깨닫고 미래를 위한 요 소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보세요. 현실에 안주하며 '지금이 행복하면 됐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미래를 꿈 꿔 보셨으면 합니다.

나를 위한 일들은 결국 내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줄 사람이 있어 줄 거라고 막연히 생막하지 마세요. \*나'를 중요시하세요. 내가 소중해지고 나

면，남을 살피고 보듬어 주는 시간을 가져도 좋아요. 자신을 충분히 채웠다면，남을 채워주는 것도 보람차고 행복한 일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저는 자신을 들보고，가꾸는 시간이 반복되어 결국 좋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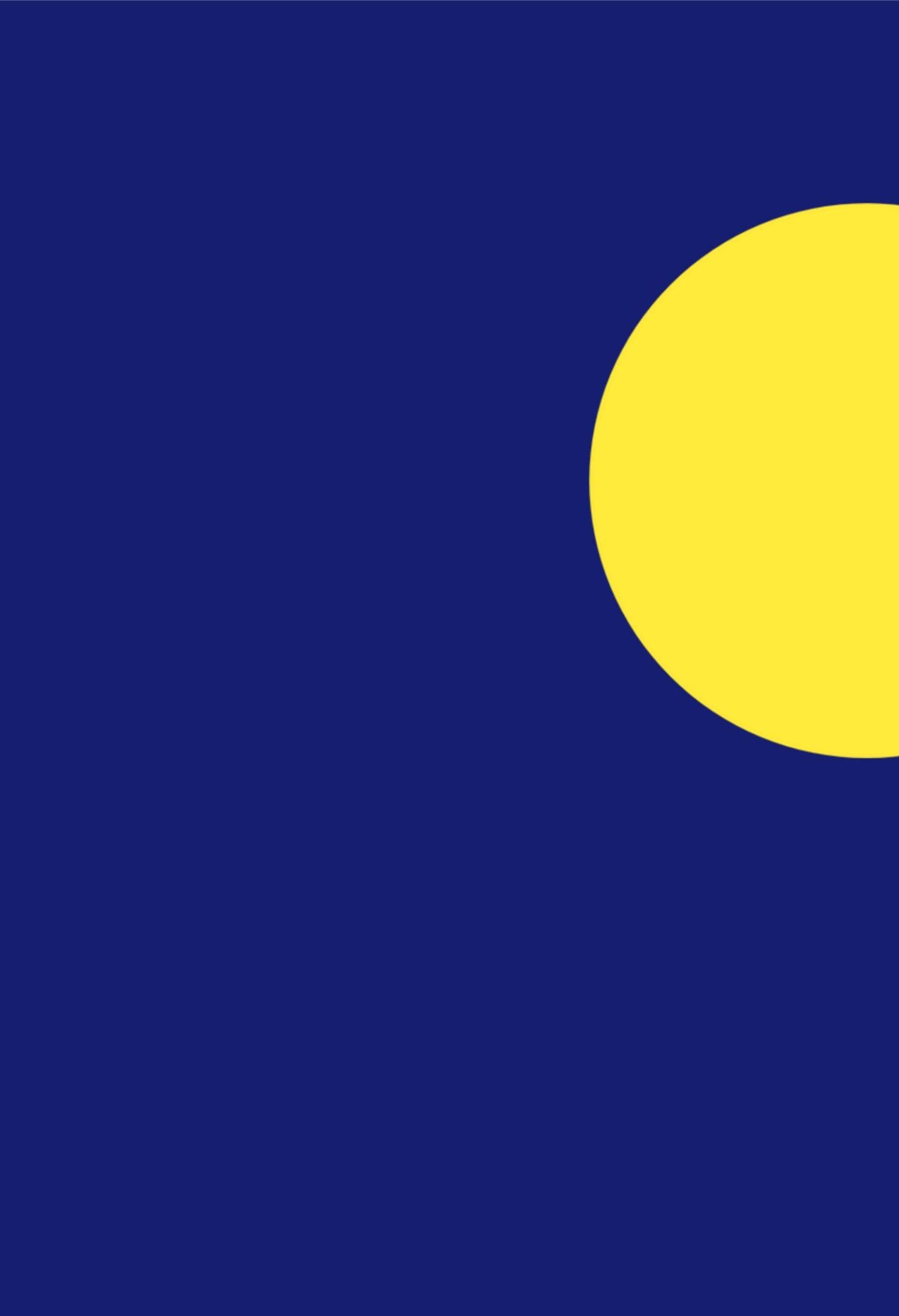


255/256

이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글을 보는 모든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

습니다. 저 역시 자신에게도，상대방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감사합니다!







# 인생이 끔찍해도 맘찍하게 살자

‘정답’이 아닌사람 261

그저국문과라는이유로 267 아무도무너뜨릴수 없는여름같은 사람 270 엄마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나? 274

그런 선입견으로 보지 말아 주세요 279

인생이 끔찍해도 맘찍하게 살자 286

이해해 주지않아도괜찮아 291

사실은 모두가 이해받고 싶잖아 294 각자에게 맞는 정 답이 진짜 정 답 297 에필로그 301



### ‘정답’이 아닌 사람

요즘 들어서 느낀 점인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이 렇거I 살아야만 한다’라는 사회적 압박이 심한 것 갈다. 가령，

（이름 있는）대학，（취업이 잘 되는）전공，（좋은 기업으로의）취 업，（폭넓은）인간관계，특정 나이에 이루어야 할 성과 등에서 말이다.

우리 사히가 들이미는 이 강박과도 같은 압박은 인생에 일종

의 ‘정답’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좋은 집에 살지 않는다던 가，몇 년째 대학을 다니고 있匕던가，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匕는 등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사회 가 정답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갈■다. 조금이라도 그 답에서 멀어지거나 다르면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낙인찍어 버린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나는 사회가 말하는 ‘정답’이 아닌 사람이

다. 1번부터 틀렸다는 뜻의 가위표가 쳐진 시험지처럼. 태어났

요즘젊은것들 깨무찍이

을 때부터 우리 집도 사회가 말하는 ‘ 정답인 가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흔 넘어 나를 낳은 부모님은 결혼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이

었다. 나를 낳았을 때 아빠에게는 이미 나와 엄마가 다른 오빠 랑 언니가 있었다. 아빠는 나에게 다른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아마 성인이 되어서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 면 알려줄 계획이었나 보다. 하지만 아빠는 내가 중학교 3학년 이 되었을 때 갑자기 영영 떠나버렸다.

엄마와 아빠가 정확히 무슨 사이였는지, 어쩌다 내가 생기고

태어나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솔직히 앞으로도 딱히 알고 싶지 는 않다.

요즘이야 다들 결혼을 늦게 하니까 아이를 낳는 나이도 늦어 져서 마흔에도 자녀를 낳는 경우가 있다고 하긴 하던데， 잘은 모르지만 내가 태어난 2003년에는 흔한 일은 아니었을 것 갈다. 그렇기에 부모님 주변에도 도움을 받거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비슷한 상황의 사람도 딱히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부모님은 체력도，경제력도 다른 젊은 부모님들에 비

해 많이 부족한 채로 나를 맞이하셨다. 그 바람에 나는 또래 아 이들이 받는 만큼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며 자라야 했다.

아이가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는 •게 제일 먼저 드러나는 부분 은 곁모습이다. 엄마는 초등학생인 나를 씻겨주는 것이 힘들다 는 이유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씻을 수 있게 했다. 머리도 미용

실에 데려가지 않고 직접 가위로 잘라줬다. 그렇다고 머리를 기 르게 허락하지도 않았다.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였다. 결국 나는 초등학교 내내 나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이상한 가르마를 탄 단

발머리만 해야 했다. 옷은 언제나 학교 체육복이었다. 나는 매 일 체육복을 입고 다니면서 엄마는 왜 머리도 길고，옷도 새 옷 을 입고 다니는지 늘 궁금했다.

누가 봐도 더러워 보이고 못생긴 나랑은 아무도 친구를 하려 하지 않았다. 어쩌다 친구가 생겨도 나와 비슷하게 ‘ 정답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환경의 아이들뿐이었다.

반 아이들 대부분이 나를 싫어했다. 사물함 위에 미술 시간에 만든 작품을 올리면 내가 만든 작품만 부서져 있었고， 패딩을 의자에 걸어놓고 가면 모자 부분이 가위로 찢겨 있었다.

나는 대놓고 싫어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존재였다. 아마 왕따였던 것 같다. 선생님들도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애 들이 괴롭히는 *걸* 눈으로 봐놓고도 그 아이들을 혼내지 않고 모 르는 척 넘어간 적도 많았다.

엄마나 아빠조차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따로 조치를 취해준 적이 없었다.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였는지，아니면 그런 노력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서 그랬

는지는 모르겠다.

엄마랑 아빠는 자기들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다. 특히 엄마가 심했다. 기분이 좋으면 엄청 살갑게 대해주다가도， 기분이 나쁘면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랐다는 이유로 시내 한복 판에서 쌍욕을 하며 내 머리채를 잡아 뜯는 사람이었다. 아직도 우울해질 때면 그때 놀라며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들 이 흐릿하■게 떠오른다.

엄마는 늘 이상한 말을 했다. 어느 날에는 티비에서 광고하는 회사를 보고 원래 자신이 그 호1사를 차린 사장인데，다른 사람 한테 사장 자리를 잠시 넘겨준 거라는 말을 한 적도 있었다. *그*

러고는 친구들한테 그 사실을 자랑하고 다니라고 말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헛소리를. 그게 무엇이든 믿을 나이의 아이에게 하는 이상하고 무책임한 어른， 그게 엄마라는 사람이었다.

아빠는 잘 기억나진 않는다. 다만，엄마랑 돈 문제로 자주 싸 웠다는 건 기억난다. 싸우지 않는 날에는 혼자 소파에 누워서 티비만 봤다. 엄마랑 아빠는 집에 있어도 늘 따로 밥을 먹었고，

잠도 다른 방에서 잤다.

어렸을 때는 우리 집의 모습이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몰 랐다. 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도 않았던 데다 초등 학생 때까지는 친구들 집에 놀러 가본 적도 없어서 비교할 대상 이 없던 •게 이유이리라. 나도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았다. 내가 ‘정답이 아닌 사람일 거라고는 생막조차 하지 못했었으니까.

사회는 감히 정답도 아닌 내가 그 사실도 모르는 게 못마땅했 을까? 계속해서 나에게 ‘너는 정답이 아니니까 불행해하라’라고

가르치려 들었다.

한창 예민할 사춘기 시절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 무나 버거워서 매일 밤 자기 전에 울곤 했었다. ‘왜 하필 나

만?’이라는 생각에 비참했다. 나도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고 싶은데 어째서 나는 그것조차 감히 할 수 없는 건가 싶었다. 어차피 시작부터 이미 망한 인생인데，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 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려 하지도 않았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까지 이상하게 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생 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핑계로 공부도 열심히 안 했다. 내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관심 가지는 사람도 그때는 없었다. 수업 시간에 자거

나 공책에 낙서하는 게 학교에 가서 내가 하는 일이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기에 나의 이런 행동은 더욱 튀었던 것 같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선생님들도 포기해 버린 건지 수 업 시간에 자는 나를 딱히 깨우지도 않았다. 학기 초 상담 때 담 임 선생 님한테 말한 내 사정을 교과목 선생님들도 대충은 알고 계셨을지 모른다.

체육 시간에도，급식을 먹을 때도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나 혼 자만 곁도는 느낌이었다.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문학 선생님이 그런 나에게 힘내라고 말을 걸 어주셨다.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볼 때마다 격려해 주셨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엎드려 자기가 뭔가 죄송해져서 문학 시간만 큼은 수업을 들어보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점점 다른 수업 시간에도 엎드려 자지 않게 되었다.

웃프게도 기본 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성적이 크게 오르거나

하는 드라마틱한 일은 없었다. 그래도 덕분에 조금이나마 변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했다. 지금도 그 선생 님께 감사하게 생각 하고 있다. 그때 처음으로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느낀 것 갈다.

문학 선생 님은 3학년 반 배정할 때도 친한 친구들과 붙여주시

며 챙겨주셨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문학을 제일 좋아한다.



## 그저 국문학과라는 이유로

처음 국문학과에 가겠다고 말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소리는 대부분 긍정적이지는 않은 반응들 뿐이었다.

집을 떠나버린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하던 이복 오빠는 국문

과는 요즘 취업이 잘 안되지 않냐며 걱정했다. 아니，왜 국문과 에 원서를 썼냐고 거의 혼내다시피 했다.

국문과에 가는 대신 좋은 성적을 받기로 약속하고서야 나를 믿고 국문과에 가는 길 허락했다. 그리고 나는 약속대로 대학 교 1학년 때 48명 정원 중 7등，8등을 했다. 덕분에 학과에서 일정 정도 이상 성적을 받은 애들만 신청할 수 있는 교직 이수 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교직 이수를 하는 동안에도 국문과에 다닌다고 하면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 지금은 사이가 틀어져 버린 소꿈친 구와 오랜만에 만났던 적이 있다. 내가 국문과에서 교직 이수

를 하 는 중 이 라 고 얘 기 했 으 나 간 호 학 과 를 다 니 던 그 친 구 는

요즘젊은것들 깨무찍이

국문과와 교사가 요즘 얼마나 전망이 안 좋은지 이야기하며 전 과하라는 말만 했다. 다른 친구들도 주변 어른들도 국문학과는 취업을하지 못해 ‘굶는학과’라며 진로가 어둡다고 이야기했다.

그들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임을 안다. 나 와 비슷한 환경의 아이뿐만 아니라 나은 환경의 아이들에게도 대부분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졸업해서 빨리 취업하는 게 최고 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이상한 고집이 생겼다. 특별히 국문과에 오 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그렇다고 가고 싶은 학 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선택해 본 적이 없어서 진로만큼은 내 의지로 선택하고 싶다는 오기가 있었을뿐이다.

많은 사람이 취업이 잘되지 않는 국문학과는 ‘정답’이 아니라 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그렇다면 오히려 ‘ 정답이 아닌 사람인 내게 딱 맞는 학과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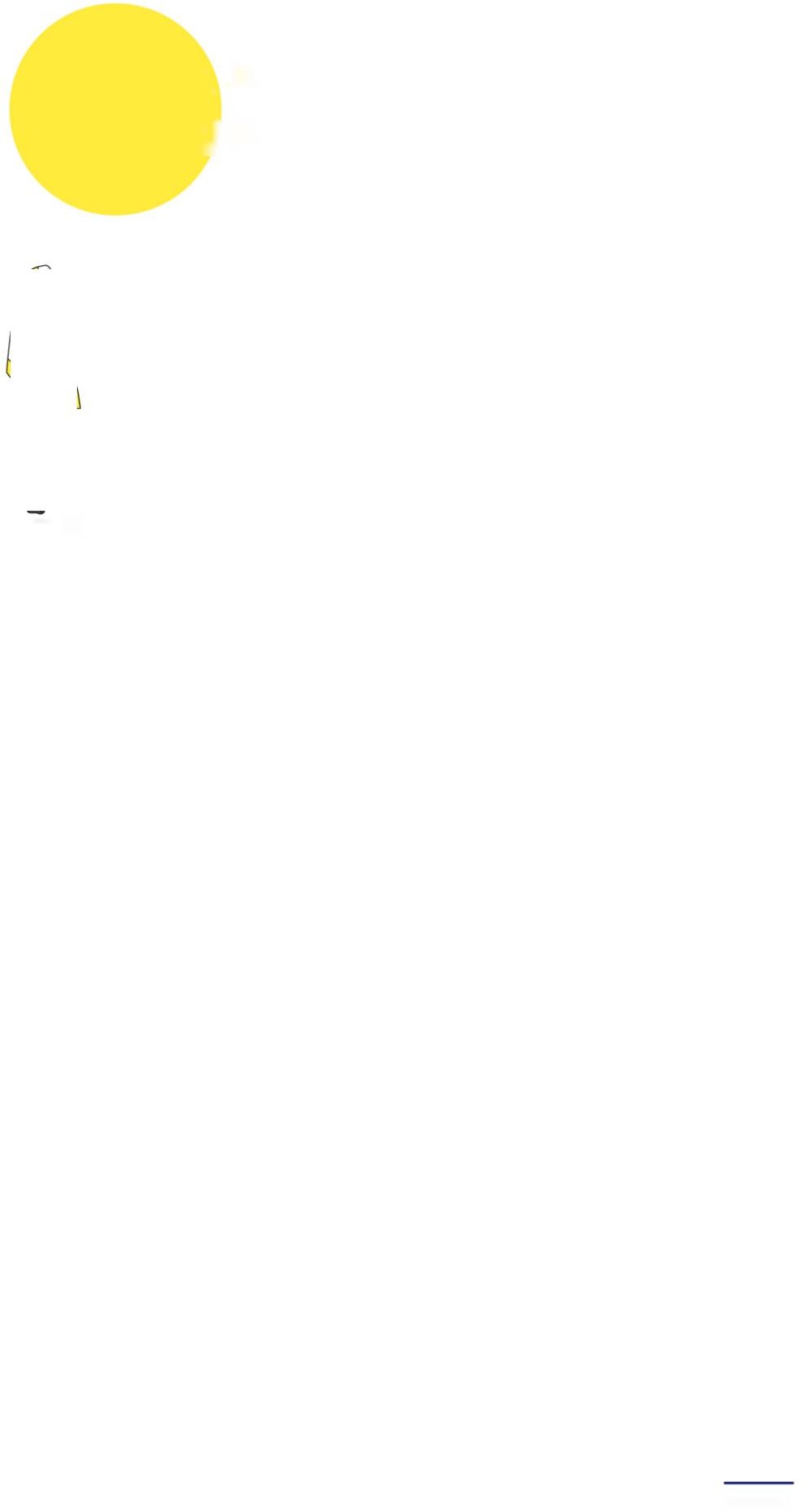
사정이 이러니 나는 대학에 오고 나서도 국문과에 딱히 애정 이 생기지 않았다. 어쩌면 국문과는 내가 ‘스스로’ 진로를 선택 했다는 명분을 위한 핑계였을 지도 모른다.

따지고 보면 국문과에 원서를 *넣은* 것도 보로지 내 선택에 의

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문학 점수가 다른 과목들보다 아주 조금 더 높아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문학과에 원서 쓰는

것을 추천해 준 사람도 있다. 바로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 생님이다. 추천 이유도 그리 거창한 건 아니었다. 내가 감수성이 좋아 보인다는 게 이유였으니 말이다.

그래도 취업을 생각해서 오빠가 나에게 잘 맞을 것 같다고 추 천한 유아교육과에 가는 게 좋겠다고는 생 막했다. 하지만 수능 최저 점수를 맞추지 못해 유아교육과는 다 떨어지고 국문과에 붙어버렸다.



##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름길■은사람

국문과에 원서를 넣은 대학은 두 곳이었다. 경쟁률이 비슷한 대학이었는데 현재 다니는 이 학교를 골랐다. 집이 가까운 것 도 아니고，부산에서 •경사가 엄청 높은 곳으로 유명한 이 대학

을 고른 이유는 무척 한심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바로 고등 학교 때 짝사랑하던 같은 반 남자애랑 대학도 같이 다니고 싶

었기 때문이었다.

그 애는 내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준 일종의 활력소였던 것 갈• 다. 학교에 가면 그 애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학교에

가는 날이 좋았고 기다려졌다. 유난히 힘든 시절을 그 애 덕분 에 버렸었다.

하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 가지는 않았다. 대학에 입학하 고 두 달 정도 지나니 연락이 아예 끊겨버렸다. 어쩔 수 없었

을 것이다. 현실은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니까. 연락이 끊기고 나서 한동안은 허무함뿐이었다.

269/270

유독 머릿속이 복잡하고 심란해서 과제가 하기 싫은 날이었 다. （물론 과제를 하고 싶은 날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는 하기 싫은 게 생기면 최대한 미뤄버리고 딴짓을 한다. 왜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책상이 과제나 공부를 하려고만 하면 그렇게나 불편한지. 왜 자주 보지도 않는 영화나 드라마가 보고 싶어지는 지. 그런 식으로 늘 미루고 미루다 마감 시간이 닥쳐야 급하게

하는 것이 일상이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미룬이」의 가사처럼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는 듯하다. 시작하■게 되 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끝내버려야만 할 것 같아서.

그날도 과제를 하려다 말고 늘 그렇듯 방 정리를 시작했다. 서 랍에 모아둔 손 편지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중 지금도 무척 좋 아하는 지원 언니가 써준 손 편지의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편지

중간쯤에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의 열 번째 장에 있는 프 랑스의 소설가 알베르 카위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 후반，당시 결핵을 앓고 있던 알베르 카위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프랑스 파리를 떠나 자 신의 고향인 북부 알제리로 향했다고 한다. 아마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어지니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이 그리웠나 보다.

하지만 기대했던 고향의 모습도 전쟁 때문에 완전히 변해 있

었다. 게다가 그때는 비까지 내리는 잿빛의 12월이었다고 한다.

*그*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봐버린 알베르 카위는 ‘아，젊은 날을 되살리려고 했던 나의 희망은 어리석었구나.’라며 절망에 빠져 버리고 만다. 그래도 자신의 추억 속에서만큼은 청년 시절 고향

에서 경험했던 따뜻한 기억들과 기쁨들이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글을 하나 남겼다고 한다.

이 깊은 겨울의 한가운데서， 나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름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깨달았다.

지원 언니는 이 구절이 힘든 시절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긍정 적인 기억들을 뜻하는 거라고 적고 있었다. 아마 이런 기억들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내게는 짝사랑하던 그 애가 “아무도 무너 뜨릴 수 없는 여름” 같은 존재였다.

진짜 우울감이 심해질 때는 내가 ‘정답이 아닌 사람이라서 사 랑할 자격도 없는 거라 생각하기도 했는데，언니의 편지 덕분에 비록 실패로 끝난 짝사랑이지만 좋은 기억으로 남길 수 있었다.

그런데 대학교를 다니면서는 생각이 바뀌었다. 내게 진짜 그 런 존재는 그 친구가 아니라 고등학교 3년을 함께 했던 그 문학 선생님이 아니었을까 하는생각이 문득 들었다.



271/272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 나도 그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힘든 시절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름”

*같은*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었다. 목표 가 정해지니 국문학과에도 애정이 생겼다. 정답이 아닌 나도 노

력하니 학점을 나름 잘 받아서 2학년 때 교직 이수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최종 선발에서 떨어졌다.

그래도 괜찮았다. 꼭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 아무 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름’은 되어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최종 선발에서 떨어진 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던 건 아니다. 다시 한번 내가 정답이 아닌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떨어지고 나니 오히려 매 순간 왠지 모 르게 불안했던 마음은 편해졌다. 이기적이게도 불안하다는 이 유로 남자 친구한테 자주 짜증을 냈었는데，뒤늦게 미안한 생각 도 들었다. 목표만을 바라보다가 놓치고 있었던 주변도 챙길 수 있게 되었다.



## 엄마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나?

국문과에 오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엄마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앞서 말한 것들로 이미 충분히 유추했겠지 만，우리 엄마 또한 ‘정답은 아닌 사람’이다. 자식인 나조차 엄

마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원망스럽고 미운 존재였다. 부모로서 보살펴 주지 않아 괴롭힘의 대상이 되게 한 어린 시절에도，성인이 된 지금도 엄마는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엄마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 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 물건들은 말없이 옮기거나 버리기도 하고，내 *앞으로* 온 택배를 몰래 뜯어서 물건을 숨겨 놓기도 했다. 어떤 날에는 어디서 가짜 뉴스라도 들은 건지 이 제부터 국가에서 인터넷을 전면 금지한다고 하며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부숴버린 적도 있다.

273/274

그런 행동을 하는 엄마를 이해할 수 없어 몸도 마음도 아픈 엄 마에게 화를 내며 싸우기도 했고，부끄럽지만 폭력을 썼던 적도 있다. 그래야만 내 속이 풀릴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괴로워지 기만했다.

희곡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우리 학과는 사람을 이해하는 방 법을 배우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게 우리가 희곡이 나 소설 등을 배우는 이유라고 하셨다. 작품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인물들이 나오고 저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독자 들은 ■거기에 공감하기도 하고 나와 다른 환경의 사람을 이해할

기회를 얻기도 한다.

처음부터 교수님이 해주신 그 말에 바로깨닫게 된 건 아니다. 그냥 ‘아，그렇구나’ 하는 것으로 끝났다. 직접 살아보지 않은 이 상 나와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기 어렵듯이， 나 또한 환경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는 힘 드리라 생막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나와 비슷하게 정답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완

전히 이해하기는 힘 드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이런 생각은

운 좋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뀔 수 있었다.

근대소설 강의 시간이었다. 교수님은채만식 작가의「치숙」이 라는 작품을 주제로 동기들과 질문을 가지고 토론하게 하셨다.

‘치숙’은 어리석은 아저씨라는 뜻인데，그의 처조카인 작중서술 자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그를 비웃는 내용의 소설이다.

하지만 작품을 읽다 보면 조카 또한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 조 카는 고모부와 반대로 사회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또한 조선 여자를 싫어하며 내지（일본） 여자에 대한 환상 을 품고 있다. 여자뿐만 아니라 집，옷，밥도 내지식으로 하고 싶 다고 말하는 등，친일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니 지식인이라 배울 만큼 배우고도 무능하게 사는 자신의 고모부를 세상 물정 모르는 양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이 작품을 읽더라도 조카는 원가 우스 워 보일 것이다.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 을 것이다. 나도 조카가 식민지 사람에게도 좋■게 대해주는 일본 인들만 만났으니까 저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토론을 할 때에도 조카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학생들뿐이 었다. 그때 어떤 친구가 조카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의견을

꺼냈다. 어쩌면 조카가 저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생각이 굳어 지기까지 주변에서 바로잡아줄 사람이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이었다.

그 의면을 꺼낸 뒤 친구는 작품에서 근거를 찾아 이야기했다.

조카가 열여섯 살에 시집을 간 고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 조카는 그 당시 자신의 나이가 세 살이었다고 했고，거기 서 열여덟 해가 지났다고 이야기했으니，조카의 나이는 스무 살

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

을 살펴보면 조카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일제강점기였을 테니.

조카가 저런 가치관을 가지게 된 건이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닐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 말을 들으니 나도 다른 관점으로 치숙의 조카를 바라볼 수 있었다. 주변에 자기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뿐이고，살 아온 평생 자신의 생막이 틀리지 않다고 믿고 살아왔다면 쉽게 가치관을 바꾸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치숙의 조카한 레도 가치관이 굳어지기 전에 꾸준히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있 었다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날, 집에 들아와 엄마를 보고는 치숙의 조카에 관해 들었던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 엄마는 1963년생이다. 옛날 사람인 데

다，지금처럼 딸에게 공부를 시키지 않던 시대에 청년 시절을 보 낸 여자라서 가방끈이 무척 짧다.

게다가 나는 살면서 엄마한테 친구가 있었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약속이 있다며 나간 적도 없고，아빠나 나 외에 다른 누 군가와 연락하는 모습도 못 봤던 것 같다. 아빠조차도 엄마와

사이가 좋지는 않았고 나는 어렸으니，엄마한테는 자기 말을 들 어주고， 더 나은 쪽으로 생막을 바꾸게 해줄 사람이 없지 않았 을까? 우리 엄마는 그저 남들보다 조금운이 없었을 뿐이다.

지금은 엄마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무슨 이유 로 나에게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까지는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도 나는 더 이상 엄마를 때리■거나 엄마 에게 화를 내지는 않는다. 이렇게 태어나게 한 것을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는다. 엄마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

게 되었다.

국문학과에 오지 않았다면 평생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을지

모른다. 내 말을 조금 억지 같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 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생각이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 게 해주었으니 개인적으로는 만족한다.

그리고 3학년이 된 나는 더 이상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국문 학과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요즘 은그냥듣고 이렇게 넘긴다.

‘에이〜. 야! 국문학과가 뭐 어때서 그래〜?’



## 그런 선입견으로 보지 말아 주세요

내 진실한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 아무래 도， 털어놓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가 별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규정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환경을 나의 일부분으로 보ᅡ주지 않고 나를 단순히 피해자나 문제아로 규정하려 들었다. 그들에게 나는 단지 불행한 환경 그 자체로 만 여겨지는 것 갈•았다. （내가 계속해서 이 원고를 낼지 말지 고민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무시하기도 했다. 그중에도 특히 고등학 교 3 학년 때 담임이 기억에 남는다. 담임은 성격이 좀 이상한

인간이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무 거나 꼬투리를 잡아서 반 아이들 앞에서 과하게 혼을 냈다. 그 리고 그것 때문에 학부모님이 학교로 전화를 하면 수업 시간

요즘젊은것들 깨무찍이

도중에 사소한 일로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다며 뒷말을 하기도 했다.

당시 우리 반에서 일등하던 친구가 딱 한 번 자기를 봤는데도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 이런 학교에서 공부 좀 하는 거 가지고 니가 뭐라도 되는 *것* 같니?” 라며 조례 시간에 그 아이를 목 집어서 큰 소리로 혼낸 적도 있다.

나 같은 경우에도，여름방학에 했던 입시 상담 때 경쟁률이 *높 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이 아니라며 “너 같은 애는 평생 편의 점 알바나 하고 살 거다. 나는 너처럼 환경도 안 좋은데 노력도

안 하는 애가 참 싫다. 대체 왜 그러고 사니?”라고 막말을 하기 도 했다. 내 가정사도 다 알고 있던 인간이었다. 나한테는 화내 며 전화해 줄 부모님도 없으니 더 심하게 말했던 것 같다.

상담이 끝나고 집에 가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난다. 담임한 레 내 가정사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상처 주는 말 을 했을까，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나는 현실적으로 나 길■은 환경의 아이들이 입시에서 좋은 성적 을 받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 가 아니다. 내 말이 핑계로 들린다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처음부터 학업에 관심을 가지고 금전적으로나 정

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다. 학원도 한 번 다 닌 적 없고 당장 오늘 한 끼를 고민해야 하는 학생이 학원 다니 고 과외받는 학생들만큼 성적을 받기가 쉬울까?

물론 가정 환경이 좋은 학생들도 노력을 할 것이다. 하지만 나 같은 환경의 아이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공 부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다.

교직이수를 하면서 종종 담임 생각이 났다. 학생들에게는 상 처가 될 심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자신의 아이를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두었던 그 선생 . 교권이 많이 추락해서 문

제라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 어쩌면 저런 교육자 자격이 없는 선생들 때문일 것 갈•다는생각도든다.

2020년대 초반에도 저런 선생이 멀명히 교직 생활을 하고 있

는데, 학생 인권이 없던 시절에는 얼마나 심했을까. 그 시절을 견디고 어른이 되어 자식을 낳은 지금의 부모 세대가 무리한 민 원을 넣고 교사를 고소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이용하려 하기도 했다. 고등학생 때 친해진 친구 중에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 있었 다. 처음에는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전도를 했다. 기델 곳이 생 기면 나아질 거라며 기독교 동아리까지 가입하게 했다.

하지만 내가 자기네 교회 신자가 되자 태도가 변했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며 당연하게 시간을 내라고 요구했다. 처음에는 예배 시간에 성경 구절을 읽 는 정도여서 괜찮다고 생막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교회 놀이 방 벽지 도배를 모라달라고 했다. 붙어 있던 벽지를 떼고 청소

를 한 뒤에 새 벽지를 바르면서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그래도 참고 계속 친구네 교회를 다니려고 했는데，나를 을처

럼 대하는 태도에 더는 그럴 수가 없었다. 점심으로 나온 삼막 김밥을 안 먹길래 그럼 나 달라고 했더니 정색하면서 거지라서 탐내는 거냐는 말을 하기도 했다. 밤에 머리를 감다가 울기도 했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계속 이런 교회를 다녀야 하나 싶었 다. 많은 고민 끝에 말없이 교회를 옮겼다. 어차피 하나님이라는 신만 계속 섬기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다.

그랬더니 기독교 동아리에서는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른 사 람인 것처럼 취급했다. 동아리 간사는 평생을 한 교회만 다니는 사람도 있다며，친구와 대화 해보고 원래 다니던 교회로 들아가

라고 했다.

이미 내 사정이 어떤지 알고 있었고，친구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얘기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동아리에서는 새 신자였던 나와

목사님 딸인 친구 중 친구 편을 들었다. 교회에 돌아가지 않는 다면 동아리 활동을 정지시키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활동 정 지 기간에는 동아리 방 사용도 못 하게 할 거고，동아리 원들과 이야기하거나 만나지도 못하게 할 거라고 했다. 학교 내에서 동

아리 간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내가 인사를 해도 안 받아주고 빤히 쳐다보면서 지나갔다.

너무 힘들어서 결국 내 발로 동아리를 나간다고 했다. 이건 지 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당시 나는 갓 성인이 된 20 살이었다. 협박은 자기들이 하면서，이런 식으로까지 동아리 활 동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나의 말이 협박처럼 들린다고 이야기하던 인간들이었다.

어떤 사람은 어설프게 동정해 주기도 했다. 함께 얘기하며 길 을 걷는데， 도중에 우리 엄마의 안부를 물어보았다. 그러고는 갑자기 지갑에서 현금 만 원을 꺼내 건넜!다.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길로 아픈 엄마랑 맛있는 거 사 먹으라는 게 아닌가. 생각해 주는 마음은 고마웠지만，필요하지는 않아서 ■거절했다.

거절하는데도 계속 받으라며 주길래 결국 받았는데，받지 않 는 편이 좋았다. 그 사람은 내게 서운한 일이 생길 때마다 현금 을 준 이야기를 계속 꺼냈다. 자기는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너는 왜 그러냐는 식으로. 1년이 지나도 계속. 그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면서 준 건 시간이 지나도 기억하는 사람 이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을 당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막 했다. 지금은 환경만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못되게 대하는 사람 들이 문제라는 것을 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내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나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도 변함없이 대해주는 사람들도 만났다.

내가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속상했던 말은 “그렇게 애써서 밝 은 척하지 않아도 돼.” 였다. 나는 내가 처한 환경이 내 전부가

되지 않게 노력하기는 했지만，단 한 번도 ‘척하며’ 내 성격을 꾸 며내려고 한 적은 없다. 어쩌다 가곰 우울할 때가 있을 뿐이지 매일 우울해하며 사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말하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나 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처한 환경에서 밝은 성격을

가지는 건 ‘ 정답이 아닌 걸까? 물론 안 좋은 환경 때문에 성격 이 비관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좋은 환경에 서 자랐다고 성격이 다 좋은 것도 아니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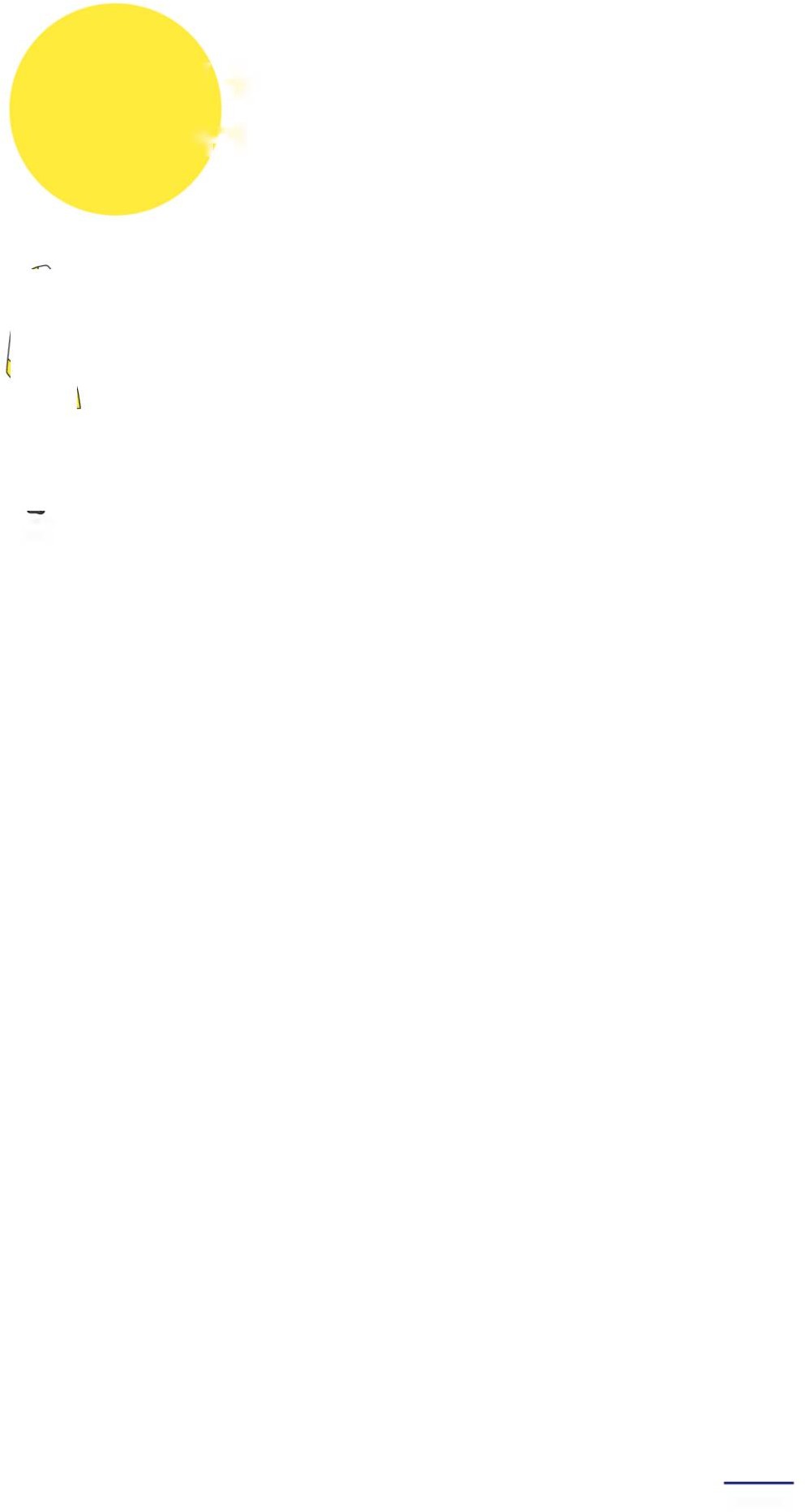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아마도 뉴스에 나오는 잔혹한 범죄자들의 가정 환경이 별로 좋

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그건 자기 잘못 을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뿐이라고 생막한다. 나도 힘든 환경에 서 자랐고，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곰찍한 범죄들을 저지르고 싶

다는 생막은 정말이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나뿐만이 아니라 힘든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이 그럴 것이다.

나는 나름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 사는 게 나쁘지 않다. 좋아하는 것도 엄청 많은 데다 연애도 하고 있다. 알바도 많이

해봤는데 그중에서도 키즈월드 안전 요원 일을 무척 잘한다. 기 차，회전목마 등의 놀이 기구를 작동시키고 아이들의 안전을 관 리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아이들이 놀자며 졸졸 따라다니곤 한 다. 부모님들도 친절하다며 칭찬해 주시기도 했다. 원래 일주일 짜리 단기 알바였는데 나를 좋게 봐주신 팀장님의 권유로 시즌 종료일까지 일했었다. 다음 시즌이 오픈하면 다시 일할 것 같다. 장학금을 받아본 적도 있다. 대학에 다니는 3년간 거의 30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다. 봉사 동아리 활동으로 알게 된 사람들도 많다. 2학년 여름방학에는 학과 친구들과 부산 지역 대학생 논 문 발표 대회에도 나갔다. 우리가 주제를 선정해서 논문을 쓰고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내가 수업을 듣는 인문관 앞에 축하 현수막도 걸렸었다. 이 정도면 요즘 말로 ‘갓생’이라고 할 수 있 지 않을까?



## 인생이 끔찍해도 맘찍하게 살자

600일 넘게 사귀고 있는 나의 남자 친구는 나를 ‘깜찍이’라는 애칭으로 불러준다. 시간이 지나면서 ‘맴찍이’라고 부르더니 이 제는‘깨무찍이’라고 부른다.

언젠가 혹시 나를 부르는 ‘ 깨무찍이’ 에 무슨 특별한 뜻이 있

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볼따구를 ‘깨무’러 ‘찍이’뿌고（깨물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가 사랑스럽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길 듣고 사랑스럽다면서 왜 그러는 거냐고 당황했었다.

알 고 보 니 남 자 친 구 가 나 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지 그런 심리를 뜻하는 ‘귀여운 공격성’이라는 전문 용어도 있었다. 귀여운 것이나 사랑스러운 것을 보고 감정이 과도하게 긍정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뇌에서 감정의 평형을

맞 추기 위해 정반대의 감정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한다. 보통 작은 동물들을 보고 느민다던데. 남자 친구는 그 정도로 나를 사랑스럽고 귀엽게 봐주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았다.

285/286

자존감이 심하게 떨어졌던 어느 날，남자 친구에게 이렇게 물 어본적이 있다.

“오빵이（내가 부르는 남자친구 애칭）…，내가 나이 들면 더는 안 함찍해 보일 건데 그럼 그때는 나 안 좋아해 주나?”

남자 친구는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나는 땀찍하게 귀여울 거라고 했다.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뒤이어 남자 친구는 나는

행동이 함찍한 사람이라고 했다. 버스 탈 때마다 기사님한테 밝게 인사도 잘하고， 배달 음식을 잘못 보내 죄송하다며 전화

*온* 가게 사장님한테도 화내지 않고 괜창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 이라고.

나는 그런 행동을 당연하게 생막했는데，남자 친구는 아니었나 보다. 요즘은 사는 게 락락하다 보니 사람들이 서로에게 삭막하 게 대하는데 나는 친절하고 밝게 행동해서 너무 좋다고 했다.

남자 친구 말대로 요즘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공격적인 것 같 다고 느낀 적이 있긴 하다. 인스타나 유튜브 댓글만 보아도 자 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다. 오로지 자 기 생각만이 절대적인 정답이라고 여긴다.

영상을 올린 사람의 외모가 부족하면 못생겼다고，외모가 예 쁘거나 잘생기면 고쳤을 거라고 욕한다. 경쟁률이 낮은 대학교 에서 홍보 영상을 올리면 비하하고，인플루언서가 좋은 대학교

에서 홍보 영상을 올리면 비하하고，인플루언서가 좋은 대학교 에 다닌다고 밝히면 거짓말일 것이라고 욕한다. 이런 댓글들을 읽으면 보는 나까지 기분이 안 좋아질 정도다. 인스타와 유튜브 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에서도 점점 남을 공격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사람들이 많이 보이는것 갈•다.

내 행동이 땀찍하■게 보인다는 말을 듣고 보니，다른 사람들에 게도 내가 함찍하■게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남

자 친구와 같이 고깃집에 가서 밥을 먹었을 때다. 계산하고 나

* 가는데，이모님께서 나에게 쌀 과자 2■개를 주시며，반찬을 레이

블에 놓을 때마다 감사하다고 인사도 잘하고，먹는 것도 잘 먹 어서 예쁘다고 해주셨다.

혼자 동네 치킨집에 포장하러 갔을 때는 사장님께서 뻥튀기를 먹으면서 기다리라고 접시에 담아주시기도 했다. 보석처럼 반짝 거리는 스카치 캔디를 몇 개 챙겨주신 적도 있다. 밤에 손님이

나밖에 없던 마을버스를 랐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기사 아저씨께서 학생이냐며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차가 신호에 멈 추었을 때 통에서 사탕을 꺼내 나에게 주셨다. 생각해 보면 그 분들 역시 내가 깜찍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군것질거리를 쥐여주신 게 아닐까?

그렇다고 나 혼자만 특별하게 함찍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잘 찾을 줄 안다. 외면에서 찾기도 하고 내면에서 찾기도 한다.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찾

으면서 느낀 건 내면이 귀여운 사람들이 패 많다는 것이었다.

배달 음식을 시키다 보면 가끔 메모지에 짧은 손 편지가 붙어 있곤 한다. 바쁜 와중에도 직접 손 글씨를 쓰셨을 사장님 혹은 알바생의 모습이 떠올라서 귀엽게 보였다. 사람이 많은 지하철

에 랐을 때는 자리에 앉아 있던 여학생이 멀리 서 있던 임산부 를 보고 안절부절못하다가 일어서서 자리를 양보하던 모습도 귀엽다고 생각했다. 꽃은 돈 낭비라고 생각하면서도 꽃을 좋아

하는 여자 친구를 위해 쭈뻣쭈뻣 꽃집에 들어가서 꽃다발을 사 오는 남자도 귀엽다. 이런 따뜻한 마음씨가 눈에 보이는 행동들

로 나타날 때， 부끄러웠을 텐데도 결국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나는 그게 참 귀엽게 느껴진다.

‘귀엽다’의 사전적 의미를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다고한다.

1. 예쁘고 곱거나 또는 애교가 있어서 사랑스럽다.
2. 모양이나 행동이 앙증맞고 곱살스러워 예쁘고 정겁다.

앞에 내가 말한 사람들의 모습은 따뜻함이 있어서 정겹게 보

이기도 하니까，귀엽다고 해도 괜창을 것 같다. 또 ‘함찍하다’라 는 단어에도 귀엽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나는 누구나 저마다 의 함찍함이 있고， 어렵지 않게 함찍해질 수 있다고 생막한다. 아직도 인생이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나는 언제나 깜찍

하게 살아간다.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 힘든 사정이 있겠지만， 조금이나마 함찍하■게 살아가면 좋겠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함찍이가 되면 좋겠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언젠가 다 돌

려받는다던더L 이왕이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좋은 걸 돌려받는 게 좋지 않은가.



## 이해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

대학교에 들어오卜서 친해진 사람들한테 많이 들은 말은 ‘좀 특

이한 것 같다’ 였다. 나는 특이하다는 말을 별로 나쁘게 생각하 지 않는다. 스스로가 봐도 나라는 사람은 조금 특이한 것 같기

도하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는 남들 눈에 특이하게 보이는 것 이 많은 듯하다. 보통 내 나이 또래 여자애들은 남자 아이들 그 룹이나 배우를 좋아하던데 나는 관심이 잘 가지 않는다. 엑소 나 방탄소년단， 워너원 같은 유명 그룹들이 유행할 때도 덕질 할 정도로 좋아하지는 않았다. 솔직히 남자 아이들이나 배우들 *은* 다들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서 구별도 못한다.

나는 OTT로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럼 밥 먹을 때 TV도 안 트냐고? 그런데 그건 또 아니다. 밥 먹을 때나 설거지할 때는 어릴 때 보던 ＜또봇＞을 틀어놓는다.

요즘젊은것들 깨무찍이

무언가를 할 때 드라마나 영화를 틀어놓으면 내용에 집중하기 어려워서 뒤로 가기 버튼을 계속 누르는 게 은근 스트레스다.

하지만 ＜또봇＞은 이미 아는 내용이라 집중해서 보지 않아도 되 니 좋다.

어릴 때도 재있었는데 성인이 되어서 보니까 내용이 뭔가 다

르게 다가와서 더 재있다. 알고 보니 주인공이나 다른 등장인물 들 모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었다. 사고로 어머니를 잃 고 휠체어를 타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하나와 두리， 교통사고 이후 양아버지에게 입양된 세모，가출 청소년 네복이（네응），소 년 가장으로 동생을 보살피는 오공이 등，모두들 자신의 환경에

절망하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는 인물들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 위로받기도 했다. 요즘은 ＜또봇〉의 새 시즌을 시작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꼬박꼬박 챙겨 보고 있다. 남자 친구는 그런 나를

보고 완전 ‘잼 민이’ 갈•다고 한다.

최근 들어서는 고릴라를 좋아하게 되었다. 남자 친구가 고릴 라를 닮아서 좋아하게 된 것 같다. 내 남자 친구는 머리가 오이 처럼 기다란데 뒤통수가 아주 살짝 튀어나와 있고，덩치는 우람 하다.

처음 고릴라 같다고 느꼈을 때는 남자 친구가 검은 옷을 입고 앉아 있는 뒷모습을 봤을 때였다. 보자마자 고릴라가 생각나서

남 자 친 구 한 테 톡 으 로 이 야 기 했 더 니 ， 남 자 친 구 는 답 장 으 로 ‘?’만 보냈었다. 그 이후부터는 남자 친구도 자기를 고릴라라고 칭하고 있다. 둘만 있을 때 조르면 “ 우가우가” 하고 고릴라 울 음소리를 내주기도 한다. 그럼 나는 좋아서 “까르르” 웃음을 터

뜨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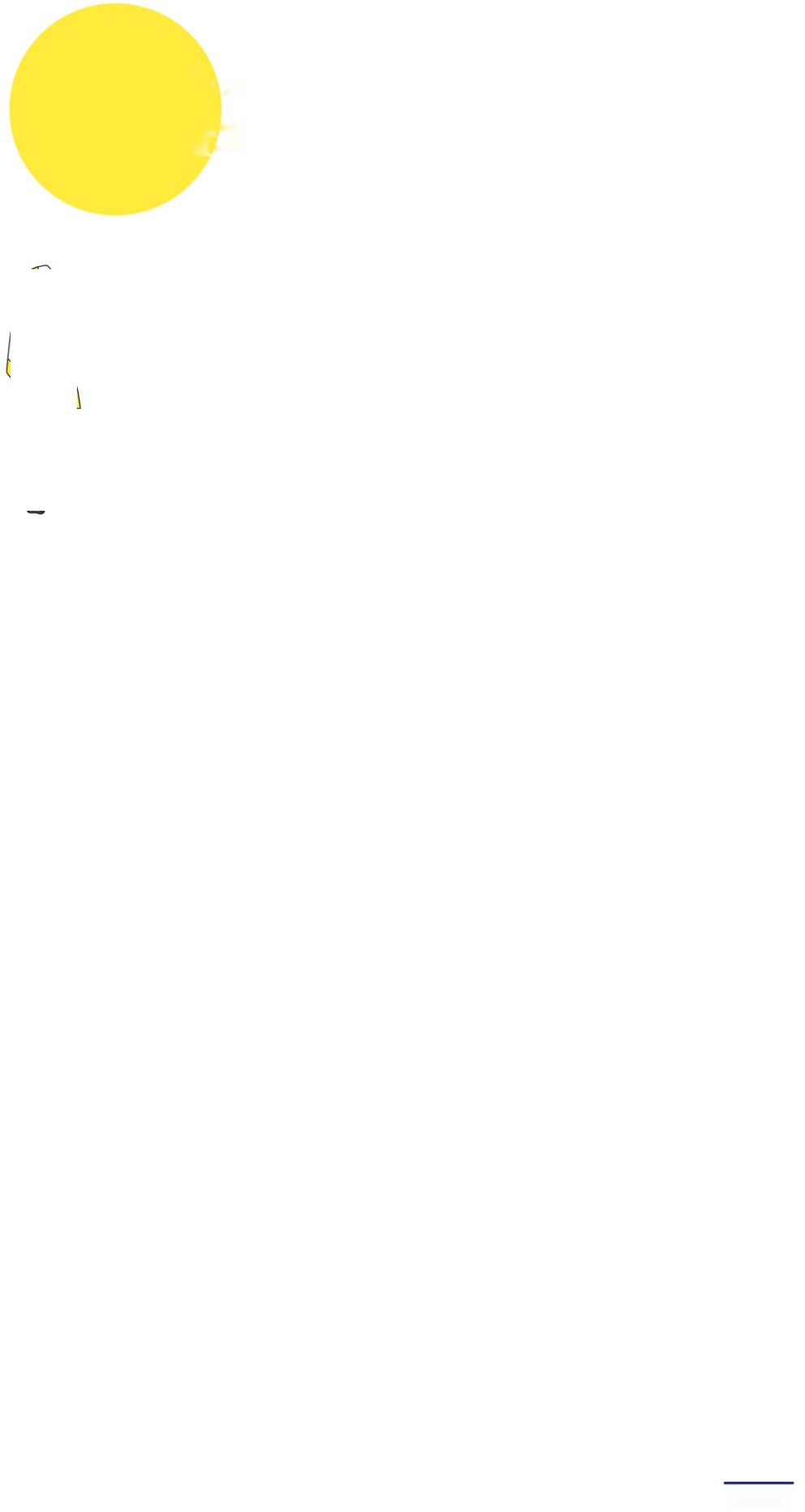
남자 친구를 못 보는 날에는 유튜브에서 고릴라 영상을 찾아 보기도 한다.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 고릴라는 가슴을 칠 때 주 먹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친다고 한다. 그리고 보기보다 온순하

고， 행동하고 느끼는 게 사람이랑 비슷한 동물이라고 한다. 고 릴라가 나오는 영화만 봤을 때는 무섭게만 느껴졌었는데，지금 은 너무 귀엽다. 이해하게 되니까 다르게 보게 되는 것 같다. 현 재 멸종 위기 동물이라고 하는데 부디 멸종되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줬으면 좋겠다.

나의 이런 특이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해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건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나의 특이함을 이해하니까.

나는 특이함을 가］성이자 특별한 매력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 다. 내가 가진 특이함이 딱히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 다.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해서 나 자신을 바꾸거나 숨 길 필요는 없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가 좋고, 나를 사랑한다.



## 사실은 모두가 이해받고 싶잖아

그렇지만 가곰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라는 사람을 이해받고 싶기도 하다. 아니 어쩌면 항상 이해받고 싶어 하는지도 모른 다. ‘ 정답이 아닌 사람’ 으로 살아가는 내가 사람들에게 이해받 는다는 건 내가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뜻이니까. 더 이상 정답 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입견이 담긴 시선과 태도로 대해지고 싶

지 않다.

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이 타인에게 이해받기 를 원할 거라고 생각한다. 친구나 지인 등 누군가와 싸우고 제 삼자에게 이야기할 때， 자신이 이해받지 못할 것 같은 부분은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어쩌면 이해받고 싶어 하는 건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갈• 다. 나 같은 경우에도 나를 이해해 준 사람들

293/294

덕분에 나와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해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 할수있게 된다.

물론 나도 이기적으로 나만 이해받길 바라는 것은 아니다. 부

족하겠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 보다 환경이 나아 보이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 다 내가 겪었던 비슷한 일을 떠올려서 공감해 주기도 한다. 내 가 겪어보지 않은 일이면 힘들다고 하는 말을 그저 묵묵히 들어

주며 위로한다.

내 사정을 전부 아는 사람들은 혹여나 내가 나보다 환경이 나 아 보이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 다. 앞에서는 공감하고 위로해 줘도 속으로는 ‘ 너는 나보다 나 은 환경을 가졌으면서 겨우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해?’라고 생 각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한 적은 없다. 나은 환경이라는 것도 결국은 상대적인 것이다. 나보다 더 불행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굳이 말을 안 하니 모르는 것뿐이다. 나 도 내 사정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다른 사람의 환경이 나아 보이는 것도 철저히 타인의 입장에서

일부분만 본 것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무한테나 이야기하지 않는다. 미처 말하지 못한 사정들이 얼마나 많겠는 가. 그리고 내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게 내 잘못이 아니듯이

그 사람들에게도 잘못은 없다. 우리가 환경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 ‘내가 너 같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겨우 그런 일로 힘 들어하지는 않았을 거야.’라는 생막은 하면 안 되는 생각 같다. 그런 생각은 자기가 제일 불행하다고 여기게 만들어，결국 스스 로를 좀막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받고 또 이해하려고 함께 노력해 나가다 보 면. 언젠가는 모두가 진심으로 이해받고 이해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헛된 이상일지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 막자에게 맞는 정답이 진짜 정답

앞서 말했듯 내가 ‘정답이 아닌 사람’임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때 내 곁에는 나랑 똑같이 정답이 아닌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남의 삶을 함부로 판단 해 버리고는 욕하는 게 일상인 사람들이었다. 얼굴을 봐도 죄 책감이 안 드는 길까? 차라리 친하게 지내지를 말던가，뒤에서 는 욕하면서 앞에서는 웃으며 친하게 지내는 그들이 무서웠다. 그런 사람들이랑 가7 합게 지낼 때는 내 인생이 너무 괴롭고 우 울하게만 느껴졌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

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지 금은 곁에 있는 사람들만 바뀌었을 뿐인데 예전만큼 괴롭거나 우울하지 않다.

생각보다 인간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 인가 보다. 내가 주관이 조금 약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

지만，어떤 사람이든 오래 지내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

요즘젊은것들 깨무찍이

히 주변 사람의 영힘올 받게 되는 것 같다. 그러니 나에게 해로 운 영힘올 주는 관■계라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도 좋다고 생막한다.

사실 지금도 내가 ‘정답이 아닌 사람씸을 완전히 받아들인 건 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도 농담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시답 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한다. MBTI가 N（직관형）인 나는 같은 N인

친구들을 만나면 가곰 이런 주제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시 간을 보낸다.

이런 생각을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닌 걸까. 요즘 다시 유행하 고 있는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의 주제가 ‘환생’인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대부분 힘들고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살던 주인공 이 죽었다 환생하여 다른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내용 이다. 환생’ 을 선호하는 이런 트렌드를 보면 사회가 요구하는 ‘정답이 아닌 사람’들이 은근 많은 것 같기도 하다. 삶을 살아가 는것이 버■거운사람이 많다는 의미이기도할것이다.

내가 대학에 다니고 알바를 하며 경험한 작은 사회생활을 통

해， 정답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나름 잘 살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꼈다. 사회가 말하는 정답이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지내는 게 멋있고 부

러웠다.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라도 받아들이게 되면 인생을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나이도 어린 내가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게 좀 웃기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살다 보니 인생은 한 번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길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인생은 잘못 끼운 단추를 다시 끼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기도 하다.

나는 실수를 하면 그거I 아무리 작은 실수라 해도 계속 생각하 며 자책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다. 실패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다. 진짜 심할 때는 게임을 하다 중간에 실

수를 하면 ‘아 이번 판 망했네’ 하며 포기해 버린 적도 있다. 하지 만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실패도 할 수 있는 거다. 살아가는 민 시간 동안 실수나 실패를 아예 안 하는 건 불 가능에 가깝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 경험에서 배워가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

면 의미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한다 고 인생이 망해버리는 것도 아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속도라는 게 있는것 갈다.

사회가 말하는 정답이 아닌 길을 가게 되었다 하더라도，그•게

자신에게 정답이기만 하면 상관없지 않을까? 각자에게 맞는 *정* 답이 있을 것이다. 정답이 뭔지 모르겠으면 이것저것 해보며 찾 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요즘젊은것들 깨무찍이

원고를 쓰면서 어른들한테 참 살아가기 힘든 시대인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어른들은 예전보다 나아진 거라고 하셨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정답이 빡빡했다고 한다. 결혼 적령기까 지 ■결혼을 안 하면 어던가 하자가 있을 ■거라고 수군거리기도 하 고 재수，휴학，자퇴를 하는 것에도 심하게 반대를 하며 절대로

하 지 도 못 하 게 했 다 고 한다. 요즘이야 결혼은 선택로 여기는

분위기이고, 주변에서도 재수，휴학，자퇴를 한 사람들을 그다 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나마 이게 나아진 ■거라는 말을 들으니，*앞으로* 더 나아졌으

면 하는 생막이 든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정답이 같을 수 없 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고 이해해 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299/300



## 에필로그

여러분이 제 글을 읽어주셨다는 건 원고를 무사히 마무리하 고， 책이 나왔다는 거겠죠? 뭔가 후련하면서도 시원섭섭하네

요. 글을 쓰면서 아무도 궁금하지 않을 속 얘기를 털어놓을 곳 이 있어 좋았는데. 이제 어디에 얘기를 해야 하지? 나도 블로그 를 시작해야 하나?

사실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세상에 내보인다는 게 많이 고민 되고 두려웠어요. 좋은 이야기도 아닌 제 글을 읽은 사람이 저 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막상 글을 써보니 제 자신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 던 것 같아 좋았어요. 이러니저러니 해도 글을 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을 쓰기 전의 목표는 특히 나랑 비슷한 환경을 살아가고 있

요즘젊은것들 깨무찍이

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다는 거였어요.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이런 환경을 경어보지 않은 분들도 제 글을 읽고 무언가 얻어 가는 게 있으셨으면 해요. 막상 글을 다 쓰고 나니 그 목표가 이루어진 걸까，하고 살짝 걱정이 되네요. 용기와 희 망까지는 아니더라도 글을 읽으며 조금이라도 힘을 얻고 위로 를 받으셨기를 바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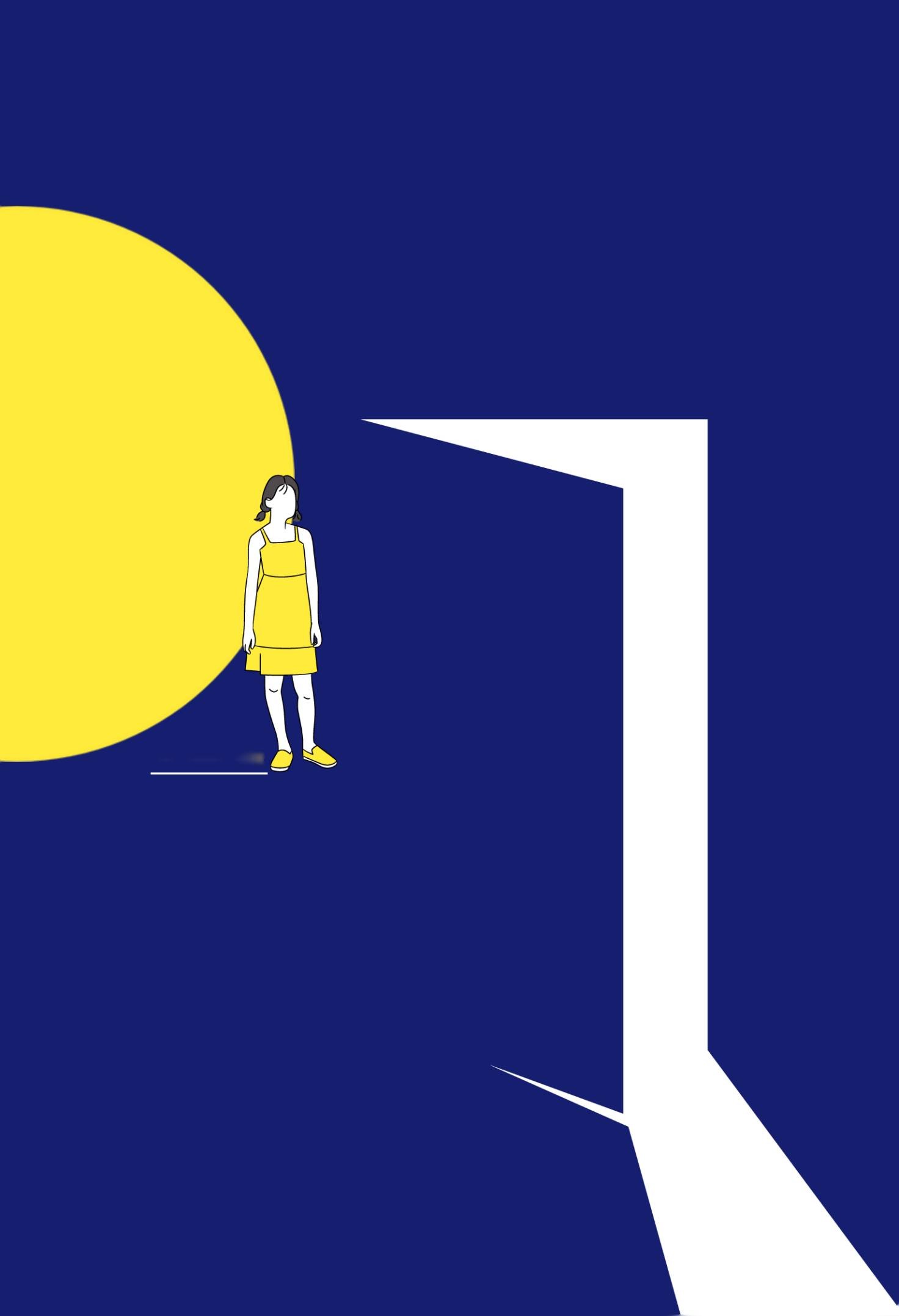
저희 학교 ＜카르페디엠＞ 동아리원들과 책을 낼 수 있게 좋은 기회 만들어주신 ＜하마터면 출판사＞의 김수연 선생님，그리고 윤지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일이 적지는

못 했지만， 저를 이해해 주는 주변의 모든 분들께도 정말로 감 사드려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301/302



서야 since 2002

과거에는 힘들고 지쳤지만，이제는 내면의 힘을 믿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나. 지금은 별빛처럼 빛나는 꿈을 품고 있으며， 둘 도 없는 동반자들과 함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 나서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새싹.



냥갱 이와 애교쟁이

사랑스러운활력소들 305 사고뭉치 애교쟁이 뭉 307 고집쟁이 냥갱이 엘리 311 내 몸에종양이? 315

불안하고 위태로운 나의 스무 살 319

내게온두 천사 321

무책임한 나，안일했던나 325

반려견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327 애완동물? No, No! 우린 가족이야 329 너희는우리의 미니버전 333

대문자I，나와엘 리 335

대문자 E，동생과몽 338

너희에게전하는작은진심 340



## 사랑스러운 활력소들

엘리와 뭉은 우리 집，사랑스러운 아가들입니다. 애교 넘치고 활발하여 보고만 있어도 사랑스러운 아들이자 누나들의 남동 생입니다.

엘리는 21년 12월 27일에 태어났고，뭉은 22년 1월 2일에 태

어 났 습 니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혹시 둘 중 하나가 혼나고 있으면 혼내지 말라고 저희에게 화 를 내며 서로를 지려줍니다.

뭉과 엘리는 우리 집의 말씽꾸러기이자 사랑둥이입니다. 꼬 물 꼬물 움직이며 자는 모습을 보면 천사가 절로 떠오릅니다. 엘리와 뭉 둘 다 작고 새하얘서 보슬보슬하고 포근한 솜뭉치 라고 부릅니다. 뛰어다니는 모습이 마치 솜사탕이 바람에 날아 다니는 것 같습니다.

눈을 땡그렇게 뜨고 앉아 고개를 살짝 들어 나를 볼 때의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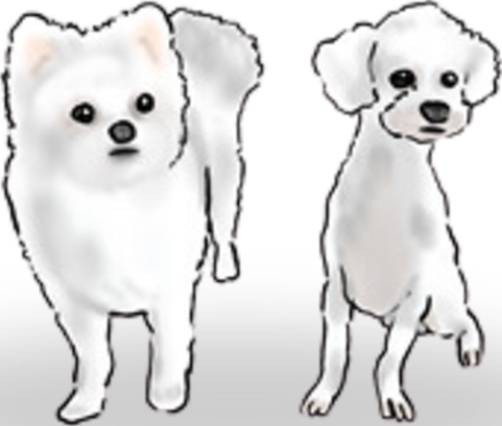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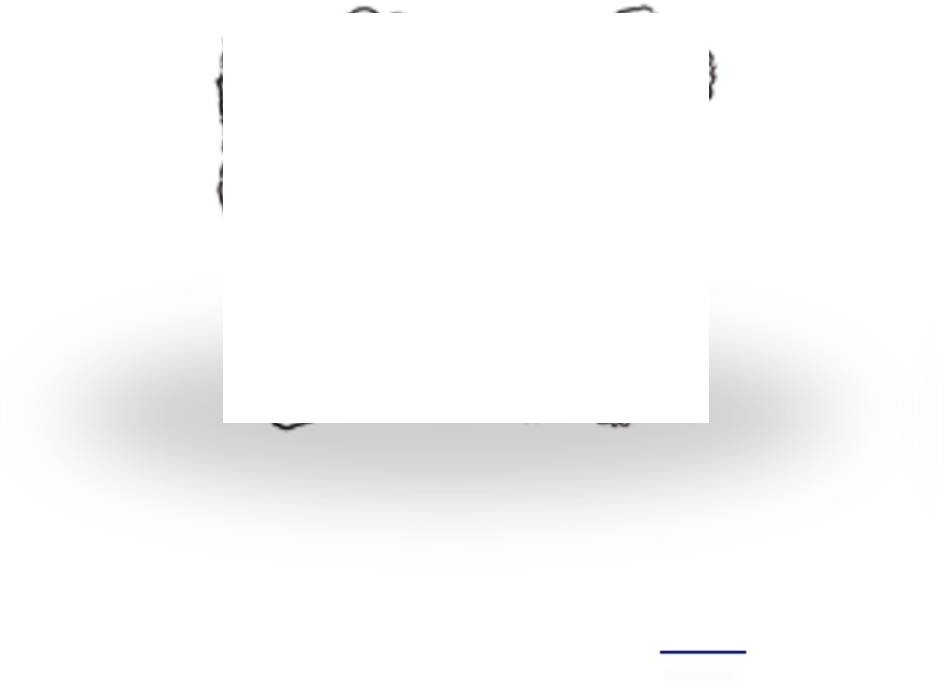
표정을 보면 간식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 서 야

대부분의 강아지가 그렇듯 옷 입는 것을 싫어합니다. 옷을 입 히려고만 하면，얼음땡 놀이가 시작됩니다. 한 번 얼음이 되면 땡이 되기 힘듭니다. 그런 날은 혹시라도 옷을 입게 될까 봐 침 대 밑에 숨거나 하루 종일 경■계 태세를 풀지 않습니다.

뭉과 엘리는 가족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무럭 무럭 자라며 매일매일을 새로운 웃음으로 물들여 주고 있습니 다. 그 덕에 허전함을 느낄 새 없이 삶의 냄새로 가득 찬 하루하

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305/306



## 사고뭉치 애교쟁이 뭉

뭉은 비숑 프리제입니다. 비송 프리제는 털 색말은 대부분 하 얀색이지만，간혹 살구색，미색 등도 있습니다. 곱슬곱슬한 털 탓에 푸들과 닮았고，어릴 땐 몰티즈와 패 흡사합니다. 키는 대

략 23~31cm，몸무게는 5〜8kg 정도입니다.

비송 프리제는 대부분 활력이 넘치고 외향적인 성격이며 애교 쟁이입니다. 2000년대 초반 정도에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산책 중 비송 프리제 를 자주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키우는 인기 있는 견 종 중 하나입니다. 외형적이고 애교가 많은 성격과 털 빠짐이 적 다 는 특 징 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송은 의사 표현이 많고 머리도 똑똑하여 주도적으로 생가하 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뭉은 비숑 프리제가 일반적으로 지닌 특성들을 그대로 가지

요즘 젊은 것들 서 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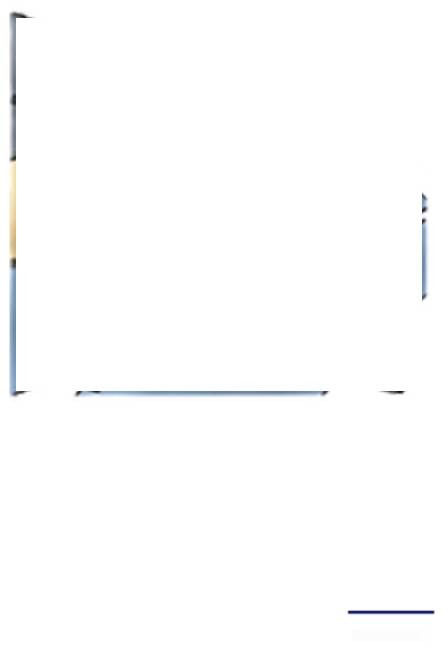
고 있습니다. 힘이 넘치고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을 가졌 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도 무척 좋아하고，달릴 때면 불도저처럼 앞만 보며 질주합니다. 그 바람에 내가 뭉을 산책시키는 게 아니

라 내가 뭉에게 산책 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를 *끌* 고 *앞으로* 달려가다가도 산책 줄을 놓으면 귀신같이 알아채고 우리의 곁으로 들아몸니다.

집안을 *항상* 촉 촉 촉 촉 빠르게 사방을 휘젓고 다닙니다. 지 치지 않는 모습은 너른 들판을 달리는 무법자 같습니다. 아침에 는 일어나자마자 귀를 팔랑거리며 호잇 호잇 뛰어올라 산책을 가자고 조릅니다. 달리기 직전의 경주마 같습니다.

사람들，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사교성과 호기심도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강아지들과도 빨리 친해지고，처음 보는

사람과 인사를 잘 나누며 자기를 만져달라고 애교도 부립니다. 뭉을 본 사람들은 밝고 활발한 뭉



307/308

을 보며 웃음을 터트립니다. 둥은 주 변 을 웃 음으로 물들이는 사랑

스러운 강아지입니다.

하얗고 곱슬곱슬한 털은 뭉의 귀여묻을 극대화 해주는 무기입

니다. 털을 쓰다듬으면 양털을 만지고 있다고 착막이 들 정도로 보들보들하여 계속해서 손으로 쓰다듬게 됩니다. 곱슬한 털을 가지고 있어 수시로 빗질을 해주며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빗질을 싫어해 빗만 들면 항상 쏜살같이 도망집니다. 뒤도 돌아 보지 않고 공지 빠지게 도망치는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납니다. 그런데도 간식을 포기할 수 없어 결국 곁으로 들아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면 어디에 있든 다 다 다 다 뛰어와 간식을 달라고 애교를 부립니다. 밥을 먹을 때는 식탁 밑에 와 떨어지

는 음식이 없나 살피며 돌아다닙니다. 식사를 마칠 때까지 옆에 앉아서 음식을 조금만 달라고 불쌍한 눈빛을 계속 보내며 포기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밥을 먹은 지 10분도 안 지났을 때도 마찬 가지입니다.

뭉은 또 신발장에 있는 신발을 물고 오거나 양말과 슬리퍼 등 을 궤이지나 침대 아래에 숨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고뭉치 뭉 에게서 신발과 양말을 뺏기 위해 매일 술래잡기를 하느라 하루 도 조용히 지나가는 날 없습니다.

하루 종일 애교를 부리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뭉

*은* 매 우 힘 차 게 꼬 리 를 흔 듭 니 다 . 기 분 이 좋 을 때 더 힘차게



요즘 젊은 것들 서 야

꼬리를 흔드는 모습에서 뭉의 밝고 활발한 성격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뭉은 터그 놀이를 좋아하며，한번 시작하면 어느 한쪽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계속됩 니다. 그의 열정고!• 에너지로 인해 터그 놀 이는 항상 흥미진진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장난감，공，인형을 구분할 줄 알아서 가져오라는 것을 우리 *앞* 에 놓아둡니다. 그러고는 눈을 동그렇게 뜨고 던져달라고 쳐다 봅니다. 가족들을 멈추게 하고 놀아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뭉의 넘치는 활력으로 인해 함께 있으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 고집쟁이 냥갱이 엘리

엘리는 포메라니안입니다. 포메라니안은 사모예드와 스피츠 의 개량종으로，유아기에는 두 종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포메라니안은 초소형 견으로 몸집이 작습니다. 풍성한 직모 인 이중모를 갖고 있어 털이 많이 날리는 편이며，미용에 주의 해야 합니다. 털색은 검은색， 크림색， 흰색 등 다양한 색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귀여운 외모와 달리 성격은 대부분 사납고 다혈질이며 참을

성이 없고 예민합니다. 경계성이 상당히 높아 사람이나 자전거 등 주위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덩치가 작다고 공격 성이 적다고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엘리는 자기 털이나 몸에 원가 묻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산책을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만약 비 오는 날 산책을 하게 되면 물웅덩이를 피해서 촉촉촉 걷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 서 야

우리집에 온 초반에는 비 오는 날 산책을 가지 않겠다고 아 파트 현관 구석에서 버티기를 실행하곤 했습니다. 아주 오랫 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집에 가자!”라는 말이 나와야 자 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 엘리는 망부석이 됩 니다.

한번은 실랑이에 지쳐 “ 더 이상 모르겠다. 나 몰라 여기서 살 아. 그냥 누나 먼저 산책하러 갈 ■거야.”라고 말하며 목줄을 놓 고 발걸음을 땐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동 하나 없이 내가 떠나가는 것을 망부석처럼 바라보기만 하더군요. 주인이 목줄

을 놓 고 먼저 간다고 이야기하면 보통은 주인을 따라 달려오

는 법인데， 엘리는 내가 가든 말든 그곳의 자리를 지립니다. 자 신 의 시 야 에 제 가 보 이 지 않 아 도 마 찬 가 지 입 니 다 . 고 집 이 아주 강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애교도 부리지만 대부분 버티■거나，망망 짖으며 성질을 부립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양보란 없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뭉에 게 화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엘리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

습니다.

엘리는 산책을 좋아하지만，걷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바람 느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산책로를 거닐다



311/312

가도 멈추어서 가만히 바람을 느낍니다. 엘리의 바람을 느끼 는 시간은 산책의 특별한 순간 중 하나이며，엘리오ᅡ 함께하는 산책은 항상 즐겁고 특별한 경험입니다.

뒷모습을 보면 여우나 고양이를 닮아 처음 보는 사람은 뒷 모습만 보고 고양이라고 착막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엘리는 매일 아침 고양이처럼 세수하고 고양이처럼 독립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스스로가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 합니다!

집에서는 엘리가 고양이처럼 행동한다고 “ 냥갱이” 라고 부릅 니 다 . 강 아 지 같 은 고 양 이 라 는 뜻 의 개 냥 이 ’ 를 반 대 로 한 말 입 니 다 . 엘 리 도 그 게 자 리 를 부 르 는 말 인 줄 아 는 지 ， “ 냥 갱 아!”라고 부르면 쪼르르 달려옵니다.

포메라니안답게 성격이 조금 예민하고 경계심이 강합니다. 작은 소리에도 크게 반응하며， 낯선 것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 이 오래 걸립니다. 사람과의 친밀도도 시간이 걸리며，자주 방 문하는 할머니를 한 달 이상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엘리는 짖을 때 ‘멍명’이 아니라 ‘망망’ 짖는데요.

자기 나름에 사납게 짖는 건지는 몰라도，우리에겐 그저 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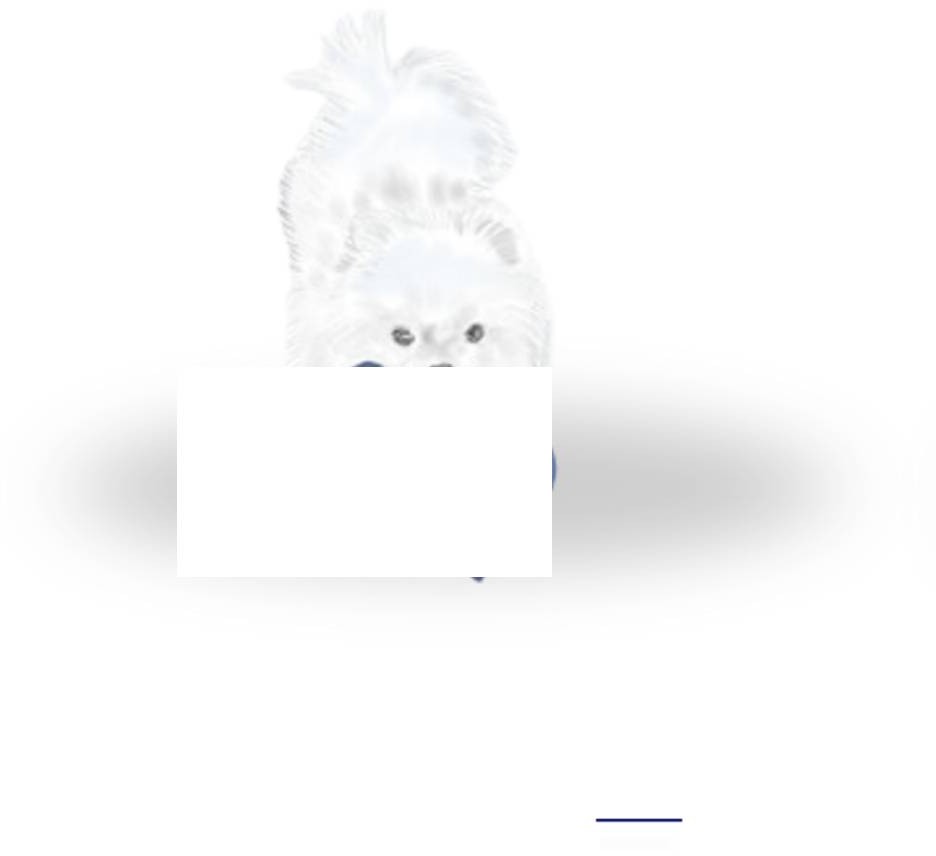
요즘 젊은 것들 서 야

울 뿐입니다. ‘ 아주 작고 귀여운 솜뭉치가 소리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가소롭다는 생막도 듭니다. 기본적으로 성격이 까칠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여 자신의 궤이지에 들어가 있거나 방 석 위에 누워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촉촉 촉 걸어 옆으로 와 온기를 나눠줍니다.

자신의 털을 만지는 것을 싫어하여 만지면 앙칼지게 ‘ 앙’ 짖 지만， 사람의 손길이 필요할 때면 뒹구구르 굴러와 배를 보이 며 애교를 부립니다. 안 그런척하지만， 안겨있는 것을 좋아합 니다.



313/314



## 내 몸에 종양이?

엘리와 둥이를 만날 당시 저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 습니다. 고등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일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

생 했습니다.

당시 저는 디자인과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 이 아팠을 때도 입시 준비하느라 그림을 많이 그려서 그런가 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팔이 아픈 원인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 니다. 학교에서 허리디스크가 의심되니 검사를 해보라는 얘기 를 들었습니다. 동네 정형외과에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엑스레이를보시더니 허리 쪽이 아닌 팔쪽에 이 상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혹이 있다는 겁니다. 허리디스 크를 검사하러 갔는데 갑자기 팔에 문제가 있다니， 상황을 이 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혹이 생각보다 크다며，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요즘 젊은 것들 서 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형외과를 나오며 내 머릿속은 온통 ‘ 팔이 아픈 게 무리해 서가 아니라 종양 때문이었다니.’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 다 . 그 러 다 점 점 심 막 한 병 이 면 어 떡 하 불 안 함 이 커 졌 습 니다. 동시에 꿈일 거라는 비현실적인 느낌도 들었습니다. 현 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병원에 함께 갔던 아버지께서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 하고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게 “괜찮을 거야，별일 아닐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아닌 당신에게 하는 혼잣말 같았습니다. 간호사인 고모에 게 연락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까지 상의하셨으니까요.

고모와의 연락 후 아버지는 서울 원자력 병원 정형외과에 진

료 예약을 하셨습니다. *그* 병원은 MRI를 검사 순서가 너무 밀 려있어 먼저 부산 백병원에서 MRI 검사를 하고 결과지를 갖 고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종양을 발견하고 서울 병원으로 가기까지 이 모든 일이 1 주 일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겨우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 는 사실이 믿겨 지지 않았습니다. 체감상 한 달은 되는 것 같

315/316

았습니다. 담임선생님께는 병결 처리를 부탁드리고，입시 미술 학원에는 일이 생겨 당분간 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며 처음 겪는 상황에 정신없이 2주를 보냈습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주변을 신경 쓸 수 없었던 나는 당시 친구 들 누구에게도 연락 하지 못한 채 급하•게 서울로 갔습니다. 서 울 원자력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은 코로나로 인해 어수선 했 고 출 입 이 제 한 되 어 있었습니다. 그런 병원 분위기는 내가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이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엑스레이를 검토한 의사는 종양의 크기가 예상보다 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암인지 아닌지는 조직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 다 고 말 했 습 니 다 . 종 양 의 크 기 를 고 려 하 여 일 단 제 거 하 는 것이 좋다고제안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뼈 사진도 찍기로 했습니다. 그 결고卜，종양이 팔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퍼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양이 내 몸에 존재한다는 사실 에 놀라움과 불신이 교차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내 상황

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생겼고，' 암이라면 어떡하지?’ 라는 불 안한 생각이 점점 귀졌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 서 야

종양 제거를 위한 수술 일정은 신속하게 결정되어 일주일 안 으 로 하 게 됐 습 니 다 . 입 원 준 비 를 위 해 집 으 로 돌 아 가 옷 과 생필품을 쟁긴 후， 다시 급하게 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돌아 왔습니다.

수술하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은 올해 입시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디자인 입시를 올해 진행하지 못한다는 사실 은 다 시 한번 절망감을 안겨주었고 나의 처지를 뼈저리게 느 끼게 했습니다.

3 년 동안이나 노력했던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고 생

막하니 허탈했습니다. 수술 자체도 걱정이 됐지만， 그 순간에 는 회복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과 막막함이 더 크게 느꼈습니다.

수 술 은 무 사 히 끝 났 습 니 다 . 조 직 얻 사 결 과 도 다 행 히 암 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종양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정 기 적 으 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직 마 음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지만， 암이 아니라는 결과를 듣자 마자 저는 지옥에서 살아 들아온 것 갈•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이라는 큰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317/318



## 불안하고 위 태로운 나의 스무살

수술 후 한동안 팔을 사용할 수 없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 겪었습니다. 오른손잡이인 저는 그림 그리기，글씨 쓰기，밥 먹 기 등 일상적인 활동을 왼쪽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씻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일들도 혼자서 하기 어려워 회복 기간에 가족들 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1 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등 교 를 제 대 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고 수

시，정시를 준비하며 그해의 입시를 치르는 동안 입시를 포기해 야 했던 저는 뒤처지고 있다는 기분에 불안했습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거나 공부하고 있는 주위의 친구들을 보면 그 불안감은 더 귀졌습니다. ‘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 걸 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올해의 입시는 무리겠지? 내년

에는 할 수 있을까? 내년에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러한 *고*

요즘 젊은 것들 서 야

민이 나의 머릿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했던 친구들은 대학에 합격하여 다음 단계를 준비하던 무 렵， 나는 막막함을 가지고 재수를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재 수 하 는 동 안 뒤 처 졌 다 는 생 각 때 문 에 불 안 하 여 공 부 에 집 중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림을 그릴 수 없어 디자인 입시는 포기해야 했 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또 다른 고민도 생겼습니다. 3년 동안 디자인과에 입학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길을 그만두고 새 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과 디자인 말고는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일이 없어 갈팡질팡했습니다.

고등학교 3 학년， 그리고 성인이 된 스무 살은 갑자기 찾아온

건 강 문 제 로 막 막 하 고 불 안 한 심 정 으 로 보 낸 위 태 로 운 시 간 이었습니다.





## 내게 온 두 천사

불안함이 극에 달했던 그 시기에 엘리와 뭉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불안했던 저에게 따뜻한 온기를 준 빛과 갈•았습니다.

재수를 하던 중에 동생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이야기했 습니다. 이런 요청이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동생의 요 청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강 아지를 분양받게 되었고，그 강아지가 바로 엘리와 뭉입니다.

동생의 소원으로 진지하■게 강아지를 키우는 것에 대해 진지 하 게 고 민 하 고 있 던 어 느 날 ， 우 리 가 족 은 외 할 머 니 와 함 께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들아오는 길， 근처 에 있던 분양 가게에 강아지를 보러 갔습니다. 그날 강아지를 분양받을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분양 가게에서 엘리와 뭉을 만났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 서 야

처음 본 뭉과 엘리는 그때 케이지 안에서 꼬물꼬물 기어다니 는 아 주 작 은 솜 뭉 치 였습니다. 절로 보호본능을 일으키고 보 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엘리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사랑에 빠졌고 이 아이를 데리 고 가 야 한 다 는 이 상 한 의 무 감 에 빠 져 도 저 히 눈을 떨 수 없 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저 아이에게 선택받았다 고 생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아주 작은 몸집으로 간신 히 앉은 채 저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저와 눈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와 만난 것은 운명이었다고 강하게 확신합니다. 엘리가 아니었다면 강아지를 데려오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했을 것 입니다. 원래도 강아지를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런 마음 은 강아지를 키우기로 하는 것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아지를 키울 생막이 없었 습 니 다 . 그 런 제가 강아지를 키우기로 마음먹고 행동으로 옮 긴 것은 엘리에게 반해 엘리를 반드시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 기 때문입니다.

분양 삽 직원이 엘리를 내 품에 안겨주었을 때 처음 느민 감 정 은 기쁨이 아니라 불안과 걱정이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아도， 만져도 부서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손이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엘리의 크기는 손바닥만 했습니다.



321/322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작아도 너무 작아서 아기 같은 엘리를 조심히 안아 들었습니다.

나 의 품 에서 느껴지는 꼬물꼬물하는 작은 움직임과 따뜻한 온기는 내가 안고 있는 게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각인 시켜 주었습니다. 작은 생명체가 가지는 생명력의 경이로움과 소중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멍하니 제 품속

에 있는 엘리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뭉의 첫인상은 바람에 날아다니는 활발한 솜사탕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몸으로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궤이지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저희를 반겨주고 있었습니 다.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서 도 혹 시 넘어져 다칠까 봐 전전긍긍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 니다.

직원이 동생에게 뭉을 안겨주는 동안에도 뭉은 가만히 있지 못 하 고 버 둥 거 렸 습 니 다 . 동 생 은 뭉 을 안 자 마 자 환 한 웃 음 을 지으며 나에게 “ 너무 귀여워” 라고 속삭이고는 바람불면 사라 져 버릴 것 같은 존재를 보기라도 하는 듯 지긋이 뭉을 바라보 았습니다. 뭉과 엘리는 저희의 품 안에서 조용히 잠이 들었습 니다. 천사 그자체였습니다.

예정에 없었지만， 저와 동생이 뭉과 엘리를 무척 마음에 들



요즘 젊은 것들 서 야

어해 어쩔 수 없이 그날 분양을 받기로 어머니께서 결정하였 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2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뭉과 엘리 둘 중 한 마리만 데려가자고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

그 순 간 동 생 과 제 사 이 에 서 스 파 크 가 튀 었 습 니 다 . 동 생 은 뭉을，저는 엘리를 데려가기 위한 말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 원래 내 소원으로 강아지를 키우기로 한 거장아. 그러니 뭉

이를 데려가야 해! 언니가 양보해”

“그런 •게 어디 있어，나도 같이 집에 살고 있으니 내 의견도 중요해. 엘리를 데려가자! 비송은 소형견 중에 몸집이 큰 편에 속하장아. 덩치가 큰 강아지는 키우기 힘들어 ! 그리고 성격이 너무 활발해 감당하기 힘들어!”

“포메라니안은 성격이 까칠해 ! 만만하게 키우기는 까다로워 !” 저희는 한참 동안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어느 쪽도 물러서

지 않았습니다.

삼십 분 정도 뒤에 외할머니께서 “ 둘 다 데리고 가.” 라고 이 야기하시고 나서야 말싸움이 멈추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도 뭉과 엘리 모두를 분양받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결정된 상황이라 뭉과 엘리를 위 한 아무런 준비도 제대로 되어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쨌

든 그렇게 뭉과 엘리는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무책임한나, 안일했던 나

처음 엘리와 뭉을 데려왔을 때만 해도 “내가 밥도 챙겨주고， 매일 산책도 시키고， 놀아주고 다 내가 책임지고 들볼 수 있 어”라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들의 물그릇에 새 물을 주고 밥을 챙겨주고 배변 패드를 치우고，인형을 던져주며 놀아주는 것으 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배변 패드를 체크하고 물그릇에 물이 있나 확인하고

시간에 맞춰 밥을 챙겨주며 집안 곳곳에 청소기를 들리면 하루 가 끝이 나 있었습니다. 너무 바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 를 정도였습니다.

하루，이틀，일주일，서툴게 하나하나씩 뭉과 엘리를 챙겼습 니다. 하지만 결심은 한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취미생，입시 준비 등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들보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 서 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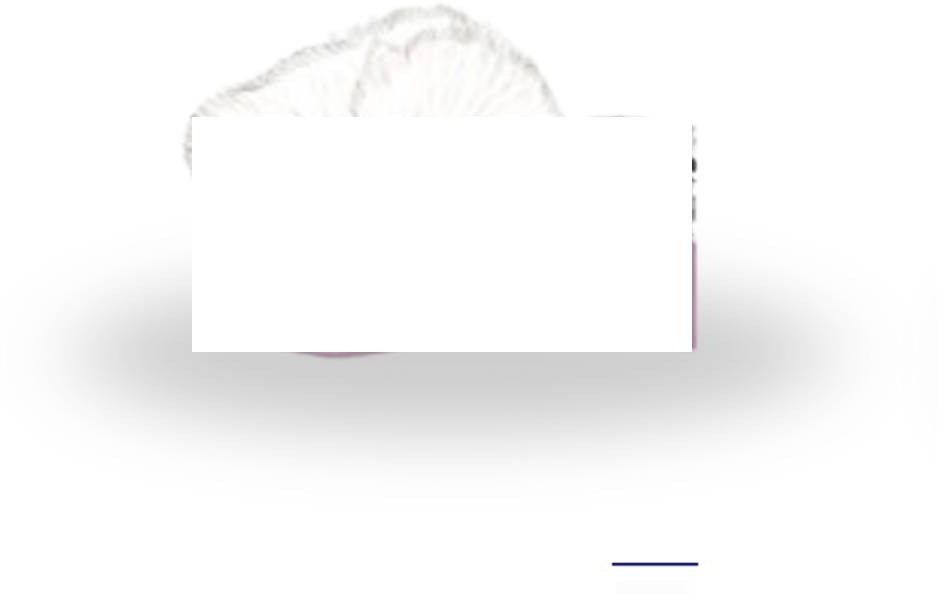
아침에 일어나 뭉과 엘리가 다가오면 “ 아우 예쁘다.” 하며 몇 번 쓰 다 듬 고 는 방 으 로 들 어 가 내 할 일 을 했 습 니 다 . 밥과 물을 챙겨주는 것을 잊고 더러워진 배변 패드를 보고도 “ 아직 은 괜찮아” 라고 하며 지나갔습니다. 밥을 챙겨주는 시간에도 “조금만 더 있다가 쟁겨줄게. 잠시만 기다려.”라고 이야기하며 회피했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챙겨주겠지，아버지가 패드를 치워주겠지，계 속 누군가가 해주겠■거니 생각하며，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 가 했 습 니 다 . 그 러 나 결국 저는 제가 전담해서 아이들을 보살 피 겠 다 는 부 모 님 과 의 약 속 도 깨 고 엘 리 와 뭉 을 우 선 하 여 돌 봐야겠다는 스스로의 다짐도 배신한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저는 무의식적으로 엘리와 뭉을 살아있는 귀

여 운 인 형 쯤 으 로 생 각 했 던 것 같 습 니 다 . 그 들 에 게 귀 여 움 을 느 끼 면 서 도 그 들 을 들 보 는 일 은 힘 들 고 귀 창 은 일 이 라 고 생

각했습니다.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 강했기 때 문에 엘리와 뭉을 애완동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325/326



반려견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현실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많은 헌신과 고려가 필

요한 일입니다. 주요한 도전 중 하나는 비용 문제입니다. 동물 들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비가 사람의 2 배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건강검진，심장사상충 주 사，진드기약 등 정기적인 진료에 한 달에 30만 원 가까이 들기 도 합니다. 병원을 가지 않을 수 없고 예방접종을 건너될 수 없

으므로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비용 문제로 인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유기된 동물들은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됩니

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충분한 비용 계획을 세우 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도 힘들니다. 밥

요즘 젊은 것들 서 야

과 물， 배변을 챙겨줘야 하므로 반려동물만 집에 혼자 둔 채 집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여행을 가기도 힘들고 외출을 하기 도 어렵습니다. 집에서도 하루 종일 곁에 있으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는 힘듭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함에도 반려동물을 키우기로 한 것은 아 이 들 이 주 는 기 쁨 과 행 복 을 경 험 하 고 자 하 는 욕 구 때 문 입 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기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반 려동물을 키우며 생기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고 엘리 와 뭉을 입양하기로 했지만， 나의 게으름과 자기중심적 사고 로 아이들을 잘 챙기지 않았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책 임감 없었던 나의 행동에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327/328



애완동물? No, No!

우린 가족이야

당시 집에 있는 시간이 제일 많았던 저이기에 자연스럽게 제 가 아이들을 전담해서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옆에 있으 면 귀여운 존재이지만 챙■겨주기는 너무 귀찮은 존재，그것이 엘 리와 뭉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그 시간을 갖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며 그 아 이들을 탓하며 매번 저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간을 함께 보내며，그렇게 생각할 수 없게 되었 습니다. 갈•이 잠을 자고，함께 TV를 보고 밥을 먹고 노는，그들 이 없는 생활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샌가 저의 일 상에서 그 아이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가족이 되어있었습니다.

엘리와 뭉과 함께한 시간이 불안했던 정서를 안정시켰습니 다. 외롭고 불안하여 항상 의기소침하고 무언가를 해야 하겠다 는 의지 하나 없었던 것이 당시의 제 상태였습니다. 삭막하고

요즘 젊은 것들 서 야

모래가 날리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와 뭉이 나에게 준 온기가 저의 삭막했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며 생명력을 머금게 했습니다. 항상 곁에 있어 주어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조용하지는 않지만， 시 끌벅적한 활기와 온기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온기 덕분에 웃음이 늘어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 인지 고민하고 찾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유한한 것에 대해 아 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저 흘려보내기만 할 뿐이던 시 간이 뭉과 엘리로 인해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 차 무엇보다도 가치 있어졌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저는 그들을 관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나에게 의존하고 있는 생명임을 말입니다. 아이들은 누군가 챙겨주어야 밥을 먹고 물을 먹을 수 있으며，사람과 함 께 해 야 만 외 출 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삶은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정해집니다.

엘 리 가 평 균 보 다 작 은 이 유 는 내 가 그 아이의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기 때문이고，뭉이 살■찐 이유는 그 아이와 많이 놀아주고 산책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죄책감 이 들었습니다. 그 죄책감은 내가 그 아이들의 보호자라는 책

임감을 상기시켰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나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은 내가 그 아이 들을 위해 열심히 살고 그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했고， 삶을 더 알차게 채우고 싶다는 의지를

갖게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일들로 인생을 채 우고 싶다는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을 찾 아 가 며 하 루 하 루 의 미 를 찾 는 삶 의 소 중 함 을 깨 달 았 습니다.

그 아 이 들 과 함 께 하 는 시 간 이 아 맙 다 는 생 각 대 신 오 히 려 하 루 하 루 가 아 쉽 다 고 생 각 하 게 되 었 습 니 다 . 매 일 아 이 들 을 돌보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 보다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자는 것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아침에 일 어나 배변 패드를 확인하고 밥을 챙겨주고 물을 주고 털을 빗

겨주는 행동이 습관이 도1니，귀창다는 생각보다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처 음 데 려올 때 충동적인 요소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 다. 그저 귀여운 생물，인형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 겠지요. 하지만 무의식이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뭉과 엘리는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로 부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애 완동물이라는 단어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고， 둘 사이에 계



요즘 젊은 것들 서 야

약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반대로 반려동물은 평생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미워도 미워할 수 없는 존재，힘들 때 절 대적인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가족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뭉과 엘리는 가족입니다. 옆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 고， 옆에 없으면 계속 생각나고 걱정되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인 엘리와 뭉은 저에게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

동물입니다.

정이라는 단어는 아주 따뜻하고 끈끈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정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미니 버전

개는 주인을 닮는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커가면서 엘리와 뭉이 저희 자 매를 똑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뭉과 엘리를 한 번이라도 본 주변 사람은 입을 모아 우리 자매의 미니 버전이라고들 이야 기합니다.

엘리의 까칠하면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독립 적인 성격은 저와 똑같습니다. 걷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가만히 바람을 쐬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친화력이 강하며 사람들과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하고 활동적 인 동생의 성격은 뭉과 똑 닮아있습니다.

개가 주인을 닮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말 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길■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많이 사랑해 그

요즘 젊은 것들 서 야

렇게 닮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막 해봅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것도 서로를 닮아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사 람 들 이 자 신 과 닮 은 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일 것입니다. 그 또한 운명에 관한 말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많은 강아지 중에서 아이들의 성격도 알지 못한 채 선택한 결과가 저희를 닮은 아이들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333/334



대문자 I, 엘리와 나

엘리와 저， 둘 다 먹는 양과 활동량이 적고 조용한 분위기를 선호합니다. 저는 방에서 혼자 OTT를 시청하■거나 책을 읽는 활

동을 즐입니다. 엘리도 조용한 분위기에 자신만의 선호하는 공 간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엘리를 찾으려면 엘리의 궤이지나 엘 리가 좋아하는 방석 위 등 엘리의 지정석을 찾아보면 됩니다. 항상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가 침대에서 뒹굴됩굴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으면， 엘리는 궤이지에 콕 박혀서 하루 종일 낮잠을 잡니다. 외출은 잘하지

않습니다. 거의 집에서만 생활합니다. 엘리와 저는 명하니 앉아 사색하는 시간도 좋아합니다. 제가 멍하니 사색에 빠져 있으면 어느샌가 엘리도 옆에서 멍하니 앉아 사색을 즐입니다.

타인이 자신의 개인 공간을 소중히 여겨 침범받는 것을 싫어 한 다 는 점 도 닮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방문을 열기만 해도 짜증을 내는데，엘리 역시 자신의 궤이지에 다가가기만 해도 성

요즘 젊은 것들 서 야

질을 부립니다.

우리는 둘 다 자기 물건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 다. 저는 제 물컵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서 집 에 서 도 따 로 보 관 합 니 다 . 또한， 제 의자나 책상과 같은 개인 물품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이름을 적어둡니 다. 엘리도 마찬가지로 자신 물건을 건드리지 않고 가까이 다 가가기만 해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때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또 한 자 신 의 물 건 을 둥 이 가 사 용 하 지 못 하 도 록 주 의 합 니 다 . 가 지 고 놀 지 도 않 는 장 난 감 을 뭉 에 게 빼 앗 기 지 않 으 려 고 필 사적으로 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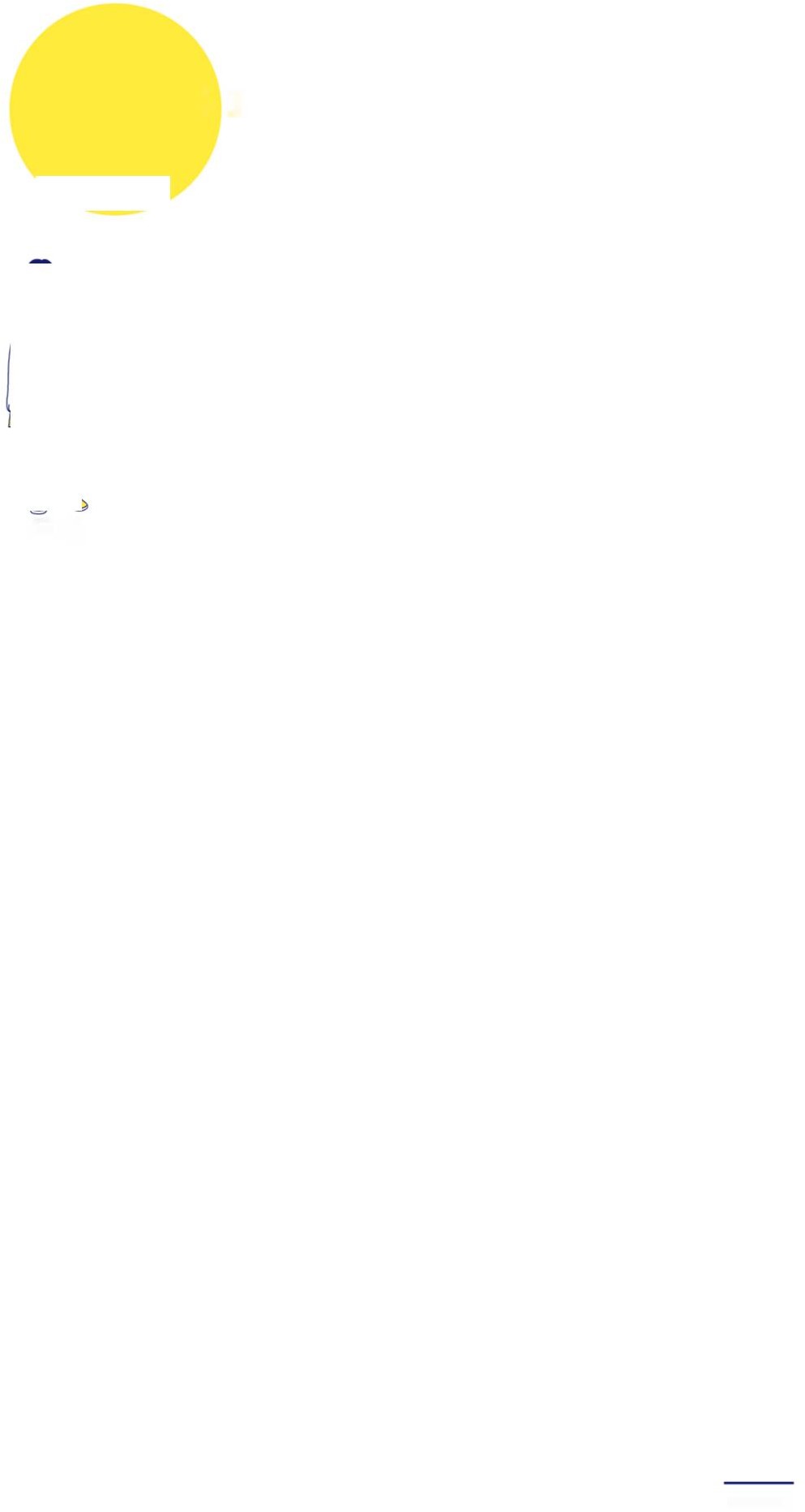
저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큰 편입니다. 쉽 게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사람들과 친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길립니다. 엘리도 저를 닮아 두려움이 많고 경계심이 강 합니다. 산책하러 나가서도 자전거，자동차，고양이 같은 다른 존재들이 시야에 보이기만 해도 경계를 합니다. 그러다 거리

가 가까워진다 싶으면 바로 짖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산책을 하 러 나 가 서 도 경 계 하 느 라 바 빠 제 대 로 바 말 을 구 경 하 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335/336



대문자 E, 동생과 뭉

동생과 뭉도 닮은 점이 아주 많습니다. 내가 까칠한 편에 고 집도 세서 동생이 많이 양보 해주는 편입니다. 동생은 내가 짜 증을 내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언니는 왜 저래.”라고 말하 고는자신의 길을갑니다.

이런 뚝심도 강하고 무던한 동생을 뭉은 똑 닮았습니다. 뭉도

엘리가 까칠하게 굴어도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합니다. 쉽게 화를 내지도 않고 옆에서 짜증을 내도 *‘또* 짖는구 나，너는 짖어라. 나는 신경 안 쓸련다.’라는 자세로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외향적인 성격에 에너지가 넘집니다. 둘 다 실내보다는 실외 활동을 선호합니다. 동생은 사교성이 뛰어나 많은 친구와 시간 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도 집에서는 얼 굴을 보기 힘들니다. 일주일에 최소 두 번은 밖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337/338

뭉도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무 룩하게 있다가도 “ 산책하러 나가자.” 라는 말만 하면 벌떡 일 어납니다. 산책을 다녀와도 활동량이 많아 집에 있어도 한시 도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기 일쑤입니다. 뭉을 따라다니 다 보면 항상 제가 먼저 지집니다. 산책 중에 뭉은 사람들에게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반갑게 인사하고， 만나는 친구마다 인 사 를 나 누 지 않 고 는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동생과 뭉은 매우 닮았습니다.

뭉과 동생은 음식을 가리는 것 없이 잘 먹는 편입니다. 그래 서 동 생 은 메 뉴 를 고 를 때 다 른 사 람 의 의 견 을 존 중 해 다 른 사람이 먹고 싶은 메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집 은 사 료 를 자 주 바 꿔 주 는 편 인 데 ， 뭉 은 어 떤 사 료 든 맛 있 게 먹어줍니다. 그래서 사료를 선택할 때 뭉이 안 먹을까 먹정하

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리는 게 없어서 가끔은 먹으 면 안 되는 것까지 주워 먹으려고 해서 걱정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 서 야



너희에게 전하는 작은 진심

우리 *집* 아가씨 엘el에게. 앙녕! 일리이=.

이탕”I 너에게 편z|| 쓰려고 하니 어색하고 부역/다. 너外 내가 만안 z/도 밀써 *斗 년이* 다 되어가고 *았어.* 너| 려 본 그날이 대도 생생引 ［면라，. 아주 V£ S공치가

고?물3?물 기어 내”，다가오는 모습，나，의 품에서 WI 갑든 모습이 눈앞에 선꿈H. 그때

나는 나에게 한나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어.

않이 朴랐기만，아직 나의 눈에는 작디작■은 아기 *같아.*

너는 나에게는 *향상* 生중한 동생이朴 친구이=. 너는 까일하고 *도도꿈H어* 네 몽에 S대는

것도 텔로 *°i* 좋아하고 장네심도 많가 하기만 나■는 다 알고 *았어. °i* 그하f하기만， 사，학^ *아뻥* 어안 관하 스?乂끌 1■아찬각는 날.

그러데 그거 아니? 네가 *창상 연처* 다가오卜어 만려날라■고 아位| 부리고는 만족하고 나 편 고•세 IJ 돌려서 가는데，2럴 C대 내가 향나나，D!동으/ 상게 입레 내가 네

너무 않이 양고 만려서 구않아쭉각는 *7i* 알기만，그래도 > 받아와! 네가 너무 사항 스러知서 나도 모르게 朴꾸 s 이 갑만 알이이이

너外 항께 있으편 *시'!:이* 어떻게 기나가는기도 모르게 빻리 기나가서 너무 아수淨/.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편 |，公!어. 너도 나화 항께 있는 APj-p/ 그렇 게 느데江편 *쫑a 다.*

기숙사■에 있는 *^°i* 네가 영에 누知 있고，절어가고 있는 한상미 모일 때가 않아. 밥

*I*V 억고 있는기 V£ V 朴는개 아뜬 곳은 없는기 너무 했와

339/340

내 *땅에* 누유/ 朴는1g I 수 없고 네 온기를 느낄 수 *없어어* 너화 병어기는 기분이 들어. 그러니 *야상* V 때 제발 피하기 말고 2if *抄：除.* 너리 £-gf 보는 것만으로



그날의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엄f 수 있개든. *향상* 너희 원모습만 抄特서 너무 아수I科. 령기i 쓰는 기조 이 슷간도 네가 너무 보고 싶어•

산책하24 나가서 너外 항께 삔치에 았아 망으며 않아 있i 때의 고묘함

라 *령와가* 좋아. *m* 좋아하기 않고 요래7技 걸 잃어찬각는 걸 알기만，앞으로는

i 더 않이 산，책하朴. 너최 늘어나는 몸무게I 확인할 때아，다 네*7文7/이* 너무 *성려도，*

어 죽겠에

너，가 요고 우리 가족£ TC 일이 송 더 많아졌어. 너는 우리에게 했복t 가하卜주는 *궁학* 복 tiM?4스아:. 그러니 나■양 *감이* 운동 않이 *해어* 갑7/하게 살，朴. 우리 가족 *결에어* 요래요래 *같이* 있어 *知.* 네가 *없는* 가족i *상상할* 수도 *없어.* 나의 가장 *I* 오현이이:.

양y가 나양 바다도 보려 가朴. 너外 모래사장의 폭신한 모라를 걸으며 따도치는 幻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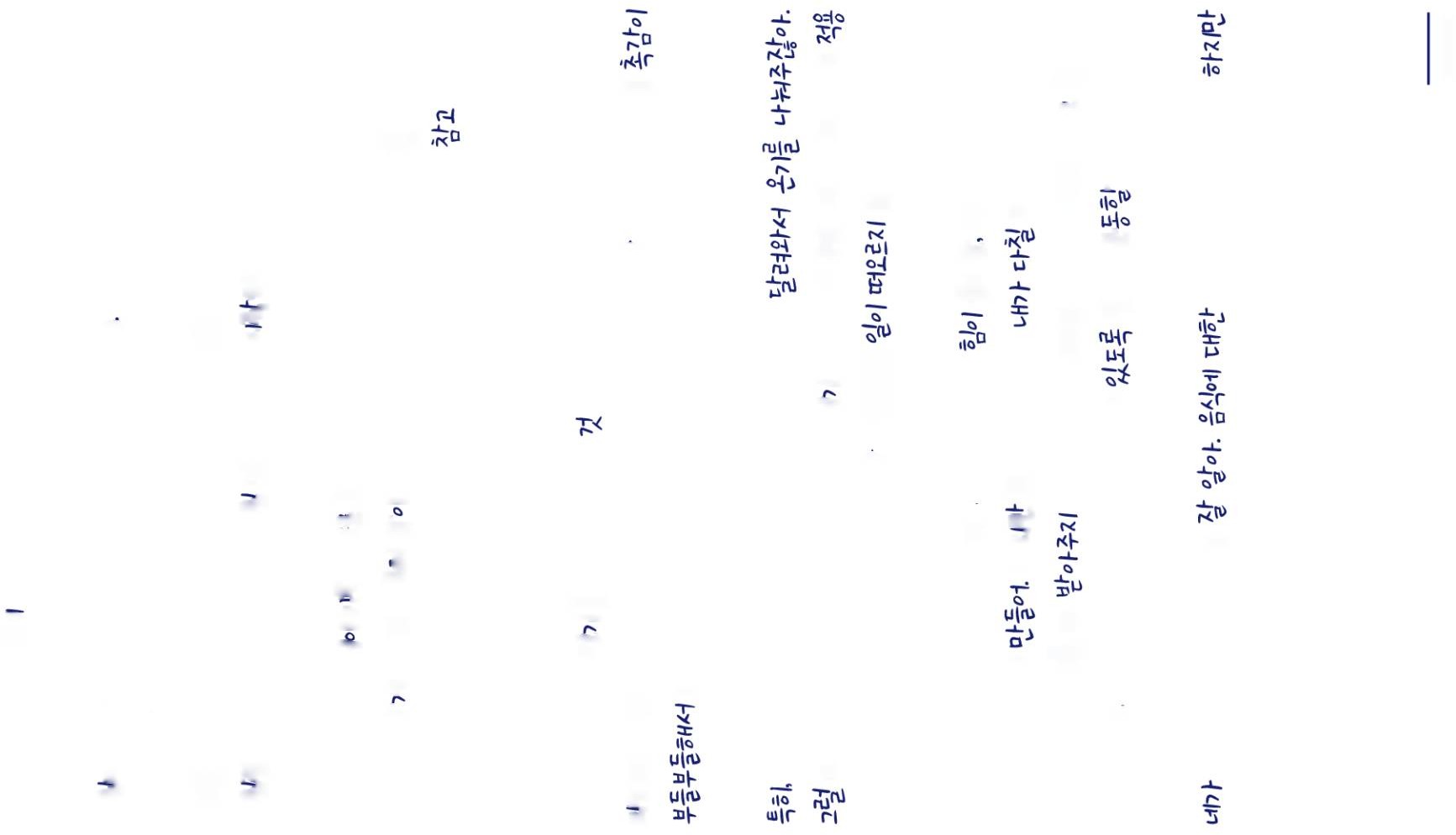
I §고 싶어. 너하 하기 옷한 일이，하고 싶은 일이 아주 않이 *남아았、어.* 나식 가장 *오 중한* 모물인 엘리아:. 아주 않이 사광하，!

너의 가방 生중한 Izw가 되고 싶은

c 누나가

요즘 젊은 것들 서 야

**UU UU-**

**^ r**

**…**

했

##### 세

궁

**aut**

***3***

마

드 **5**

§,5

**<** ?

心

玄

. . 겨 § 빠 ?

上

**J**

*추* 슛 ***rl***

*이* .

艾

7

**CXI**

**CO/**

寸

-±&-

方

깟**^0-**

。

芮

.

**Ur ii**시**Jul**

**.-10**

**z**

여 -

^ 송

目

**^一**

^ **3-**바

히 • **T**

똫 ■ 광

寸

h

***S***

마 **co**

*一染*

***£***

**7** 유

*丄。*

1,0^**4**

#### J

**7 *S* t** 마 **.**

TISVS?

**^**

**t**

:

**s**

***3* . *.*** 효 **5**

**n Ju** 폭

**2 ⑶**

**tr**

**fols**

*ft*

**^D**

***^***

/**JU^**

시 ❖**K**■**r**

아

**j i**

**l *f***

**p**

**fr±** 마

드 | **0**

**-§u** 다 여

**sll** 뀨

**i** ^

레 **±**

**r?l** . 종

**t?** 죤

*兵*

*分*

**uf?t** *.* . 방

? 머 다 뻗 **2**

乂一

M

T

.=1

슈

드

쏘

遠

시 ^ 으 **T** 씅 ^

—

F1 |2

-jL/z-1

**r 4U. *A***

-h

어 **'IQ§** 아 **U4**

**-UT *t*** ^ . 굥 숳

抑

於

—

2

*po*

**5 srJ** 다

。，

，

花

乂

*。*石

。

*/.ysj-*

**-l^o**

右 々

흥

***o***

.

| 준

女

" *윷* 육**.Kto**

**o%^**

#### nH

☐

***^li***

**s**

**iM** 때

—

**Bvr**

。

**av**■**r** 'lo*ᄃ* **rq**

**l**

**I** 눗 **rl**

**A 4U**번 땅

— …

- **H Jus** 바

—

斗 方

百

**nits |**

쏘

^ 끊 **5V**

g

**S**

;

**s**

上

**M**

£ /

**Ju§** 흘

一丄

|

했

**1** ^

亡

**n**

호

***n* JU** 뿐

—

**X 3 rl**

*公延*

**H >** 우**5VS**

##### 웃

**ifc**요**?**

면 *총* **ro**

. **rSl**

**r** *숭*

마 **til<**

百

여

번

女

**5I**

***J* O**옮**?**

**04**끄

**-**

§

**Ju**연

**rvl T**

**OJ**어**I T**

기 **5 -**

**T** ^ **4ISJ**

**7 I 77±**

**Jus** 씬

**U4** 용 며 조 **s**

法」

斗上

*承*

百

幸

Ixso

I

-

**S K h T** 뻐 *슈* $

*—*

*fi*

1|友

**r**

**is**이

**e** 빠

☐

一一

外 每

**5**

*&*

대 »

**-i**꾹**r**

fr ?

右

**y4-\3 i T J**

**t-j >**

**<lfQ y**

*Ixprl。*

궁

**a**

-M^

**^6"**

**f ru-**

***S* rMl**

교 "

§ **3**

*§*

**S r > I**

上

☐

? **tH*s***

***o***

*一泰*

**5 T**

上

* £•

**.KtD**

했 렸**.KtD**

^ ***?* t?o**

아 § 죤 § **T**

며 **C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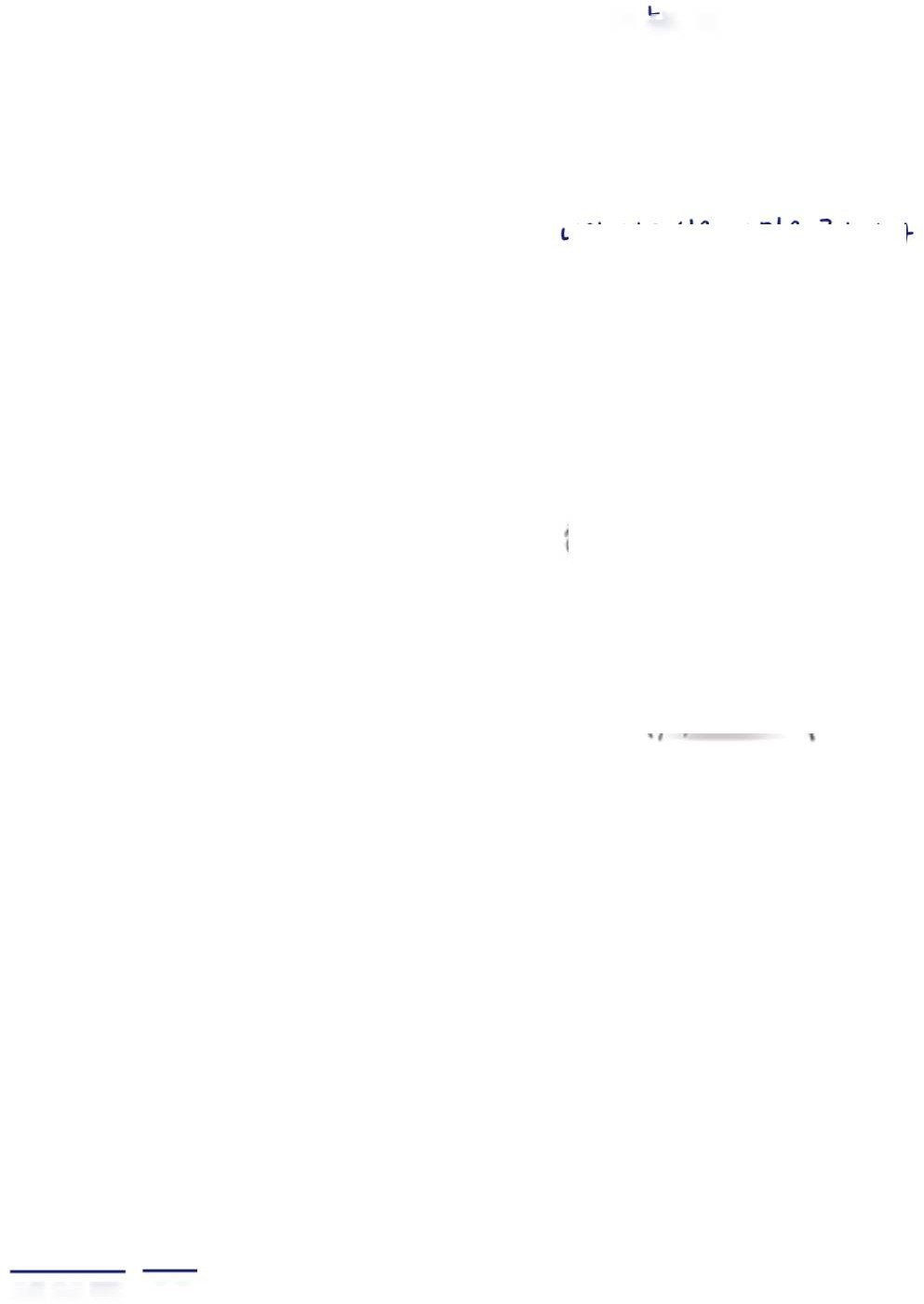
上

§

3공만 억는 °ff 줄여보卜. 땅현에서 혹무게가 3졌M 더 나'！각며 c!이어트| *해아:* 찬각는 말i if 때아각 나아 절마나 *건져꿈文■네.* 네가 나중에 양뇨 같은 *큰* 땅에 찾미 않t이 생각만 해도 무성게든.

억는 화 늬만 줄빼 너는 할我m 많아서 금방 살 r일수?退 거아:.7 과하게 우리하 요래 살•아야:n

앞으로



구배하는 우리입 막내, *향상* 사방하고 25H25H 갑7/하게 <24 다니매 살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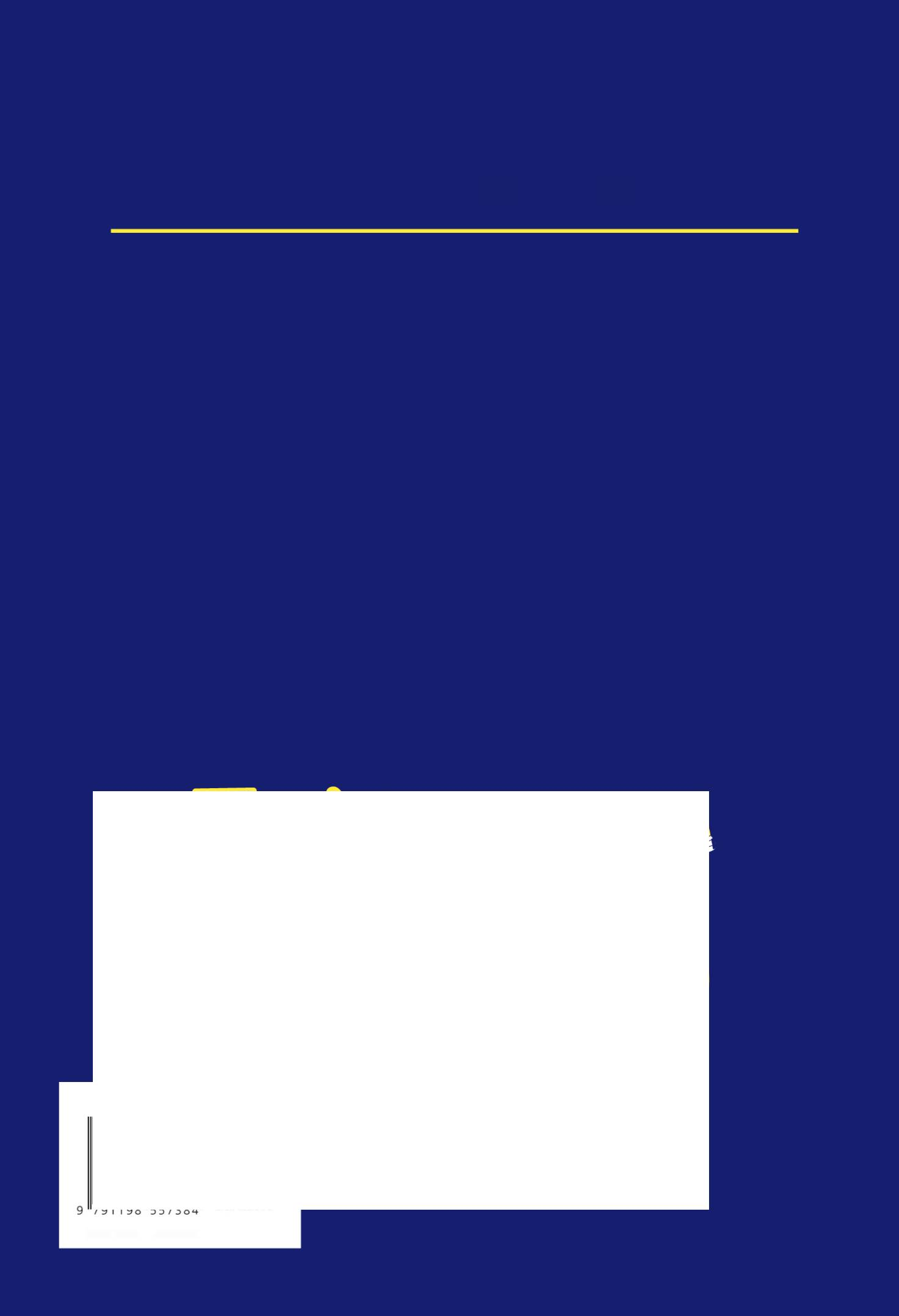
너하 갈이항 수 있는 *시'!:이* 기편Z/는 모르기만, 모든 *시많* 뜻깊게 포내朴.

요즘 젊은 것들 서 야





丄hhᅡ랗게 젊은 요즘 것들의 새빨간 이야기



여름含 그오록 싫어었는데 여름충 좋아하게 도I었고, 장마\_ 기산이면 그향 배경으로 소췽含 있다,

집으로 가는 어스 안에서 어著게하면 장마을 더 애틋하게 표현창 *수* 있★外 고만있아.

*상문에 斗맞히는* 잇소리, 훔하 홧은 세계각 눅눅한 *공기,*

* 축■축한 우산미 성바지 끔에 *닻는* 감각이 느커었化 마침 귀에 꽂은 에어짯에서 나오는 노래는 장마斗 갛，어충리는 外분한 含악이我아.

그 상왕이 끈많았아.

기분 나-으지 않다•고，오히려 낭안•적인 순간이라고 생악있다' 그렇게 강까f 서승으로 사랑하게 되었아.

ISBN 979-11-985573-8-4